

박 사 학 위 논 문

전통악기 거문고의 문헌학적 연구

-그 이면적 탐색과 수용을 중심으로-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고 전 문 학 전 공

정 하 운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창룡

전통악기 거문고의 문헌학적 연구

-그 이면적 탐색과 수용을 중심으로-

Bibliographical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Geomungo

- Focusing on Hidden Exploration and Acceptance -

2012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고 전 문 학 전 공

정 하 운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창룡

전통악기 거문고의 문헌학적 연구

-그 이면적 탐색과 수용을 중심으로-

Bibliographical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Geomungo

- Focusing on Hidden Exploration and Acceptance -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고 전 문 학 전 공

정 하 운

정하운의 문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전통악기 거문고의 문헌학적 연구 - 그 이면적 탐색과 수용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고전문학 전공
정 하 운

지금껏 진행된 거문고의 상징·조선 선비의 금도·선비의 음악담론 등 대부분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리학 중심의 공통된 정서와 전통음악의 철학적 사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미 객관화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찰의 시각을 여러 각도의 측면, 즉 문화연구의 차원에서 폭넓게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거문고의 명칭의 대하여는 『삼국사기』와 『악학궤범』의 기록에서, 금의 이상인 ‘자연 그대로의 참뜻’, 또는 ‘처음으로의 복귀’라는 의미의 ‘반기천진(反其天真)’과 연계되어 있어서, 하늘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인간의 심성을 길러주는 도구로서의 정신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 고금의 다른 이름이나 특별한 연주가와 관련되어 있는 금의 이름들이 고금의 사상과 이에 관련된 일화, 또 그러한 내용이 수록된 문장의 특별한 문구와 함께 수입되어 많은 우리 고전문헌에서 거문고를 대신하고 있는 점과,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금의 부품 및 연주 용어, 금의 명인, 명곡 등이 차용된 경우에는, 이들

로부터 음악적·문학적 사상과 백성교화 등의 통치 문화, 그리고 그 외의 미의식을 내재한 어휘나 문구들을 작가들이 차용하여 문장에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거문고 음악의 전승계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옥보고를 시점으로 속명득·귀금 선생의 3대를 이어간 예술적 성향은 은거·은둔·은일 등의 환경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술적 성향은 성장방향에 따라 거문고음악 사상체계의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악사로서의 궁극적인 수련의 목적은, 음악적·음악외적 자기완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금도는 수양을 통한 자기완성이라는 개인적 효용, 풍류로서의 사회적 효용, 현묘지도로서의 국가적 효용가치를 발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탄주배경에서는, 시공을 달리하여 다양한 연주환경을 선택한 점이 고찰되고 있다. 무대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정해진 곡을 연주하는 현행 연주가들이 느낄 수 없는, 다양한 감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환경의 다양함에 따른 즉흥성을 악상에 유감없이 펼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감상에 있어서는 거문고의 맑은 음색과 아취만 취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거문고의 음악과 정신에 대한 것이 필수적 교양이었을 것이므로, 거문고에 대하여 문외한인 선비들은 이와 같이 즐기는 척이라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음악·사물의 소리와 비교한 예문에서는,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바람소리에 비유한 경우·물소리와 바람소리를 동시에 비유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무현금이 나타난 경우에서는, 도잠이 살아온 환경과 그를 칭송하는 경우에서는, 거문고 연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신적인 경지만 앞세우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무현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나 있다.

거문고의 효용에 대하여는 유가적 이상·도가적 이상·세속적 수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유가적 수용에서는, 통치의 수단으로는 순임금의 음악을 선택하여, 백성들을 달래야겠다고 하였다. 백성교화가 나타난 경우에는, 공자의 제자 복자천에 대한 고사에 나타난 이미지를 시상에 옮긴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또 공자와 제자들의 화락한 풍경이 나타난 ‘행단금슬’과 부부와 가족 등을 예로 들면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하여는 ‘금슬의 화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본받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향악을 아악보다 낫다고 하며, 우리음악인 향악을 배워 양성하라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지음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며 같이 들어줄 지음이 없어 홀로 외롭게 듣는다고 표현한 점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대변자의 항목에서는 거문고를 다루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것의 조치에 대한 내용이 문장 전체 내용에 적합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비유의 매개체로 하여 표현한 문장들이 발견되고 있다. 청렴함이 나타난 경우에는, 송나라 조변이 필마로 축 땅으로 들어갈 때 거문고 한 벌과 학 한 마리만 데리고 갔던 고사를 인용한 예문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도가적 수용에서는, 도연명·혜강 등 은자들의 행적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표현과 신선의 삶을 지향하는 내용 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세속적 수용에서는, 예악 등 공적인 측면에 관한 것과 이념적·철학적인 논의를 제외한, 사적인 생활에 대한 풍류적·자위적·여가적·정서적·비유적 수용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요어】 : 거문고의 명칭, 금의 이칭, 금의 부품, 금의 연주용어, 탄주 환경, 금도, 통치수단, 백성교화, 풍속, 지음, 자연과의 합일, 대변자, 청빈, 일상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	5
제 3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2
제 2 장 고전문헌에 나타난 거문고의 제도와 명칭.....	14
제 1 절 거문고의 제작 내용	14
1. 거문고의 제도	14
2. 거문고의 제작에 대한 전거	18
3. 애호가들이 직접 제작한 거문고의 재료	21
제 2 절 거문고의 명칭	34
1. 거문고 이전의 재래악기	34
2. 거문고의 字意	38
3. 琴의 修飾 명칭과 異·別稱	39
제 3 장 거문고로 차용된 琴과 관련된 사항	64

제 1 절	금의 부품 및 연주용어	64
1.	금의 부품 이름	64
2.	금의 연주용어	71
제 2 절	名琴・名人・名曲	86
1.	중국의 명금	86
2.	중국의 명인과 명곡	88
제 4 장	거문고의 彈奏환경과 音響 鑑賞	101
제 1 절	거문고 傳承系譜에 나타난 성격	101
제 2 절	거문고의 탄주 배경	106
1.	時・空間的 탄주 배경	106
2.	精神的 탄주 배경	117
제 3 절	거문고의 음향에 대한 감상	125
1.	情緒的 감상	125
2.	比喻的 감상	129
3.	心象的 감상	147
제 5 장	거문고의 效用	163
제 1 절	儒家的 理想 受容	163
1.	국가적 이상 수용	163
2.	사회적 이상 수용	173
3.	개인적 이상 수용	182

제 2 절 道家的理想受容	205
1. 自意的 이상 수용	206
2. 掛冠·晩年の 이상 수용	210
3. 神仙道 이상 수용	212
제 3 절 世俗的受容	215
1. 風流的 수용.....	215
2. 自慰的 수용.....	220
3. 餘暇的 수용	221
4. 情緒的 수용	223
5. 比喻的 수용	225
제 6 장 결론	238
참고문헌	253
ABSTRACT	26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본고는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통일신라와 고려를 경유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는 동안, 거문고 연주가나 애호가들이 남긴 고문헌의 거문고에 대한 기록 내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수집된 자료의 각 문장에 투영된 거문고의 裏面에 대하여 인문학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게 된 음악외적인 거문고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이면’이라 함은 사전식 풀이대로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속내평’과 부합되는 의미이다. 본고에서 분석 검토할 ‘이면’이 활용된 범위는 비유의 대상과 상징성, 정신적 가치 등으로 설정하여 논의에 반영하였다.

또한 현행 거문고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음악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음악적 측면에 치우쳐 답습해 온 바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거문고의 음악적 측면보다는 음악외적인 文·史·哲의 측면, 즉 ‘인문학적 고찰’이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거문고가 제작되어 연주되던 시기¹⁾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百樂之丈’이나 ‘현악기의 통칭’으로 불려온 대표적인 전통악기이다. 거문고는 고구려의 王山岳이 중국의 칠현금을 개조하여 만들었다는 내용과, 玄鶴來舞²⁾의 일화와 함께 『三國史記』 「樂志」의 玄琴條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일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민속

- 1) 송방송a, 『한국음악사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260면. 주18) 王山岳이 552년(陽原王 8)에 거문고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널리 인용되고 있으나, 그 기록의 전거인 『東國通鑑』 및 『東史綱目』을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출처를 밝힐 수 없음이 이미 지적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왕산악의 활동연대와 거문고의 제작 시기가 불분명하다.
- 2) 김부식 찬, 최호 역해, 『三國史記』 II (홍신문화사, 2007), 164면.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樂 : (전략) 玄琴之作也 新羅古記云 初晉人以七絃琴送高句麗 麗人雖知其爲樂器 而不知其聲音及鼓之之法 購國人能識其音而鼓之者 厚賞 時第二相王山岳存其本樣 頗改易其法制而造之 兼製一百餘曲以奏之 於時玄鶴來舞 遂名玄鶴琴 後但云玄琴 (후략)

의 세계 6 민족예술·공예』(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5. p.26)의 확보 아래 설명에는 왕산악이 小獸林王(371~384) 때의 인물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로 유추해보면 비슷한 시기인 쑤나라 당시, 즉 5호 16국 시대(319~439)의 혼란기에 한족·선비족·흉노족·서역인 등이 망명함으로써, 고구려의 문화가 풍족해지고 있을 무렵에 칠현금이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문고의 위상과 그 가치는 ‘琴道를 이어가고자 지리산 雲上院에 고급관을 리를 파견³⁾하기도 했었다.’는 신라에 대한 기록으로 잘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신라에 대한 기록⁴⁾에는, 거문고음악의 전승계보를 확보하여 금도·玄妙之道·爲國之道의 효용성을 살림으로써, 개인·사회·국가의 道脈을 잇고자 했던 점이 나타나 있다. 또한, 고구려에서 통일신라에 전해진 거문고는 天尊庫에 귀하게 보관되었던 사실⁵⁾ 등으로 보아 국가차원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한 점이 입증되고 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중기에 이른 시기에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문헌의 수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악기에 대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상징성과 중심사상 등의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단지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문고가 고려시대에 와서는 좀처럼 뚜렷한 정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물론 자료가 빈약해서 그러한데, 아마도 신라의 불교문화와 예술문화가 상당기간 남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영향으로 얼마간은 존속되었을 것이다. 기록의 빈곤으로 고려 중기까지는 소원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문고의 존재는 성리학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다시

3)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164면. (전략) 羅王恐琴道斷絕 謂伊滄允興方便傳得其音 遂委南原公事 允興到官 簡聰明少年二人 曰安長清長 使詣山中傳學 先生教之 而其隱微不以傳 允興與婦偕進 曰 吾王遣我南原者 無他 欲傳先生之技 于今三年矣 先生有所秘而不傳 吾無以復命 允興捧酒 其婦執盞膝行 致禮盡誠 然後傳其所秘飄風等三曲 (후략)

4) 위의 책, 164면.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 樂: 羅人沙滄恭永子玉寶高 入地理山雲上院 學琴五十年 自製新調三十曲 傳之續命得 得傳之貴金先生 先生亦入地理山不出 羅王恐琴道斷絕 謂伊滄允興方便傳得其音 遂委南原公事 允興到官 簡聰明少年二人 曰安長清長 使詣山中傳學 先生教之 而其隱微不以傳 允興與婦偕進 曰 吾王遣我南原者 無他 欲傳先生之技 于今三年矣 先生有所秘而不傳 吾無以復命 允興捧酒 其婦執盞膝行 致禮盡誠 然後傳其所秘飄風等三曲 安長傳其子克相克宗 克宗制七曲 克宗之後 以琴自業者非一二

5) 일연 저, 최호 역해 『三國遺事』(홍신문화사, 2008), 232면. 제3권, 「塔像」 제4, 柏栗寺條今與玄琴藏在內庫.....

부흥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 말 忠烈王(1274~1308) 때 도입된 성리학의 발달⁶⁾로 인해 서책과 함께 선비들의 필수품이 되었을 것이다. 또 유교문화의 전성기를 맞은 조선시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예악과 수양정신을 배양하는 도구로써 거문고의 효용가치는 더욱 더 확대되어졌을 것이다.

조선 건국 이후 성리학은, 초창기의 국가 건설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며, 상당한 기간 개인의 도덕수양, 향촌사회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개인·사회·국가 모두의 추구하는 바가 중국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것이므로, 거문고의 이면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한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의 시기에서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해, 아악기인 중국의 ‘금’에 대하여, 향악기인 거문고가 푸대접을 받았던 시기임이 분명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금을 대신해 이면에 대한 가치를 발휘한 점도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효용영역 뿐만 아니라, 문헌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문고의 전거에 대한 논의 중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헌의 자료는 고려 말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는 시기까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의 문헌자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금이나 금과 관련된 단어들이 거문고의 典據라 할 수 있는 자리를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금의 음악 사상이 거문고의 음악 사상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삼국사기』와 『樂學軌範』의 기록에 거문고의 명칭은 ‘현금⁷⁾’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중국의 금(琴)은 흔히 ‘古琴⁸⁾’이나 ‘琴’으로 부르고 있다.

6) 이기백, 『한국사신론 개정판』 (서울: 일조각, 1984) 200~201면 참조.

7) 이해구 역주a, 한국음악학 학술총서 5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690면. 卷之七 鄉部樂器圖說 玄琴條: 三國史云玄琴象中國雅部琴而爲之. 羅古記云初晉人以七絃琴送高句麗. 時第二相王山岳跋易其法制而造之, 兼製曲以奏之 於是 玄鶴來舞 遂名玄鶴琴, 後但云玄琴. 『삼국사기』에 이르기를 “거문고는 중국 雅部의 琴의 法制를 본받아 만든 것이다. 『新羅古記』에 이르기를 ‘처음에 췌나라 사람이 七絃琴을 고구려에 선물했다. 당시의 제2의 宰相 王山岳이 그 법제를 되돌려 고쳐 만들고, 아울러 樂曲을 작곡하여 연주하였는데, 이 때 검은 玄鶴이 와서 춤을 춤에 따라 이름을 玄鶴琴이라 하였고, 뒤에는 단지 玄琴이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8) 夏나라(B.C. 21C~B.C. 17C)는 기록된 중국 최초의 나라이고, 琴을 연주했다는 순임금은 그 보다 앞선 시대의 인물이니 古琴(古琴)이 만들어진 시기는 3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악학궤범』 卷之六 雅部樂器圖說 琴條에도 중국 금인 오현금과 칠현금에 대한 설명이 있어 향부(鄉部)의 거문고와는 전혀 다른 악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⁹⁾. 위 두 문헌의 기록만으로도 금과 거문고는 제도, 연주법 등 악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문고·가야금 전래 이전¹⁰⁾의 在來琴¹¹⁾과 伽倻琴도 단순히 ‘금’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모두 거문고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행 연구자들의 해석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각의 악기 명칭인 고유명사를 예로부터 통칭으로 불러 일반명사처럼 사용했는지, 아니면 구분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고금의 중국식 異稱·부품 이름·금의 名人·名曲·名器·彈琴 용어 등이 거문고를 대신하여 사용된 점은, 거문고의 무형적 가치 중 상당한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의 문헌에서 도출된 거문고의 화학적 성분의 상당부분은 중국의 그것으로부터 차용되어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거문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통치수단·백성교화·修己治人에 이르는 儒家思想과 神仙道·무교巫敎·古神道·바탕 風流道·老莊思想·琴道 등의 범위 내에서 거문고의 이면에 함축된 사상체계의 집약에 대한 논의를 하여왔다. 그러나 이 내용 또한 몇몇 중요 사상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다양하고 세부적인 천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고전문헌에 투영된

의 고금의 구조는 130cm 정도의 길이에 7현과 13개의 徽가 상판에 박혀있고, ‘고금’이라는 명칭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唐·宋 이래로 점차 고금으로 불리게 되었다. 月琴이나 胡琴 등 ‘琴’자를 붙인 악기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9) 이해구 역주a 앞의 책 740면. 卷之六 雅部樂器圖說 琴: (전략) 絃有五 象五行也 腰廣四寸 象四時也. 줄(絃)이 5개인 것은 五行을 상징한 것이고, 허리 너비 4치는 四時를 상징한 것이다. (중략) 文王武王各加一絃以爲文絃 武絃是謂七絃. 文王과 武王이 각각 그 5현(絃)에 1현(絃)씩 더하여 그 둘을 文絃과 武絃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七絃이라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10) 주5) 참조. 신라에 가야금(551년에 우륵과 함께 전래)과 거문고(682년에 보관하기 시작한 만곡식적과 함께 693년까지 天尊庫에 보관되어 있었음)가 전해지기 전 시기의 악기.
- 11) 송방송b,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32면. 신라 내해왕(196~230) 때 물계자와 자비왕(458~479) 때 백결선생이 연주했다는 琴은 거문고가 아닌 고대현악기의 일종.

거문고의 제도와 명칭, 거문고로 차용된 금과 관련된 사항, 거문고의 연주 환경과 음향, 그리고 거문고의 효용 등의 항목을 더 추가하여, 이미 정립된 사상체계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정서에 이르기까지를 관찰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렇게 연구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확대함은, 본고에 이어 논의하고자 하는 「고전문헌에 투영된 거문고의 효용 영역에 대한 연구」의 내용 중 일부인, 향악에서 雅樂으로, 아악에서 正樂으로, 정악에서 俗樂으로 이어지는 장르의 변천하는 과정에서, 변곡점을 찾아내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이 논의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 등이 이 논문의 필요성이고,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본고를 진행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제 2 절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

본 연구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선행 연구, 곧 한국음악사상, 금도, 거문고의 음악사상, 거문고의 명칭 등에 관한 연구물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본고의 연구와 유사한 선행 연구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

거문고의 음악사상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한국음악사상에 관한 선행 연구¹²⁾에 대하여는 1970년대 중반 이해구를 시작으로 「한국음악의 특성」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韓明熙의 「韓國 音樂美의 研究」, 2000년대에는 崔鐘敏의 「韓國傳統音樂의 美學思想의 研究」, 金聖惠의 「三國時代 新羅音樂文化史 研究」 등의 예술철학 또는 철학분야의 학위논문들

12) 이해구b, 「韓國音樂의 特性」 『韓國音樂論叢』(秀文堂, 1976), 36~37면. 한명희a: 「韓國 音樂美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전공 박사논문, 1994, 10. 한명희b: 「한국 음악과 사상」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한국고대음악의 전개 양상」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0. 최중민a: 「韓國傳統音樂의 美學思想의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전공 박사논문, 2001. 김성혜: 「三國時代 新羅音樂文化史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音樂文化學科 哲學博士學位論文, 2005. 한홍섭, 예술철학총서4 『한국 고대 음악사상』, (예문서원, 2007), 1) 한국전통음악과 거문고의 음악사상.

이 발표되었다. 또 한홍섭은 「한국전통음악과 거문고의 음악사상」이라는 논문을 『한국 고대 음악사상』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한명희는 한국음악, 한국문화에 대한 철학적인 사상의 생성과정을 巫敎思想이나 神仙思想 위에 다른 사상들이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온 문화현상이라 하였고, 한국음악의 특징으로 神明性을 들었다. 巫·神思想을 주류로 하고 불교·도교·유교 등의 외래사상을 조력자로 보았다.

또 한국음악의 미적 특성에 대해서 전통음악의 특수성을 質로, 미적 양상을 用으로 보았으며, 이 둘은 包融하고 있는 質用一體의 음악현상이라 하였다.

한국음악의 미적유형을 生動美와 慇懃美와 妙融美로 압축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묘용미는 각각 陽과 陰의 속성을 띤 생동미와 은근미의 양면적인 속성을 하나로 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론에서 한명희는 한국전통음악은 자연귀의적 현묘지도¹³⁾의 음악·인간주의적 ‘成於樂¹⁴⁾’·‘從心所欲不踰矩¹⁵⁾’의 ‘成於藝¹⁶⁾’의 음악·생명존중의 弘益人間¹⁷⁾의 음악이라는 중국의 고서와 우리의 역사서 내용에서 차용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현학적인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음악적 측면에 충분한 기울기를 두고 문맥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최종민은 전통음악 미학사상의 원류를 고대의 제천대회에 둔 시점을 논

13) 海東名僧傳 卷一, 流通法雲 眞興王 條 (전략) 崔致遠鸞郎碑序文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說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出則忠於國 魯司冠之旨也. 虛無爲之事 行不信之敎 周枉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 (후략) : (전략)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이른다. 교(敎)를 베풀어 낸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알게 갖추어져 있다. 실상은 세 敎를 포함하고 있어 모든 백성들을 만나 교화하니, 집에 들어와 효도하고 나가서 나라에 충성함 같은 정성스러운 모양은 공자의 가르침이요, 지극한 자연스러움(無爲)을 추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가르침이요, 모든 善을 받들어 행하라 함은 부처의 교화이다. (후략)”.

14) 주희·한상갑 역a, 『論語·中庸』 (삼성출판사, 1986), 153~155면. 卷之八「泰伯」八: 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詩에서 사람이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情緒를 일으키고, (禮에서 儀範을 세우고, 樂에서 調和를 이룬다.

15) 위의 책, 52면, 卷之二「爲政」四: (전략)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전략) 일흔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좇아서 범규에 넘지 아니하였다.

16) 위의 책, 131면, 卷之七「述而」六: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道에 뜻을 두며, 德에 의거하며, 어진 것에 의지하며, 藝에서 노닐어야 할 것이다.

17) 일연 앞의 책, 15면. 「紀異」 제 1 古朝鮮 (전략) 下視三危太白 可以弘益人間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후략)

의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각 시대를 통하여 수용된 외래사상으로 인해 어떠한 음악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신라음악의 미학사상은 최치원의 풍류를 중심으로, 고려음악은 流俗문화에 비중을 두고 풍류와 연관되는 내용을 다루었고, 조선시대의 음악문화와 禮樂思想을 다루었다. 아울러 중국의 예악사상에서 조선의 예악사상, 그리고 新樂의 創製를 차례로 논의하였다.

民俗樂 중 향토성이 강하고, 大同的이며 신비성을 갖춘 巫樂의 음악미로 神人合一을 개념어로, 전통음악의 특징과 아름다움은 ‘和의 철학’, ‘화의 사상’, ‘화의 미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논증하였다고 했다.

또한 음악미의 개념어로 ‘聲音의 生命美’·‘旋律의 生動美’·‘長短의 變化美’·음악형식 차원에서의 ‘無限美’·합주 형태에서의 ‘造化美’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논문 역시 음악사상에 편중된 연구내용이 대부분이다.

또 유교사상이 전통음악의 미학적 기준임을 살피면서 사심이나 욕심을 덜어 낸 ‘中節’의 상태를 피력하였으며, ‘화’는 풍류와 통하며, 天人合一·神人合一·主客合一 사상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들 음악사상도 중국에 전적을 둔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한·중의 고전문헌에서 쉽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최종민은 ‘和’로 설명된 조화의 체계, 풍류사상의 내용이 음악과 연주자가 합일하여 본인답게 만들어 자신의 생명을 확인하고, 생을 찬가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대목이라는 개인의 바람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화’에 대하여는 본 논문에서도 종종 발견되겠지만, 이는 예악사상에서의 절제된 ‘禮’와 조화로운 ‘樂’에서 발원하여 한·중의 고전문헌에서 흔히 걸러지는 의미이다. 음악사상이나 예악사상 뿐만 아니라, 고전문헌에 자주 나타나는 ‘거문고’와 ‘서책’ 그리고 ‘친구’에서도 작가와 작중 인물들 사이의 ‘화’를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화’는 음악적 측면으로만 볼 때, 서양음악의 과학적 체계를 갖춘

화음의 역할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서양음악에서는 청중들에게 순수한 음악적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역할에 비중을 두는 반면, 한·중의 음악에서는 지역사회나 국가전반에 걸친 영역의 조화에까지 그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한홍섭은 예술철학총서4『한국 고대 음악사상』에서 한명희·최종민 등이 주장한 풍류도가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라는 견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풍류, 향가, 무교, 금도 등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풍류도가 신라 천년 동안 樂·歌·舞의 배경의식에 깊이 연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치원의 「鸞郎碑」序의 풍류도를 儒·佛·道와 삼교공인의 의미, 무교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삼교의 공인시기를 기점으로 ‘바탕풍류도’와 ‘화랑풍류도’로 구분하여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신라사회의 독자성은 무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탕풍류도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두 국악학자의 견해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악사상의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악곡의 흔적은 기록의 부재로 그 악상 등에 대한 것들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 이는 아마도 제도권 음악에 밀려나 각 시대의 민중 속에 침전된 상태로 표류하면서 오랜 세월 민간에 口傳心授의 방법 등으로 어렵듯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식 아악의 편애에 대한 반발로 토착적 정악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고, 조선후기까지 지속된 이러한 흐름은 속악 계열의 음악으로 하여금 오랜 동면을 깨고 연주의 세상으로 나오도록 독려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바탕풍류도와 관련이 깊다는 ‘무교에 대한 정신성’을 경험했다는 연주가들은 현행 연주 세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악학자 한명희·최종민, 그리고 한홍섭 세 연구자들은 한국음악의 뿌리를 고신도사상, 무교사상, 바탕풍류도 등에서 서로 접근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상들은 전통음악 연주가들, 특히 民俗樂¹⁸⁾ 연주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련을 통해 神妙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통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성리학 도입 이후 거문고(玄琴)는 금(古琴)의 雅樂을 대변하였고, 조선후기의 거문고는 토착 正樂을 연주하였다. 신라의 음악은 고신도사상, 무교사상, 바탕풍류도 등에 뿌리를 둔 향토음악으로 짐작되며, 향토음악인 民俗樂은 아악이나 정악과는 서로 背馳되는 장르이다.

‘금도’에 관한 선행 연구에 있어서는, 통일신라의 거문고 전승과정을 통해 거문고음악의 성향에 대해 언급¹⁹⁾ 이래, 고려시대 선비들의 풍류와 관련한 언급²⁰⁾이 이어졌는데, 옥보고를 언급하여 왕산악과 연계하려 한 점이 보이거나, 금도보다는 악기의 기원이나 수용, 음악연주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데 치우쳐 있다.

고려시대 선비들의 풍류와 관련한 언급에서는 신라 화랑도의 풍류가 고려시대 선비들에게 나름대로의 정립된 거문고사상의 형태로 전승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하게 하며, 아울러 고려 선비들의 풍류에 관련된 사항이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끼쳤을 정신적 영향의 구조물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조선시대의 금도에 관한 두 편의 논문²¹⁾이 발표되었는데, 정화순의 「이덕윤의 생애와 업적」에서는 금도에 관한 부분에서 문헌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아 천착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며, 송혜진의 논문 「조선시대 문인들의 거문고 수용양상 -시문과 산수화를 중심으로-」에서는 본고와 궤를 같이한 점이 일부 관찰되고 있어 본고에 다소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거문고를 자기수양과 자위의 도구로 문인들이 사용했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와 같은 거문고의 일반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객관화 되어 있다.

통일신라의 금도라 할 수 있는 풍류도에 대한 논문이 2002년에 세 편, 2005년에 한 편이 각각 발표되었다²²⁾. 이들 논문에서는 거문고의 전통이 仙道, 또는 풍류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견해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고증할만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보다는 추정으로 일관한 내용

19) 송방송c, 「신라 삼현의 음악사학적 검토」, 『한국고대음악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5), 94~101면.

20) 송방송d, 「고려 향악의 삼현 문제 -선비들의 풍류를 중심으로-」, 『고려음악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8), 108~136면.

21) 정화순, 「이덕윤의 생애와 업적」, 『청예논총』 (청주: 청주대학교출판부, 1997), 153~180면. 송혜진, 「조선시대 문인들의 거문고 수용양상 -시문과 산수화를 중심으로-」, 『이해구박사구순기념음악학논집』 (이해구학술상운영위원회, 1998), 221~242면.

22) 김우진, 「옥보고의 행적과 업적 검토」, 「仙道」, 『한국음악연구』 31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2002), 381~389면. 권오성, 「玉寶高의 琴道와 仙道」, 『한국음악연구』 32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2002), 7~17면. 한홍섭, 「風流道,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 『인문연구』 49호 (경산: 영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5), 291~322면. 「풍류도와 한국전통음악의 연관성」, 『국학연구』 5집 (서울: 한국국학진흥원, 2002), 197~231면.

들이다. 그러나 이들 논문의 주목할 점은 통일신라 이후의 거문고에 대하여 음악적 차원만이 아닌, 음악과 道가 결합한 정신적인 경지의 표현인 ‘금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로 논문들이 진행되어온 사실에서 거문고의 음악외적, 곧 인문학적 차원의 연구에도 상당부분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曹裕美의 본격적인 금도에 관한 학위논문²³⁾이 발표됨으로써 보다 더 세밀한 관찰과 천착된 내용으로 진일보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조유미는 조선의 선비가 중국의 금의 사상에서 비롯된 고악의 이상을 실현하여 성리학적 이상향에 접근하고자 한 의지가 반영된 것을 ‘금도’라 주장하였으며, 금도가 조선에 정착할 수 있었던 원인을 개인의 성정을 다스리는 修己의 관념과 百姓敎化의 사회적 효용을 담은 음악적 이상이라고 하였다.

또 거문고 음악이 예술적 경지로 승화하게 된 것은 여흥과 위안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던 지식인의 풍류적 요소가 조선후기의 민간음악을 주도하게 되면서부터 드러나게 된 전문적인 審美性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오늘날 정악 장르의 탄생 배경을 조선 후기 文人·士大夫와 閭巷人들이 이끌던 風流房 문화의 주체인 ‘금도’라 하였고, 정악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古樂의 이상을 실현하여 성리학적 이상향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 ‘수기적 관념과 백성교화의 사회적 효용’, ‘여흥과 위안의 도구로서의 역할’ 등은, 본고의 논의대상인 거문고의 이면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내용의 일부이기도하여 다소 참고가 되리라 본다. 이 또한 연구자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전지영은 「조선시대 문인의 음악담론 연구」²⁴⁾에서 45인의 지식인을 성리학자와 문인애호가로 구분하고, 조선시대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문집에 기록된 자료를 통해 이들의 音樂談論을 고찰하였는데, 주로 음악을

23) 조유미, 「조선시대 琴道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8.

24) 전지영, 「조선시대 문인의 음악담론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이해하는 태도와 철학적 기반에 대하여 살폈다. 이 논문 또한 본고와 궤를 같이한 점이 종종 발견되어 본고의 논의에 다소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음악적 측면에서 연구되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거문고의 다양한 이면에 대한 고찰보다는 중국 금의 철학적 가치를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며,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정립된 통념적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거문고와 관련된 음악사상에 대한 연구는 1996년 제1회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두 편²⁵⁾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몇 편의 석사학위논문²⁶⁾에 언급되었으며, 『한국 고대 음악사상』이라는 저작물 안에 한 편²⁷⁾이 추가되었다.

최종민은 거문고는 풍류 음악의 대표적인 악기로 존중되고 있고, 풍류는 천인합일하면 신선이 되고, ‘以復其性’의 상태가 된다고 믿는 사상이라 하였다. 그리고 풍류의 음악사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천인합일의 古神道思想을 배경으로 이어져 오는 사상이니 거문고의 음악사상으로 보아도 된다고 하였다.

한명희는 오늘날 황폐화된 음악환경을 神聖性·全人的·風流的인 음악 전통으로 보완하여 거문고의 천인합일적·자연귀의적·우주론적인 정신세계를 음악의 궁극적 이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홍섭은 국악학자가 아니면서도 한국 전통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과 예술, 사상이 하나로 어우러졌던 동아시아의 樂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대략 소개한 논문 중에서 본 논문과 유사성을 가진 선행연구의 내용을 深度있게 살펴보면서, 고전문헌에서 발췌한 자료에 대

25) 최종민b, 「거문고와 관련한 음악사상의 문제」, 『동아시아의 현악기』 (서울: 국립국악원·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1996), 367~386면. 한명희c, 「거문고 음악의 정신성에 대한 재음미」, 앞의 책, 10~15면.

26) 허승, 「조선시대 거문고 수양정신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석사논문, 2004.

김도환, 「한국 거문고 음악사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학전공 예술전문사과정, 2008, 2.

27) 한홍섭, 「한국전통음악과 거문고의 음악사상 1」 예술철학총서 4 『한국 고대 음악사상』, (예문서원, 2007),

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거문고 연주자나 애호가들이 훨씬 다양한 영역에서 거문고의 이면에 대한 가치를 넓혔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 바, 본고의 본론인 제2장·제3장·제4장·제5장을 통해, 거문고의 제도와 명칭, 거문고로 차용된 금과 관련된 사항, 거문고의 탄주환경과 음향 감상, 거문고의 효용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시간적인 연구범위는 통일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이다. 공간적인 연구범위는 거문고가 수록되어 있는 통일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고전문헌의 기록내용이다. 그런데 도출해낼 수 있는 문헌상의 내용은 주로 고려 말에서 조선후기까지에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 역사서의 기록을 제외하면, 조선시대 문헌에 수록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룰 것임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 예문으로 든 문장들은, 김부식(金富軾)·이규보(李奎報)·최자(崔滋)·이색(李穡) 등과 그 외 몇몇 고려시대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채택된 고전문헌에서 도출해낸 이면의 내용을 분류하여 항목을 설정한 후 소제목에 따른 세부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고전문헌에서 도출된 ‘거문고에 대한 전거’라 할 수 있는 거문고의 제도·명칭·고금의 중국식 이칭·부품·금의 명인·명곡·명기·탄금에 대한 용어 등이 거문고를 대신하여 사용된 점을 논의의 중심에 둘 것이다. 이들에 대한 내용에서는,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거문고의 이면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기초 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세심히 관찰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거문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거문고의 중심 사상만을 한정적으로 논의하여왔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국한된 범위를 넘어서서 세부항목을 더 추가하여 이른바 잡다하다고 할 만한 정서에

이르기까지 관찰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고전문헌에 투영된 거문고의 이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전문헌의 내용에서 분석할 예문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일단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거문고가 수록되어 있는 고전번역서의 문집과 도서 일체의 내용을 수집하여 살핀 다음, 본문의 각 章이 논의하고자 하는 항목별로 類聚한 후, 각각의 세부적 항목에 대하여 함축할 수 있는 소제목을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예문으로 든 漢文 문장에 대하여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의 원문텍스트와 번역본을 참고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가 직접 다시 해석하여 논의에 반영할 것이며, 번역본을 수록할 경우에는 意譯을 겸한 해설을 덧붙이기로 한다.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때는, 민족문화추진회의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과 경인문화사의 『한국역대문집총서(韓國歷代文集叢書)』의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한편, 작가의 生沒연대나 行蹟에 대한 기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민족대백과사전』(2009)과 이기백(李基白)의 『韓國史新論 改訂版』(일조각, 1984)을 참고할 것이다. 또 중국의 고대음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창숙이 옮긴 양인리우(楊蔭瀏)의 『중국고대음악사』(솔출판사, 1999)를 참고할 것이다.

제 2 장 거문고의 제도와 명칭

제 1 절 고문헌에 나타난 거문고의 제작 내용

1. 거문고의 제도

거문고의 제작에 대한 내용은 1145년(인종 23년)에 완성한 김부식(金富弼, 1075~1151)의 『삼국사기』에 전래와 이를 개작하여 연주했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으며, 『악학궤범』에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연주 방법 및 樂調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금(古琴)의 제원이 실려 있고, 『악학궤범』 6권에는 금의 제원이, 7권에는 거문고의 제원이 각각 실려 있다.

『삼국사기』 권32 雜志 1에 기록된 거문고의 전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거문고는 중국 악부의 금을 본떠 만든 것이다. 살펴보건대, 「금조」에 말하기를, “복희씨가 금을 만들어서 몸을 닦고 성품을 다스려 자연 그대로의 참됨으로 돌아가게 하였다.”²⁸⁾

금을 수양의 도구로 삼아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하늘의 참뜻, 곧 자연그대로의 본연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大學』 「序文」의 ‘以復其性’²⁹⁾이나, 『대학』 「章句」 1. 總說 1. 綱領 原註의 ‘以復其初’³⁰⁾에서의 내용과 거의 같은 의미이다. 이는 사실상 儒家의 사상적 측면

28)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164면. 玄琴 象中國樂部琴而爲之. 按琴操曰, 伏羲作琴以修身理性反其天真也.

29) 주희·한상갑 역b, 『孟子·大學』 (삼성출판사, 1986), 407면. 「序文」: (전략) 則天必命之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 以復其性 此伏羲神農黃帝堯舜所以繼天立極 而司徒之職典樂之官 所由設也. (전략) 즉 하늘이 반드시 명하여 백성의 임금과 스승으로 삼아서 다스리고 가르쳐서 그 성품을 회복하게 하시니, 이는 伏羲와 神農과 黃帝와 堯와 舜이 하늘을 계승하고 皇極을 세워서 司徒의 직책과 典樂의 벼슬을 만들게 된 것이다.

30) 위의 책, 411면. 「章句」 一. 總說 一. 綱領 原文: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대학의

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문고를 설명하는 지면에 금의 이상을 기록해 놓은 김부식은 사신단의 일원으로 송나라의 문물을 몇 차례 접한 사실이 있고, 『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 또한 당시 고려 사회에는 신라 말기 이래 풍수지리설이 크게 성행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 妙淸(?~1135년) 등은 陰陽秘術을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결국 도참설을 근거로 西京 천도 등의 정치 개혁과 「金國征伐論」을 펼치게 되었고, 묘청이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김부식은 토벌군의 원수가 되어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³¹⁾ 이러한 앞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김부식은 이전의 神異的인 고대 사상을 배격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유교적 사관에 입각하여 썼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거문고의 정신성도 그러한 측면의 수혜자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금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는 기록에 이어 금의 이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 거문고의 생래적 이면에 금이 포태되어 있다는 점과, 동시에 금의 정신적 가치가 거문고의 이상을 대신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은 『삼국사기』 권32 잡지 1과 『악학궤범』 6권의 「아부악기도설」에 기록된 금의 제원에 대한 내용이다.

또 말하기를, “금의 길이 3자 6치 6푼은 366일을 본뜨고, 너비 6치는 六合을 본뜨고, 文의 위는 지(池: 지는 물이니 고르다는 말이다)라 하고, 아래는 빈(濱: 빈은 복종의 뜻이다)이라 하는데, 앞은 넓고 뒤가 좁은 것은 준비를 본뜨고, 위는 둥글고 아래가 모난 것은 천지를 본받은 것이다. 5현은 5행을 본뜨고, 큰 줄은 임금이 되고, 작은 줄은 신하가 되는데, 문왕·무왕이 2현을 더하였다.” 하였다. 또 「風俗通」에 말하기를 “금의 길이가 4자 5치인 것은 四時와 5행을 본받은 것이요, 7현은 7성을 본받은 것이다.”³²⁾라고 하였다.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며, 지극히 착한 데 머무름에 있다.
原註: (前略) 故學者 當因其所發而 遂明之 以復其初也.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마땅히 그 말하는 것을 밝혀서 그 근본을 회복해야 한다.

31) 이기백 앞의 책, 166~168면, 201면 참조.

32)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166~167면. 又曰, “琴長三尺六寸六分 象三百六十六日, 廣六寸 象六合, 文上曰池, (池者水也 言其平) 下曰濱(濱者服也) 前廣後狹 象尊卑也, 上圓下方 法天地也, 五絃象五行, 大絃爲君, 小絃爲臣, 文王武王加二絃.” 又風俗通曰, “琴長四尺五寸者 法四時五行 七絃法七星.”

칠현의 금에 대한 제원을 우주의 형상과 순환의 법칙, 음양오행설, 사회의 질서와 규범에 빗대어 설명한 내용이다. 즉 금이라는 악기는 우주를 축소한 것이며, 우주와 인간 사회의 기능과 질서를 두루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이 악기의 궁극적인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樂書』에 길이는 3자 6촌 6푼으로 366일을 본받은 것이고, 너비 6촌은 天地四方(六合)을 나타낸 것이다. 줄이 5개인 것은 五行을 상징한 것이고, 허리 너비 4촌은 四時를 상징한 것이다. 앞이 넓고 뒤가 좁은 것은 尊卑를 상징하고, 위가 둥글고 아래가 모가 난 것은 하늘과 땅을 상징한 것이고, 暉³³⁾가 열 셋인 것은 12律을 상징하고 남은 하나로써 閏³⁴⁾을 상징한다. 그 모양은 鳳 같이 생겼는데, 朱鳥는 南方의 새로, 음악을 主管한다. 다섯으로 나눈 몸체는 셋은 위로 하고, 둘을 아래로 한 것은 參天兩地³⁵⁾를 상징한 것이다. 文王과 武王이 각각 그 5絃에 1絃씩 더하여 그 둘을 文絃과 武絃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七絃이라 이르는 것이다.”³⁶⁾라고 하였다.

악서인 『악학궤범』의 내용에서는 음악을 주관한다는 남방의 새인 ‘朱鳥’와 음정을 결정하는 13개의 ‘휘’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어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비해 음악적인 측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점이 발견된다.

다음은 『삼국사기』 권32 잡지 1의 거문고의 전래와 개작하여 창작곡을 연주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33) 금휘(琴徽: 기러기발. 거문고, 가야금, 아쟁 따위의 줄을 고르는 기구)

34) 閏朔, 음력(陰曆)의 윤달.

35) 주역(周易)의 설괘전(說卦傳)에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參天兩地而倚數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 以至於命. 옛날 성인이 역을 지음에 그 옥하게 신명을 도와 시초를 내고 하늘은 셋으로 땅은 둘로 수를 의지하고 음양의 변함을 보고나서 괘를 세우고, 강유를 발휘해서 효를 생하니 도덕에 화순하고 의리를 다스리며, 이치를 궁구하고 성품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니라.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36) 이해구 역주a, 앞의 책, 740면. 제6권 雅部樂器圖說 琴조 : 樂書云 “長三尺六寸六分 象期之日也 廣六寸 象六合也. 絃有五 象五行也 腰廣四寸 象四時也. 前廣後狹 象尊卑也. 上圓下方 象天地也. 暉十有三 象十二律餘一以象閏也. 其形鳳 而朱鳥 南方之禽 樂之主也. 五分其身 以三爲上以二爲下 參天兩地之象也. 文王武王各加一絃 以爲文絃 武絃 是謂七絃

현금의 제작은 『신라 고기』에 이르기를, “처음에 진나라 사람이 칠현금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람이 비록 그것이 악기인 줄은 알았으나, 그 성음 및 타는 법을 알지 못하니, 나라 사람으로서 능히 그 음을 식별하고 타는 자를 구하여 상을 후히 주기로 하였다. 이 때 제 2상인 왕산악이 그 본래 모양은 그대로 두고, 자못 그 법제만을 고쳐 만들고, 겹하여 100여곡을 지어서 연주하였다.”³⁷⁾라고 하였다.

한편, 『악학궤범』 7권의 「鄉部樂器圖說」에 기록된 거문고의 전래와, 개작하여 창작곡을 연주했다는 내용은 『삼국사기』 권32 잡지 1의 내용에 비해 다소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삼국사』에 “거문고는 중국 아부의 금을 본받아 만든 것이다. 『고기』에 ‘처음에 진 나라 사람이 7현금을 고구려에 보내었다. 당시의 제 2 재상 왕산악이 그 법제를 고치고 곡을 지어 탔다.’”(후략)³⁸⁾

칠현금의 전래와 그것을 개조하여 왕산악이 거문고를 만들어 1백 여곡을 지어 연주했다는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이다.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당시의 고구려인들은 중국 금의 이상이 담긴 중국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을 것이며, 당시 고구려 사회에는 우리만의 곡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

음악의 연주에 적합하게 악기를 개조하고, 그것에 맞는 창작곡을 지어 연주했다는 왕산악은 악기 제작자·작곡가·연주가로서 천재성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시의 거문고가 옛 고분벽화³⁹⁾에 보이는 4현의 거문고에서 개량

37)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164~167면. 玄琴之作也 新羅古記云, “初晉人以七絃琴送高句麗. 麗人雖知其爲樂器 而不知其聲音反鼓之法 購國人能識其音而鼓之者 厚賞. 時第二相王山岳存其本樣, 頗改易其法制而造之. 兼製一百餘曲以奏之.”

38) 이해구 역주a, 앞의 책, 690면. 제7권 향부악기도설 현금조. 三國史云, “玄琴象中國雅部琴而爲之 羅古記云, 初晉人以七絃琴送高句麗 時第二相王山岳改易其法制而造之 兼製曲以奏之.”

39) 중국 길림성 무용총 고구려 벽화의 거문고는 4현 거문고인데, 4현 모두가 궤 위에 설치되어 있다. 6현 거문고의 패상청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연주되는 거문고는 패상청·패하청·

된 것인지의 여부와, 아울러 현행 거문고의 형태⁴⁰⁾와는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점과, 왕산악의 창작곡들이 『삼국사기』의 내용대로 중국 금의 이상을 이면으로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파악할 수가 없어 의문점으로만 남겨두게 되는 점이 아쉽다.

한편, 금과 거문고는 악기의 분류·제원·제작법·연주법 등 여러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삼국사기』 보다는 『악학궤범』의 내용에서 쉽게 확인이 되고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금의 이상은 본고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후기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거문고의 이상을 대신하면서 사상적 근간으로, 혹은 문화적 충돌의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거문고의 제작에 대한 전거

우선 『악학궤범』 7권의 「향부악기도설」 중 현금조의 내용에서 제작에 대한 전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살펴보건대, 거문고의 앞판은 오동나무를 쓰고, 오동나무 중에서도 돌 위에서 자라난, 세속에서 흔히 石上桐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 비록 돌 위에 난 것이라 하여도 땅에서 7~8자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라야 한다. 웅이와 물이 소용돌이치는 모양의 무늬가 많으면 반드시 그 나뭇결이 가라앉아 무겁고 흐려져, 거문고를 만들어도 소리가 맑지 못하다. 모름지기 높은 가치를 고르되, 소용돌이 무늬의 흔적이 없고, 결이 곧은 것이면 거문고를 만들 수 있다. 만약 높은 가치를 얻는다면, 비록 석상동이 아니더라도 좋다. 무릇 오동나무를 써서 만드는 악기는 모두 이와 같다. 뒤판은 밤나무를 쓴다. 패는 회양목을 쓰고, 차선의 방법으로 종목을 쓴다. 장식(용구⁴¹⁾·봉미⁴²⁾·좌단⁴³⁾·담패⁴⁴⁾·진패⁴⁵⁾·운족⁴⁶⁾·주. 주는 속칭 기

대현 3현은 모두 임종(林鐘)으로 조율되어 있다. 개방현의 음정이 각기 다른 문현·유현·대현 3현에 바깥에 같은 개방현의 음정으로 설치된 패상청·패하청·대현 중 1현만으로도 연주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현의 거문고로 연주할 때는, ‘스르렁’하는 소리 등의 표현만 불가능하게 될 뿐, 현행 연주되는 곡의 선율 또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0) 전체 6현과 遊絃·大絃·樑上淸 3현 아래 설치된 16개의 고정된 樑, 그리고 文絃·武絃·樑下淸 3현을 엮고 있는 이동 패인 雁足的 설치 여부와 술대 사용 여부 등.

패⁴⁷⁾이다.)은 화리·철양·오매·산유자 등의 나무를 쓴다. 학슬⁴⁸⁾은 청형(속칭 靑 蜃)을 쓰고, 염미⁴⁹⁾(속칭 부들)는 각색 진사⁵⁰⁾, 또는 푸른 물을 들인 무명실을 쓰고, 귀루⁵¹⁾는 홍록색의 진사를 쓴다. 담패의 안쪽에 대모⁵²⁾를 붙인다(빛이 누렇게 두꺼운 대모가 제일 좋다). 줄은 모두 6현으로, 대현⁵³⁾이 가장 굵고, 문현⁵⁴⁾·무현⁵⁵⁾은 그 다음으로 굵고, 패상청⁵⁶⁾은 약간 가늘고, 기패청⁵⁷⁾은 그 다음으로 가늘고, 유현⁵⁸⁾은 그 다음으로 가늘다. 술대⁵⁹⁾는 바닷가에서 자라난 단단한 해죽을 쓴다. (하락)⁶⁰⁾

- 41) 거문고의 오른쪽 坐團 끝의 옆, 즉 거문고의 머리 쪽에 있는 용의 아가리 같은 모양으로 뚫린 긴 구멍.
- 42) 거문고의 줄을 붙들어 매는 꼬리 부분.
- 43) 술대를 쥔 오른손이 닿는, 거문고의 머리 부분.
- 44) 현악기에서, 줄의 머리를 걸치는 枕木이라는 뜻으로 ‘絃枕’이라고도 한다.
- 45) 거문고나 가야금 따위의 현악기에서, 뒤판으로 넘어온 줄을 고정하고 좌우로 돌려가며 소리를 고르는 데 쓰는 나무토막으로 흔히 ‘돌패’라고 부른다.
- 46) 거문고, 瑟, 大箏, 牙箏 등 현악기의 아래편을 피기 위하여 몸체의 아래쪽 밑에 붙이는 구름 모양의 다리.
- 47) 기러기발.
- 48) 거문고의 줄과 부들이 접하는 곳에 학 다리 모양으로 꾸민 부분. 원래 광대싸리로 하였으나 현재는 색사로 감아 준다.
- 49) 가야금이나 거문고 등의 현악기에 연주용 줄을 걸어 매는 데 쓰는, 명주실이나 무명실을 꼬아서 접쳐 만든 줄로 흔히 ‘부들’이라고 한다.
- 50) 명주실, 건사.
- 51) 거문고의 제 1패에, 유현, 대현, 패상청 세 줄이 걸쳐지는 부분에 붙인 붉고 푸른 명주실. 이는 연주할 때 줄이 패에 마찰됨으로써 나는 잡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 52) 거문고와 향비파의 담패 안쪽 가운데, 즉 연주할 때 술대가 부딪히는 부분에 붙인 노란 쇠가죽.
- 53) 거문고의 몸 안쪽으로부터 셋째 줄로 가장 굵은 줄의 이름이다. 패 위에 설치된 유현, 대현, 패상청 세 줄 중 가운데에 있으며, 낮은 음역의 가락을 타는데 사용된다.
- 54) 거문고의 여섯 줄 가운데 몸 안쪽으로부터 첫째 줄이며, 기러기발 위에 설치된 개방현으로 한 음정만 낼 수 있다.
- 55) 거문고의 몸 안쪽으로부터 가장 바깥쪽, 기러기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여섯째 줄의 이름이며, 개방현으로 한 음정만 낼 수 있다.
- 56) 거문고의 여섯 줄 가운데 몸 안쪽으로부터 넷째 줄의 이름이다. 律調에 따라서는 패상청, 패하청(기패청), 무현의 개방현은 같은 음정으로 조율되기도 한다.
- 57) 거문고의 여섯 줄 가운데 몸 안쪽으로부터 다섯째 줄의 이름으로 조율할 때 중심이 된다. ‘기패청’의 기패는 기러기발, 즉 안쪽이므로, 기패청이란 안쪽 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이란 의미가 된다. 또 패 아래 설치되어있다고 해서, 패 위에 설치된 패상청과의 상대적 이름으로 흔히 ‘패하청’이라 부르고 있다.
- 58) 거문고의 여섯 줄 가운데 몸 안쪽으로부터 둘째 줄의 이름으로 子絃이라고도 하며, 大絃에 비하여 줄이 가늘고 높은 소리를 내며, 가락을 연주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현이다.
- 59) 거문고나 향비파를 타는 데 쓰는, 단단한 대나무로 만든 채.
- 60) 이해구 역주a, 앞의 책, 690면. 제7권 鄉部樂器圖說 玄琴조.(上略) 按造玄琴之制前面用桐木(凡桐木 俗云石上桐 最好. 雖生石上者 去地上七八尺許. 臃腫多旋紋者 必木理沈濁. 造琴聲亦不清. 須擇高枝 無旋痕理直者 乃可造者. 得高枝 則雖非石上桐亦好. 凡以桐木造作之其並同). 後面用栗木. 樛用檜木 棕木次之. 粧飾(龍口·鳳尾·坐團·擔樛·軫樛·雲足·柱柱即俗名歧樛也)用華梨·鐵楊·烏梅·山柚子等木. 鶴膝用青荊(俗稱靑蜃). 染尾(俗稱부들)用各色眞絲或靑染木綿絲, 鬼淚用紅綠眞絲. 擔樛之內付以玳瑁(色黃而厚者最

거문고 뿐만 아니라, 대개의 장방형 울림상자를 공명통으로 하는 전통현악기⁶¹⁾들의 앞판에 사용되어온 재료는 오동나무이다. 오동나무 중에서도 돌 위에서 어렵게 자라난 石上桐이 최상급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현행 악기제작자·연주가들에게 있어 이미 상식화된 사실이다.

위의 예문이 실려 있는 『악학궤범』 7권에서는 “옹이와 물이 소용돌이치는 모양의 무늬가 많으면 반드시 그 나뭇결이 가라앉아 무겁고 흐려져, 거문고를 만들어도 소리가 맑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연주가들은 옹이와 물결무늬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음악적 감각을 이용하여 실제로 성음이 좋은 악기를 고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히게 하는 과정 등의 재래식 제조 방법으로 목재를 양생시켜 처리가 충분히 잘된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를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석상동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재질이 뛰어난 석상동이라 하나, 짧은 시간 안에 강제로 건조시켜 졸속으로 만든 악기는, 옹이와 물결무늬가 있는 목재를 순차적인 재래식 제조 방법으로 처리하여 만든 것에 비해 오히려 악기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행 여러 연주가들의 연주학습을 통한 직간접 경험을 통해 볼 때, 악기의 음색과 음질은 밤나무를 쓰는 뒤판보다는 오동나무를 쓰는 앞판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도장·지팡이·조각재를 만드는 데에 쓰이는 회양목이나 벗나무를 재료로 하는 꺾의 견고한 정도와 명주실을 꼬아 만드는 현의 탄성·신축성·현의 용도에 맞는 적당한 굵기 등에 대한 질적 결과도 음색과 음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양을 결정하는 장식·용구·봉미·좌단·담과·진과·운족·주·학슬·염미 등은 음색이나 음질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 서양 탄현악기의 피크(pick)처럼 사용하는 술대(匙)의 재료로는 바닷가에서 자라난 단단한 해죽(海竹)을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다른 단단한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好). 凡六絃, 大絃最大, 文絃武絃次大, 樑上清稍細, 歧樑清次細, 遊絃次細. 匙用堅剛海竹.
61) 가야금(伽倻琴)·거문고(玄琴)·아쟁(牙箏)·대쟁(大箏)·금(琴)·슬(瑟) 등.

3. 애호가들이 직접 제작한 거문고의 재료

고전문헌에서 발견되는 거문고의 재료로는 소나무와 오동나무이며, 좀 더 구체적인 재료로는 벼락 맞은 오동나무, 백년 묵은 오동나무, 타다 남은 오동나무, 소리가 화락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산지로는 오동나무가 많아 금(琴: 문장을 <意譯>함에 따라 거문고로 순화)의 훌륭한 재목으로 예로부터 유명한 중국의 역양(嶧陽: 역계의 양지)의 역양산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오동나무로 금(琴: 거문고)을 만들어, 모두 순임금과 문왕의 제도를 써서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리의 맑음을 표현하는 문구로 ‘가장 잘 우는 것은 역시 오동나무’라 하였다.

1) 조선 중기 明宗 조에 기묘사화와 신사무옥에서 화를 당한 인물들의 전기 인 『己卯錄補遺』를 저술한 安璐의 「崔壽城傳」에는 ‘소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어 탄 기록’이 나타나 있다.

(최수성은 (중략) 시에도 능하고 그림에도 능하였으며, 성격이 시원스러워 얹매임이 없었다. 인간 세상에서 벼슬할 뜻이 없었고, 못사람들과 달리하기를 힘쓴, 당대에 기이하고도 훌륭한 선비였다. 冲庵이 일찍이 그의 시를 사랑하여 영원히 이름을 남길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亂 후부터는 산사로 돌아다니며 놀았는데, 가는 곳마다 소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어 타다가 끝나면 버리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았다.(하략)⁶²⁾

예문의 설명처럼 시문, 서화, 음률, 수학에 두루 뛰어났었다던 조선 시대 전기의 학자이자, 화가이었던 최수성(1487~1521)에 대한 기록이다.

산사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소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어 타다’가 소모품처럼 버리곤 했다는 것인데, 과연 나이테 사이에 송진이 배어들어 있

62) 안로, 『己卯錄補遺』 卷下 「최수성전」: 崔壽城 (中略) 能詩能畫, 磊落不羈. 無人世宦遊之意, 務異於衆, 一世奇偉之士也. 冲庵嘗愛其詩 以爲垂名不朽者此人. 自亂後遊行山寺, 每到處剖松作琴, 彈罷棄去, 未嘗留住.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번역본)

는 덜 마른 소나무로 만든 거문고가 어떠한 공명을 주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아마도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던 작가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모진 겨울을 이겨낸 소나무가 상처를 입게 되어 끈적끈적한 눈물을 흘리며 우는 뉘앙스(nuance)가 담긴 소리이었을 것이라 추정해 볼 만하다.

2) 조선 중기의 문신 황혁(黃赫, 1551~1612)의 「鄭困齋行狀」⁶³⁾에 나타난 정개청(鄭介淸, 1529년~1590년)의 기록에서는 ‘순임금과 문왕의 제도를 써서 만든 오동나무 거문고는 모두 순임금과 문왕의 제도를 쓰니, 그 길이가 다른 거문고보다 길고 커서 소리가 맑고 장대하였다’고 하였다.

선생의 성은 鄭氏요,諱는 介淸, 자는 義伯이며 본관은 鐵城, 지금의 固城인이다. (중략) 선생은 예가 아님에 대하여는 四勿) 공부에 더욱 힘쓰니 기상이 엄숙하고 방정하여 사람이 바라보면 스스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만하나, 말로 응접할 때는 화기가 넘쳐났다. 일찍이 太極舞를 만들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되 모두 순임금과 문왕의 제도를 쓰니 그 길이가 다른 거문고보다 길고 커서 소리가 맑고 장대하였으며 책을 읽고 난 틈에 무릎에 얹어놓고 연주하였다. 또한 渾天儀를 만들어 청도·황도·적도·백도와 태양 운행의 도수를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하략)

당시에는 이미 거문고의 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된, 『악학궤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순임금과 문왕의 제도를 썼다는 걸로 보아 중국 금의 제원에 맞추어 제작한 걸로 보인다. 또한 무릎 위에 얹어놓고 연주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금이 아닌 거문고라는 점이 파악되며, 律呂에도 정통했던 그는 ‘일반 거문고보다 길고 크게 만들어 공명을 증대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3) 황혁, 『己丑錄』 下 「鄭困齋行狀」: 先生姓鄭氏諱介淸, 字義伯, 其先鐵城 今固城 人. (中略) 先生於非禮上. 尤加四勿之工. 氣像嚴凝方正. 望之可畏. 人自敬憚. 而及至言語接應. 則和氣藹然. 嘗做太極舞以教門人. 制桐爲琴. 皆用舜文王制度. 長大異於諸琴. 其聲清壯. 講讀之暇. 引置膝上. 鏗然鼓之. 又作渾天儀. 青黃赤白之道. 晷刻淹速之度. 不差尺寸.(下略)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번역본)

3) 조선 중기의 문신 정온(鄭蘊, 1569~1641)의 시 「嶧陽孤桐」⁶⁴⁾에서
 는 ‘중국 역양에서 난다는 재질이 좋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거문고의 소
 리에 비겨, 자신의 맑은 성품과 기상’을 읊고 있다.

落落梧桐樹	가지가 축축 늘어진 오동나무
孤生嶧水陽	역양(嶧陽) ⁶⁵⁾ 에서 외롭게 자랐구나
不求琴瑟用	금슬로 사용되기를 탐(貪)하지 않고
惟願葉枝長	오직 가지와 잎이 자라길 원하는구나
垂老堪棲鳳	늙도록 늘어져 견디었으니 봉황이 깃들만도 한데
逢秋肯避霜	가을을 만나 서리를 피하며 즐기는구나
知心嗟未遇	지음(知音)을 만나지 못하여 탄식하니
夜夜月空藏	밤마다 달빛은 허공에 숨는구나

자신의 호인 桐溪에 잘 그려져 있는 바와 같이, 시냇가에서 거문고를 타
 는 모습을 그대로 옮겼다고 볼 수 있는 글이다.

또한 ‘名器로 만들어질 자질을 지녔으면서도 알아보는 자가 없어 失機하
 게 된 오동나무를 앞세워, 자신이 처해 있는 말년의 성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의 승려 석천인(釋天因)의 칠언배율 「次韻答院上人」⁶⁶⁾에서는
 ‘역양에서 자라난 오동나무 재목을 앞세워 다음과 같이 자신을 대변’하기
 도 하였다.

與子形骸已坐忘	그대와 내가 이미 잡념을 버리고 앉아 있으니
澹然相得意彌長	맑고 명백함을 서로 얻어 뜻이 더욱 깊어지리라
眼前豈許客纖翳	눈앞의 작은 가로막음인들 어찌 용납하랴
衆外還期蹈大方	중생과 외도의 법을 돌아가서 큰 도를 따라 행하리라
挹海幾慙懷小器	바닷물을 귀하게 여기니 부끄러움을 품는 작은 그릇

64) 정온, 『桐溪集 속집』 시, 오언율시, 「嶧陽孤桐」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65) 역양산에는 오동나무가 많아, 거문고의 훌륭한 재목으로 예로부터 유명하다. (한국고전번역원 고
 전종합DB 주 참조)

66) 서거정 등, 『동문선』 제18권, 칠언배율 「次韻答院上人」 / 석천인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近蘭偏感襲清香	난초를 가까이 하니 맑은 향기가 저절로 배어든다
始驚玉彩生荊璞	처음은 형산(荊山)에서 캐어온 보옥(寶玉)에 놀랐고
漸見桐材長嶧陽	점차 살피니 역양에서 자란 오동나무라
不學自工詩點綴	배우지 않았어도 서로 이어 스스로 시를 짓고
無師亦妙道商量	스승 없이도 도의 오묘함을 헤아려 잘 깨닫는다

승려인 석천인의 글인데, 그대와 내가 들어서 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는 잡념 같은 것을 이미 조용히 앉아서 버리고 무의 경지에 들어갔으니, 맑고 명백함을 서로 얻어 뜻이 더욱 깊어진다고 하였다. 눈앞의 작은 가로 막음인들 용납할 수 없고, 중생과 外道の 범을 돌아가서 큰 도(道: 大方⁶⁷⁾)를 따라 행하겠다고 하였다. 바닷물을 높이 받들어 귀하게 여기니 조용히 부끄러움을 품는 작은 그릇은 난초를 가까이 하니 맑은 향기가 저절로 배어든다고 하였다. 처음은 초인 변화가 형산에서 캐어온 보옥⁶⁸⁾에 놀랐고, 점차 살피니 거문고의 훌륭한 재목인 역양에서 자란 오동나무인지라, 배우지 않았어도 흠어진 것들을 서로 이어 스스로 시를 짓고, 스승 없이도 도의 오묘함을 헤아려 잘 깨닫는다는 내용인데, 앞의 예문에서 나타난 내용과 마찬가지로 ‘악기의 훌륭한 재목인 역양의 오동나무를 앞세워 작가 자신의 인재 됄을 밝히고 있고, 아울러 다른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4) 성중엄(成仲淹, 1474~1504)의 「次韻答仲說」⁶⁹⁾에서는 ‘타다 남은 오동나무로 만들었다는 초동’이 나타나 있다.

塞外風霜故舊疏	변방 밖에서 어렵게 살다보니 옛 친구가 드문데
清癯今作病相知	몸집이 맑게 여위어 이제 병들었음을 알겠구나
半簾寂寞三更月	반쯤 내린 발 사이로 한밤중의 달이 들어오는네
四壁蕭條一卷書	사방 벽이 쓸쓸한 방에 한 권의 책뿐이라
早識塞翁無失得	변방 늙은이의 득실이 없음을 일찍이 알았고

67) 큰 道란 뜻인데, 『莊子』에서 나온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68) 초인(楚人) 변화(卞和)가 형산에서 캐어온 보옥이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69) 서거정 등, 앞의 책, 제8권 칠언율시 「次韻答仲說」 / 성중엄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靜看天道有盈虛 천체의 운행을 살피니 영허지리가 있구나
 峨洋從古知音少 옛날부터 아양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적었으니
 獨抱焦桐臥樊廬 홀로 초동을 안고 오두막집에 누워 있다네

이 글에서는 작가가 맑은 소리의 상징물인 초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청렴하고 곧은 성품의 소유자임을 빗대어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초동’이라는 금의 이칭은 漢나라 蔡邕가 오동나무가 아궁이에 서 불타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좋은 오동나무로서 금을 만들기에 적당한 줄을 알고, 곧 꺼내어 타다 남은 것으로 ‘焦尾琴’을 만들었다는 데서 기인한 것인데, 현행 전통현악기 제작과정에서도 상판(上板: 윗면)을 인두로 그을려 만드는 작업과정이 있다.

5) 조선 초기의 문신 성간(成侃, 1427~1456)의 시 「古曲」⁷⁰⁾에서는 ‘용문의 백년 묵은 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로 堯의 樂舞인 ‘함지’⁷¹⁾를 타겠다고 하였다.

龍門百年桐	용문의 백 년 묵은 오동나무는
幾日凌霹靂	몇 날이나 벼락을 업신여겼던가
裁爲膝上琴	잘라 무릎 위 거문고를 만들어
宛抱咸池曲	비껴 끌어안고 함지(咸池)를 타리라
高歌試一彈	큰소리로 노래하며 한 번 튕겨보니
中夜山鬼泣	한밤중에 산의 귀신이 눈물을 흘리네
君子亦如此	군자 또한 이와 같으니
蓋棺事迺畢	관을 덮으면 이에 일을 마치는 것이네

70) 한치윤, 『海東釋史』 제48권 「藝文志」 7 우리나라 시 2 본조 上 『열조시집』 「古曲」 / 성간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71) 양 리인우(楊蔭瀏) 지음, 이창숙 옮김, 『중국고대음악사』, (술출판사, 1999), 28면 함지(咸池) (『周禮』·『禮記』·『國語』에 보임)는 서궁의 별 이름(「天官書」 『史記』)이며, 옛 사람들은 해가 지는 서쪽이라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먼 서방을 신비롭게 생각하였으며, 그곳에 정령이 있다고 믿어 악무로써 숭배하였다.

오동나무는 오래 묵을수록 훌륭한 거문고의 재목이 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백년이나 묵은 나무가 벼락까지 맞아 준다면 순식간에 수분이 제거될 것이므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문고의 재료로 쓰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시에서는 요나라 시절 정령이 있다고 믿어 악무로써 숭배했던 ‘함지’라는 곡을 연주함으로써 ‘산의 정령’이 눈물을 흘린다고 표현하였다. ‘함지’와 ‘산의 정령’과 맥을 같이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벼락을 맞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모종의 토템(totem)으로서 숭배할 만한 이면이 감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가 지는 서쪽의 정령을 앞세워 마지막 행의 결론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인생의 필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작자인 성간은 ‘백년이나 묵어 혼이 살아 있는 훌륭한 재목으로 거문고를 만들어 산의 정령이 눈물을 흘릴 만한 함지를 연주한다고 함으로써, 군자 또한 이와 같은 거문고의 재료인 오동나무와 같다면서 덧없는 인생살이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벼락 맞은 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가 나타나 있는 허균(許筠, 1569~1618)의 『鶴山樵談』에 수록된 박순(朴淳, 1523~1589)의 「題短琴詩」⁷²⁾이다.

嶧山誰採鳳凰枝	역산에서 누가 봉황의 가지를 잘랐는가
雷斧餘痕斲更奇	우레 도끼 내리친 자욱 있어 깎아보니 더욱 기이해
休恨賞音人已逝	감상할 만한 자 이미 갔다고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照衿明月卽鍾期	옷깃을 비추고 있는 밝은 달이 곧 종자기이니

이 글에서는 한 마디로, ‘벼락을 맞아 좋은 재료가 된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 줄 사람이 이미 떠나고 없어 애석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6) 또한 韓末의 義士 이남규(李南圭, 1855~1907)의 「四孔琴銘」⁷³⁾에서는 거문고의 생김새 · 울림 · 금의 제원 등이 묘사되어 있으며, 벼락이 떨어

72) 허균, 『惺所覆瓿藁』 제26권 부록 1 「鶴山樵談」, 박순의 「題短琴詩」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73) 이남규, 『修堂集』 제7권 銘 「四孔琴銘」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번역본)

진 돌 위의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어 보물로 여겨 銘을 새기게 하여
오래 동안 그것을 전하였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매우 자세하게 표현되
어 있다.

謂是蟲蝕	이것을 벌레가 먹었다고 한다면
篆斯印矣	전자로 도장을 찍었다고 할 터이고
謂是禽啄	이것을 참새가 쪼았다고 한다면
紋斯矣	금이 갈라진 무늬라고 할 터이네
匪印匪	그러나 도장도 금도 아니고
有孔如	구슬처럼 동그란 구멍이 있네
形圓數耦	모양은 둥글고 숫자는 짝수이니
是鬼神跡	이것은 귀신의 자취인가
竅則宜疵	속이 비어있는 즉 병이 생길 텐데
其奇彌彰	그 기이함이 더욱 드러나고
洩則宜謫	바람이 새면 소리가 작을 텐데
其韻彌長	그 소리는 더욱 길고 오래 가는구나
袤期博合	긴 것은 넓게 적합함을 결정함이니
制非不備	제도에 갖추지 않음이 없으라
若時若方	四時를 따르고 四方을 따라서
剔包以四	네 구멍을 뚫고 감쌌구나
微化工妙	匠人의 묘한 조화가 아니라면
孰斯能與	누가 이 일을 해줄 수 있었겠나
始托而棲	처음에 의지하여 살던 곳은
神仙之處	신선들의 거처
楓嶽之陽	풍악산의 남쪽
楡岾之石	유점사 돌 위
震霆之餘	벼락이 떨어져서
藥泉是擇	藥泉 ⁷⁴⁾ 이 이것을 (거문고의 재목으로) 선택하여
孰寶其傳	누가 보물로 여겨 그것을 전하였으며
俾銘以壽	명을 새기게 하여 장수하게 하였을까
曰留春塢	‘留春塢 ⁷⁵⁾ ’라 일컫는 언덕의

74)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호,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有孔如璧 形圓數耦’에서는 동그란 구멍이 짝수로 있다고 했는데, 현행 제작되고 있는 거문고에는 좌단 끝을 상하로 막은 부분에 운형(雲形)의 구멍이 1개, 거문고 아랫면인 背板의 중앙에 길게 판 장방형 타원의 구멍이 1개, 중앙 타원의 양쪽에 좌우대칭으로 각각 판 원형의 구멍이 2개가 있어 그 합은 위의 예문의 기록처럼 짝수인 4개이다. 이와 같은 구멍은 동서양의 모든 현악기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장방형 공명상자를 몸체로 하는 우리의 전통 현악기는 다른 현악기에 비해 길게 제작되므로 더 많은 구멍을 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구멍들의 역할은 공명상자에서 생성된 소리의 소통과 전달이다. 악기에 따라 구멍의 크기나 개수, 그리고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차이는 공명상자를 가진 현악기들이 제각각 지녀야 할 고유의 음색을 결정해주는 데 있어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竅則宜疵~其韻彌長’에서는 나무의 속이 비어있는 것을 보며 소리가 새는 등의 흠으로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소리의 울림이 더 좋아지니 기이한 일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속을 비우게 하는 것은 모든 장방형 전통현악기의 공명상자 제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공정 중 하나이다. 이는 소리의 울림을 증폭, 또는 지속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속을 파서 비우게 만드는 과정으로 현악기의 울림에서 나타나게 되는 음량, 음질, 음색 등의 음향적 측면을 절대적으로 좌우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과정이기도 하다. 위 글에서는 ‘귀신의 자취’라던가 ‘기이함’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악기연주가나 음향기술자들에게 있어서는 음향효과를 내고자 하는 단순한 과학적 상식에 불과한 것이다.

‘絃’ 자체의 소리는 매우 미미하여 반드시 공명상자의 울림이 있어야만 충분히 증폭된 음량을 얻어 연주가 가능해지는데, 속이 막혀있게 되면 현(絃)의 소리가 두꺼운 나무조직에 흡음(吸音)이 되어 연주에 적합한 소리

75) ‘봄이 머무는 언덕’이란 아름다운 이름의 집으로 남산 아래에 있던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거처를 이름.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76) 어옹(漁翁)과 같은 말이며, 조선 명종 때의 청백리로 뽑혔던 문신인 이세장(李世璋: 1497~1562)의 호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홍대용(洪大容)을 지칭하는 것 같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를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현악기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모든 현악기는 공명상자를 반드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衰期博合~制非不備’에서는 길이는 넓게 적합함이니 제도를 갖추었다고 했는데, 이는 “琴長三尺六寸六分 象三百六十六日 廣六寸 象六合 즉, 금의 길이는 석 자 여섯 치 여섯 분이니 366일을 상징하고, 넓이는 여섯 치이니 六合을 상징하였다.”라는 『삼국사기』 권32 「악지」에 기록되어 있는 ‘중국 금의 제원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원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若時若方’에서는 四時와 四方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琴長四尺五寸者 法四時五行 七絃法七星 즉, 금의 길이는 네 자 다섯 치이니 이는 사시와 오행을 모방한 것이요, 일곱 줄은 칠성을 모방한 것”이라는 『삼국사기』 권32 「악지」에 기록되어 있는 ‘중국 금의 제원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원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楡岾之石，震霆之餘，藥泉是擇’에서는 가을의 금강산 양지바른 유점사 부근의 돌 위에서 자라난 오동나무(石上桐)가 벼락을 맞았는데, 이것을 남구만이 거문고의 재목으로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按造玄琴之制，前面用桐木 凡桐木俗云石上桐最好 거문고를 만드는 데 있어, 앞판은 오동나무를 쓰고, 오동나무 중에서도 속칭 석상동이 가장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악학궤범』 권 7의 「향부악기도설」의 현금조에 대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위 글에서 ‘벼락을 맞은 오동나무를 악기의 재목으로 선택했다’함은, 한나라의 채옹이 ‘오동나무가 아궁이에서 불타고 있을 때 그 소리의 맑음을 깨닫고, 그것이 금을 만들기에 적당한 줄을 알게 되어 곧 꺼내어 타다 남은 것으로 금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현행 거문고 등의 장방형 현악기 제작과정에서 ‘불에 달군 인두로 상판을 태워 그슬리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세 경우 모두 목재의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藥泉是擇 孰寶其傳 俾銘以壽 曰留春塢 海東漁叟’에서는 약천이 거문고의 재목으로 선택하여 만들었고, 보물로 여겨 그것을 전하였으며, ‘명을 새기게 하여 장수하게 한 분은 <유춘오>라 일컫는 언덕에 사는 海東의 漁

叟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글에는 훌륭한 재목으로 만들어지는 거문고의 제작과 보존에 대하여 크게 고무되고 흥기한 작가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글의 내용을 추정하여 거문고를 제작하고 보존하여 온 연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일단 거문고를 만든 시기는, 남구만의 호인 藥泉의 등장으로 보아 17세 중후반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리고 남구만이 만든 거문고에 명을 새기고 소장하기 시작한 것은, 실학자인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별장인 ‘유춘오’의 등장으로 보아, 18세기 중후반 무렵임을 짐작해 낼 수가 있다. 또한 보존을 유지한 기간은 이남규가 『수당집』의 「사공금명」을 지은 시기를 19세기 중후반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거문고를 제작한 남구만으로부터 홍대용에게 전해지기까지 100년, 명을 새기고 보존하였던 홍대용으로부터 「사공금명」을 지은 이남규에 이르기까지는 100년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200년을 훨씬 상회하여 명기로서 寶藏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7) 조선 중기의 문신 이식(李植, 1584~1647)의 오언율시 「桐鈴」⁷⁷⁾에서는 오동나무를 깎아 만든 거문고, 즉 ‘가장 잘 우는 것은 오동나무’라고 하였다.

木者八音一	팔음의 하나인 나무라는 것에서
桐也最善鳴	가장 잘 우는 것은 오동나무라네
詩人美楚丘	시인이 초구를 아름답게 여긴 것은
琴瑟所斲成	오동나무를 깎아 만든 금과 슬이 있음이라
何知歲暮柯	어찌 알았으랴 세모의 오동나무 가지가
自有叢鈴聲	모여서 스스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을
乾皮裏枯核	메마른 껍질 속에 씨도 말랐으련마는
空洞中自驚	텅 빈 골 안에서 혼자 놀랐는지
風微似相怨	미풍이 불 때는 서로 원망하는 것 같고
風急增不平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평이 많아지고

77) 이식, 『澤堂集』 「택당선생 속집」 제4권 시 「桐鈴」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번역본)

宮商遶回旋 궁상각치우가 빙글빙글 떠났다가 돌아오고
金石俱琮瑋 돌과 쇠소리는 옥 부딪는 소리로 함께 하고
如聆曉衙報 새벽부터 관아에 들려줄 것이 있는 것 같고
若語明日晴 내일은 날씨가 개리라 말하는 것 같고
吹萬故不同 서로 다른 까닭에 만 가지로 퍼뜨리고
天機何自生 하늘의 비릇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唯有據梧翁 오직 오동나무 (<机案>에) 의지한 늙은이만이
嗒然無將迎 맞이하고 보내는 일도 없이 그저 멍하니 잊고 지내리라

‘木者八音一~琴瑟所斷成’에서는 八音의 하나인 나무 중 오동나무의 울림이 가장 좋으며, 시인이 楚丘를 아름답게 여긴 것은 오동나무를 깎아 만든 금과 슬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팔음이란 전통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를 이르는 것인데, 전통악기를 분류하는 하나의 체계이기도 하다. 오동나무는 金(쇠)·石(돌)·絲(실)·竹(대나무)·匏(박)·土(흙)·革(가죽)·木(나무) 중 목(木)부에 속하며, 주로 장방형 전통현악기의 상판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한편, 장방형 전통현악기 중 최근에 발굴된 고대현악기와, 일본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는 新羅琴의 형태⁷⁸⁾, 그리고 현행 정악 가야금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오동나무 속을 통째로 파내어 상판(윗면, 앞판)·하판(아래면, 뒤판) 구분 없이 만들고 있는 경우도 관찰할 수가 있다.

거문고는 『악학궤범』에 제작과정이 기록된 이후로부터 현행 제작과정에 이르기까지 상판 외에 아랫면이나 측면, 그리고 부들이나 안족 등의 제작과정에서는 각각의 용도에 맞는 서로 다른 나무들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초구는 『詩經』 「國風」 ‘鄘風’ 제6편 「定之方中」 3장에 나오는 ‘楚宮’⁷⁹⁾이며, 따라서 작가 이식은 『시경』의 ‘오동나무 등을 심어서 이를 베어 금

78) 1990년대에 대전시 월평동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그리고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서 각각 재래 현악기들이 발굴되었음. 일본 나라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라금’으로 명명되어진 가야금.

79) 定之方中 作于楚宮 揆之以日 作于楚室 樹之榛栗 椅桐梓漆 爰伐琴瑟 : 定星이 가운데에 있어 楚宮을 지으니 해 그림자를 헤아려 楚室을 짓고, 개암나무와 밤나무와, 산유자나무와 오동나무, 가래나무와 율나무를 심어서 이를 베어 琴과 瑟을 만들 것이리라.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과 슬을 만들 것이리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금과 슬을 만드는 데는 오동나무가 좋은 재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오동나무로 만든 금과 슬이 있어 초궁이 아름답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에 지닌 악기가 비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관망 좋은 외경에 대한 미적 감상이 더욱 더 배가된다는 시인의 감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과 슬을 거문고(거문고 금<琴>)와 비파(비파 슬<瑟>)로 번역한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는 당시의 중국 고대악기인 금과 슬로 바로잡아 번역하였으며, 계속 진행될 논의 도중 이러한 부분에는 거문고와 비파 또는 금과 슬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何知歲暮柯~吹萬故不同’에서는 한 해가 저물어 설을 바로 앞둔 때의 오동나무가 스스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오동나무를 의인화하여 악기로서의 형이상학적 기능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궁상각치우의 오음이 곡조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였고, 鐘磬⁸⁰⁾과의 어울림을 옥 부딪는 소리에 비유하면서 맑은 소리의 감상으로 남겼다.

또한 전달자의 역할과 일기를 예측케 하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전달자의 역할은 악기가 내는 소리 안에 연주자의 품은 생각을 담아 知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인데, 많은 거문고 애호가나 거문고 연주자들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실행하려면, 연주자는 고도의 음악적 기술과 표현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고, 감상자 역시 연주 내용에 대한 깊은 이면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백아와 종자기에 대한 고사의 내용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일기의 예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악기의 줄(명주실)은 寒溫에 대하여, 공명상자는 燥濕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즉 명주실은 기온이 오르면 팽팽해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느슨해지는 성질이 있다. 또 오동나무는 건조해지면 밝은 음색으로 변하고, 습도가 높아

80) 編鐘이나 特鐘, 쇠붙이로 만든 악기, 磬: 編磬이나 特磬, 돌을 깎아 만든 악기.

지면 어두운 음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 경우도 또한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가 상당기간 수련을 통해 형이상적 깨우침을 얻어야만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吹萬故不同 天機何自生 서로 다른 까닭에 만 가지로 퍼뜨리고, 하늘의 비롯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에서는 『장자』의 「齊物論」에 “夫天籟者 吹萬不同 而使其自己也 咸其自取 怒者其誰邪 대저 하늘의 피리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 만 가지로 서로 다르게 반응하며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자기의 틀이 원인이 되어서 자초하는 것들이니, 그렇게 부르짖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가.”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하늘의 비롯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⁸¹⁾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唯有據梧翁 嗒然無將迎 오직 오동나무 의지한 늙은이만이, 맞이하고 보내는 일도 없이 그저 멍하니 잊고 지내리.’에서는 제물론 첫머리에 “南郭子綦隱机而坐 仰天而噓 嗒焉似喪其耦 남곽자기가 机案에 기대어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숨을 쉬니, 그 모습이 物我의 대립을 모두 잊은 듯 무심하기만 하였다.”⁸²⁾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단지 ‘오동나무에 의지하여 사는 자신의 늙은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앞의 3)의 예문들에서는 각각 ‘거문고의 질 좋은 재목’으로 역양의 외로운 오동·역양에 자라난 오동 재목·타다 남은 오동나무 등의 항목에 대하여 논의 하였는데, 3)의 모든 예문들에서는 금을 만들 수 있는 재질이 좋은 오동나무는 중국 역양에서 난다고 하였다.

한편, 4)의 예문에서는 한나라의 채옹이 오동나무가 아궁이에서 불타고 있을 때 그 소리의 맑음을 깨닫고, 그것이 금을 만들기에 적당한 줄을 알게 되어 곧 꺼내어 타다 남은 것으로 금을 만들었다는 데서 기인한 ‘초동’이 등장하고 있다.

예문의 작가들은 질 좋은 재목과 불에 그슬려 가공된 재목으로 만들어진 금의 소리는 맑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맑은 소리에 비겨 자신의 맑은 성품과 기상을 빗대어 읊고 있는 점이 파악되어지고 있다.

81) 이석호 역, 『莊子』(서울: 삼성출판사, 1986) 196~197면 참조.

82) 上同.

5)의 예문에서는 백년이나 묵은 오동나무가 좋은 거문고의 재료로 나타났으며, 이 나무가 벼락 맞아주기를 은근히 기원한 표현이 있었고, 6)의 예문들에서는 벼락을 맞아 좋은 재료가 된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 줄 사람이 이미 떠나고 없어 애석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악기재료로서 벼락 맞은 나무가 좋다고 하는 것은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어 수년 동안 말리면서 양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남규의 「사공금명」에는 거문고의 생김새·울림·금의 채원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벼락이 떨어진 돌 위의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거문고를 보물로 여겨서 銘을 새기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거문고를 오랫동안 전하였다는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글에 나타나는 ‘돌 위의 오동나무에 대하여는 앞의 논의과정 중 『악학궤범』에 수록된 문장에서 ‘석상동’이라 불리는 최상급의 거문고의 재목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장 훌륭한 거문고의 재목이 벼락까지 맞았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재료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7)의 예문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여러 조건에서 자란 오동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울림이 좋다는 표현으로, 가장 잘 우는 것은 오동나무로 깎아 만든 거문고라고 하였다.

이상의 예문들에서는 저마다 금의 연주가인 백아와 그가 연주하는 음악의 깊은 내면을 들을 줄 알았다던 종자기의 고사를 인용하여 평소에 펼치고 싶은 자신의 뜻(知音·知己)을 알아주지 않고 있는 서운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거문고의 명칭

1. 거문고 이전의 재래악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삼국 이전의 재래 현악기로 명명한 악

기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勿稽子와 百結 先生의 금과 『삼국유사』의 射琴匣 일화의 금에 대하여 그 연대를 추적하여 보면 ‘거문고’도 ‘가야금’도 아닌 ‘재래 현악기’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물론 『삼국사기』 이전의 역사서가 발견된다면 다른 역사적 사실과 함께 우리의 고대악기에 대한 더욱 더 자세한 기록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연구 환경에서 고대에 관한 고증자료의 활용에 대하여는 역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초로 기록된 고대 현악기에 대한 내용은 陳壽의 『三國志』 권30 魏志 「東夷傳」에 弁辰의 현악기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악기는 당시 중국 현악기와 비슷한 이름을 빌려서 기록하였다.⁸³⁾ 중국의 ‘瑟’과 ‘築’이라는 현악기가 변진의 재래 현악기를 대신하여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시각으로 본 「동이전」의 기록과는 달리 당시의 독창적인 재래 현악기이거나, 아니면 가야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악기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된 시점은 1990년대에 대전시 월평동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그리고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서 각각 재래 현악기들이 발굴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신창동 유물의 발굴에서는 기원 전 1세기 무렵의 연대로 추정되는 재래현악기가 낙동강 주변의 변한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남서부 마한지역에도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가야금이 공식적으로 신라의 악기가 된 시기는 가야의 우륵이 악기를 들고 신라에 귀화한 진흥왕 12년(551)이고, 거문고는 신문왕 2년(682)에 보관된 萬波息笛⁸⁴⁾과 함께 효소왕 2년(693)까지 월성의 천존고에 보관되어져 있었다.⁸⁵⁾

거문고가 신라에 전래된 시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8년(668)인 7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볼 수도 있다. 전래된 시기를 확장하여 이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83) 송방송b, 앞의 책, 32면.

84) 일연 저, 최호 역해 앞의 책, 100면. 제2권 紀異 제2, 萬波息笛 (전략) 駕還 以其竹作 藏於月城天尊庫 (중략) 號萬波息笛 (후략)

85) 위의 책, 231~234면 제4권, 「塔象」, ‘栢栗寺’條 참조.

문물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거문고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유포된 시기에 대하여는 대략 7세기로 보는 학자⁸⁶⁾도 있다. 그러나 통일된 시점이 7세기 중엽을 넘긴 시기이고, 경덕왕(재위기간, 742~765) 때 沙浪 恭永의 아들인 옥보고가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 거문고를 연구한 지 50년 만에 스스로 새로운 곡조 30곡을 지은 시점을 살펴보아도 일단 8세기 중엽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옥보고는 속명득에게, 속명득은 다시 귀금 선생에게 전하여 계승하도록 하였다. 이후, 혹시라도 끊어질까 염려되는 금도의 전승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결과 “克宗에 이르러 業으로 삼는 자가 많아졌다”는 통일신라 거문고 연주자의 계보가 기록된 『삼국사기』의 내용⁸⁷⁾을 보면, 7세기를 훨씬 넘긴 9세기쯤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위와 같은 연대로 미루어 보아 “머리를 풀고, 금을 들고서 사체산(師屍山)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⁸⁸⁾는 奈解王(재위기간 196~230) 때의 물계자와, “금을 타서 방아소리를 내니 세상에 전하여 ‘確樂’이라 이름 하였다.”⁸⁹⁾는 慈悲王(재위기간 458~479) 때의 백결 선생이 연주한 악기는 활동 연대로 보아 ‘거문고’도 ‘가야금’도 아닌 ‘재래 현악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炤知王(재위기간 479~500) 때의 사금갑⁹⁰⁾ 일화의 ‘금’ 역시 거문고나 가야금의 전래와 유포된 시기의 연대와 비교해 볼 때 거문고가 아닌 재래 현악기인 것이 분명해진다. 그런데 이 재래 현악기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서 발굴된 거문고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4현의 악기인지, 마한 지역의 재

86) 한명희a, 앞의 책 31면.

87)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 樂, 164면(원문), 168면(번역본) : (前略) 羅人沙浪恭永子玉寶高 入地理山雲上院 學琴五十年 自製新調三十曲 傳之續命得 得傳之貴金先生 生亦入地理山不出 신라사람 사찬 공영의 아들 옥보고가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서 50년 동안 금을 배운 뒤 스스로 新調 30곡을 새로 지어서 속명득에게 전수하고, 得은 이것을 귀금 선생에게 전수하였다. 선생 역시 지리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중략) 安長傳其子克相克宗 克宗制七曲 克宗之後 以琴自業者非一二 안장은 그의 아들 극상과 극종에게 전수하였고, 극종은 일곱 곡을 제정하니, 극종의 뒤에는 거문고로써 자기의 업을 삼은 자가 하나들이 아니었다.

88) 위의 책, 「列傳」 제8 물계자 415면 (전략) 遂被髮携琴 入師屍山 不反

89) 위의 책, 416면 백결 선생 (전략) 乃鼓琴作杵聲 世傳之 名爲確樂.

90) 일연 저, 최호 역해, 앞의 책, 57면. 권1 紀異篇 제1 射琴匣 (전략) 王然之開見 書中云 射琴匣 王入宮見琴匣射之 乃內殿焚修僧與宮主潛通而所好也 二人伏誅 (후략) 왕이 그렇게 여기고 뜯어보았다. 글에는 금갑을 쏘라고 쓰여 있었으므로 왕이 궁으로 들어가 금갑을 보고 쏘았는데, 이는 內殿에서 焚香하는 승려와 宮主가 몰래 간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이다.

래 현악기인지, 또는 변한이나 진한 지역의 재래 현악기인지는 전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위에서 예로 든 ‘물계자·백결 선생·사금갑 일화’ 속의 ‘금’이 ‘玄琴’을 의미하는 거문고가 아님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대부분의 인문학 서적에 거문고로 잘못 소개되고 있으며, 강의실에서도 역시 역사서 등의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의 모두가 거문고로 잘못 번역되고 있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이는 또한, 현악기의 통칭으로 쓸 수 있는 한자어 ‘琴’으로 표기된 모든 악기의 해석을 단지 ‘거문고’로만 간주하여 해석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오류들이 빈번한 것은 우리의 거문고에 부여된 중국 금의 정신성에 대한 효용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현악기에도 적용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 때 일본에 건너간 가야금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新羅의 琴’이란 뜻으로 시라기고도(しらぎこと)라 부르고 있다.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신라의 거문고’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성립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거문고’로 부를 수는 없는 것이며, ‘가야금’이 ‘거문고’를 대신하여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악기의 통칭으로 ‘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거문고’로 번역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재래 현악기로 판명되어진 악기들이 고문헌에 ‘玄琴’이 아닌 ‘琴’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악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훗날의 연구자들에 의해 거문고로만 번역, 또는 해석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통명사인 ‘금’이라는 문자 자체만을 ‘현악기의 통칭⁹¹⁾’으로 사용하거나 ‘현악기를 연주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전적 풀이에도 해당되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고유명사인 ‘현금’이라는 의미의 명칭인 ‘거문고’를 보통명사인 현악기의 통칭으로 사용했다거나, 다른 악기의 이름으로 번역되거나 해석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칭에 대한 천착을 함으로써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91) 금으로 통칭될 수 있는 악기의 이름: 거문고(玄琴), 가야금(伽倻琴), 해금(奚琴), 양금(洋琴), 월금(月琴), 고토(琴), 고금(古琴) 등의 국내외 전통현악기.

2. 거문고의 字意

거문고를 분명하게 ‘玄琴’으로 표기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악학궤범』 등 몇몇 문헌에 드물게 나타나 있는 반면, 문학작품 등의 문장에는 적절한 명칭들이 매우 다양한 어휘로 표현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문고의 이칭들을 논의하는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삼국사기』 권32 잡지 1과 『악학궤범』 7권 「향부악기도설」에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내용의 ‘玄琴’에 대한 기록이 있다.

당시에 玄鶴이 와서 춤을 추었으므로 ‘현학금’이라 하였다. 후에는 단지 ‘현금’이라고만 하였다.⁹²⁾

왕산악이 연주할 때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추어 ‘현학금’이라 하였고, 나중에는 ‘현금’으로 불렀다는 것인데, ‘玄鶴來舞’의 일화는 훨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기원 전 7세기의 중국 ‘금’의 명연주가인 師曠의 일화⁹³⁾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금의 정신성과 함께 거문고의 상징적 가치로 중국의 전설로부터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玄琴’에서의 검은 색은, 천자문에도 하늘의 색깔로 나타나 있어 하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거문고의 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관찰된, ‘琴의 理想’으로의 ‘하늘의 참뜻’과 맥을 같이하는 ‘자연그대로의 참뜻, 또는 처음으로의 복귀’라는 의미를 지닌 ‘反其天眞’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하늘이 준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련의 도구(以修身理性)가 될 수 있으므로, 天琴이란 의미의 이름으로도 귀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현금’으로 명명된 거문고의 이름은 하늘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거문고의 명칭에는 하늘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92)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166~167면. 於時玄鶴來舞 遂名玄鶴琴 後但云玄琴.

93) 학은 1천 년이 지나면 푸르게 되고 2천 년이 지나면 검게 된다고 하는데, 거문고의 명인 사광이 한 번 연주하자 검은 학들이 무리지어 모여들었다고 한다. (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인간의 심성을 길러주는 도구로서의 정신적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기하는 차원에서 '검은(玄)'에 대하여 덧붙여 본다면, 악기제작 과정과 연계하여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앞서 거문고의 재료에 대한 논의에서 초미금의 제작과정에서 불에 타다 남은 나무로 악기를 만듦으로써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행 전통현악기의 제작과정에서도 좋은 음질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불에 달군 인두로 오동나무 상판을 그을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정의 결과, 상판은 수분이 제거되어 음색의 맑음이 도모된 셈이고, 그을린 부분은 '검은색'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검은색'은 '높은 정신성이라는 화학적 성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음질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琴의 修飾 명칭과 異·別稱

고전문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문고'에 대한 한자표기의 명칭이 '현금'이 아닌, 현악기의 통칭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금'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전문헌에서 '금'이라 함은 거의 대부분이 '거문고' 또는 '중국 고금'⁹⁴⁾에 대한 명칭이며, '중국식 표기의 이칭'⁹⁵⁾ 또한 자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악기인 금의 명칭은 琴·五絃琴·七絃琴·玉琴·雅琴·舜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唐·宋이래로 점차 '古琴'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흔히 '금'이라 부르고 있다.

94) 하(夏)나라 (B. C. 21C -B. C. 17C)는 기록된 중국 최초의 나라이고 琴을 연주했다는 순임금은 그 보다 앞선 시대의 인물이니 古琴이 만들어진 시기는 3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의 고금의 구조는 130Cm 정도의 길이에 7현과 13개의 徽가 상판에 박혀있고, '고금'이라는 명칭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당(唐)·송(宋)이래로 점차 고금으로 불리게 되었다. 월금(月琴)이나 호금(胡琴) 등 '금(琴)'자를 붙인 악기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95) 雲和·素琴·瑤徽·瑤琴·焦尾琴·綠綺琴·嵇琴·桐君·桐絲·瑤箏·雅琴·蜀絃·琴高子·焦桐·金徽·天琴·水琴·漆琴·綠桐·蓬萊琴·海上琴·牙琴·谷口琴 등

오현금과 칠현금은 각각의 줄이 5개, 7개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오현금은 중국의 순 임금이 만들었다고 하여 ‘순금’이라고도 하며, 칠현금의 전신이다.

『악학궤범』에는 오현금에 대하여는 “줄이 5개인 것은 五行을 상징한 것이고, 허리 너비 4치는 四時를 상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칠현금에 대하여는 “문왕과 무왕이 각각 그 5현에 1현 씩 더하여 그 둘을 ‘문현’과 ‘무현’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칠현’이라 이르는 것이다.”⁹⁶⁾라고 하였다.

칠현금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삼국사기』에 쯤나라에서 고구려에 칠현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에 악기는 전해졌으나, 타는 법과 성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여서 왕산악이 개조하여 거문고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칠현금은 실제 연주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睿宗(1079~1122년, 재위: 1105~1122) 때 宋에서 들어온 금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오현금과 칠현금 모두 아악의 登歌⁹⁷⁾에 편성되어 각종 祭享에 사용되어졌다.

중국 금의 이칭인 옥금과 아금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기보다 소리의 아름다움과 맑음을 구슬에 비유하거나, 애칭으로 불렀던 것 같다. 순금은 순임금의 오현금을 일컫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진행되는 이칭의 논의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고전문헌에 나타난 금의 이칭은 매우 다양하다. 문장 안에서의 역할과 그것들의 효용에 대하여 각각의 예문을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정약용(丁若鏞, 1762~11836)의 시 「飲酒」⁹⁸⁾의 내용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雲和’이다. ‘운화’는 명나라 때 손승은(孫承恩, 1619~1659)⁹⁹⁾의 『桐君傳』에서 의인화된 賢良 중의 한 이름이기도 하다.

96) 이해구 역주a, 앞의 책, 740면. 제6권 雅部樂器圖說 琴: (전략) 絃有五 象五行也 腰廣四寸 象四時也. (중략) 文王武王各加一絃 以爲文絃武絃 是謂七絃.

97) 宗廟·文廟·景慕宮 등의 祭享에서 뒤편 위에서 연주하는 음악으로 登歌樂이라고도 한다. 뒤편 아래서 연주하는 음악은 軒架이다. 이것은 陰陽思想에 근거한 것으로 등가는 陽이고 軒架는 陰이다. 등가에서 연주되는 노래와 현악의 반주는 맑고 밝은 양, 즉 樂과 和를 상징한다. 이 음악에 맞춰 추어지는 佾舞는 文德을 기리는 文舞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98) 정약용, 『茶山詩文集』 제3권 詩. 「飲酒」 2수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99) 김창룡 편역, 『중국 假傳 30選』 (경기 파주: 태학사, 2006), 80면. 명나라 사람으로, 號는 毅齋. 벼슬이 禮部尙書에 이르렀다. 『讓溪草堂稿』의 저술이 있다.

麴米醺皆好	국미는 취하게 해주니 좋고
雲和抱更斜	운화를 안고 비스듬히 고쳐 앉아
獨思千載友	홀로 옛 친구(知音)를 생각하며
不向五侯家	권세가에는 발길을 향하지 않아
物態寧無變	만물의 상태는 변함이 없으련
吾生奈有涯	어찌 우리네 인생은 한계가 있을까
閒看庭日轉	뜰에 옮겨 가는 해 그림자를 보게
花影幾枝叉	꽃 그림자 몇 가닥으로 갈라지는가

(하략)

‘麴米라는 술에 취해 운화를 비스듬히 무릎에 세우고 옛 친구로 상징되어 온 백아와 종자기의 知音을 생각하고’까지가 거문고와 관련되어 있다. ‘운화’는 분명히 금의 이칭이지만, 비스듬히 무릎에 안는 것은 거문고의 연주자세가 분명하다. ‘운화’는 원래 ‘중국의 산 이름’인데 그 산에서 금을 만드는 재료, 즉 오동나무가 많이 난다고 하여 금의 이칭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고을시 「素琴」¹⁰⁰⁾에 나타나 있는 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無絃琴’에 대한 내용이다.

天籟初無聲	천뢰는 처음부터 소리가 없었는데
散作萬竅鳴	흩어져 만규의 소리를 만들어 낸다
孤桐本自靜	외로운 오동은 본디 스스로 고요했으나
假物成攬琤	다른 사물을 빌어 두드려 소리를 이룬다
我愛素琴上	내가 아끼는 줄 없는 거문고로
一曲流水清	맑디맑은 유수곡 한 곡을 타니
不要知音聞	지음이 듣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不忌俗耳聽	俗人이 듣는 것도 꺼리지 않네
只爲瀉我情	다만 내 느낌을 쏟기 위하여
聊弄一再行	그저 한두 줄을 희롱하며 즐긴다

100) 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제3권 고을시 草堂 三詠 「素琴」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曲終又靜默 곡조를 마치면 또 조용해지니
 復與古意冥 아득히 먼 옛 뜻을 따름이라

‘자연의 소리 천되는 처음부터 소리가 없었고, 地籟, 즉 땅 위에 있는 물건의 소리인 만규는 소리를 내는데, 본래 고요한 오동은 꽤 위에 현을 걸치고 조인 다음 사람의 손을 빌어 소리를 낸다하여 하늘의 본성인 자연의 소리를 품은 오동에서 사람의 손을 거쳐 인위적인 소리로 변화한다는 내용으로 문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줄 없는 거문고로 「流水曲」을 타면서 지기지우나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도 원치 않고, 그저 거리낌 없이 홀로 흥을 돋우며 오로지 한두 줄을 가지고 즐기다 침묵하니, 아득한 옛 뜻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옛 뜻이란 ‘陶潛이 성음은 알지 못하면서 줄 없는 素琴 한 장(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양 술과 쾌적한 일이 있으면 문득 어루만져 희롱하여, 그 뜻을 붙였다는 일화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술·거문고를 즐겨 스스로를 三酷好선생이라 칭하였던 이규보 또한,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학덕을 흠모한 나머지, 노장사상이 깃든 취미생활마저 닮고자 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규보의 고을시 「次韻和白樂天病中十五首并序」에서는, 白樂天의 시 제목을 그대로 따오기도 하는 등 그를 따르고자 시도한 점도 관찰된다.¹⁰¹⁾ 이와 같이 모방하여 온 정신세계의 표현은 훗날 조선 중기의 학자 서경덕(徐敬德, 1489~1546) 등의 「無絃琴銘」¹⁰²⁾에도 나타나게 된다.

101) 이규보 앞의 책, 「동국이상국후집」 제2권 고을시 「次韻和白樂天病中十五首并序」: 才名德望 雖不及白公遠矣 其於老境病中之事 往往多有類予者 因和病中十五首 以紓其情 才名이나 덕망은 비록 백낙천을 못 따르겠지만 늙어서 병이 난 다음의 일들은 나와 비슷한 점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그의 「병중십오수」에 화답함으로써 그러한 정을 펴보려는 바이다.

102) 서경덕, 『花潭集』 「花潭先生文集卷之二」 銘 「無絃琴銘」: 琴而無絃 거문고에 줄이 없는 것은 存體去用 體는 놓아두고 用을 뺀 것이다. 非誠去用 정말로 용을 뺀 것이 아니라 靜基含動 고요함에 움직임을 품고 있는 것이다. 聽之聲上 소리를 통하여 듣는 것은 不若聽之於無聲 소리 없음에서 듣는 것만 같지 못하며, 樂之刑上 形體를 통하여 즐기는 것은 不若樂之於無刑 형체 없음에서 즐기는 것만 못하다. 樂之於無刑 형체가 없음에서 즐기므로 乃得其 그 (오묘함) 얻게 되며, 聽之於無聲 소리 없음에서 그것을 들음으로써 乃得其妙 그 미묘함을 얻게 된다. 外得於有 밖으로는 ‘있음’에서 체득하지만, 內得於無 안으로는 ‘없음’에서 깨닫게 된다. 顧得趣乎其中 그 가운데에서 흥취를 얻음을 생각할 때 爰有事於絃上工夫 어찌 줄(絃)에 대한 공부를 하겠는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강석덕(姜碩德, 1395~1459)의 「春帖子」¹⁰³⁾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瑤徽’이다.

靑歸園菜嫩	푸른빛은 채소밭의 어린 싹에 돌아오고
白放野梅新	흰빛은 들매화에 새롭게 피었네
圭竇逢佳節	들창에 아름다운 계절을 만나
瑤徽賀小春	요휘로 소춘을 하례하네

靑白의 소박하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요휘’로서 소춘을 축하한다는 내용이다. 요휘는 아름다운 색깔의 옥으로 만든 금의 부품이다. 이글에서 거문고의 이름으로 ‘요휘’라는 이칭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푸른 빛과 흰 빛 그리고 요휘의 영롱한 빛이 어우러진 회화적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자 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작가인 강석덕은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배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글에 표현된 ‘휘’는 거문고에는 없는 부품이다. 왜가 없는 금에서는 음정을 나누어 내기 위하여 왼손으로 줄을 짚어야 하는데, 그 위치를 표시한 것이 ‘휘’이다. 금의 윗면에 둥근 모양으로 박은 크고 작은 열세 개의 자개 조각의 이름인 것이다.

정약용의 「賦得山北讀書聲」¹⁰⁴⁾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瑤絃’이다.

天地何聲第一清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소리가 제일 맑을까,
雪山深處讀書聲	눈 내린 산 깊은 곳에 글 읽는 소리일 것이라.
仙官玉佩雲端步	선관이 패옥 차고 구름 끝을 거니는 듯
帝女瑤絃月下鳴	천제의 딸이 달빛 아래서 요현(瑤絃)을 울리는 듯.
不可人家容暫絕	사람 사는 집에 잠시도 끊겨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
故應世道與相成	진실로 세상의 도리와 더불어 서로 이루어가야지
北嶠甕牖云誰屋	북쪽 산의 오막살이는 누구의 집인가
樵客忘歸解送情	나무꾼도 돌아가길 잊고 정을 보내준다네

103) 서거정 등, 앞의 책, 제19권 오언절구 「春帖子」 / 강석덕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104) 정약용, 앞의 책, 제6권 詩 松坡酬酢. 「賦得山北讀書聲」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천지에 맑은 소리는 눈 내린 깊은 산속에서 글 읽는 소리라, 仙境의 官員과 天女가 구름 위를 거닐고 금을 타듯이 사람 사는 곳에서는 잠시도 끊겨서는 안 되는 것이니, 청렴한 사람의 집에 나무꾼도 정을 준다’는 내용의 요현은 사전식 풀이처럼 아름다운 현악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금의 부속인 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 금의 이칭인 ‘요현’을 거문고의 이름으로 차용한 것에 대하여는 글 읽는 소리·패옥이 부딪는 소리 등의 맑은 소리와 상응하는 표현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의 이름으로 적합한 ‘요현’을 차용하여 문장 전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살린 것’으로 보인다.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의 칠언고시 「琴」¹⁰⁵⁾에 나타나 있는 ‘焦眉琴’¹⁰⁶⁾에 관한 고사’의 내용이다.

孤桐生矣于朝陽	아침 햇볕이 드는 곳에 솟아난 오동,
枝上嚙嚙鳴鳳凰	가지 위에는 봉황이 곱게 우네.
異質豈免斤斧戕	바탕이 다르니 어찌 도끼로 죽임을 면하겠는가,
爨下得材嗟非常	부뚜막 아래에서 얻은 재목이 예사롭지 않구나.
巧匠斲成琴一張	재주 있는 장인이 깎아 한 장의 거문고를 만드니,
佳人彈作聲絃洋	아름다운 사람이 타 아양곡의 성음을 이루네.
涼宵璧月射虛堂	서늘한 밤 옥같이 둥근 달이 빈 대청을 비치는데,
羽客滿座飛瓊觴	신선들이 자리에 가득 앉아 옥잔을 돌리네.
主人倚醉吟短章	주인이 취기에 의지하여 짧은 문장을 읊어,
呼兒筆之金字光	아이를 불러 쓰게 하니 금자가 빛나네

가지 위에 봉황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산 남쪽의 오동나무 한 그루 베어, 불 때다가 얻은 재목으로 재주 있는 장인이 거문고 한 틀 만들어, 아름다운 사람이 타 백아의 「絃洋曲」을 탄다는 내용이다. ‘爨下得材 부뚜막 아래에서 얻은 재목’이라는 문구에서, ‘한나라 채옹이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오

105)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제4권 칠언고시 「琴」 / 홍귀달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106) 초미금은 곧 금을 가리킨 말로, 채옹이 일찍이 이웃집에서 밥을 짓느라고 때는 오동나무가 타는 소리를 듣고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 줄을 알고 그 타다 남은 오동나무를 얻어 거문고를 만들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동나무로 금을 만들어 한 끝이 났으므로 초미금이라 하였다는 고사를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초미금 역시 여러 문장에서 금의 이칭으로 자주 발견되고 있다.

신흙(申欽, 1566~1628)의 오언고시 「贈淸陰」¹⁰⁷⁾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綠綺琴'이다.

以君白雪歌	백설가와 닮은 그대의 노래가
和我綠綺琴	나의 녹기금에 어울렸네
黃鍾有餘響	황종의 여음(餘音)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
且莫彈商音	당분간 상음(商音)을 타지 말게
悲風西北來	쓸쓸하고 구슬픈 바람이 서북에서 불어와
潸潸浮雲陰	넓고 아득한 뜬구름은 흐리기만 한데
世無子野耳	세상에 자야의 귀가 없으니
誰歟諧我心	누가 내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중국 당나라의 시인 잠삼(岑參, 715~770)¹⁰⁸⁾의 「白雪歌送武判官歸京: 흰 눈이 내리는 날 무관관의 귀경을 환송하며 노래하다」과 같은 노래를 불러주니, 梁王이 司馬相如에게 하사했다는 명금인 녹기금¹⁰⁹⁾으로 화답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은 黃鐘¹¹⁰⁾이 나지막하고 맑게 울리고 있으니, 쇳소리 같이 단단한 슬픈 商音¹¹¹⁾을 타지 말라고 하였다.

우선 백설가와 녹기금에서는 흰 눈과 초록 비단의 색상이 떠올려지게 된다. 단순히 색상만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설가는 이별의 노

107) 신흙, 『상촌선생집』 제5권 시 오언고시 60수 중 「贈淸陰」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108) 잠삼(岑參): 중국 당나라의 시인으로 시의 품격이 높았고 岑嘉州라 칭함. 잠삼의 「白雪歌送武判官歸京」에 “北風捲地白草折 胡天八月即飛雪 忽如一夜春風來 千樹萬樹梨花開 朔風이 대지에 세차게 불어 백초가 꺾이니, 오랑캐 하늘 팔월에 눈이 날린다. 홀연 하룻밤 사이 춘풍이 불어와, 천만 그루 나무에 배꽃이 핀 듯해라.”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09) 녹기금은 명금의 이름으로, 사마상여가 일찍이 「玉如意賦」를 지어 양왕에게 바치자 양왕이 기뻐하여 사마상여에게 하사했다는 금.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10) 국악을 비롯한 동양 음악에서 음률의 기본이 되는 십이율 중 가장 긴 것이며, 陽律에 속한다. 계절로는 음력 11월, 간지는 자(子), 나머지 음들은 12地支와 같다. 五音에서는 羽에 해당한다. 12律名은 黃鍾・大呂・太簇・夾鍾・姑洗・仲呂・蕤賓・林鍾・夷則・南呂・無射・應鍾이다. 12律呂의 오행은 황종은 수(水), 대려는 토(土), 태주・협종은 木, 고선은 土) 중려・유빈은 火) 임종은 土, 이척・남려는 金, 무역은 土, 응종은 水이다.

111) 宮・商・角・徵・羽의 오행은 土・金・木・火・水이고 方位는 中央・西・東・南・北이다.

래이고, 녹기금의 이면에는 卓文君을 사랑했던 사마상여가 「鳳求凰」을 지어 눈물겹게 연인을 취할 수 있었던 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문장에서는 백설가와 녹기금의 이면에 녹아든 내용이 서로 背馳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애뜻한 정만은 절절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평온하고 바른 음률인 ‘황중’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 이별의 슬픈 ‘상음’은 타지 말라고 하면서 앞에 제시된 정서를 중첩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世無子野耳 誰歟諧我心’에서는 귀가 대단히 밝아 음률에 밝게 통했다는 춘추 시대晉나라의 악사였던 사광(子野는 字)¹¹²⁾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줄 이가 없다고 하였다. 다른 예문들에서는 백아와 종자기를 知音의 예로 흔히 들었는데, 이 시의 작가 신흠은 중국 역대의 악성으로 알려져 있는 사광을 지음의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이점에 대하여는 ‘황중’이나 ‘상음’ 등 음률에 직접 관련된 용어들을 시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사광을 지음의 대상으로 표현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백아가 연주하는 내용의 이면을 읽은 종자기보다는, 음률에 정통한 사광이 이 시를 이끌어 가는데 적합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려 말의 문신이자 학자이었던 이색(李穡, 1328~1396)의 시 「卽事」¹¹³⁾에 표현된 혜강(嵇康, 223~263)¹¹⁴⁾의 고사를 통한 ‘嵇琴’에 대한 내용이다.

日落三商路欲迷	서녘으로 해가 거듭 떨어져 길은 어두워지는데
一痕斜月在溪西	기울어진 달빛의 자취는 시내 서쪽에 있구나
不嫌草露霑衣濕	풀 이슬에 옷 젖는 건 아랑곳없이
有興携琴欲訪嵇	흥이 일어 거문고 들고 혜강을 찾고 싶어진다

112) 사광은 춘추시대 진나라 악사로 음률에 매우 밝았고, 현명하여 무엇이든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하였다. 예컨대 진나라 제후가 사기(麋祁)에다 궁전을 세우자 위유(魏榆) 지방에서 돌이 말을 하는 괴변이 발생하였다. 진후(晉侯)가 그 까닭을 묻자 사광이 대답하기를 “作事不時 怨讟 動于民 則非言之物而言 일이 때에 맞지 않으면 원망이 백성들을 요동시켜 말 못 하는 물건이 말을 합니다.” 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 8年),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13) 이색, 『목은시고』 제4권 詩 「卽事」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114) 진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그는 특히 금을 타고 시 읊기를 즐기었고, 그가 창제한 금 즉 혜금도 세상에 전한다고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해 떨어져 어둑한데 기울어진 달빛이나마 흥을 돋우니 이슬에 옷 젖는
 건 아랑곳없이 거문고 타고 시 읊기를 즐겼다던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
 강을 찾고 싶다는 내용이다. 은일의 배경이 그려진 글이다. 혜강이 창제했
 다는 금을 ‘혜금’이라고 하여 세상에 전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혜강을 통
 하여 그가 창제했다는 혜금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에서는 ‘은
 둔생활을 했던 혜강을 시상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삶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의 시 「重午」¹¹⁵⁾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桐君’이다.

老逢重午日	늙어서 단오절을 맞이하니
節序去沄沄	계절은 물처럼 흘러가고
蒲綠浮杯面	파란 창포는 술잔 표면에 뜨고
榴紅妬舞裙	빨간 석류는 펄럭이는 치마를 시샘하는구나
當門憐艾父	문호 위에 걸린 애보 ¹¹⁶⁾ 는 가련하고
狎座愛桐君	자리에 가까이 앉은 동군은 사랑스러운데
今日江心鏡	오늘은 저 강심경 ¹¹⁷⁾ 을
何人幸見分	어떤 사람이 행여 나에게 보여줄까

세월이 흘러 늙어서 맞이한 봄날, 술잔 위의 창포까지는 우리 땅에서 보
 고 느낄 수 있는 광경이다. 시샘의 대상이 바뀐 빨간 석류와 치마는 백거
 이(白居易, 766~826)의 시에 “어느 곳에 봄이 하 깊었느냐, 기녀의 집에 봄
 이 깊었구나. 눈썹은 버들잎을 속일만하고, 빨간 치마는 석류꽃을 시샘하
 누나.¹¹⁸⁾”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글에 의인화된 ‘동군’은 ‘금’의 別稱으

115) 서거정, 『사가시집』 제31권 詩類 「重午」(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116) ‘애보(艾父)’는 쭉을 뜯어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艾人’을 말한다. 또는 ‘艾翁’이라고도 한다.
 옛 풍속에 단오절이면 邪氣를 물리치는 뜻에서 이 애인을 집집마다 문호 위에 걸었던 데서 온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17) 강심경(江心鏡)은 당나라 때에 揚州에서 진상하던 거울 이름이다. 매년 단오일에 長江 한가운데
 서 만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18) 백거이, 「和春深」: “何處春深好 春深妓女家 眉欺楊柳葉 裙妬石榴花 어느 곳에 봄이 하 깊었
 냐, 기녀의 집에 봄이 깊었구나. 눈썹은 버들잎을 속일만하고, 빨간 치마는 석류꽃을 시샘하
 누나.”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로 명나라 때 손승은의 「桐君傳」에 의인화된 오동나무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시에는 ‘치마를 시샘하는 석류’·‘가련한 애보’가 의인화 되어 있다. ‘동군’도 역시 오동나무의 의인화된 이름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시어의 의인화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석류’와 ‘애보’에 이어 의인화된 ‘동군’을 ‘금’의 이칭으로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琴銘」 119)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桐絲’이다.

桐絲張刺史堂	금을 벼슬아치의 당에 골라 놓고
奏象夏禁濮桑	象·夏樂만을 연주하고 鄭·衛의淫樂을 금하였네
聞武城夫子笑	무성의 현가 소리를 들으신 공자께서 웃음 짓고
賡舜歌鳥獸舞	순 임금의 남풍가에 화답하면 새와 짐승은 춤을 춘다
琴乎琴乎猶古	琴아 琴아 예전 그대로구나
爾聲淡欲心平	담담한 네 소리에 욕심이 평정되고
與政通太始形	政事와 통하는 태고의 모습 드러내니
爾音和物皆春	화락한 네 소리에 만물이 함께 봄을 만나
侑風宣萬化醇	춤 ¹²⁰⁾ 과 국풍이 일어나고 온갖 교화로 순후해지니
誰其主牛山人	누가 그 주인인가 바로 우산 사람이라네

먼저 ‘동사’에 대해 살펴보면, ‘桐絲張刺史堂’에서 ‘동사’는 堂의 소재가 우리나라이면 ‘거문고’일 수도 있겠으나, ‘聞武城夫子笑’에서 듣는 絃歌와 ‘賡舜歌鳥獸舞’에서의 순 임금의 「南風歌」 그리고 ‘琴乎琴乎猶古’에서의 ‘금’은 중국 고사 안의 ‘古琴’을 소개한 것이 분명하다.

내용을 보면, 옛 음률 중에 주 무왕이 문왕의 무공을 상징하여 지은 악무가 나타나 있다. 이 악무에는 칼이나 창 따위로 때리고 찌르는 살벌한 擊刺의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가을 소리에 비유한다는 象樂¹²¹⁾이나 방패

119) 송시열, 『宋子大全』 제150권 명(銘) 「琴銘」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번역본)

120) 줄 춤. 가로 세로 늘어서서 추던 춤으로 수는 중횡이 같음. 제사 때 추었는데, 주제(周制)의 경우, 천자는 가로 세로 8佾, 곧 각 8인씩 64인, 제후는 6일 곧 각 6인씩 36인, 대부는 4일 곧 각 4인씩 16인, 사(士)는 2일 곧 각 2인씩 4인이었음.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21) 김학주 역저, 『詩經』(明文堂, 2007) 652면. 「周頌」 ‘유청(維淸)’의 註解에 이것도 문왕을 제사

와 깃털을 들고 춤을 추는 夏나라의 干羽 같은 舞樂 등을 연주하고, 鄭나라나 衛나라의 음란한 음악은 금(禁)하였다고 하였다¹²²⁾. 또한 공자의 제자인 子游가 울 고을의 한 작은 읍 무성을 다스릴 때 ‘현가’가 울려 퍼졌던 일화와, 순 임금의 「남풍가」를 태평성대의 훈훈함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告子 長句 上의 제8장에 나오는 「牛山之木」¹²³⁾을 인용하여 우산 사람이 주인이라 하였다. ‘중국 고금의 효용이 담긴 고사들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금의 재료인 오동나무(桐)와 명주실(絲)을 써서 동사(桐絲)를 금의 이칭으로 표현’하였다.

신흙의 오언고시 「苦寒」¹²⁴⁾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雅琴’이다.

烈風夜簸壑	세차게 불던 밤바람은 골짜기를 흔들어대고
霜林朝盡脫	서리 내린 숲은 아침에 잎이 다 떨어졌는데
山翁不出門	산 늙은이는 문을 나가지 않고
土爐火初活	질화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네
曠野少行人	광활한 들판엔 다니는 사람도 적고
飢鳥啄枯柿	굶주린 까마귀는 마른 감나무를 쪼는데
長安五侯宅	장안의 고관대작(公·侯·伯·子·男)들 집에는
炙手亦可熱	대단한 권세(炙手) 어찌나 열화 같던지
涸陰吾所安	혹독한 추위를 나는 편히 여기니
炎炎或易滅	이글거리는 불은 혹 꺼지기 쉬운 걸
時復援雅琴	때로 거둬하여 고상한 거문고를 끌어당겨
陽春歌欲闋	양춘가를 타서 마치고자 하노라

지내는 노래이다(集傳). 「모시서」에선 象舞를 출 때 부르는 樂歌라 하였다. 상무는 전쟁을 할 때 싸우는 모습을 상징하는 춤이다(毛傳).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22) 양 인리우(楊蔭瀏) 지음·이창숙 옮김, 앞의 책, 299면. 역대 통치자들이 배척한 음악들이다. 그러나 혜강은 예술적 관점에서 가장 미묘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였다.

123) 주희·한상갑 역b, 앞의 책, 294면. 孟子曰:「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산의 나무가 아름다웠는데 큰 나라의 밖에 있으므로, 도끼로 벌목을 하니 어찌 전과 같이 아름답겠는가? 낮과 밤에 성장하는 것과 비와 이슬이 윤택하게 하는 것에 썩어 나지마는, 소와 양이 또 나는 대로 먹는지라, 그러므로 저렇듯이 민둥산이 되었는데, 사람이 그 민둥산을 보고 일찍이 나무가 없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산의 성품이겠느냐?”

124) 신흙, 앞의 책, 제6권 詩 五言古詩 「苦寒」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번역본)

天道貞則元 천도는 정이 가면 원이 와서
 世運互推歟 세상 운수가 서로 물려주거나 빼앗으며 변천하는 법이지
 造化本無偏 조화는 본디 치우침이 없으니
 歲暮甘短褐 세모에 거칠고 짧은 옷도 달게 여긴다오

세찬 바람과 서리에 낙엽이 다 떨어진 허허벌판엔 사람도 별로 없고, 굵은 까마귀가 마른 감나무를 쪼는 을씨년스러운 날, 노인은 불을 피우며 집에 있는데, 장안의 귀족들은 열화와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글거리는 불은 곧 꺼질 수도 있어 오히려 추위를 즐기겠다면서 때때로 ‘아금’을 끌어당겨 옛날에 고상하기로 유명했던 초나라의 가곡인 「양춘가」 한 곡을 연주하고자한다는 것이다.

『주역』의 「건괘」에서 유래된 하늘이 갖추고 있는 4가지 德, 또는 事物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元亨利貞¹²⁵⁾을 인용하여 변천할 수밖에 없으며, 치우침이 있을 수 없는 天道를 내세우며, 한 해가 저물어 설을 앞둔 추운 날에도 천한 사람들이 입던 무명베로 짠 짧고 거친 옷을 달게 입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일반 백성들이 혹독한 겨울을 어렵게 버티며 살아가는 동안, 고관대작들이 권세와 탐욕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작가는 청렴한 생활을 고집하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아금’의 고상함을 즐긴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아금’은 내용 전체에 청렴함과 고상함 등으로 나타나 있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주하는 악기가 ‘거문고’인지 ‘금’인지는 이 글의 내용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찍이 ‘초나라’에서 금으로 연주하던 ‘양춘가’를 탄다는 내용으로 보아 그 정신성은 금의 그것이며, ‘아금’ 또한 금의 이칭이며, 거문고의 이름으로 차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권필(權鵬, 1569~1612)의 「行路難」¹²⁶⁾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蜀絃’

125) 정(貞)과 원(元)은 만물의 시초와 성장, 이름과 완성을 뜻하는 四德, 즉 元亨利貞을 이룬다. 『주역』의 「건괘」에 “건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乾 元亨利貞). 원형이정은 보통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자라고 삶을 이루고 완성되는, 사물의 근본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원은 만물이 시작되는 봄(春)에, 형은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夏)에, 이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가을(秋)에, 정은 만물이 완성되는 겨울(冬)에 해당된다. 원형이정은 각각 仁·義·禮·智를 뜻하기도 한다. 天道가 윤행함을 말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이다.

吳歛且勿叫	오유(吳歛)도 부르지 말고
蜀絃且勿彈	촉현(蜀絃)도 뜯지 말고
四座各傾耳	주위에 앉은 사람들이여 귀 기울여
聽我行路難	내 어렵고 험한 세상살이(行路難) 들어 보오
何處路最難	어느 곳의 길이 가장 험한가
最難在長安	가장 험한 길은 장안에 있네
長安大道傍	장안의 대로 옆으로는
甲第遙相望	저택들이 마주보고 늘어서 있으니
借問誰所居	시험 삼아 물어 본다 누가 살고 있을까
許史與金張	허사와 김장 ¹²⁷⁾ 이 살고 있다네
軒車溢閭巷	수레는 거리에 넘쳐나고
絲竹鳴中堂	관현(管絃)의 소리는 집안을 울린다
手握造化關	손으로 조화의 권병(權柄)을 쥐었으니
天地隨低昂	천지가 손길 따라 오르내린다
笑或吐春華	웃으면 혹 봄꽃을 토해 내고
怒或飛秋霜	노하면 혹 찬 서리가 흩날리지
一言不相入	한마디 말이 서로 융합하지 않으면
瞬息成禍殃	순식간에 재앙을 받느니
嗟爾遠方士	아 그대들 먼 지방의 선비들이여
營營欲何求	열심히 하여 무엇을 구하려드는가
歸去復歸去	돌아가라 부디 돌아가라
桂樹山之幽	계수나무 우거진 산 깊은 숲으로

춘추시대 뫼나라의 노래인 「오유」도 부르지 말고, 蜀 땅에서 만들어지

126) 권필, 『석주집』 제1권 오언고시 「行路難」 촉현(蜀絃)은 蜀에서 만들어지는 금인 蜀琴의 현(絃)이다. 한나라 때 촉 땅에서 살았던 사마상여가 금을 잘 연주하여 그가 사용하던 금을 촉금이라 했던 데서 유래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127) 허사는 한 선제(漢宣帝)의 후비(后妃)인 허 황후(許皇后)의 집안과 한 선제의 조모(祖母)인 사양제(史良娣)의 집안을 합칭한 말인데, 모두 황실(皇室)의 외척(外戚)으로서 총귀(寵貴)를 극도로 누렸다. 김장은 한(漢)나라 때 칠세(七世)에 걸쳐 고관대작(高官大爵)에 올라 부귀영화를 극도로 누렸던 김일제(金日磾)와 장안세(張安世)를 가리킨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는 금인 蜀琴의 蜀絃도 뜯지 말고,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험한 길은 장안에 있다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고 하고 있다.

長安의 대로 옆으로 권문세가의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마을의 거리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탄 수레가 즐비하게 늘어서고 집안에서는 풍악 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마저 가졌으니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 있으니, 무언가 구하고자 온 먼 지방 선비들에게 재앙을 당하기 전에 어서 계수나무 우거진 깊은 산중의 숲으로 들어가라고 일러 주고 있다.

이 글에서 ‘축현’은 금의 이칭 중 하나이며, 한(漢)나라 때 촉 땅에서 살았던 사마상여가 금을 잘 연주하여 그가 사용하던 금을 ‘축금’이라 하였는데, 그것의 줄(絃)을 이르는 것이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오유’를 부르거나 ‘축현’을 뜯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화락함으로 오유를 부르거나 축현을 연주하는 분위기를 표현하려면, 태평성대라 할 만큼의 사회적 환경이 배경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무성의 현가가 유행하는 사회적 시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화평한 분위기에서 연주할 수 있는 오유나 축현을 앞세운 다음, 당시대를 함께 살아가던 권문세가의 전횡으로 백성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실상을 앞의 사실에 빗대어, 이 글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화락함을 제시할 때도 이웃 중국의 옛날 노래와 古樂器가 등장하였고, 권문세가의 잘못됨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의 사례를 인용한 점’이 나타나 있다.

진화(陳灌, 1180?~1220?, 생몰미상)의 「次韻朝守」¹²⁸⁾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舜琴’이다.

淸切天居近	맑고 엄숙한 임금 계신 곳 가깝고
徘徊閣道深	이리저리 돌아 지붕 입힌 길이 깊구나
樓明初榜殿	처음 방(榜) 붙인 전각(殿閣)에 등불이 밝고
月落半庭陰	달이 저 뜰(庭) 절반이 그늘진 때

128) 서거정 등, 앞의 책, 제9권 오언율시 「次韻朝守」 / 진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煙色籠溫樹 안개는 온실에 가득 차서 나무를 적시고
 風聲度舜琴 바람에 실려 오는 순금(舜琴)의 가락에
 醉顏侵夜起 취한 얼굴로 밤이 가기 전에 일어나니
 殘夢雜微吟 다 못 깬 꿈결에 가늘게 읊조리네

궁궐의 깊숙한 곳에서 守職을 하며, 전각의 등불은 밝고, 뜰은 달이 저 반쯤은 어두운데, 안개는 온실의 나무를 적시며 가득 차고, 순금의 가락이 바람에 실려 오는데, 거나하게 취한 작가는 깊은 밤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꿈도 덜 깨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무언가를 가늘게 읊조린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순임금이 「남풍가」를 부르면서 댔다는 오현금인 순금이 등장하는데, 문장 안의 장소가 궁궐이므로 당시 고려의 임금인 신종·희종·강종·고종임금 중 어느 한 왕이 탄 가락이었을 것으로 막연하게 추정을 해본다. 그러나 1170년(의종 24)에서 약 100여 년 간은 무신들의 반란·농민과 노비의 봉기가 지속된 시절¹²⁹⁾이었으니, 왕이 ‘순임금을 모방하여 아무리 남풍가를 부르며 거문고를 댔다고 한들 태평성대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작가인 진화 개인의 애국심에서 발현된 한낱 요원(遙遠)한 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중엄의 「次韻答仲說」¹³⁰⁾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焦桐’이다.

塞外風霜故舊疏 변방 밖의 모진 삶에 옛 친구가 드문데
 淸癯今作病相知 파리하게 여위어 이제 병든 모양을 알겠구나
 半簾寂寞三更月 반쯤 내린 발 적막함에 한밤중의 달이 들고
 四壁蕭條一卷書 사방 벽이 쓸쓸한 방에는 한 권의 책이라
 早識塞翁無失得 변방 늙은이의 득실이 없음을 일찍이 알았고
 靜看天道有盈虛 하늘 길을 고요히 보니 차고 기움이 있구나
 峨洋從古知音少 옛 부터 아양(峨洋)에는 지음(知音)이 적거니
 獨抱焦桐臥樊廬 홀로 초동(焦桐)을 안고 오두막집에 누워 있다네

변방에서 어려움과 고생을 겪으며 사니 옛 친구들은 찾아와 주지 않는

129) 이기백, 앞의 책, 169~178면 참조.

130) 서거정 등, 앞의 책, 제8권 칠언율시 「次韻答仲說」 / 성중엄

데, 몸집이 파리하게 여위어 호리호리하게 보이는 모양이 병들었음을 알겠구나. 적적하고 고요한 반쯤 내린 발 사이로 한 밤중(三更, 子時)의 달이 덩그러니 들어오는데, 사방 벽이 쓸쓸한 방 안에는 한 권의 책뿐이라, 여기에서 작가는 늙고 병들고 외로운 환경에서 가난하나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晩年을 밝히고 있다.

天體의 運行을 살펴 달이 차고 기우는 이치인 ‘盈虛之理’가 있음을 깨우치면서 백아가 금을 연주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종자기뿐이었음으로 아양곡¹³¹⁾을 알아듣는 ‘지음’이 적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홀로 초동을 안고 작은 오두막집에 누워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 금의 이칭으로 표현된 ‘초동’은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의 불 속에 넣었었기 때문에 끝부분이 탔다고 해서 ‘초미금’이라 불렀던 악기이며, 漢나라 靈帝 때 ‘中郎’이란 벼슬을 했던 채옹이 제작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또 이 글의 내용만으로는 ‘초동’이 ‘금’인지 ‘거문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악학궤범』이 편찬된 시기이므로 아악기인 금을 소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성중엄 스스로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거문고에 금의 이칭인 ‘초동’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수도 있다. 아울러 ‘악기와 연주되는 음악에 대한 정신성에 있어서도 역시 중국 금의 명인이었던 백아와 그의 지음이었던 종자기에 대한 고사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익(趙翼: 1579~1655)의 시 「溪上酒席贈林僉知竝在座諸賢」¹³²⁾ 중에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은 ‘綠桐’이다.

相將靑眼客 함께 이끌어 반갑게 모인 손님들
俱是白頭翁 모두 다 백발의 노인들이네

131) 백아는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대가로 그의 곡조를 벗인 종자기(種子期)가 유일하게 알아들었다고 한다.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서 고산(高山)에 뜻을 두자 종자가 ‘높고 높기가 마치 태산 같도다.(峨峨兮若泰山)’하였고, 또 유수(流水)에 뜻을 두자 ‘넓고 넓기가 마치 강하 같도다(洋洋兮若江河)’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종자가 죽자 백아는 자신의 거문고 곡조를 올바르게 알아듣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거문고의 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양곡(峨洋曲)이란 곡조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자신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知己)을 지음(知音)이라고 하는 고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고사는 『列子』의 「湯問」에 보인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32) 조익(趙翼), 『포저집』 제1권 詩 사람들에게 지어 준 시 / 「溪上酒席贈林僉知竝在座諸賢」 2수 중 두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節序三秋過 절기의 차례대로 가을은 지나가고
 溪聲鳴座下 시냇물은 앉은 자리 아래서 울고
 山色落盃中 산의 빛은 술잔 속에 떨어지니
 觴詠自爲樂 잔 들고 노래하면 절로 즐거워지는 걸
 何須奏綠桐。 어찌 꼭 녹동을 연주해야 되리.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반갑게 모여 앉아 시냇물과 산 빛이 어우러진 늦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술잔 들고 노래하면 절로 즐거워질 것이므로 굳이 풍악을 울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녹동’은 푸른 오동나무로 만든 금이라는 이칭이며, ‘綠桐琴’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이백(李白: 701~762)의 시 「前有一樽酒行」의 2수 중 두 번째 시¹³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琴奏龍門之綠桐 연주하는 금은 龍門의 綠桐으로 만들었고’라는 내용과 함께 나타나 있다. 용문은 중국 황허 중류의 급한 여울목으로 잉어가 이곳을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이 시에서의 금의 이칭으로 ‘녹동’을 사용한 것은 ‘시냇물·산 빛 등의 자연과 함께 문장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금의 이름으로 채택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중기의 문신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시 「呈蓬萊楊士彥仙史」¹³⁴⁾에 나타나 있는 이칭은 ‘蓬萊琴’이다.

楓嶽有儒仙 가을의 금강산에 신선 같은 선비가 사는데
 其人美如玉 그 사람은 옥과 같이 아름다운데
 偶然辭煙霞 우연히 안개와 노을과 이별하고
 來躡王喬舄 내려와서 왕교의 신발¹³⁵⁾을 신었다네

133) 琴奏龍門之綠桐 玉壺美酒清若空 催弦拂柱與君飲 看朱成碧眼始紅 胡姬貌如花 當壚笑春風 笑春風 舞羅衣 君今不醉將安歸 (불주(拂柱): 금의 줄을 당기는 각지(피크), 龍門之綠桐: 용문에서 자라는 오동은 가지 없이 자라며 높이가 百尺이 넘어 최상품의 쉼을 만들므로 진귀한 보물이요, 값이 비싸 술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니 용문의 녹동금(綠桐琴)은 과장인 듯. 호희(胡姬): 술 따르는 서양미인인 접대부로 그 당시 이름있는 술집에서는 서양여인을 고용하였다 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34) 김성일, 『학봉속집』 제1권 시 「呈蓬萊楊士彥仙史」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135) 신선들이 신는 신발로, 지방 수령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바, 양사언이 회양부사(淮陽府使)가 된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현종(顯宗) 때 하동(河東) 사람 왕교(王喬)가 섭영(葉令)이 되었는데, 신술(神術)이 있어서 매달 삭망(朔望)에 대궐에 나와 조회에 참석하였다. 황제가 그가 자주 오는

三年作吏隱 삼 년 동안 관리되어 은거하니
 淸標驚海俗 고결한 품격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有如衆鷄群 마치 닭의 무리와 같은 군중 속에서
 昂昂見孤鶴 받들고 공경할 만한 외로운 학을 보는 듯하였다
 手中蓬萊琴 손 안에 든 봉래금에는
 天和滿其腹 하늘의 조화가 그 안에 가득하였으니
 一彈民解慍 한 번 타면 백성들의 노여움이 풀리고
 再撫鳳來集 두 번 타면 봉새들이 모여들었다네
 (하락)

양사언(楊士彦, 1517~1584)에게 바치는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사언의 고매한 인품과 이상이 배어든 봉래금의 연주로 백성들을 현실적으로 교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선과 같은 수려한 용모를 지니고 은자처럼 지냈다는 내용으로 보아 ‘도교적 또는 신선사상의 차원에서 양사언을 칭송하며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손에 든 봉래금 안에 하늘의 기운, 즉 天真과 같은 하늘의 참뜻이 충만했다는 표현에서 ‘유가적 이상과 가르침이 문장의 이면에 들어있다는 점’이 파악된다.

봉래금에 대하여는 “僉知 朴宗賢은 일찍이 봉래 양사언과 거문고 친구가 되어 친히 지냈다. 봉래가 거문고 배에 글 두 편을 적고 「至樂歌」라 하였는데, 세상에서 ‘봉래금’으로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라는 홍대용의 담헌서의 「蓬萊琴事蹟」에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¹³⁶⁾을 찾아

데도 수레가 보이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태사(太史)로 하여금 몰래 엿보게 하였다. 그러자 태사가 그가 올 때에는 두 마리의 오리가 동남쪽에서 날아온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오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그물을 펴서 잡으니, 단지 신발 한 짝만 있었다. (『후한서(後漢書)』 卷82上 「방술열전(方術列傳)」 왕교(王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36) 湛軒書 內集 卷四 南陽洪大容德保著 五代孫榮善編 後學洪命憲校 / 補遺 / 蓬萊琴事蹟: 朴僉知宗賢, 高祖妣朴夫人祖考也, 公卽許草堂曄之外孫. 草堂知音善鼓琴, 公常在傍潛聽. 草堂嘗自外而入, 室中有琴聲, 音韻淸高, 竊聽良久, 開戶視之, 則乃外孫僉知公, 時年九歲也. 草堂大奇之, 因盡傳其所學. 僉知公以天才之高, 得草堂之所授, 遂於樂無所不通而最精於琴, 所畜多名材, 蓬萊琴其一也. 公嘗與楊蓬萊士彦, 爲琴友甚善, 蓬萊題兩詞於琴腹, 名曰至樂歌, 世稱爲蓬萊琴者以此. 公沒, 子孫零落失業, 朴夫人取蓬萊琴及短琴, 一置之家中, 嘗以爲吾子孫中如有解此者, 嘗以是傳之. 仲從祖留守公始學之, 中輟而不能終焉, 琴雖藏之宗家, 短琴則借人而失之, 樸之左右五言二十字, 卽僉知公之詩與書云尔. 丙子九月, 聞于仲從祖父而記. 蓬萊詞, 一曰 綠綺琴, 伯牙心, 鍾子始知音, 一鼓復一吟, 泠泠虛籟起遙岑, 江月涓涓江水深, 一曰 玲瓏石上桐, 一鼓一吟三十春, 當時鍾子棄我去, 玉軫金徽生素塵, 陽春白雪廣陵散, 倘寄蓬萊山水人, 世多模刻, 或有亂眞者, 琴品頗高, 大絃益雄渾, 尤宜於平調, 古樂師咸德亨常喜鼓之, 稱以上品, 其後俗師輩惟取婉軟便手, 常苦其大剛, 少鼓之, 指已告痛矣. 첨지(僉知) 박종현

볼 수 있다.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의 「醒言」에서는, 홍대용이 節使를 따라 북경에 들어갔다가 청나라의 학자 潘庭筠을 만나게 되어 해외의 친구로 생각하고 깊은 우의를 맺었다고 하였는데, 어느 날 반정균이 홍대용과 김재행을 추억하며 지은 절구 「憶洪金二絶曰」¹³⁷⁾에 ‘海上琴’이 나타나 있다.

耳根久斷湛軒琴	담헌의 거문고 소리 들어 본 지 오래이니
愁絕成連海上心	성련의 해상금 안에서도 매우 걱정스럽구나
聞有嗣人能述作	아들이 저술하는 가업을 이을 수 있다고 들었으니
好將操縵繼清音	음색 조정을 잘 배워 장차 청음을 잘 이었으면

이 글을 통해 반정균은 담헌을 그리는 마음을 담헌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싶은 것으로 대신하였고, 본인의 시름겨움을 성련의 ‘해상금’에 비유하

(朴宗賢)은 우리 고조모(高祖母) 박 부인(朴夫人)의 조고(祖考)이니, 공(公) 침지공(僉知公)은 곧 초당(草堂) 허엽(許曄)의 외손이다. 초당은 음을 잘 알고 거문고도 잘 탔다. 공은 늘 곁에 있으면서 가만히 들곤 하였다. 초당이 일찍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다가 방 안에서 밝고 높은 거문고 소리가 들리므로 오랜 후에 문을 열고 보니 곧 외손인 침지공이었다. 이때 그는 나이 아홉 살이었다. 초당은 크게 기이하게 여기고 자기가 배운 바를 모두 전해 주었다. 침지공은 천부의 재질에다 초당의 전해준을 얻게 되자 드디어 악(樂)에 있어서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특히 거문고에 정통하였다. 비축한 거문고 중 명기도 많았으니. 봉래금(蓬萊琴)이 그 중의 하나다. 공은 일찍이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과 거문고 친구가 되어 친히 지냈다. 봉래가 거문고 배에 글 두 편을 적고 지락가(至樂歌)라 이름했는데, 세상에서 봉래금으로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공은 죽고 자손은 쇠퇴[零落]하여 가업(家業)을 지키지 못하여 박 부인이 봉래금과 단금(短琴) 하나를 집에 간직해 두었는데, 언젠가 이르기를, “내 자손 중에 만일 거문고를 아는 자가 있다면 이를 전해 주겠다.”하였다. 중종조(仲從祖) 유수공(留守公)이 초년에 배우다가 중단하고 능히 끝마치지 못하였다. 봉래금은 비록 종가(宗家)에 잘 간직되어 있었건만, 단금은 남에게 빌려 주었다가 잃어 버렸다. 괴협(樗) 좌우에 새긴 오언(五言) 20자(字)는 즉 침지공의 시(詩)와 글씨라 한다. 병자(丙子) 9월에 중종조부께 들고 기록한다. 양봉래의 글[詞] 한 편에, “녹기(綠綺)의 거문고요, 백아(伯牙)의 마음이라. 종자(鍾子)는 비로소 곡조를 알매, 한번 두드리고 다시 한번 읊조리네. 덩딩 거문고 소리 먼 봉우리에 일매 강의 달은 곱디곱고 강의 물은 깊도다.”라 하였고, 또 한 편에는, “영롱한 돌 위의 오동, 한번 치고 한번 읊으며 삼십 년이 봄이로다. 그 옛날 종자기(鍾子期)가 나를 버리고 가니 옥진(玉珍)과 금휘(金徽)에 흰 티끌이 생겼네. 양춘(陽春)과 백설(白雪) 또 광릉산(廣陵散)을 봉래 산수 사람에게 붙여 줄거나.”라고 하였다. 이것을 세상에서 모각(模刻)한 것이 많으나 혹 진면(眞面)을 어지럽힌 것이 있다. 거문고 품수가 자못 높은데 큰 것이 더욱 웅혼(雄渾)하여 평조(平調)에 더욱 알맞다. 옛 악사(樂師) 함덕형(咸德亨)이 항상 즐겨 타고 상품(上品)이라 일컬었는데, 그 후에 속된 악사들은 오직 손에 편리하게 곱고 부드러운 것만 취하였으며 크고 억센 것을 괴롭게 여겼으니 조금만 쳐도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137) 성대중, 『청성잡기』 제4권 「醒言」 「憶洪金二絶曰」 / 반정균.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였다. 조선의 거문고와 중국의 금이 서해바다를 가운데 두고 각각의 주인을 대신하여 서로를 그리워함이다. 또한 그들의 깊은 우정은 담헌의 아들마저 배려하여 操縵¹³⁸⁾을 잘 배워 맑고 깨끗한 소리를 이어가길 바랐다. ‘백아와 종자기의 지음’에서 비롯된 지기 지우 같은 경우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해상금은 백아의 스승인 成連 선생이 그를 데리고 바다 건너 봉래산에 가서 자연의 소리를 통해 성정을 도야하게 함으로써 백아가 신묘한 경지를 터득하게 되었다는 고사에 등장하는 악기이다. 여기서는 담헌이 연주하던 거문고 곡조를 대신하여 생각하며 시름겨워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담헌의 거문고는 향악기인 ‘거문고’임이 확실할 것이고, 성련의 ‘해상금’은 아악기인 중국의 ‘금’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중 두 나라의 사람들이 서해바다를 가운데 두고 지우로 지내면서, 비록 속내를 전달할 수 있는 악기는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악기에 담아 그리는 정서는 마찬가지로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의 명칭을 ‘해상금’으로 표현한 점에 대하여는 서해바다를 가운데 둔 각각의 나라에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여 왔던 중국의 아악기인 금의 그늘에서 거문고는 조선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거문고의 애호가나 연주가, 그리고 사상가들에 의해 멀리서 가까운 대접을 상당한 기간 받아왔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 볼 때, 조선 후기 이 시점에서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일편으로나마 금과 함께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이색의 시 「途中自詠」¹³⁹⁾에 나타나 있는 이청은 ‘牙琴’이다.

吾生豈可便浮沈	내 인생이 어찌 떠올랐다 잠겼다 편하게 하라
一段功夫自滿襟	일단의 공부가 내 마음에 스스로 흡족하니
芳草晴川崔顥句	꽃다운 풀과 맑은 냇물 ¹⁴⁰⁾ 은崔顥의 시구에서 나왔고
高山流水伯牙琴	높은 산과 흐르는 물 ¹⁴¹⁾ 은 백아의 금에서 나왔으니

138) 권오돈 역해a, 『新譯 禮記』 제18 「學記」 (서울: 홍신문화사, 2009), 347~348면 : (전략) “不學操縵 不能安弦 음색 조정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없다.” (후략)

139) 이색, 『목은시고』 제4권 시 「途中自詠」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140) 당나라 때의 시인 최호의 「黃鶴樓」시에,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맑은 냇물엔 한양의 숲이 역력하고, 꽃다운 풀은 앵무주에 무성하도다.” 한 데서 온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路人豈識新鄉貢 길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어찌 새 鄉貢¹⁴²⁾을 알겠나마는
 邦友應呼老翰林 나라 안의 친구는 응당 늙은 한림¹⁴³⁾이라 부를 것이라
 三宿猶懷戀君意 임금의 뜻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으니
 終南翠色入微吟 종남산¹⁴⁴⁾의 푸른빛이 읊는 중에 들어오네
 (하략)

이 글의 내용을 얼핏 보면, 액면 그대로 가히 도교적인 풍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당나라 때의 은자로 가장하여 임금이 불러줄 때까지 숨어 지내던 중국 선비들의 표리부동함도 전해오고 있는데, 그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 또한 종남산인 것이다. 우리 선비들의 경우에서도 처음부터 스스로 숨어사는 은일한 자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살아가는 도중 편의에 따라 세상을 피하여 숨어살다가 임금이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은둔한 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伯牙琴’은 ‘牙琴’으로도 불리는데 역시 중국의 고사들과 함께 차용된 중국 고금의 이칭이다.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의 시 「三清綠陰」¹⁴⁵⁾에 나타나 있는 이칭은 ‘谷口琴’이다.

141) 주) 131 참조.

142) 고려 시대에, 과거(科擧)의 삼공(三貢)의 하나. 지방에서 실시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이른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43) 이희승 감수,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3), 2742면. 조선시대 때 藝文館 檢閱의 別稱.

144) 종남첩경(終南捷徑)을 이르는 말이다.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풍자하는 말로서 출세의 지름길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종남첩경이란 몸은 강호에 있으나 뜻은 조정에 가 있는 은사들의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 역사상 성당(盛唐) 시기에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은둔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에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숨어 사는 은자(隱者)에 대하여 명리에 초연하고 학문이 높은 고매한 선비로 여기는 풍조가 있었고 또 실제로 조정에서는 그러한 은자를 초빙하여 관리로 등용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은거생활은 당나라 때에 이르러 무수한 선비와 지식인들이 출세를 위해 선택하는 좋은 방법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당(唐)나라의 노장용(盧藏用)이 진사(進士)에 급제한 뒤 등용되지 않자, 도성에서 가까운 종남산에 은둔하였다. 이는 군주가 그의 명성을 듣고 불러주기를 바라서였다. 그 후 그가 과연 은사(隱士)라는 명성으로 등용되었다. 사마승정(司馬承禎)이 천태산(天台山)으로 들어가니, 노장용이 종남산을 가리키면서 “여기에도 아름다운 운치가 있는데 굳이 천태산을 찾을 것이 있는가?” 하였다. 사마승정이 웃으며 “내가 보기에 종남산은 벼슬의 첩경일 뿐일세.” 하니, 노장용이 부끄러워하였다. 『新唐書(신당서)』 卷196 「司馬承禎傳(사마승정전)」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45) 정조, 『弘齋全書』 2권 「春邸錄」 2 詩 國都八詠 「三清綠陰」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王城北面隔仙岑	왕성의 북면은 신선이 사는 산에 막혀 있는데
芳草如茵樹欲陰	꽃다운 풀은 자리와 같고 나무는 그늘지기 시작하네
境僻三清遲白日	삼청동 후미진 곳에는 밝은 해가 더디 가고
溪回千疊透青林	천 겹을 돌아가는 시내는 푸른 숲으로 달아나네
市門埃塹飛何到	저자 입구의 티끌과 먼지는 날아서 어디에 이르고
谷口琴樽坐更深	곡구의 금과 술자리는 다시 깊구나
綠野平泉宜伯仲	녹야와 평천 ¹⁴⁶⁾ 은 정말로 낮고 못함이 없으니
遊人且莫武陵尋	놀러 다니는 사람은 무릉도원을 다시는 찾지 말라

위의 문장 안에서의 ‘谷口의 금은 신선이 산다는 산을 일컫는 ‘仙岑’과 도연명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가상의 仙境인 ‘무릉도원’이라는 단어와 맥을 이어감으로써 신선사상과의 관련성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의 시 「移病」¹⁴⁷⁾에 나타나 있는 이청은 ‘槁梧’이다.

(상략)

功名迷出處	공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드러냄은 진퇴가 헛갈리는데
山市異忙閑	산시는 바쁨과 한가함이 다르구나
據槁思東郭	마른 오동 기댄 동곽 ¹⁴⁸⁾ 이 생각나고
移文愧北山	이문을 지어 북산에 못 들어가게 한 일 ¹⁴⁹⁾ 이 부끄럽구나
顏因公事瘦	공무로 인해 안색은 핏기가 없고

146) 녹야는 당나라 때 裴度가 午橋에 세운 별장인 綠野堂의 준말이고, 평천은 역시 당 나라 때 李德裕가 洛陽 근처에 세운 별장인 平泉莊의 준말인데, 이 두 별장은 특히 기이한 화초와 진귀한 소나무와 괴석 등 奇觀이 천하에 뛰어났다고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47) 서거정, 앞의 책, 제20권 詩類 「移病」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148) 마른 오동은 琴을 말한다. 莊子가 일찍이 惠子에게 말하기를, “지금 자네는 자네의 정신을 밖으로 소비하고 자네의 정력을 수고롭게 하여, 나무에 기대서 읊조리고 마른 오동에 기대어 자는구려. 하늘이 자네의 형상을 갖추어 놓았는데, 자네는 堅白의 논리로 지껄이고 있네.”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즉 정신을 평온하게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莊子 德充符』 東郭에 대해서는 옛날 有道者였던 東郭順子, 東郭子, 東郭子綦 등이 모두 『장자』에 나오기는 하지만 위의 일과는 서로 관계되지 않는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49) 南齊 때 周顒이 일찍이 南京의 북산에 은거하다가 뒤에 조정의 부름을 받고 변절하여 海鹽 縣令이 되었는데, 그 후 임기를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북산에 들르려고 하자, 이때 북산에 은거하고 있던 孔稚圭가 주옹의 변절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북산 신령의 이름을 가탁하여 관청의 移文을 본떠서 北山移文을 지어 그로 하여금 다시는 북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뜻을 서술했던 데서 온 말.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髮爲苦吟斑 머리털은 괴로이 신음하다가 얼룩졌네
落日憑闌外 석양 무렵 난간에 기대고 있노라니
長天倦鳥還 끝없이 멀고 넓은 하늘에 고달픈 새가 돌아오고 있다

이 시에서는 금의 이칭인 고오(槁梧: 마른 오동)를 차용하여 노장사상에 서 비롯된 은둔하는 내용과 맥을 함께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제2장에서는, 제도와 제작 내용 그리고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는, 거문고를 소개하는 가운데, 금의 제원과 이상이 나타나 있다. 또, 칠현금을 개작하는 과정에서는, 거문고의 생략적 이면에 금이 포태되어 있는 점이 발견된다. 동시에 금의 정신적 가치가 거문고의 이상을 대신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악학궤범』에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연주 방법 및 악조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제6권에는 금의 제원이, 제7권에는 거문고의 제원이 각각 실려 있으며, 제6권의 「아부악기도설」에서는 금이라는 악기의 정신성이 거문고의 궁극적인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금과 거문고의 분류·제원·제작법·연주법 등 여러 면을 살펴보면, 『삼국사기』 보다는 『악학궤범』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이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전통현악기 연주자들은, 오동나무를 쓰는 앞판에서 악기의 음색과 음질이 이미 결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편인데, 『악학궤범』 제7권 「향부악기도설」 현금조의 기록에서, 돌 위에서 자라난 오동나무인 석상동이 최상급으로 나타나 있다.

고전문헌에 나타난 애호가들이 직접 제작한 거문고의 재료로는 소나무와 오동나무 등이 나타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인 재료로는 벼락 맞은 오동나무, 백년 묵은 오동나무, 타다 남은 오동나무, 소리가 화락한 것 등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타다 남은 오동나무와 벼락 맞은 오동나무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행 악기제작 과정 중 상판을 인두로 그슬리는 작업의 효용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모두 다 수분이 제거되어야 맑은 소리가 난

다는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문의 작가들은 이렇게 가공된 재목으로 만들어지는 금(琴: 거문고)의 소리는 맑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악기의 맑은 소리에 비겨 자신의 맑은 성품과 기상을 빗대어 읊고 있는 점 등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산지로는 오동나무의 훌륭한 재목이 많았다는 중국의 역양산이 고전문헌에 자주 나타나 있다. 또한 오동나무로 금을 만들되, 모두 순임금과 문왕의 제도를 써서 만든다고 한 점도 발견되고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삼국 이전의 재래현악기로 명명한 악기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물계자와 백결선생의 금과 『삼국유사』의 사금갑 일화의 금에 대하여는 그 연대를 추적하여 보았을 때, 거문고도 가야금도 아닌 모종의 재래현악기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고전문헌에서는 금과 관련된 악기 명칭을 ‘거문고’로만 해석 또는 번역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거문고에 부여된 중국 금의 정신성에 대한 효용성 때문이며, 현악기의 통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문고’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통명사인 금이라는 문자 자체만을 ‘현악기의 통칭’으로 사용하거나, ‘현악기를 연주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전적 풀이에도 해당되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고유명사인 ‘玄琴’이라는 의미의 명칭인 ‘거문고’를 보통명사인 현악기의 통칭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악기임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문고’라는 이름으로 번역하는 일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문고의 명칭의 대하여는 『삼국사기』와 『악학궤범』의 현금에 대한 기록에서, 금의 이상인 ‘자연 그대로의 참뜻’, 또는 ‘처음으로의 복귀’라는 의미를 지닌 ‘反其天眞’과 연계되어 있어서, 하늘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인간의 심성을 길러주는 도구로서의 정신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금의 명칭과 이칭이 차용된 경우의 논의에서는, 중국악기인 금의 명칭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점차 ‘古琴’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금’으로 부르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오현금과 칠현금은 각각의 줄이 5개, 7개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오현금은 중국의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하여 순금이라고도 하며, 칠현금의 전신이다. 그리고 칠현금은 거문고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다.

고전문헌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금의 이칭들은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고전문헌 작가들에 의하여, 문장 전체의 맥락에 따라 취사선택되어져 거문고를 대신하여 사용되어진 명칭들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 고금의 다른 이름이나 특별한 연주가와 관련되어 있는 금의 이름들이 고금의 사상과 고금과 관련된 일화, 또 그러한 내용이 사용되어진 문장의 특별한 문구와 함께 수입되어 고전문헌에서 거문고를 대신한 점과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 점이 파악되고 있다.



제3장 거문고로 차용된 琴과 관련된 사항

제 1 절 琴의 부품 및 연주용어

1. 금의 부품 이름

고전문헌의 내용 안에서 발견되는 각 악기의 재료나 부품에는 각 악기의 體形과 소리를 결정하는 공명상자의 재료인 오동(梧桐: 梧·桐·枯梧·桐絲)나무가 있으며, 성음을 최초로 발생시키는 명주실(絲·絃) 등의 부품이 있다.

또 금의 指板에 왼손으로 짚는 위치를 표시한 ‘휘’·울림의 일차적 주체로 성정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현(絃: 直絃·妙絃·續絃)’, 문장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된 슬의 ‘주현(朱絃: 朱絲絃·理朱絃)’·‘주(柱: 雁足·안죽, 기러기발)’ 등이 있다. 그러나 거문고의 부품 중 ‘안죽’은 드물게 발견되고는 있으나, 음정을 나누어지도록 설치한 ‘괘’와 연주를 할 때, 직접 내리치거나 떼서 사용하는 ‘술대’에 대한 표기는 찾아보기가 힘든 편이다.

한편, 고전문헌에는 “거문고의 기둥을 풀로 붙여둔 채 거문고를 타려는 것과 같다”는 의미의 ‘膠柱鼓瑟’이라는 사자성어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 문구가 나타내고 있는 악기는 안죽이나 괘가 없는 금은 일단 아니다. 고정된 괘와 이동할 수 있는 안죽 모두가 설치되어 있는 거문고나 주가 있는 슬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중국의 전국시대에 발생했을 것이므로 거문고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주고슬’의 악기는 슬이며, 슬의 주, 즉 안죽이 비유의 매개체인 것이다. 물론 슬의 訓 중에는 ‘큰 거문고’도 있으니, 광의의 해석에서는 거문고나 금의 경우로 비약하여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금이나 거문고로 해석하고 있는 문장에서 슬에만 설치되어 있는 ‘주현’을 비유의 예로 든 경우에서는, 「文廟祭禮樂」을 연주할 때 함께 편성되어 연주되는 금과 슬을 혼동하였거나, 동일시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신흙의 「短歌行」¹⁵⁰⁾에 나타나 있는 ‘搖軫’이다. 한나라 때의 「군악」으로서 ‘鐃’을 두드리며 부르던 노래인데, 주로 행군할 때에 말 위에서 연주하였다.

(상략)

雲門雖奏	비록 운문 ¹⁵¹⁾ 을 연주하더라도
聾者莫聽	귀가 들리지 않는 자는 들을 수가 없네
酌此兕觥	뿔잔에 술을 부어
豁吾煩襟	내 가슴 속 번민을 소통시키고
攬此搖軫	이 요진을 잡아당겨
和以五音	오음으로써 조화를 이루려 하지만
鍾期既遠	종자기가 이미 멀리 있어
賞音者絕	소리를 칭찬하며 감상할 사람이 단절되었으니
悠悠我思	아득하게 먼 나의 생각은
願言則結	하고 싶은 말을 곧장 맺어버리네
淒淒朔風	찬 기운이 쓸쓸한 겨울날의 북풍이
其利猶刀	그 날카로움이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아
龜龍失所	거북과 용은 살 곳을 잃어버리고
鳳凰飢嗥	봉황은 배가 고파 울부짖으니
君子奚恃	군자는 무엇을 믿을 것이며
佞壬奚懼	소인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君子奚陋	군자는 어찌 액운을 당하고
佞壬奚祚	말재주로 아침하는 소인은 어찌 복을 받겠는가

이 글에서 거문고로 번역되어진 ‘요진’은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기러기 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장방형 현악기의 줄을 묶어 고정시키는 ‘돌패’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이 글 전체의 흐름과 ‘요진’은 특별한 상관성을 띄지 않는 것 같다. 그런

150) 신흙, 앞의 책, 제4권 악부제 한요가 18수 중 「短歌行」(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원문)

151) 양 인리우(楊蔭瀏) 지음·이창숙 옮김, 앞의 책, 28면. 전설 속의 황제 씨족의 토tem은 구름이었
고, 그들의 악무는 「雲門」이라고 부르니 토tem을 숭배하는 악무이다.(「春官·大司樂」, 『周禮』)

데 한편, 이 글의 내용 중에는 무분별한 소인들은 복을 받게 되고, 군자는 지음을 찾는 것과 처세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추해 보건대, ‘요진’이라는 금의 이칭은, 태평성대에 군자가 지음을 옆에 두고 연주하는 아름다운 악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흙의 오언고시 「贈任斗卿」¹⁵²⁾에 나타나 있는 ‘攬朱軫’이다.

慮淡屏頡滑	생각을 맑게 하여 흐리게 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端居觀物性	바르게 앉아 물성을 살펴보니
天機坐相移	하늘의 조화는 절로 서로 옮겨 자리를 잡는구나
袞袞那可竟	끊임없이 이어짐을 어찌 다할 수 있으랴
卑棲諧夙尙	낮추어 사는 것은 오래된 풍조에 맞고
趨競匪道正	다툼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네
沈冥入玄象	명상에 잠겨 현묘한 경지에 들어가니
古心誰與併	옛 사람의 이 순박한 마음 누구와 함께 할까
因之動遠懷	인하여 아스라한 회포 일어나
所思在遐境	생각한 바가 먼 곳에 있는지라
試復攬朱軫	시험 삼아 다시 거문고를 잡아당겨 타니
雅音幽以靖	곱고도 바른 소리 그윽하고 편안하구나
鴻雁東南飛	기러기는 동남으로 날아가는데
川梁念苦永	시냇가 나무다리에서 생각이 오래도록 길어지네
且寄白雪操	백설조 ¹⁵³⁾ 를 그대에게 부치노니
願言堅素秉	바라던 뜻을 평소대로 굳게 지키세

이 글에 집약된 내용은 거문고를 타며 하늘이 준 본연의 참뜻을 지켜 바르게 살자는 것이다. 이 글에서 거문고로 번역되어진 ‘남주진’의 ‘朱軫’ 역시 ‘붉은 기러기발’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앞의 ‘요진’과 마찬가지로 장방형 현악기의 줄을 묶어 고정시키는 ‘돌패’의 다른 이름이다. 또 남주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리에 놓여있는 금을 ‘끌어당겨 타는 동작’이 포함된

152) 신흙, 앞의 책, 제5권 시 오언고시 60수 중 「贈任斗卿」(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153) 고대의 유명한 琴曲 이름인데, 곡이 너무 고상하여 唱和(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름)할 이가 극히 드물었으므로, 전하여 偉人을 칭찬하는 말로 쓰인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표현으로 봄이 옳을 듯하다.

신흙의 오언고시 「今夕知何夕」¹⁵⁴⁾에 나타나 있는 ‘玉軫’이다.

今夕知何夕	오늘 저녁이 어떠한 저녁인가
堂上有好客	대청 위에 좋은 손님이 있네 그러
好客不易會	좋은 손님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일이니
今夕那再獲	오늘 같은 저녁을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因之置尊酒	그로 인해 통술을 차려 놓았으니
趁此天氣美	오늘 좋은 날씨에 편승하여
燕姬歌遶梁	연희 ¹⁵⁵⁾ 가 요량 ¹⁵⁶⁾ 으로 노래하고
玉軫調流水	옥진을 골라 「유수곡」을 타니
請客爲我聽	바라건대 손님께서는 나를 위해 들어주시오
人生行樂耳	인생은 즐겁게 살아갈 뿐
行樂苦難值	즐겁게 보내는 일은 오래도록 맞이하기 어려우니
盛年寧復回	혈기 왕성한 한창의 젊은 나이가 어찌 다시 돌아올까
朱門舊行馬	옛날 주문 ¹⁵⁷⁾ 의 행마 ¹⁵⁸⁾ 가 있던 곳에
秋草沒池臺	못가의 누대가 가을 풀에 다 묻혀버렸네

손님을 만나 술자리를 마련하여 뛰어난 歌舞와 절묘한 餘音を 보고 들으며, 옥진을 골라 타서 물이 흐르듯 고상한 음조인 그 옛날 백아의 「유수곡」을 앞으로 지기가 될지도 모를 손님에게 듣기를 권유하며 젊어서 즐겁게 보내자며 주변 환경에서 관찰되는 세월의 흐름을 읊었다.

이 글에서 거문고로 번역되어진 ‘옥진’은 옥으로 만든 거문고 줄을 받치는 장치, 즉 기러기발의 다른 명칭이기도 하지만, 앞의 두 경우처럼 장방

154) 신흙, 앞의 책, 제6권 오언고시 후 19수 중 「今夕知何夕」(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155) 歌舞를 잘하기로 예로부터 유명했던 燕 지방의 여자를 말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56) 옛날 韓娥가 齊나라에 갔다가 양식이 떨어지자 壑門에 들러 노래를 불러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그가 떠난 뒤로 그 노래의 餘音이 들보 사이에서 3일간 끊이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즉 노래의 절묘한 여음을 뜻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57) 붉은 문으로 예전에,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의 집을 이르던 말.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58) 貴人の 집이나 官署의 문 밖에 설치한, 말을 매어두는 계구를 말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형 현악기의 줄을 묶어 고정시키는 ‘돌괘’의 다른 이름이다.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날 성대한 잔치를 열어 즐기는 가운데, 화려한 가무와 옛 명곡인 유수곡을 타면서 젊었을 때 즐겁게 놀자고 하였다. 연회의 자리가 당사자들의 바람대로 젊고 화려하다. 따라서 이글의 내용과 ‘옥진’을 굳이 연결한다면, ‘구슬 玉’자를 쓰는 ‘옥진’의 이름에서 묻어 나오는 ‘화려함’을 들 수 있다.

정온의 「述懷二首」 중 첫 번째 시¹⁵⁹⁾에 나타나 있는 ‘直絃’이다.

平生用意雪霜間	내 평생 가난함과 고생스러움 사이에 뜻을 가다듬었기에
不願條枝綠且蔓	인생이 가는 길마다 번창해지길 원치 않는다네
寧似直絃沿道死	차라리 곧은 거문고 줄을 닮아서 길가의 죽음을 따를 것이라
恥如鉤曲得高官	부끄럽게 갈고리처럼 허리를 굽혀 직위 높은 벼슬을 얻으랴 ¹⁶⁰⁾
吾聞睢水在南方	내가 들으니 수수가 남방에 있어
五色波文產物章	오색의 파상문으로 인해 온갖 색깔 ¹⁶¹⁾ 이 생긴다고 하더라
安得往遊收藻繪	어찌하면 놀러가서 물풀그림을 가져와
會將添賁舜衣裳	때마침 바라건대 순 임금의 의상을 아름답게 꾸며 볼까

평생을 청렴함과 곧음으로 고아한 삶을 살겠다는 작가의 생각을 적은 글인데, 거문고의 곧은 줄을 자신의 성품에 비유하여 당시 선비들이 추구했던 정신적인 지표의 대상이자 성군으로 알려진 순 임금을 추앙하는 내용인데, 당시의 왕은 광해군이다. 이 글에서 작가 정온은 곧은 성질의 ‘직현’을 비유로 들어 자신의 곧은 성품과 청렴함을 대변하고 있다.

159) 정온, 앞의 책, 제1권 칠언율시 「述懷二首」 중 첫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160) 이백의 「笑歌行」에서, “君不見曲如鉤 古人知爾封公侯 君不見直如絃 古人知爾死道邊 그대는 보지 않았는가, 갈고리처럼 굽으면 古人이 그가 公侯에 봉해질 줄을 알았네. 그대는 보지 않았는가, 거문고 줄처럼 곧으면 고인이 그가 길가에서 죽을 줄을 알았네.” 하였는데, 약간 변형하여 인용한 것이다.(『李白詩集』) 卷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61) 『주역』 「姤卦 象」에, “天地相遇 品物咸章也 천지가 서로 만나니 온갖 물건이 모두 빛난다.”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온갖 색깔을 의미한다. 순임금의 의상 : 갓가지 상징적인 무늬를 그리거나 수놓아 꾸민 왕의 法服을 말한다. 순 임금이禹에게 이르기를, “신하는 바로 나의 팔다리요 귀와 눈이니, 종묘의 술그릇(宗彝)과 물풀(藻)과 불(火)과 흰쌀(粉米)과 보(黼)와 불(黻)을 수놓아 옷을 만들고자 하면, 네가 그 대소와 준비의 차등을 규명토록 하라.” 하였다. 여기에서 순 임금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모시는 임금을 가리키는데, 당시의 임금은 광해군이다. (『書經』 「虞書」 益稷)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서거정의 시 「春雨」¹⁶²⁾에는 ‘속현’이 나타나 있다.

老夫情興絮粘泥	늙은이의 마음에 이는 것은 진흙에 붙은 버들개지 같지만 ¹⁶³⁾
重到箕城物色迷	평양 ¹⁶⁴⁾ 에 이룰수록 눈에 드는 경치에 심취하게 되네
浮碧樓前始相語	부벽루 앞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서로 나누었고
齊安館裏苦分携	제안관 안에서 괴롭게 헤어져 떨어졌으니
鸞膠可續前絃斷	난교로 전에 끊어진 줄을 이을 수 있을까 ¹⁶⁵⁾
鳳燭添成別淚啼	촛불의 농에다가 울며 흘러내리는 이별의 눈물을 보텔 곁세
滿酌鳳燭一杯酒	양관의 한 잔 술을 잔이 넘치도록 가득 부어
渭城清唱不須低	청아한 위성곡을 소리 높여 불러 보세 ¹⁶⁶⁾

‘續前絃斷’에서의 ‘속현’은 끊어진 줄을 난교를 써서 붙인다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끊어진 명주실을 접착제인 아교를 써서 잇는다는 것은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행 악기 수리과정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아교를 사용하여 접착시키는 공정은 목재와 목재의 접합, 뿔조각이나 자개 등으로 된 장식을 붙이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속현’이란 成語의 활용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을 의미함보다는, 다만 금을 비롯한 현악기의 줄을 비유의 대상으로 내세워 그 악기들이 내포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 즉 서로의 마음을 잇는 심상에

162) 서거정, 앞의 책, 제2권 시류 「春雨」(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163) 蘇軾이 徐州에 있을 때, 錢塘에서 僧 參寥가 찾아왔으므로, 소식이 한 妓女로 하여금 장난삼아 참요에게 시를 요구하도록 하였다. 참요가 絕句 한 수를 불렀는데, 그 시에 “多謝尊前窈窕娘 好將幽夢惱襄王 禪心已作霑泥絮 不逐東風上下狂” 술동이 앞의 암전한 남자가 많이 고맙지만, 그옥한 꿈 종이 가져다 양왕이나 필지어다. 선심은 이미 진흙에 붙은 버들개지가 되어, 동풍을 쫓아 위아래로 미쳐 날지 않는다오.”라고 했던 데서 온 말로, 즉 여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禪心은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전혀 동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64) 기성은 箕子가 도읍했던 곳이라 하여 平壤의 별칭으로 쓰인다. 이 시는 「사가집」 권14에도 나오는데, 첫째 수의 제목은 「晚登平壤城南樓」이고, 둘째 수는 「到黃州送人戲書一絕寄成內相同年」으로 되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65) 『海內十洲記』에, 西海의 鳳麟洲에는 仙家가 많은데, 그 선가에서 ‘鳳喙麟角 봉황새의 부리와 기린의 뿔’을 고아서 제조한 기름을 난교라 하는 바, 이것은 이미 끊어진 弓弩의 줄도 다시 접합시킬 수 있는 강한 접착력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66) 이별의 정을 나누자는 뜻이다. 王維의 「送元二使安西」시에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위성의 아침 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객사는 푸르고 푸르려 버들 빛이 새롭구나. 한 잔 술 더 기울이라 그대에게 귀한 까닭은, 서쪽으로 나가 양관으로 가면 친구가 없기 때문일세.”라고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대한 상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랜 지우와의 만남과 後妻를 맞이하는 것도 상징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 박영(朴英, 1471~1540)을 애도하여 지은 「李復古作挽詩」¹⁶⁷⁾에 ‘妙絃’이 나타나 있다.

天不喪斯文	하늘이 유학을 없애지 않았으니
東隅尙有人	동국에 아직 인재가 있도다
淵源元有自	이 학문의 근원을 터득했으니
英邁又超倫	영특하고 뛰어났다네
軒冕浮雲外	높은 벼슬은 뜬구름같이 여기고
吟哦流水濱	흐르는 물가에서 시를 읊조리네
窮探極遐妙	이치를 궁구함은 끝까지 다하였고
高步入眞純	높은 행실은 참되고 순수하네
(중략)	
幽討書千卷	조용히 천 권 서적을 펼쳐 보고
淸歡酒一樽	조촐히 두루미 술을 즐기네
活人憑藥餌	약으로 중생을 살리고
醫國祕經綸	의술 또한 경륜을 감추었도다
(중략)	
妙絃從此絕	신묘한 가락 이제부터 끊기니
幽懷向誰陳	이내 회포 누구에게 풀리요
秋晚南行路	늦가을 남행길에
三杯但沾巾	석 잔 술로 수건을 적시노라

유교적 道義나, 고상한 행실에 있어 영민하고 또 超脫하였으며, 책을 탐독하고, 탐욕 없이 순수했던 박영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 ‘묘현’은 생전의 박영이 지녔던 경륜과 박애정신 등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7) 『丙辰丁巳錄』은 지은이 任輔臣이 죽기 2년 전인 명종 11년(1556)이 丙辰년, 이듬해가 丁巳년, 그때에 쓴 史話集이다. 여기서는 추려서 실었다. 「李復古作挽詩」/ 이언적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앞의 예문을 비롯하여 선비의 곳곳한 품성에 비유한 ‘팽팽하게 당겨 끈은’이라는 표현의 ‘직현’이나, ‘이별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진 지기지우를 다시 만나보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끊어진 줄을 잇는’이라는 표현의 ‘속현’은 어느 악기에나 다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해지고 있는 고사의 주인공들이 주로 금의 명인들이었으므로, 이는 곧 중국 고금의 줄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또한 ‘묘현’은 자연과 일치할 수 있는 몰아(沒我)의 경지에 올랐다면 백아 등의 명인들이 펼쳤던 연주에나 걸맞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 금의 연주용어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의미를 ‘거문고를 탄다.’라고 한다. 한자어로는 ‘彈奏’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고전문헌에는 매우 다양한 어휘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들의 대부분은 중국 금이나 그것을 연주함을 표기하는 말들이었음을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물론 당시 사회의 이념과 사상을 지배했던 유교문화권의 현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악기의 명칭과 마찬가지로 ‘탄주’라는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거문고보다는 중국 금의 표현을 차용한 한자어의 표기¹⁶⁸⁾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관찰될 것이다.

‘彈琴’은 문자 그대로 ‘거문고를 탄다.’로 별 부담 없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가야금의 연주’를 지칭하는 단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온 단어이기도 하다. 서기 551년 신라에 귀화한 于勒이 그 이듬해에 진흥왕의 명령과 배려로 정착하여 곡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충북 충주시 칠금동 소재 ‘탄금대’ 또한 가야금의 연주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

‘거문고 탄주’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 ‘탄금’이 나타나 있는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領府事尙公¹⁶⁹⁾挽詞」¹⁷⁰⁾이다.

168) 彈琴·張琴·理琴·奏琴·理朱絃·把朱絃·拊絃·鳴絃·奏哀絲·張絲桐·奏桐·倚梧·瑤軫·攬朱軫 등이 ‘금(琴, 거문고로 순화)을 연주한다.’는 내용의 용어로 사용되어졌다.

厚德人皆仰	두터운 덕을 사람들 모두가 우러르고
崇班世共榮	높은 지위를 세상 사람들이 영예롭게 여겼네
屢陳辭位懇	여러 번 관직을 성심으로 사양하니
終遂引年情	마침내 나이가 들어 뜻을 이루었네
寓酒疑知命	술에 가탁하였으니 하늘의 명을 아는 듯하고
彈琴見達生	거문고를 탔으니 인생의 참뜻을 깨달았겠구나
淒涼江上兆	처량한 강가의 묘지에서
相送泣公卿	서로 배웅하며 삼공·구경이 소리 내어 슬프게 운다네

이 글에서 ‘탄금’은 문자 그대로 ‘거문고를 탄다.’라는 연주의 현상적인 표현이다. 아울러 고상한 악기인 거문고를 탐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생의 참 뜻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고아한 인품을 ‘달관한 인생’이란 의미로 비유하여 전달해주고 있다.

최립(崔崱, 1539~1612)의 「故杆城郡守李公墓碣銘并序」¹⁷¹⁾에는 금의 연주 용어 ‘張琴’이 나타나 있다.

公古人心	공의 마음은 도잠의 풍모와 비슷한데
而時也今	그런데 시기는 옛날이 아닌 지금이라
孰信乎古	옛사람의 마음인지를 누가 알겠나만
醉一張琴	취해서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 ¹⁷²⁾
賞音已矣	성음은 이미 다 알아들었고
況知公心	게다가 공의 마음도 알고 있음이라

169) 상진(尙震 : 1493~1564)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木川, 자는 起夫, 호는 松峴·嚮日堂·泛虛亭, 시호는 成安이다.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주 참조)

170) 기대승, 『고봉집』 제1권 시 「領府事尙公挽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171) 최립, 『간이집』 제9권 稀年錄 「故杆城郡守李公墓碣銘并序」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172) 이백이 술을 마시려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해 괜히 도연명의 겉모습만 흉내 내려고 한다면서 희롱한 시에, “笑殺陶淵明 不飲杯中酒 浪撫一張琴 虛栽五株柳 空負頭上巾 吾於爾何有 우습도다! 도연명을 자처하는 우리 벗이, 술잔 속에 채워진 술 마시지를 않는다니. 공연히 거문고만 어루만지고, 쓸데없이 다섯 그루 버드나무 심었구나. 술 거르던 두건을 괜히 쓰고만 있으니, 내가 이젠 그대를 상관하지 않으리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李太白集 卷22 嘲王歷陽不肯飲酒》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吾文甚質 나의 글은 참으로 꾸민데 없이 수수한데
刻恐不深 깊이 새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

故人이 된 杆城郡守 李公이 생전에 거문고를 취미로 익혔고, 그의 품격이 도연명과 비슷했다고 칭찬을 하는 내용이다.

이 글에 나타난 ‘장금’에 대하여는, ‘거문고 줄을 매는 것’·‘거문고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과 ‘거문고를 베풀다’·‘거문고를 펼치다’로 나누어 풀이할 수가 있는데, 후자인 ‘거문고를 베풀다’·‘거문고를 펼치다’가 글을 짓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다’로 醇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而時也今’는 문구를 잘 살펴보면, 마음이야 옛 것인 도연명의 ‘소금’을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시대는 지금이라 작중인물인 영부사 상공은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는 거문고를 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 나타난 장금의 주체는 거문고임이 분명해진다.

또, ‘公古人心~醉一張琴’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전의 작중 인물이 술과 소금을 좋아했던 도연명의 풍취를 흠모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거문고를 취미로 익히면서, 내면의 배경에는 중국 금의 정신성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립의 「琴箴爲李景臨作」¹⁷³⁾에는 ‘理琴’이 나타나 있다.

有屏窈然	병풍처럼 울이 쳐진 고요하고 그윽한 곳은
先生之所棲心	선생님께서 마음을 깃들인 곳
有灘泠然	맑고 시원한 여울이 있는 곳은
先生之所託音	선생님께서 소리를 의탁한 곳
屏下灘上	울 아래 여울 위는
先生之子理琴	선생님 아들이 거문고 타는 곳
我謂其得之音者淺	나는 말하노라 그 소리를 얻는 일은 미숙하다
而存之心者深	그렇지만 마음속에 살아 있는 것은 깊을 것이다
蓋先生有銘	선생님께서 지으신 명 ¹⁷⁴⁾ 이 있어

173) 최립, 앞의 책, 제9권 회년록, 「琴箴爲李景臨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174) 栗谷이 思菴 朴淳을 위해 지어 준 琴銘을 가리킨다. 『栗谷全書』 권14에 「思菴琴銘」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思菴集』 권6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간이의 이 琴箴 역시 대체로 율곡의 韻을 따

我從而箴	나는 선생님을 따라서 훈계하는 의미의 잠언을 짓노라
琴之言禁	琴은 禁을 말함이라
古以閑邪	예로부터 邪氣를 막았으니
邪絕于心	마음속에 샅된 기운이 크게 단절되면
音寧有哇	성음에 어찌 음란한 소리가 있겠느냐
今而不古	지금의 것을 따르고 예스럽지 않는다면
徒悅人耳	단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라
出雅入俗	아정함을 버리고 세속에 쏠려 헤어나지 못한다면
自同於伎	스스로가 광대를 따르는 것이라
哿矣他人	다른 사람은 옳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子豈安是	선생님의 아들인 그대가 어찌 옳다고 인정하겠는가
毋厭希微	아스라한 희미 ¹⁷⁵⁾ 의 경지를 싫어하지 마라
代變以新聲	시대마다 새로운 소리로 변하고 있으나 ¹⁷⁶⁾
惟使聞者	사람들이 그대의 거문고 소리를 듣게 되면
神夷而氣清	정신이 안온해지고 기운이 맑아져야 되리라
子有我箴	그대는 나의 잠을 갖게 되었으니
刮目期子	전보다 진보하는가에 대해 눈을 비비고 보리라
屏下灘上	울 아래 여울 위에
月涵風止	달빛이 물에 젖고 바람이 머무르게 되면
爲我一鼓	나를 위해 한 번쯤 연주해주게나
如先生之在侍	옛날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처럼

이 글에 나타난 ‘이금’에 대하여는 ‘거문고를 다스리다’가 글을 짓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다’로 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今而不古’에서는, 지금의 것만 따르고 예스럽지 못하다면’에서 지금의

르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75) 소리와 형체가 없는 도의 세계를 음악으로 표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노자(老子)』 14장에, “聽之不聞名曰希 搏之不得名曰微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희라 하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미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76) 『近思錄』 권9 治法類에, “謂古樂不足聽也 代變新聲 妖淫愁怨 후세에 내려올수록 禮法이 닳여지지 않고 刑政이 문란해져서, 욕심대로 방자하게 치달려 법도를 무너뜨리고 아래 백성들이 困苦해진 나머지, 옛 음악은 들을 것도 없다고 하고는, 시대마다 자꾸 바뀌는 새 유행의 음악 소리만 좇게 된 결과, 요망하고 음란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것은, 향악기인 거문고로 연주되는 세속적인 음악과 정신성을 말하며, 예스러운 것은, 아악기인 금으로 연주되는 아정한 음악과 정신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 나타난 지금의 것인 ‘이금’의 주체는 ‘거문고’임이 분명해진다.

‘琴之言禁~音寧有哇’에서는 『說文解字』의 ‘琴者 禁也 금은 금이다.’라는 내용과 『白虎通』의 “琴者 禁也 禁止於邪以正人心也 금에는 막는다는 뜻이 들어 있으니, 즉 사탕을 막아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함을 말한다.”라는 내용 등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箴을 지은 작가는 작중인물인 선생 아들에게 아정함을 버린 채로 세속에만 지나치게 정신을 쏟는 일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아울러 즐기는 것만을 옳다고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등 유교적 관점에서의 정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毋厭希微’에서는 『노자』 14장의 “聽之不聞名曰希 搏之不得名曰微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希’라 하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微’라 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소리와 형체가 없는 도의 세계를 음악으로 표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매우 높고 깊은 경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도교적 관점에서의 정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신함의 「靜女篇」¹⁷⁷⁾에는 ‘奏琴’이 나타나 있다.

(상략)

秋風忽颯然	가을바람이 홀연히 휩 불어오고
落景駢將暮	석양의 경치는 점점 어둠 속으로 저물어가니
鉛華誰爲容	누구를 위해 얼굴에 분을 바르리오
翠袖空踟躕	비취빛 소매 부질없이 움츠렸다 돌아보고
憂來始奏琴	시름하던 끝에 비로소 거문고를 타니
繁商激楊林	가을의 商聲이 버들 숲에 부딪히니
奏罷更悵悵	연주를 그만두고 뜻을 잃어 다시 슬퍼하는데
雅音嗟孰尋	아정한 음률 아 누구에게서 찾을까

(하략)

177) 신함, 앞의 책, 제5권 시 오언고시 「靜女篇」(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봄 같은 젊음은 가고 가을처럼 늙어 가는데, 거문고 소리를 들어 줄 남편이 없어 실의에 찬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대개의 예문들이 지기를 그리워하며 거문고를 그 비유의 매개체로 내세웠는데, 이 글에서는 드물게도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거문고의 지음을 찾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난 ‘주금’은 ‘연주함’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 중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탄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연주함을 표현하고 있다.

홍대용의 「山樓鼓琴」¹⁷⁸⁾에는 ‘理朱絃’이 나타나 있다.

幽人惜遙夜	속세를 떠나 사는 사람은 아득한 밤이 아쉬워
起坐理朱絃	일어나 앉아 거문고를 타는데
樓高萬籟靜	망루는 높고 세상은 고요하여
響與空山連	가락은 빈산에 울려 퍼지네
悠悠念皇古	아득하게 먼 아주 오랜 옛날을 생각하는데
茲意誰能傳	이 뜻을 누가 전해줄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거문고를 애호하던 많은 성리학자나 문인들이 그랬듯이 자신들만의 철학적 사유를 내세우면서 고집스럽게 太古의 음악 즉, 古樂을 숭상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의 정서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今樂인 鄉樂을 차별하는 문구는 없고 다만, 자연 속에서 고요를 즐기는 은자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 변통 없는 유교적인 정신정보다는 비교적 소통이 가능한 도교적 차원의 신선도를 그리고 있는 듯하다.

이 글에 나타난 ‘이주현’은 ‘朱絃을 다스린다.’에서 ‘주현을 탄다·금(또는 슬)을 탄다.’를 거쳐 ‘거문고를 탄다.’로 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현에 대하여는, “모두 붉은색으로 염색한다. 丹木¹⁷⁹⁾을 사용한다. 금의 줄도 이

178) 홍대용, 『담헌서』 외집 부록 愛吾廬題詠 八詠 嚴誠 「山樓鼓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원문)

179) 콩과의 작은 상록 교목. 높이는 5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 겹잎인데 10개 이상의 작은 잎이 긴 타원형을 이룬다. 봄에 나비 모양의 누런 꽃이 圓錐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푸른색의 莢果를 맺는다. 활 만드는 재료, 물감의 원료, 한약재로 쓴다. 동인도가 원산지인 따뜻한 곳에

와 같다.¹⁸⁰⁾”라는 『악학궤범』 6권 아부악기도설의瑟조에 대한 기록을 통해 볼 때, 금과 슬의 현이라는 점이 파악된다. 따라서 주현은 금이나 슬이라는 악기를 대신하여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물론 거문고에는 주현이라는 붉은 줄은 없다. 다만, 성리학과 시대를 같이하여 중국에서 유입된 아악기인 금과 슬의 상징성이 거문고의 정신성을 대신하면서, 학자·문인 또는 연주가·애호가들의 문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혼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의 「飲通師所寓崇敎寺方丈」¹⁸¹⁾에는 ‘把朱絃’이 나타나 있다.

(상략)

我言未終客起舞 내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손님이 일어나 춤을 추니
有如風前摧玉樹 마치 아름다운 나무가 쓰러지는 것 같구나
直把朱絃信手撫 곧장 손이 가는대로 금을 잡고 줄을 통기니
細聲切切如私語 가녀린 소리의 간곡함이 마치 속삭이는 것 같구나
多生緣重各相遇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 인연을 거듭하여 겨우 만났는데
又恐明朝散如雨 내일 아침이면 빗발처럼 흩어져 헤어지게 됨이 안타까워라

(하략)

이 글에 나타난 ‘파주현’에서 주현은 앞의 ‘理朱絃’의 주현과 마찬가지로 금 또는 거문고를 지칭하고 있다. ‘파주현’에서의 ‘把’의 사전식 풀이의 내용으로 볼 때,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끌어당겨 연주자 앞에 가져다 놓는 동작·徽를 짚고 연주를 준비하는 동작’과 ‘악기를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려놓는 동작’·괘 위에 ‘把指를 하여 연주를 준비하는 동작’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금을 연주하는 동작에 가깝고, 후자의 경우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동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주현’이 금인지, 거문고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細聲切切如私語 가녀린 소리 절절함이 소곤거리는 것 같구나’의 글귀만 놓고 본다면 거문고의 음향이라고는 도저히

서 자란다. (Daum 국어사전)

180) 이혜구 역주a, 앞의 책, 742면. 6권 아부악기도설 瑟조 (전략) 並紅染用丹木琴絃同.(후략).

181) 이규보, 앞의 책, 제8권 「飲通師所寓崇敎寺方丈」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히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세하고 가느다란 소리, 절절한 소리, 소곤거리는 것 같은 소리 등은 단단한 술대로 거칠게 내리치는 거문고의 투박한 음향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오히려 連音을 쉽게 낼 수 있는 금이나 弄絃의 기교가 매우 다양한 가야금 등의 악기에서는 충분히 試演이 가능한 음향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금이라는 악기와 연주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 글의 작가가 거문고 타는 소리를 표현함에 있어, 다른 악기의 음향을 차용하여 비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장유의 贊 중 「三畫贊」에 수록된 ‘삼천 명의 제자가 杏壇¹⁸²⁾에 立侍한 가운데 顔回는 오현금을 타고 曾點은 거문고를 뜯는 광경을 찬한 「杏壇琴瑟」¹⁸³⁾에는 ‘拊絃’이 나타나 있다.

條風淑景	봄바람 불고 화창한 경치
杏花滿庭	살구꽃 뜰에 가득한데
弟子拊絃	제자는 줄 튕기고
先生默聽	선생은 가만히 듣고 있는
一團和氣	모두가 화목한 분위기
沖融無間	간격 없이 녹아드는
其形可描	그 정경을 묘사할 수는 있어도
意不容讚	정취만은 어떤 것인지 밝힐 수가 없구나

이 글에 나타난 ‘부현’은 ‘현악기를 연주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현’에서의 ‘拊’에 대한 사전적 풀이에는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뜯거나 치거나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주하는 악기로는 각지(甲)로 뜯는 금과 술대로 치는 거문고를 들 수 있다. 또, 제목에 나타난 악기의 이름이 ‘오현금’과 ‘거문고’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작중 악기 중 하나가 금이라는 점은 분명해진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거문고’라고 명명되어진 악기가 존재했다는 기록은

182) 공자가 제자를 가르치던 유지(遺址)로서 택반(澤畔) 가운데 높은 곳이다. (『莊子』, 「漁夫」)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83) 장유, 『계곡선생집』 제2권 箴 銘 贊 「三畫贊」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에 나타난 증점이 났다는 악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파악할 길이 없으며, 단지 그 악기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악기라는 점만 추정하여 볼 수 있을 뿐이다.

유숙(柳淑, 1324~1368)의 「遊昭陽江」¹⁸⁴⁾에는 ‘鳴絃’이 나타나 있다.

江邊春氣煙非煙	강변의 봄기운은 연기인지 아닌지
江頭花開雨後天	비 온 뒤 강 머리에는 꽃이 활짝 피었네
蘭橈來往明鏡裏	목란 샣대는 명경 속에서 오가고
松亭掩映屏風前	소나무 정자는 병풍 앞에 은은하다
此間景物稱人意	이곳 경치는 사람의 마음에 칭의되어
徐行信馬不動鞭	천천한 걸음도 말에 맡겨 채찍을 안 드노라
良辰行樂莫辜負	양신행락을 헛되이 저버릴 수 없구나
頭上歲月如奔川	두상세월이 흐르는 내와 같으니
亭前大野天共遠	정자 앞 큰 들이 하늘과 함께 멀기에
倚欄縱賞心豁然	난간에 기대어 널리 구경하니 마음이 시원하다
落花紛紛飄舞席	춤추는 자리에 낙화 나부끼고
春禽嚶嚶和鳴絃	거문고에 맞추어 봄새 화답한다

(하략)

이 글에 나타난 ‘명현’에 대하여는, ‘거문고’ 또는 ‘거문고의 울림’ 등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 글의 내용만으로 볼 때는 ‘현의 울림’ 또는 ‘현악기의 울림’으로 해석되어야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현악기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장 내용만으로 볼 때, 어떤 현악기인지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관용적인 표현이라면 ‘거문고의 소리나 울림’으로 해석함이 옳을 듯하다.

앞서 제시된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의미를 가진 여러 용어들이 거문고를 직접 연주하여 소리를 나게 하는 능동적인 표현이었다면, 이 글에 나타난 명현은 누군가가 연주하고 있는 거문고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수동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84) 서거정 등, 앞의 책, 7권 칠언고시 「遊昭陽江」 / 유숙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고려조 우천계(禹天啓)의 「廳琴」에는 ‘張絲桐’이 나타나 있다.

畫堂白日開錦筵	화려한 집, 좋은 날씨, 비단 자리에서
琴師爲我張絲桐	금사거문고를 다루었네
絃將手語雅韻多	손과 줄이 속삭이는데 아담한 운율이 많아
宮商角徵相爲宮	궁·상·각·치가 번갈아 궁성으로 되나니
小成大成度不盡	소성·대성 도수가 다하지 않는 곡조며
極淸極濁聲無窮	극청·극탁으로 무궁한 소리

(하락)¹⁸⁵⁾

이 글에서 ‘장사동’은 ‘거문고를 연주한다.’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된 ‘장금’과 마찬가지로 해석상의 변이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사동’과 ‘장금’에서는 거문고로 표기된 철자가 각각 ‘絲桐’과 ‘琴’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거문고’를 이름인데, 사동은 줄(명주실)과 목재(오동나무)인 제작재료가 거문고를 대신하였고, 금(琴: 거문고)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이 완제품 자체로 사용되어진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색의 시 「聞海寇犯江郊」¹⁸⁶⁾에는 ‘倚梧’가 나타나 있다.

(상략)

山林城市自殊塗	산림과 성시는 절로 길이 다르기에
無處從容着病軀	병든 몸 조용하게 붙일 곳이 없구나
自古鸕鷀羞隱遁	예로부터 원란은 은둔하길 부끄러워했고
至今麋鹿避憂虞	지금도 미록들은 근심 걱정을 피한다오
道情耿耿頻鋤藥	도의 마음은 늘 간직해 자주 약밭을 매고
世事悠悠獨倚梧	세상일이 한가하여 홀로 거문고를 타네
江上角聲吹不徹	강가에 뿔피리 소리 끝없이 불어 대어라
狼煙何日卷江湖	낭연은 그 언제나 이 강호에서 걷힐런고

185) 서거정 등, 앞의 책, 「廳琴」 / 우천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186) 이색, 앞의 책, 제11권 시 「聞海寇犯江郊」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이 글에 나타난 ‘의오’는 ‘거문고를 탄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제시한 거문고를 탄다는 용어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직접 거문고를 연주하는 능동적인 경우와 타인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 수동적인 경우의 표현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글에 나타난 ‘의오’는 또 다른 경우의 표현으로 보인다.

‘의오’는 직접 연주함을 표현하기는 했으나, 모종의 흥이 일어나야 거문고를 탄다는 표현은 아니다. 이 글의 내용 중 ‘世事悠悠獨倚梧 세상 일이 한가하여 홀로 거문고를 타네’에서는 세상 일이 한가하여 마지못해 탄타거나, 거문고에 의지하여 적적함을 달래고 있다는 정서가 엿보인다. 또한, 직역을 하게 되면 ‘오동에 기댄’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의오’라는 용어가 이 글 전체의 흐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즉, 작가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오’라는 용어가 선택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의 「留別外弟用權學官韻」¹⁸⁷⁾에는 ‘奏桐’이 나타나 있다.

(상략)

客程三島外	나그네의 여정은 저 세 섬 밖이라
離恨一盃中	이별의 한은 이 한 잔 술 안에
變徵須停筑	치의 변성은 모름지기 축 ¹⁸⁸⁾ 을 멈추게 하고
危絃莫奏桐	줄이 아슬아슬해 끊어질지 모르니 거문고를 타지 마시오
旌旗明曉日	새벽 해는 깃발을 밝게 비추고
鼓角向秋穹	북과 나팔의 소리는 서쪽 하늘을 향하여 나가네
壯志頻看劍	마음속에 품은 장한 뜻은 잇달아 칼을 바라다보고
雄襟欲吐虹	웅대한 기상은 무지개를 토하는 것 같다네
回帆應不遠	돌아오고 있는 돛단배가 당연히 멀리 있지 않을 테니
休惜別窓恩	금방 이별하게 되더라도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187) 김세렴, 『槎上錄』 「留別外弟用權學官韻」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188) 筑은 爭과 같은 모양과 구조에 가늘고 긴 봉 모양의 몸체 위에 5줄의 현을 달아 竹片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악기다. 연주할 때 왼손으로는 줄 끝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죽편으로 줄을 두드려 소리를 낸다. 줄과 현악기 사이에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받침대가 있다. 지금의 금이나 고대의 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이 글에서 ‘주동’은 앞서 제시된 ‘장사동’과 마찬가지로 ‘오동나무를 연주하다’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다’로 순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장사동’에서는 거문고의 제작 재료인 ‘명주실’과 ‘오동나무’가, 이글에 나타난 ‘주동’은 공명상자의 재료인 ‘오동나무’가 완제품인 ‘거문고’를 대신하고 있는 점이 파악된다.

이 글의 내용 중, ‘危絃莫奏桐’을 살펴보면, 줄이 삭아서 끊어질까봐 연주를 하지 말라 했는데, 오랫동안 악기를 방치해두어 줄이 낡아서 실제로 연주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곧 이별을 하게 되어 들어줄知音이 떠나는 마당에 흥을 돋우지 말라는 의미인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變徵須停筑’에서 變徵音이 筑을 멈춘다고 하였고, 이어서 구실을 붙여 거문고를 연주하지 말라는 내용이 진행되는 맥락을 볼 때, 전장에 나가는 작중인물을 말없이 보내주고 싶은 작가의 심정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또 김세림의 「送李養久解官還鄉」¹⁸⁹⁾에는 ‘瑤軫’이 나타나 있다.

(상략)

滄桑坐成晚	세상의 변천 속에 절로 늙어만 가니
悵懷誰與陳	이 한스러움을 누구와 얘기할꼬
徵音倘未孤	혹시라도 소식 끊지 말게나
瑤軫當共親	거문고 타매 의당 함께 친해야지

구구절절한 앞의 예문 내용은 생략하였으나, 세상이 변하는 가운데 저절로 늙어버렸다는 문장에 소결론처럼 이미 다 함축되어 있다.

이 글에서 ‘요진’은 ‘거문고를 연주함’으로 사용되었지만, 원래는 거문고·가야금 등 장방형 전통현악기의 줄을 고정시키거나 미세한 음정을 조율할 때 돌려 사용하는 부품인 ‘돌괘(軫樑)’의 이칭인 것이다.

한편, ‘요진’의 ‘瑤’에는 광명, 결백을 비유하거나, 진귀함을 나타내는 사전적 의미가 깃들여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가는 작중 인물

189) 김세림, 앞의 책, 「送李養久解官還鄉」(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을 포함한 스스로들의 품성 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세렴의 「贈任斗卿」¹⁹⁰⁾에는 ‘攬朱軫’이 나타나 있다.

慮淡屏頡滑	생각 맑게 하여 잡념 물리치고
端居觀物性	단정히 앉아 물성을 관찰하니
天機坐相移	천지조화 절로 서로 옮기어라
袞袞那可竟	그 연이음 어찌 다할 수 있으랴
卑棲諧夙尚	비천한 삶은 본래의 소망에 맞고
趨競匪道正	경쟁하는 건 정도가 아닌지라
沈冥入玄象	조용히 현묘한 경지에 드노니
古心誰與併	이 순박한 마음 뉘와 함께 할꼬
因之動遠懷	인하여 원대한 회포 일어나
所思在遐境	생각한 바가 하계에 있는지라
試復攬朱軫	시험 삼아 거문고를 잡아타니
雅音幽以靖	바른 음조 그윽하고 안온 하구려
鴻雁東南飛	기러기는 동남으로 날아가는데
川梁念苦永	정검다리서 생각 몹시 길어지네
且寄白雪操	백설조를 그대에게 부치노니
願言堅素秉	본래의 마음을 굳게 지키소

이 글에 나타난 ‘남주진’은 ‘금(거문고)을 연주함’으로 사용되어졌다. ‘남주진’에서의 ‘朱軫’은 앞의 ‘요진’과 마찬가지로 장방형 전통현악기의 줄을 고정시키거나 미세한 음정을 조율할 때 돌려 사용하는 부품인 ‘돌괘’의 이칭인 것이다. 또 ‘주진’은 ‘과주현’과 ‘이주현’에서의 ‘朱絃’처럼 ‘붉은’으로 형용되어 있다. 이 점 또한 금과 슬의 ‘붉은 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주진’의 ‘攬’은 ‘把朱絃’의 ‘把’와 마찬가지로 악기를 끌어당겨 연주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허균의 「戊戌西行錄郭山東廂」¹⁹¹⁾에는 ‘奏哀絃’가 나타나 있다.

190) 김세렴, 앞의 책, 「贈任斗卿」(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191) 허균, 앞의 책, 제1권 시부 1 「戊戌西行錄郭山東廂」(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錦席奏哀絲	금석에 넘실대는 거문고 소리
胡姬復在茲	고운 계집 또다시 여기 있구려
秋雲平海盡	가을 구름은 바다에 곱게 깔리고
暝色赴杯遲	어둔 빛은 술잔에 더디 드누나
見慣人情熟	눈 익히니 인정이 친숙해지고
驩終客意悲	즐거움을 마치니 슬픔이 오네
寒巖桂花在	찬 골짜기에 계화가 피어 있으니
招隱有新詩	은사 부르는 새론 시도 있겠군

이 글에 나타난 ‘주애사’는 ‘연주되는 거문고의 소리’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애뜻하고 실낱같은 심사를 ‘주애사’라는 낱말에 함축시켜 글의 서두에 앞세우고 있는 점이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악기나 오동나무가 아닌 가녀린 줄(絲: 絃)을 비유의 대상으로 삼아 호소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거문고의 연주용어로 차용된 금의 연주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탄금·장금·이금·주금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금 또는 우리의 거문고를 직접 연주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점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명현에서는 타인의 연주를 감상하는 차원의 용어로 사용되어진 점을, 의오에서는 악기에 의지하고 있는 삶이 엿보인다.

이주현·파주현 그리고 남주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아악기인 금과 슬의 현이 주현이라는 점을 『악학궤범』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남주진은 악기를 끌어당기거나 가져와서 연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이다.

파주현은 술대(匙)를 쥐고 굽는다는 의미가 담긴 용어이고, 부현은 각지(甲)를 끼고 떠서 연주하는 금이나 술대로 쳐서 연주하는 거문고의 연주방법이 잘 나타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술대를 쥐고 줄을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거문고의 연주를 표현하는 용어에 가장 근접

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파주현·부현·명현·주애사 등은 현악기의 재료인 현이 악기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장사동에서는 악기제작에 필수적인 재료인 명주실과 오동나무가 악기를 대신하여 표현에 사용되었고, 주동·의오는 악기제작에 필수적인 공명상자의 재료인 오동나무가 악기를 대신하여 표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요진·남주진에서는, 줄을 고정시켜 주는 돌패가 악기를 대신하여 표현되고 있다.

한편, 琴瑟友之¹⁹²⁾·琴瑟之樂·琴瑟相和 등의 成語에 표현된 중국악기인 금과 슬에 대하여는 문자의訓만으로 볼 때 ‘거문고(琴)와 비파(瑟)’·‘거문고(琴)와 큰 거문고(瑟)’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원래 금과 슬은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가진 악기의 고유명사이며, 『악학궤범』 6권 「아부악기도설」에 각각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다. ‘琵琶’도 역시 고유의 특성을 지닌 독립된 악기이다. 금과 슬은 우리나라에서는 문묘제례악에만 사용되어왔고, 민간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악기이다.

고전문헌의 문장에서 금·슬·거문고 등에 대하여 비슷한 현악기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거문고의 이름을 빈번하게 사용한 점, 또 각각의 악기가 서로 다름에도 ‘비파’를 ‘슬’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아마도 우리의 선현들은 중국의 음악사상과 함께 건너오게 된 명칭들을 별도의 의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간에서는 궁중에서나 볼 수 있는 아악기인 ‘금’과 ‘슬’을 구경하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도권 내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어려웠던 하층민들은 그야말로 ‘들은풍월’로만 중국악기인 ‘금과 슬’이 ‘거문고와 비파’일 것이라는 단순한 상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제한된 건문의 환경에서 우리의 고전문헌의 작가들은 그 악기의 명칭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과 함께 수입된 통념화한 지식들을 토대로 습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92) 『詩經』 「國風」 ‘周南’ (전략) 窈窕淑女 琴瑟友之 아리따운 고운 아가씨와 금슬 즐기며 함께하고 싶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제 2 절 名琴・名人・名曲

1. 중국의 명금

고전문헌에 자주 나타난 ‘금’으로 명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소지했던 금, 즉 명금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하여는, 본고 제2장 제2절 3항의 琴의 修飾 명칭과 異・別稱에서 이미 논의된 바가 있으므로, 명칭과 문헌의 출처를 본문에 수록하고, 본고의 해당 지면을 각주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 하였다.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더불어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알려진 순임금이 연주했다고 전하는 ‘순금’은, 고려조 진화의 「次韻朝守」¹⁹³⁾에 나타나 있다. 순임금이 처음으로 오현금을 만들어 타면서 「남풍시」를 노래했다는 그시의 내용¹⁹⁴⁾에 순금의 효용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순금’은 소리가 좋은 명금이라기보다는, 고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된 점에서 볼 때, 유교적 기원과 함께 정치적 상징이 잘 드러난 명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문과 글씨에 뛰어난 재주를 가져 명성이 높았고 효심이 높아 「連理枝」¹⁹⁵⁾의 고사를 유래하게 한 후한의 채옹이 만들어 딸 채염에게 보여줬다는 ‘초미금’은 홍귀달의 「琴」¹⁹⁶⁾에 나타나 있다. 이 초미금을 제작하게 된 고사의 내용¹⁹⁷⁾은, 현행 제작과정의 한 공정에서 불에 달군 인두로 상판을 그을리는 작업의 효용과 같다. 따라서 초미금의 제작에 대한 내용은 거문고 제작 공정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초미금은 고대의 명연주자가 수분을 제거한 오동나무로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명

193) 주) 128 참조.

194)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 남풍의 훈훈함이며, 우리 백성의 성냄을 풀 만하도다. 남풍이 제때에 불어옴이며, 우리 백성의 재물이 풍부하리로다.” (『孔子家語』 「辯樂解」)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95) 본디 채옹에 의한 「孝心」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나, 훗날 唐의 詩人 白樂天에 의해 다정한 戀人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196) 주) 105 참조.

197) 주) 106 참조.

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다 물결의 출렁거림을 보고 금의 道를 깨우쳤다고 하는 백아의 스승인 춘추시대 楚나라 사람인 夫成連, 그가 돌 위에 자라나서 말라죽은 오동나무로 제작했다는 해상금(海上琴: 海濤天風琴)은 성대중의 「醒言」 중 반정균이 홍대용과 김재행을 추억하며 즉석에서 지었다는 절구 「憶洪金二絕句」 198)에 나타나 있다. 백아의 스승인 성련 선생이 그를 데리고 바다 건너 봉래산에 가서 자연의 소리를 통해 성정을 도야하게 함으로써, 백아가 신묘한 경지를 터득하게 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이 고사의 내용으로 보아 음악과 그 정신성에 대하여 매우 높은 경지의 인물들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들이 연주하던 악기 또한 명금이라 짐작이 가능해진다.

백아와 종자기의 지음에 대한 유명한 고사¹⁹⁹⁾를 남긴 백아의 ‘아금’은 이색의 시 「途中自詠」 200)에 나타나 있다. 이들의 고사는 풍류의 곡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할 미묘한 금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룰 때 주로 표현되었다. 명연주가와 높은 수준의 감상능력을 가진 자를 직접 비유하기도 하고, 서로 뜻을 같이하는 지음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죽림칠현의 한사람인 쑤나라의 혜강이 창제했다는 ‘혜금’은 이색의 「卽事」 201)에 나타나 있다. 금을 타고 시 읊기를 즐겼던 그와 그가 만든 혜금은 은둔과 노장사상이 표현된 문장에 자주 나타나 문장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다.

東晉 말기부터 南朝의 송(宋: 劉宋) 초기에 걸쳐 살았던 도연명이 음률은 잘 몰라도 취흥이 오르면 즐겨 만졌다는 ‘무현금(無絃琴: 素琴)’은 이규보의 고을시 「素琴」 202)에 고사의 인용과 함께 나타나 있다. 주로 노장사상이 전체 문장을 이끌어 가는 글에 보인다.

중국 前漢시대의 유명한 賦의 작가로 당시 문인들의 모범이 되었다던 사마상여가 옥여의부를 지어 양왕에게 바치고 하사받은 ‘녹기금’은 신희의 「贈淸陰」 203)에 나타나 있다. 주로 사마상여의 고사가 나타난 문장에 함

198) 주) 137 참조.

199) 주) 131 참조.

200) 주) 139 참조.

201) 주) 113 참조.

202) 주) 100 참조.

께 사용되었다.

위에서 예로든 명금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후세에 전할 만한 고사의 내용을 갖추고 있어, 제작한 인물의 품격이나 재능 그리고 당시 사회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 배경과 문학적·철학적·음악적 사상 등을 이면에 동반하여 다수의 고전문헌의 내용 안에 들어와 문장 전체가 나타나고자 하는 바를 상징과 은유로 이끌어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한국의 전통음악사상과 음악외적 미학적 요소, 더 나아가 거문고의 음악사상과 음악외적 미학적 요소의 다방면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거문고연주자들은 ‘중국 명금이 전한 고사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았을 것이고, 거문고를 중국의 명금에 빗대어 연주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진작시키면서 수양의 도구로 삼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2. 중국의 명인과 명곡

고전문헌에 수록된 고금의 명인과 명곡에는 순임금의 「南風歌」, 백아의 「峨洋曲: 流水曲」·高山流水曲, 혜강의 「廣陵散」 등이 있다.

이곡(李穀, 1298~1351)의 율시 「仲孚見和復作六首」²⁰⁴⁾에는, 백성을 교화시킨 순임금의 「남풍가」가 나타나 있다.

欲雨農家又欲晴	비를 바라던 농가가 다시 날이 개기를 원하고
皇天不語四時行	하늘은 말하지 않아도 사시는 운행하는 법 ²⁰⁵⁾
水生浩浩連滄海	넋물이 도도히 흘러 넓고 큰 바다에 이어지고
雲起茫茫掩大明	구름은 한없이 넓게 일어 하늘의 해를 가리네
變理已歸賢相手	섭리 ²⁰⁶⁾ 가 이미 현명한 재상의 손에 돌아갔으니

203) 주) 107 참조.

204) 이곡, 『稼亭集』 제17권 율시 「仲孚見和復作六首」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05) 『논어』 「陽貨」에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四時가 운행하고 만물이 자라난다.”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06) 음양의 변화 등 正과 反의 양 측면을 조화롭게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재상의 직무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서경』 「周官」에 太師 太傅 太保 등三公을 세워 “論道

陶甄共荷聖人情 질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성군이 천하를 잘 다스리니
詩成未獻南熏殿 남풍이 부는 궁궐에 아직 아뢰지 않은 시
願和五絃琴上聲 오현금에 화답하여 소리 높여 부르시기를
(하락)

이 시에 나타난 ‘詩成未獻南熏殿 願和五絃琴上聲’에서는, 남훈전과 오현금에 아직 바치지 않은 시를 엮어 노래 부른다는 문장에서 「남풍가」가 소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시구에서 ‘성군이 선정을 베풀어 그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점과 남풍과 오현금에 이어지는 시의 흐름으로 보아, 이 시에 나타난 성군은 오현금을 처음으로 만들어 「남풍가」를 지어 불렀다는 순 임금이 분명해진다.

한편, 「남풍가」에 대하여는, 『禮記』 「樂記」에 훈훈한 남쪽 바람이 제 때 불어백성들의 수심을 풀어 주고, 재산을 늘려 주기를 바라는 『孔子家語』 「辯樂解」의 내용²⁰⁷⁾이 나타나 있다.

정운의 「次聖求韻贈別」²⁰⁸⁾에는 지기지우의 소중함이 깃든 ‘伯牙絕絃’의 성어를 남긴 백아의 「아양곡」이 나타나 있다.

來去山輕重 오고 감에 따라 산의 모습에는分別이 있고
聲名駕後前 좋은 명성은 거마의 앞뒤에 따라 다닌다네
南州治已著 남쪽 고을에서는 치적이 이미 나타났고
北闕夢長懸 임금이 계신 궁궐은 꿈결에라도 오래도록 남아있네
幸托雷陳契 우정이 두터운 친구²⁰⁹⁾를 맡김은 다행스런 일이고
難追李郭船 친한 친구가 한곳에 있는 것²¹⁰⁾을 따르기란 어렵기만 하네
孤城煙樹暮 홀로 고립된 성안의 안개 뽕연 나무 사이로 날이 저무니
羈思正茫然 타향살이 나그네는 본향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어지네

經邦 變理陰陽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며 음양을 섭리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07) 주) 194 참조.

208) 정운, 앞의 책, 제1권 오언율시 「次聖求韻贈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09) 뇌진계: 東漢 시대의 雷義와 陳重은 같은 고을 사람으로 우정이 매우 돈독하였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아교풀이 견고하다지만 뇌씨와 진씨의 우정만은 못하다.” 하였다. (『後漢書 卷81 獨行列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10) 이곽선: 郭太가 李膺과 함께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많은 빈객들이 바라보고 신선으로 여겼다 한다. (『後漢書 卷68 郭太列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醉別醒還苦 취중에 한 이별은 술 깨고 정신 돌아오면 괴롭고
 窮途跡益危 어려움을 겪는 처지는 갈수록 위태롭구나
 檻猿呼侶日 우리에게 갇힌 원숭이는 짝을 부르고
 夜鵲失枝時 밤의 까치는 둥지에 들 기회를 놓쳤구나
 夢記峩洋曲 꿈속에서의 아양곡을 되살려 생각해내어
 愁吟梅竹詩 시름겹게 매죽시를 소리 끌어 읊어 본다네
 回看雲北去 북으로 가는 구름 돌아다보니
 聚散本無期 모였다가 헤어지는 모습들 알고 보니, 원래 기약이 없더라
 (하락)

위의 글을 살펴보면, 「아양곡」을 통하여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친한 친구와 한 곳에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향 생각에 망연해진다고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아래의 글에서는 짐승들의 본능마저, 자신의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에 대한 비유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해가는 곤궁함을 극복을 하기 위하여 꿈속의 아양곡을 기억해내고자 하였는데, 이 글에서의 아양곡은 자신의 깊은 내면을 알아 줄 수 있는 지움이며, 지기인 것이다. 즉, 그리워하는 내용의 중심이며, 위아래의 글 전체에 나타난 외로움에 대한 상대방으로서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의 내면에는 중국 춘추시대의 거문고를 잘 탔다던 백아와 그의 음악을 깊이 있게 들을 줄 아는 종자기의 고사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

정약용의 시 「申承旨光河輓詞」²¹¹⁾에는 본인의 최후의 순간에도 초연하게 연주했다는 혜강의 「광릉산」이 나타나 있다.

髭鬚髮繞癯顏 여윈 얼굴에 잔털로 감겨있는 수염과 머리
 羽客雲車落世間 신선이 구름수레를 타고 인간 세상에 내려 왔네
 寡鶴盤廻滄海月 창해에 달뜨면 물 위를 맴도는 홀어미가 된 학
 怒龍掀動白頭山 백두산을 마구 흔드는 용이었음이라

211) 정약용, 앞의 책, 제3권 시 「申承旨光河輓詞」(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塵埃合沓襟懷曠	속된 세상과 놀아도 품은 생각은 맑고 환하였으며
風雨交爭筆力閒	비바람이 몰아쳐도, 필력만큼은 느긋하였네
大澤雲濤收浩淼	큰 못에 이는 구름 물결도 넓고 아득함만으로 시들어지고
廣陵琴絕涕潸潸	광릉금 ²¹²⁾ 도 끊겼으니 눈물만 젖젖 흘러나오네

이 글은 작중 인물에 대한 輓詞로, 그가 살아오던 생전의 품격을 신선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모진 세파를 꺾고 이겨낸 그의 기세는 세월 에 무너지고, 광릉금이 끊겨져 하염없이 눈물만 흐른다고 했는데, 이는 혜강이 형장에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 자신만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곡조인 ‘광릉산’을 마지막으로 탔었는데, 그가 죽음으로써 이 곡도 없어지게 된 일화를 인용한 것이다. ‘광릉산이 끊겨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끊겨졌다면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춘추시대 진나라 악사 사광이 나타나 있는 장유의 「玄琴銘」²¹³⁾이다.

剗木以竅之	나무속을 파내어 비게 하여
繩絲以絃之	줄을 당겨 매어 놓고
援而鼓之	끌어당겨 타면
有聲泠然	시원하고 경쾌한 소리
是泠然者生於木耶	이 맑은 소리 나무에서 나는 걸까
生於絲耶	줄에서 나는 걸까
抑生於人耶	사람에게서 나는 걸까
皆不可知	모두 알 수가 없는 일
子無伯牙指	당신은 백아와 같은 솜씨 좋은 손가락이 없고
我非鍾期耳	나는 종자기처럼 감상할 줄 아는 귀가 없으니
玄鶴上天	검은 학 하늘로 오르고
游魚入水	헤엄치던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 가버리네

212) 거문고 가락 이름. 광릉산.晉의 혜강이 洛西에서 놀 때 華陽亭에서 자면서 거문고를 통기다가 뜻밖에 나타난 어느 객으로부터 전수받은 곡이 바로 광릉산인데, 뒤에 혜강이 鍾會의 참소로 인하여 司馬昭에게 죽으면서 형장에서 그 곡을 마지막으로 타면서, “광릉산이 이제 세상에 없게 되었구나.” 하였음. (『晉書 嵇康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13) 장유, 앞의 책, 제2권 箴銘贊 16수 「玄琴銘」(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寄趣而已	다만 흥취에 맡길 뿐
成虧兩空	이루어지든지 무너지든지 둘 다 부질없으니
知此理者	이런 이치 아는 자는
惟齊物翁	오직 제물옹 뿐이라

‘剝木以窺之～有聲泠然’에서는 ‘공명상자를 만들고 줄을 걸쳐서 당겨 매는 악기의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된 악기의 소리가 맑다’는 것이다.

‘是泠然者生於木耶～皆不可知’에서는 이 악기의 맑은소리가 나무·줄·사람 중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상식적으로 사람의 손이 줄을 타고 그 소리를 나무로 된 공명상자가 증폭시켜서 울림이 나오는 것인데, 이는 한마디로 악기에 대해선 문외한이라는 것이다.

‘我非鍾期耳’에서는 중국 춘추 시대 거문고의 명인인 백아와 같이 좋은 솜씨로 연주할 수 있는 손가락을 지닌 것도 아니고, 종자기처럼 금의 연주 배경을 알아듣고 감상할 줄 아는 귀도 없다고 하였다. 이는 이 ‘악기의 연주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곡조에 대하여 감상할 만한 지식도 없다’는 것이다.

‘玄鶴上天 游魚入水’에서는 ‘학이 하늘로 달아나 버리고, 물고기는 물속으로 숨어버렸다’고 하였는데, 학은 1천 년이 지나면 푸르게, 즉 靑鶴이 되고, 2천 년이 지나면 검게, 즉 玄鶴이 된다고 하는데, 금의 명인 사광이 한 번 연주하자 검은 학들이 무리지어 모여들었다고 하였다.²¹⁴⁾ 또 『荀子』 「勸學」에 “瓠巴가 거문고를 타자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²¹⁵⁾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는 학이나 물고기의 귀마저도 거슬리게 한 결과인 즉, ‘연주 솜씨가 대단치 않다’는 말이다.

‘寄趣而已～惟齊物翁’에서는 이루어지든지 무너지든지 둘 다 상관없으니, 이런 이치를 아는 자는 오직 제물옹 뿐이라며 장자에게 떠맡겨 버렸는데, 이 마지막 문구 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악기에 대한 제

214) 학은 1천 년이 지나면 푸르게 되고 2천 년이 지나면 검게 된다고 하는데, 거문고의 명인 사광이 한 번 연주하자 검은 학들이 무리지어 모여들었다고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1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작·연주·감상·철학의 모든 분야에 있어 잘 알지 못하면서, 들은풍월이나 그저 흥취만으로 제목만 ‘현금명’이라 붙여 이 글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자』 「제물론」에는 昭文이 금을 탔거나, 금을 타지 않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²¹⁶⁾ 제물옹은 제물론의 저자인 장자를 말한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춘추시대 魯나라의 隱士이자 금의 연주가였던 榮啓期는 나타나 있다.

백결선생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낭산 아래에서 사는데, 집이 몹시 가난하여 옷을 100군데나 꿰매어 마치 메추리를 매달아놓은 것 같았으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동리 백결선생이라고 불렀다. 일찍이 영계기의 사람됨을 사모하여 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릇 喜怒哀歡과 불평한 일을 금으로써 풀어버렸다고 하였다.²¹⁷⁾

백결 선생은 은사 영계기의 청빈함과 자유분방한 삶을 흠모한 것으로 보인다. 삶의 불편한 현실을 금을 타면서 해결하려고 한 점도 엿보인다.

한편, 거문고를 탔던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백결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거문고나 가야금이 전래되지 않은 시기이다. 따라서 앞의 논의에서도 밝혔듯이 백결선생이 연주하던 악기는 재래현악기이었을 가능성이 유력하며, 아니면 역사에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중국 고금의 일종이 전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곡의 「鄭仲孚示予去年蔚州所作東萊十首次其韻」²¹⁸⁾에는 공자의 제자로 선보의 현령으로 있을 때 금을 타며 백성들을 교화시켰다는 복자천의 일화가 나타나 있다.

(상략)

216) 『장자』 「제물론」에 “是非가 드러나면서 도가 무너지고[虧] 도가 무너지면서 애착이 이루어진다.[成] 그러나 과연 성과 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성과 휴가 있기 때문에 소문이 거문고를 탔고, 성과 휴가 없기 때문에 소문이 거문고를 타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17)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416면. 「열전」 제8 백결선생 : 百結先生 不知何許人 居狼山下 家極貧 衣百結若懸鶉 時人號爲東里百結先生 嘗慕榮啓期之爲人 以琴自隨 凡喜怒哀歡 不平之事 皆以琴宣之.

218) 이곡, 앞의 책, 제17권 율시 「鄭仲孚示予去年蔚州所作東萊十首次其韻」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聞說十年前	듣자하니 십 년 전만 하더라도
義倉多腐陳	의창 ²¹⁹ 에 썩어가는 곡식이 있다고 하였는데
君王不好利	군왕이 물질적인 수입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鄉里少游民	향리에 직업 없이 떠도는 사람이 적을 텐데
單父彈琴日	선보에서는 종일 금을 타며
萊蕪滿甌塵	내무에는 시루에 먼지 가득 차 있었지
高臺表遺愛	높은 대에 생전의 공덕을 기린다면
周令豈其人	주령이 어찌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單父彈琴日’에서는 어진 정사를 베푼 청백한 수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자의 제자 ‘복자천이 선보 고을의 수령이 되었을 적에 마루 아래로 내려 오는 일이 없이 금만 연주했는데도 잘 다스려지며 교화가 이루어졌다는 『呂氏春秋』 「察賢」에 전하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萊蕪滿甌塵’에서는 ‘내무’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었던 후한의 범염(范冉)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낮빛 하나 변하지 않자, 사람들이 “甌中生塵范史雲 釜中生魚范萊蕪 범사운의 시루 속에서는 먼지만 풀풀 나고, 범 내무의 가마솥 속에는 물고기가 뛰는구나.”라고 노래를 지어 찬미한 『後漢書』 卷 81 「范冉列傳」에 전하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²²⁰⁾

‘周令豈其人’에서 ‘주령’은 정포(鄭誦, 1309~1345)의 시에 나오는 인물로, 동래에서 선정을 행했던 수령이다. 이 글에서는 정포의 『雪谷集』 「東萊雜詩」에 “周令誰相識 江臺跡已陳 知渠是循吏 說德有遺民 주령에 대해서 그 누가 안다 할까, 강변의 누대에 자취도 이미 묵었는걸. 그 분이 어진 원님인 것을 아다마다요, 지금도 은덕을 말하는 유민이 있는 걸요.”라는 구절을 인용한 걸로 보인다.²²¹⁾

허침(許琛, 1444~1505)의 「朴淵與磬叔耆之大虛子珍同賦」²²²⁾에는 趙나라

219) 흉년 또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풍년 또는 추수기에 거두어들였는데, 고려 태조 때의 黑倉을 986년(성종5)에 의창으로 개칭하여 각 州府에 설치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2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2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22) 서거정 등, 앞의 책, 제5권 칠언고시 「朴淵與磬叔耆之大虛子珍同賦」 / 허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의 금의 명인 琴高가 나타나 있다.

橫空積翠千萬峯	공중에 걸친 푸른빛 천만 봉우리는
一一削出金芙蓉	일일이 금부용을 깎아 낸 듯하고
鐵甕深貯玻璃清	쇠 항아리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두었다가
玉峽倒注銀河傾	옥 골짜기에 거꾸로 쏟으니 은하수를 기울이는 듯
跳珠噴玉隨亂沫	뛰는 구슬, 뿜는 옥 같이 구르고 거품을 내니 어지럽고
日光紫電紛相掣	햇빛과 자줏빛을 띤 번갯불이 부딪쳐 엉키고 끌어당기네
欲與琴高騎魚龍	금고와 더불어 어룡을 타고
一笑拍浮懸流中	웃으며 박수치면서 폭포 속에 둥둥 떠 있고 싶어라

(하락)

이 글은 박연폭포의 해맑고 눈부신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가히 仙境에 가까운 장소라 할 만큼 폭포에 대한 작가의 칭송이 만만치가 않다. 이 글을 통해서 작가의 거문고에 대한 조예가 얼마나 깊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국 조나라의 금고²²³⁾라는 금의 명인을 작중 인물로 끌어들여 함께 유희를 즐기고 싶다는 내용만으로 볼 때, 그 흥취만큼은 이미 경지에 오른 듯하다.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시상에서나마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유의 「次韻題權僉樞蓬壺寶唾卷」²²⁴⁾에는 南朝시대 宋의 중병(宗炳: 小文)²²⁵⁾이 나타나 있다.

寶墨開新卷	보배가 될 만한 좋은 글 ²²⁶⁾ 들 새 책으로 내려고
冥搜閱幾年	몇 해나 이리저리 찾아 가려내고 조사하여 수집했을까

223) 趙나라 사람으로 거문고를 잘 땃었으며, 제자들과 龍의 아들을 잡으려고 물에 들어가 잉어를 타고 나왔다가 다시 물에 들어갔다 한다. (『列仙傳』) 一說에는 漢代 사람으로, 涇水 북쪽 산 바위에 살다가 붉은 잉어를 타고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 한다. (『名勝志』)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24) 장유, 앞의 책, 제29권 「次韻題權僉樞蓬壺寶唾卷」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25) 少文은 南朝宋 때 琴·書·畫에 뛰어났던 宗炳의 字이다. 老莊學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 衡山에 은거하면서 조정에서 불려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함(『宋書』 卷93·『南史』 卷9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26) 보타권(寶唾卷) : 타인의 詩集을 높이 부르는 말이다. 『장자』 「秋水」에 나오는 “欸唾成珠”의 설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風輪人世轉	풍선이 돌아가듯, 바람에 나부끼듯 변해가는 인간 세상
雲壁鶴巢遷	구름 낀 벼랑 위에 학의 둥지 같은 보금자리로 옮겼구나
衰疾慙眞訣	양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 부끄럽게도 노쇠하고 병든 이 몸
名山負勝緣	명산과도 좋은 인연이 아닌 듯하네
少文存晚計	만년의 설계는 소문 ²²⁷⁾ 의 인생처럼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仙賞任君先	소문에게 먼저 이상적인 삶을 빼앗기고 말았네

이 예문에서도 역시 악기나 음악에 관한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남조 송(南朝宋) 때 琴·書·畫에 뛰어났었고, 노장학에도 깊은 조예를 지녔음에도 은거하며 살았던 ‘중병의 전설적인 일화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가가 바라는 삶과 연계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색의 「鳳山十二詠子通臨行索賦」 중 「水洞」²²⁸⁾에는 공자에게 금을 가르쳐 준 춘추시대의 魏나라 악관 師襄이 나타나 있다.

(상략)

雅樂久矣殘	아악이 쇠잔해진 지 오래되었음이라
師襄入海去	사양이 바다로 들어가 버리니 ²²⁹⁾
宮商互相奪	궁·상의 소리가 서로 뒤섞여
節奏茫無據	가락·장단·세기 등의 흐름을 의거할 데가 없었는데
忽驚洞中水	홀연히 놀란 것은 골짜기의 물이
鏗鏘中律呂	굵고 낭랑한 소리로 울려에 맞음이라
物理固自然	만물의 이치는 원래 자연의 것이니
天機妙難覩	하늘의 뜻은 묘하여 엿보기가 어렵구나
祗恐金石藏	단지 두려운 건 쇠나 돌을 감추고 있는
瀕洞不知處	혼돈의 상태가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음이

227) 南朝 宋 때 琴·書·畫에 뛰어난 중병의 字이다. 노장학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 衡山에 은거하면서 조정에서 불러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宋書』 卷93, 『南史』 卷95)

228) 이색, 앞의 책, 제3권 시 「鳳山十二詠子通臨行索賦」 중 「水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29) 水洞·師襄은 공자에게 거문고를 가르쳤던 樂師 襄을 가리킨다. 춘추 시대에 周나라가 쇠퇴하여 樂이 폐해진 데다 魯나라 또한 극도로 쇠해짐에 미쳐, 난리를 피하기 위해 노나라의 太師 이하 모든 악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적에 사양은 바다로 들어갔으므로 이른 말이다(『論語』 「微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아악이 쇠잔해진 시절에 음악을 잘 아는 사악마저 바다로 가고 없으니,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연의 음향이 인위적인 음악과 맞으니 하늘의 뜻은 묘하다”고 하였다. 결국, 이 시를 통해서 아악과 자연의 음향을 하나로 보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응희(李應禧, 1579~1651)의 시 「次安十九秀才韻」²³⁰⁾에는 前漢의 辭賦에 뛰어났던 문인이며, 금의 명인이었던 사마상여가 나타나 있다.

蕭洒離塵想	청정하여 속세의 티끌 따위의 생각이 떠난 곳
巖間久臥雲	바위틈에서 구름에 누운 지 오래되었고
逢源應獨樂	근원을 만나면 홀로 즐거이 따르고
得意認私欣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니 스스로가 기쁨을 알겠지
安石時難出	안석은 당시에는 나오기가 어려웠고
相如漫屬文	상여는 문장을 엮어서 글 짓는 데만 빠져있었네
春風傳錦句	봄바람에 비단처럼 아름다운 시구(詩句) 전하니
佳氣溢氛氲	길하고 맑은 기운이 가득 넘치네

‘逢源應獨樂 得意認私欣’에서는 학문을 하여 진리를 앎을 나타내고 있으며,²³¹⁾ ‘安石時難出’에서는 작중인물인 안처행이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오지 않고 은거하고 있음을,²³²⁾ ‘相如漫屬文’에서는 작중 인물인 안처행이 문장은 뛰어나지만 벼슬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²³³⁾ 이 글에서는 彈琴으로써 탁문군과의 러브스토리²³⁴⁾를 후세에 남

230) 이응희, 『玉潭詩集 옥담유고』 중 「次安十九秀才韻」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31) 『맹자』 「離婁 下」: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自得之則居之安 居之安則資之深 資之深則取之左右 逢其原 故君子欲其自得之也. 군자가 깊이 나아가기를 도로써 함은 자득하고자 해서이니, 자득하면 處하는 것이 편안하고 처하는 것이 편안하면 資賴함이 깊게 되고 자뢰함이 깊으면 좌우에서 취함에 그 근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32) 『晉書』 卷79 「謝安傳」: 晉나라 謝安의 자가 안석이다. 그는 경륜과 지략이 뛰어나 명망이 높았는데 會稽의 東山에 은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자 당시 사람들은 “안석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니, 창생들을 어찌하려는가.”라고 말하였다. 뒤에 桓溫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 외적을 물리치고 內政을 닦는 데 탁월한 공을 세워 벼슬이 太保에 이르렀다. 특히 동진 孝武帝 太元 8년에 前秦의 왕 苻堅이 친히 백만 대군을 지휘하여 동진의 수도에서 멀지 않은 淝水에 까지 쳐들어 왔는데, 사안이 (征討大都督으로 출전하여 대파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33)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상여는 漢나라 때 賦의 대가인 사마상여를 가리킨다. 그가 지은 「子虛賦」를 한무제가 보고는 옛사람이 지은 것이라 여겨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함을 한탄하였는

긴 사마상여가 문인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다.

장유의 시 「題希窩玄公詩稿三十韻」²³⁵⁾에는 송나라 眞宗 때 은사 魏野가 나타나 있다.

(상략)

盥水一披讀	손을 씻고서 책을 한 번 읽어 보니
聲韻何琮琤	옥돌이 부딪는 소리 같은 어찌나 맑은 운율인지
碧瀨少淵泓	푸른 여울물 같아서 깊이는 다소 모자라지만
清澈心神醒	맑게 부딪는 소리에 정신이 깨어나네
瓊樹美柯條	옥같이 귀한 나무의 아름다운 가지의 생각으로는
不願充筵櫨	작은 집 기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野逸林魏儔	임포 ²³⁶⁾ · 위야 ²³⁷⁾ 와 짝하여 야인이 되어 은거하면서
刻厲郊島并	맹교 ²³⁸⁾ · 가도 ²³⁹⁾ 와 어우러져 각고면려(刻苦勉勵)하니
陡覺牙頰爽	갑자기 이와 뺨이 시원해짐을 깨닫게 되고
越茗滌葷腥	차(茶)로 입안을 행군 것처럼 비린내가 달아나네

(하략)

이 글에서는 송나라의 은자 임포와 위야가 작중인물로 등장하여 은둔의 상징으로 비유되었고, 당나라의 숨씨좋은 시인 맹교와 가도가 작중 인물로

데, 蜀) 땅 출신으로 사마상여와 동향인 楊得意가 보고 사마상여가 지은 것을 밝혔다. 이에 무제가 크게 놀라 사마상여를 불러들이자, 사마상여가 “이는 제후의 일을 읊은 것이라 볼 것이 없습니 다.” 하고 한나라 궁중의 上林園에서 천자가 놀이하는 광경을 묘사한 「上林賦」를 지으니 한 무제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34) 文園의 鳳凰曲은 漢의 사마상여를 말한다. 상여가 무제 때 孝文園令이 되었었는데 그가 일찍이 금을 잘 닦으므로 당시 부호였던 卓王孫의 딸 文君이 그 琴의 소리에 반하여 야반도주하여 상여와 함께 살았다. (『史記 司馬相如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35) 장유, 『계곡집』 제25권 「題希窩玄公詩稿三十韻」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236) 西湖의 孤山에 집을 짓고 20년 동안 세상에 나가지 않은 채 매화를 심고 학을 길렀던 宋나라의 隱者이다. (『宋史』 卷457).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37) 陝州 東郊에 草堂을 짓고 금 연주와 시를 즐겼던 송나라의 은자이다. (『宋史』 卷457).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38) 嵩山에 은거하다가 나이 50에 進士에 登第하여 韓愈와 忘年의 교우 관계를 맺었던 唐나라 시인. 그의 시에는 이치가 깃들어 있어 한유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았으나, 일반적으로 ‘思苦奇澁’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新唐書』 卷17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39) 처음에 승려가 되었다가 한유의 권유를 받고 진사가 되었던 당나라 시인. 그가 고심하며 시를 지을 때에는 公卿이나 貴人을 만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고사가 전해 온다. (『新唐書』 卷17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등장하여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이 중 금이나 거문고와 관련된 인물은 陝州 東郊에 초당을 짓고 금 연주와 시를 즐겼다는 송나라의 은자 위야이다.

윤두수(尹斗壽, 1533~1601)의 「題刻手僧天鑑軸」²⁴⁰⁾에는 송나라 승려인 思聰이 나타나 있다.

面壁談空謾自勞 면벽하여 막연한 담론으로 괜히 수고로우나
聰琴殊蜜亦孤高 사충의 과 중수의 꿀도 또한 홀로 고결하였다네.²⁴¹⁾
何如辦得千般字 어떤가 천자의 글을 준비하여서
留使書生繼晷膏 서생을 머물게 하여 햇빛·등불 아래서 계속 읽게 함이

이 글에서는 면벽 수련을 하는 스님에게 부질없는 공염불만 하지 말고, 송나라 때 錢塘의 詩僧인 사충이 금을 연주했던 사실, 그리고 承天寺의 승려 중수가 꿀을 좋아했던 것을 인용하여 작가는 작중 승려에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라는 충고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는 거문고에 관련된 일보다는, 당시 사회의 중심사상이 성리학이었음으로 인해, 불교도들의 고유한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배려가 적었다는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이 제3장에서는, 각 악기의 재료나 부품으로 오동나무와 명주실 등의 부품과 금의 휘·현, 슬의 주현·주(柱: 雁足안족, 기러기발) 등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거문고의 부품 중 안족은 드물게 발견되고 있으나, 음정을 나누는 樛와 연주에 사용하는 술대(匙)에 대한 표기는 찾아보기 힘든 편이다.

고전문헌의 예문에는 ‘膠柱鼓瑟’이라는 사자성어가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이 문구가 나타내고 있는 악기는, 꺾와 안족이 설치되어 있는 거문고나 柱가 설치되어 있는 슬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슬의 주, 즉 안족

240) 윤두수, 『梧陰遺稿』 제1권 「題刻手僧天鑑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41) 사충과 중수는 모두 송나라 때의 스님들로, 사충은 금을 잘 탔고, 중수는 꿀을 유독 좋아하였다고 한다. (『新續高僧傳』 卷4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이 비유의 매개체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요진·남주진·옥진·직현·속현·묘현 등의 제각기 상징성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 부품 이름들이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 ‘거문고를 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들 단어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 문장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어져 상징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거문고의 연주용어로 차용된 금의 연주용어의 논의에서는 각각의 상징성대로 선택되어 문장 전체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금을 연주한다.’는 내용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관찰된다.

고전문헌에 자주 나타난 금으로 그것의 명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소지했던 古琴 즉 명금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에는, 순금·초미금·해상금·아·혜금·무현금·녹기금 등이 있다. 이들 역시 명인·명금의 고사를 수반한 내용과 함께 문장 전체의 흐름에 적합한 용어로 선택되어 사용되었는데, 작가의 뜻과 품격 등을 고사의 명인에 비유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고금의 명인과 명곡에는, 순임금의 「남풍가」·백아의 「아양곡」·혜강의 「광릉산」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 명곡들의 이면에서는, 각각 儒家의 국가적 이상·유가의 개인적 이상·道家의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금의 부품·연주 용어·금의 명인·명곡 등이 차용된 경우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들로부터 음악적·문학적 사상과 백성교화 등의 통치 문화, 그리고 그 외의 미의식을 내재한 어휘나 문구들을 우리의 작가들이 차용하여 문장에 사용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또 대륙으로부터 한반도로 건너와 우리의 고전문헌의 다방면에 수용되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투영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은 고사의 내용을 수반하여 전달되면서 우리의 거문고 연주자나 애호가들에게 명인들의 정신성을 전달하는 가운데 명곡의 심미적 세계를 동경하게끔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악사상의 토양에서 ‘고아한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남긴 채취는 고전문헌의 내용을 통해 우리 선비들의 거문고사상으로 다시금 향기를 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 4 장 거문고의 彈奏환경과 音響 鑑賞

제 1 절 거문고 傳承系譜에 나타난 성격

거문고 음악의 전승계보가 나타난 『삼국사기』 잡지 1 신라악 현금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사람 사찬 공영의 아들 옥보고가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서 50년 동안 금을 배운 뒤 스스로 신조 30곡을 새로 지어서 속명득에게 전수하고, 속명득은 이것을 귀금 선생에게 전수하였다. 선생 역시 지리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²⁴²⁾.

『삼국사기』에 기록된 문장 내용으로만 본다면 신라귀족의 아들인 옥보고가 생래적 환경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출세나 부귀영화 등을 선택하지 않고 입산 수련을 하여 50년의 독공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속명득으로부터 옥보고의 예술적 유전자를 물려받은 귀금 선생 역시 은일의 삶을 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송방송은 옥보고가 고구려 유민일 것이라고 추정²⁴³⁾한 바가 있고, 최종민은 고구려의 고신도사상과 연개소문의 도교정책으로 인한 신선사상이나 은둔사상의 보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런 이유에서 옥보고가 지리산에 들어가 은둔하면서 신선도의 길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⁴⁴⁾.

옥보고를 시점으로 3대를 이어간 예술적 성향은 은거·은둔·은일 등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짝을 띄워가는 방향에 따라 노장사상·신선사상·고신도사상 뿐만 아니라, 무교사상·바탕 풍류도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242)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164면(원문), 168면(번역본).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 樂, 羅人沙滄恭永子玉寶高 入地理山雲上院 學琴五十年 自製新調三十曲 傳之續命得 得傳之貴金先生 生亦入地理山不出

243) 송방송c, 앞의 책, 95-101면.

244) 최종민b, 앞의 책, 373면.

한편, 본고 서론의 선행연구 개관에 나타난 선행 연구자들의 한국음악사상과 거문고에 대한 주장을 참조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명희는 한국음악에 대한 철학적인 사상의 생성과정을 무교사상이나 신선사상 위에 다른 사상들이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온 문화현상이라 하였다. 또, 신성성·전인적·풍류적인 음악전통으로 보완하여 거문고의 천인합일적·자연귀의적·우주론적인 정신세계를 음악의 궁극적 이념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민은 거문고는 풍류음악의 대표적인 악기로 존중되고 있고, 풍류는 천인합일하면 신선이 되고, ‘이복기성’의 상태가 된다고 믿는 사상이라 하였다. 그리고 풍류의 음악사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천인합일의 고신도사상을 배경으로 이어져 오는 사상’이니, 거문고의 음악사상으로 보아도 된다고 하였다. 또, ‘무악의 음악미로 신인합일을 개념어’로, 전통음악의 특징과 아름다움은 ‘和의 철학’, ‘화의 사상’, ‘화의 미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논증하였다고 했다.

한홍섭은 한명희·최종민 등이 주장한 풍류도가 한국음악의 철학과 뿌리라는 견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풍류·향가·무교·금도 등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입증을 시도하여 풍류도가 신라 천년동안 악가무의 배경의식에 깊이 연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신라사회의 독자성은 ‘무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탕풍류도에 있다’고 하였다.²⁴⁵⁾

위 세 학자들의 선행 연구논의에서는, 이들이 주장한 사상체계의 어휘만 조금씩 다를 뿐, 신선사상·고신도사상·무교사상·바탕풍류도 모두가 단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의 대응점을 바꾸어 연결할 때마다, 그들 각각의 이면에 함유되어있는 공통된 원소들이 다분히 발견된다. 이들 모두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실용주의적인 사상과는 달리 현실세계에 대한 신비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론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고전문헌상에 은둔의 상징으로 자주 나타나는 노장사상²⁴⁶⁾은, 신선사상·고신도사상·무교사상·바탕풍류도와

245) 본고 5~12면 선행연구 개관 내용 참조.

246) 중국의 신선은 노장사상이나 도교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선사상은 중국의 노장사상이나 도교와는 원래 무관하다. (중략) 한국인들은 신선 또는 선인의 뿌리를 단군에서 찾는다.

그 뿌리가 다르다는 점에서, 신라음악의 특징으로 들 수가 없다. 중국의 신선과는 깊은 관련이 있으나, 단군과는 어떻게든 관련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 향악과 고려·조선 아악의 미학적 경계를 결정짓는 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옥보고를 잇는 음악가들의 애깃거리가 앞의 내용들처럼 토착적 신앙의 요소들과 밀접한 효용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순수음악을 하는 악사로서의 궁극적인 수련의 목적은 ‘거문고로 일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완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적의 연주학습 환경에서 심화적인 기능의 연마를 통해, 보다 미묘한 음악적인 경지와 맑고 밝은 정신성을 얻기 위함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라왕은 금도가 단절될까 염려하여 이찬 윤홍에게 방편을 얻어 그 음률을 전수받으라 하고, 드디어 그에게 남원의 공사를 맡게 하였다²⁴⁷⁾.

신라왕이 금도의 단절을 우려하여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신라의 십칠 관등 가운데 둘째 등급인 고급 관리를 남원에 파견하여 음률을 전수받아 오라고 했다는 사실은 당시 신라사회에서의 금도에 대한 위상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또한 문헌상에 금도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금도의 효용은 수양을 통한 자기완성이라는 개인적 효용, 풍류로서의 사회적 효용, 현묘지도로서의 국가적 효용가치를 발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의 신라사회 전반에 걸친 온 백성들의 삶에도 그 효용의 혜택을 주고자했을 것이라는 통치철학에 대한 존립의 타당성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에서의 금도는 장차 국가적 도의 맥을 이어가는 ‘爲國之道’로 신봉되어졌을 것이므로 신라왕이 스스로 정치적·사회적 비중이 상당한 인물을 보내어 금도를 얻고자 애를 썼을 것임이 분명해진다.

(한영우, 『한국선비지성사』 (서울: 지식산업사, 2010), 60면 참조)

247)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164면(원문), 168면(번역본). 卷 第三十二 雜誌 第一 祭祀 樂, 羅王恐琴道斷絕 謂伊飡允興方便傳得其音 遂委南原公事

윤홍은 관에 도착하여 총명한 소년 두 사람을 뽑았으니 안장과 청장이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산중으로 가서 배움을 받게 하였는데, 선생은 가르치면서 은미한 부분은 전수해 주지 않았다²⁴⁸⁾.

신라왕이 파견한 이찬 윤홍이 총명한 두 소년 안장과 청장에게 거문고의 연주법을 배워오게 하였으나, 귀금 선생은 거문고 음악의 심화과정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라왕이 필요성을 체감하여 명을 내렸고, 고위 관료가 감독을 맡은 사업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대를 달리한다면, 한낱 기예인에 불과한 귀금 선생이 금학을 전수해줌에 있어 열성을 다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의 내용에서는 당시 신라사회의 ‘금도에 대한 중요성과 경지에 이른 당시의 거문고 예능보유자들의 높은 위상’을 짐작케 하고 있다.

윤홍은 부인과 함께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나를 남원으로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의 기술을 전수받고자 함인데, 이제 3년이 지났으나 선생은 비밀이 있어 전수치 않으니, 나는 왕에게 복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윤홍은 술을 받들고 그의 아내는 잔을 잡고 무릎으로 기어서 예와 정성을 다한 후에야 그 비밀의 표풍 등 세 곡을 전수받게 되었다²⁴⁹⁾.

왕명을 받들고 파견된 윤홍과 그 부인의 굴욕적인 청탁은 차치하고, 앞의 내용에서 옥보고가 새로 지은 30곡은 속명득에게, 속명득은 귀금 선생에게 차례로 전수해 주었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었는데, 귀금 선생이 전수를 미룬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는 옥보고가 50년만의 독공 끝에 이룬 귀한 금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그 공력의 깊이를 오래도록 존속시키고 싶었던 귀금 선생의 충정어린 한 방편이었을 것이라 추정을 해본다.

안장은 그의 아들 극상과 극종에게 전수하였고, 극종은 일곱 곡을 제정하니, 극

248)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 樂, 允興到官 簡聰明少年二人 安長淸長 使詣山中傳學 先生教之而其隱微不以傳

249) 위의 책, 允興與婦偕進曰 吾王遣我南原者 無他 欲傳先 之技 于今三年矣 先生有所秘而不傳 吾無以復命 允興捧酒 其婦執盞膝行 致禮盡誠 然後傳 所 秘飄風 三曲

종의 뒤에는 거문고로써 자기의 업을 삼은 자가 하나들이 아니었다²⁵⁰⁾.

이상과 같이 옥보고, 속명득, 귀금선생, 안장, 청장, 극상, 극중에 이르는 신라 금도의 맥을 이어온 거문고 연주가의 계보를 살펴보았다. 옥보고는 입산하여 50년의 독공 수련으로 새로운 30곡을 지었고, 속명득·귀금선생은 세대를 달리하며 전수받아 금도를 은일하는 가운데 보존하였고, 세속의 안장·청장은 우여곡절 끝에 전수를 받아 극상·극중에게 전수하였다. 극중은 다시 일곱 곡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업으로 삼는 자가 많아졌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가르치거나 연주하는 자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입산하여 수련한 결과 새로운 곡을 지은 옥보고는 신라 금도의 선구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속명득과 귀금선생 등이 금도를 통해 세상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던 ‘禪師’들이라 할 수 있다면 안장·청장은 목마른 영혼을 살리고자 금도의 샘물을 얻으려 달려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진 給水로 금도의 갈증이 해소된 극상과 극중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천존고에 보관되었던 거문고는 세상에 나와 본격적으로 빛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천존고에 보관되었던 거문고는 옥보고가 입산하여 금도를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방치되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옥보고가 입신양명 등의 세속인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입산 수련하고자 했던 기록의 반대편에서 논리를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금도를 이룬 사람이 없는 이상 천존고 안의 거문고는 단순히 ‘갑 속의 금’으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그 누군가는 금도의 성립을 위해 자원해야 할 형편이었을 것이다.

잠시 본 논의를 벗어나 가야금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그 후 우륵은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므로 악기를 들고 신라의 진흥왕에게 의탁하니 왕이 받아 들여 국원에 편히 살게 하고 이에 대나마 주지, 계고와 대사 만덕을 보내어 그 업을 전수받게 하였다²⁵¹⁾.

250)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安長傳其子克相克宗 克宗制七曲 克宗之後 以琴自業者非一二

가야금의 경우에는 이미 가야금의 금도를 이룬 우륵이 있었으므로, 주지와 계고, 만덕을 지금의 충주에 보내 전수케 하였다. 이러한 거문고와 가야금의 傳授와 傳受를 하는 모두가 귀족계급에 속한 자들이었다. 이는 신라가 금도를 중히 여긴 까닭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한편, 본 논의에서 입산 수련하여 거문고의 금도의 성립을 이룬 옥보고를 송방송의 추정대로 고구려의 유민이라 가정하여 내세울 경우, 가야금의 우륵은 가야에서 싹을 틔워 이미 만개한 금도를 가지고 들어왔고, 옥보고의 경우 씨앗만 싸들고 신라에 들어와 거문고가 천존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자타의 의지대로 입산하여 금도를 이루려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는 다만 가정하여 추론해보는 논의에 불과하지만, 거문고가 천존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당시의 신라에는 거문고의 금도가 확립되지 않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진다.

제 2 절 거문고의 탄주 배경

1. 時・空間的 탄주 배경

小春에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강석덕의 오언절구「春帖子」²⁵²⁾에 나타난 시간적 탄주배경은 ‘이른 봄’이다. 이른 봄을 맞아 들과 들로부터 번져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거문고를 연주함으로써 반긴다고 하였다. ‘圭寶’에서는 소박한 생활을 하는 작가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푸른 빛·흰 빛·영롱한 빛깔의 옥으로 치장한 거문고 등의 시어에서는 작가만의 唯美的인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이 시에 나타난 공간적 탄주 배경은 ‘푸른 채소밭·흰매화가 핀 들’이며, 탄주 장소는 ‘들창 안의 작은 오두막집’이다. 신희의「用前韻記懷」²⁵³⁾에는 봄바람이 불어올 때 거문고와 함께 산수를

251)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위의 책, 165면(원문). 169면(번역본). 後于勒以其國將亂携樂器投新羅眞興王 王受之安置國原 乃遣大奈麻注知階古大舍萬德傳其業

252) 주) 103 참조.

찾아 거침없이 놀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崩崖凍色尙封林	무너지는 벼랑의 언 빛은 여전히 숲에 붙어 있는데
野眺蒼茫集客襟	넓고 멀어 아득한 들판은 나그네의 가슴으로 모여드네
春到綠蘿宜結屋	푸른 덩굴에 봄이 오면 마땅히 집을 동여맬 만한데
調成白雪可無琴	백설사의 음률을 이룬 자리에 어찌 거문고가 없겠는가
紛紜眼底當時事	안중에 있던 어지럽고 난잡한 것이 당시의 일이라면
磊隗胸中萬古心	높은 기상은 가슴에 남아 있는 오랜 세월 변함없는 마음일세
遮莫東風遊漫浪	봄바람 막지 못하면 멋대로 놀 수 있으니
水南山北不須禁	앞의 강과 뒷산을 찾는 것 모름지기 금하지 말라

이 시에 나타난 시간적 탄주 배경은 ‘봄바람이 불어올 때’이다. 백설사의 음률을 이루고 높은 기상은 변함없으니, 봄을 맞아 거문고를 들고 앞내 뒷산을 찾아 자유롭게 놀겠다는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난 공간적 배경은 ‘겨울의 언 숲·백설사의 음률을 이룬 자리’이며, 탄주장소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거정의 시 「四和二首」²⁵⁴⁾에는 달빛 좋은 봄날의 밤에 거문고 연주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梅花窓畔酒醒時	매화 핀 들창 가에서 술이 깨었을 때
獨坐無人月政奇	아무도 없이 홀로 앉아 있노라니 달빛이 찬란하구나
此夜此時詩更好	이 밤 이 시간에 시를 읊음도 좋은 일이라
思君爲我撫桐絲	그대에게 바라니 나를 위해 거문고 한 번 타주게

이 시에 나타난 시간적 탄주배경은 ‘봄날의 달밤’이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와 분위기는 들창 가에서 넘어다보는 ‘매화가 피어있는 달빛 좋은 밤’이다. 달빛은 매화를 품었을 것이다. 시각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를 읊조리고 싶은 호젓한 달밤이다. 달빛이 매화를 희롱하는

253) 신희, 앞의 책, 제16권 시 칠언율시 105수 중 「用前韻記懷」(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54) 서거정, 앞의 책, 제22권 「四和二首」 중 첫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동안 그대는 거문고를 어루만져 이 시의 작가인 서거정을 위해 한 곡조 타 주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난 공간적 탄주 배경은 ‘들창 밖에 핀 매화 · 들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며, 탄주 장소는 ‘들창이 달린 방안’인 듯하다.

정약용의 시 「四六八言」²⁵⁵⁾에는 봄날의 달밤에 거문고 타고 바둑 두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時往時還	가는 세월 돌아오는 세월
似忙似閒	바쁜 것인지 한가한 것인지
今日群賢曲水	오늘은 현인들이 곡수에서
明朝九老香山	내일 아침에는 아홉 노인이 향산에서 논다하네
琴囊棋局風前月下	바람 앞 달빛 아래에서 거문고 타고 바둑을 두며
酒榼茶甌竹裏花間	대숲 속 꽃밭에서 술을 따르고 차를 따라 마시네

이 시에 나타난 시간적 탄주 배경은 ‘달뜨는 봄밤’이다. 왕희지가 당시의 명사들과 봄날 시냇물에 술잔을 띄워 마시며 시로 즐긴 고사²⁵⁶⁾와, 당 나라 때 백거이가 형부상서로 있다가 掛冠할 나이 70이 넘는 노인들과 九老尙齒之會를 맺고, 자기의 향산 별장에서 시를 지으며 놀았던 고사²⁵⁷⁾를 인용하여, 작가의 한가한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난 공간적 탄주 배경은 ‘바람 앞 달빛 · 곡수 · 향산’이며, 탄주 장소는 ‘대숲 속 꽃밭’이다.

이색의 시 「聞李生誦伯賈詩欣然次其韻」²⁵⁸⁾에는 가을날의 초저녁 시간이 거문고 소리를 감상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255) 정약용, 앞의 책, 제2권 「四六八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56) 진(晉) 나라 왕희지(王羲之)가 회계군(會稽郡) 내사(內史)로 있을 때 삼진달 오현(吳縣)의 난정(蘭亭)에서 당시의 명사 42인과 함께 모여 좌우에 흐르는 시냇물에 술잔을 띄워 마시며 시를 짓고 즐겼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57) 香山은 중국 河南 洛陽 龍門山의 동쪽에 있는 산. 당 나라 때白居易가 형부 상서로 있다가 그만두고 호고(胡杲) · 길교(吉皎) · 유진(劉真) · 정거(鄭據) · 노정(盧貞) · 장혼(張渾) · 이원상(李元爽) · 여만(如滿) 등 나이 70이 넘는 노인들과 九老尙齒之會를 맺고 자기의 향산 별장에서 시를 지으며 놀았다. 『新唐書』 卷119 「백居易전(白居易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58) 이색, 앞의 책, 제5권 시 「聞李生誦伯賈詩欣然次其韻」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勢包天地浩難窮	천지를 감싸려 하지만 넓기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吹去吹來有細風	부드러운 실바람이 술술 일어 오가며 부는구나
散步高吟衣皺白	천천히 걸으며 높은 소리로 노래할 땀 옷 주름이 희어지고
淺斟低唱帳圍紅	술잔을 나누며 낮은 소리로 노래할 땀 휘장 끝이 붉어지네
林疎豈護孤棲鳥	성긴 숲이 어떻게 홀로 사는 새를 보호하겠는가
雲暗應迷萬里鴻	구름 깊은 곳에는 응당 기러기의 먼 여정이 흐트러져 있으리라
只合聽琴仍作記	단지, 거문고 소리 듣고 기문 짓기에 적합할 뿐
九泉那得喚南豐	구천의 남풍 ²⁵⁹⁾ 을 어찌 불러올 수 있겠는가

이 시에 나타난 거문고의 연주를 타고 감상하는 시기는 일단은 ‘가을날의 초저녁 시간’이다. 좀 더 구체적 시기로 ‘넓은 천지에 실바람이 술술 불고, 구름 속에 기러기가 날아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았을 때’라고 하였다. 이 시에 나타난 공간적 탄주배경은 ‘새가 사는 숲·기러기 나는 하늘’이며, 탄주 장소는 아마도 ‘야외에 있는 어느 누각’인 듯하다.

어느 가을날의 달밤에 옛 동산이 그리워져서 거문고를 탄다는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秋夜」²⁶⁰⁾에는, 어느 가을날의 달밤에 옛 동산이 그리워져서 거문고를 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략)

少焉山月上	이윽고 산에 달이 솟아오르니
庭柯布疎陰	정원의 수목들 성긴 그늘 펴네
恍然沈痾瘥	한 순간 해묵은 병 물러가 버리고
冲澹生胸襟	평화와 담박이 가슴속에 우러나네
因之懷舊山	옛 동산이 그리워져서
彈我牀上琴	평상 위 거문고를 둥둥 탄다오
秋風吹南去	가을 바람 남쪽으로 부니
託此寄遺音	바람을 의탁해 유음을 부치노라.

(하략)

259) 남풍은 宋나라의 文人 증공(曾鞏)의 별호인데, 증공이 특히 記文이나 序文 등을 잘 지었으므로 이른 말인 듯하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60) 정도전, 『三峯集』 제1권 오언고시 「秋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이 시에 나타난 시간적 탄주배경은 어느 ‘가을날의 달밤’이다. 정신적인 분위기로는 달이 떠오르니 한 순간에 해묵은 병이 물러가고, 평화와 담박(淡泊)함이 우러나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옛 동산이 그리워진다고 했는데, 조선의 개국공신이 전날 배반했던 고려를 그리워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아마도 조선의 수도 한양에 살면서 고려시대 개성 근처의 옛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시에 나타난 공간적 탄주 배경은 ‘산에 솟아오르는 달·정원의 수목·옛 동산·가을바람’이며, 탄주 장소는 ‘집안에 있는 평상 위’이다.

홍대용의 시 「寄陸篠飲飛」²⁶¹⁾에는 가을날의 달밤에 거문고를 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략)

夕霽生秋氣	밤비 개이고 가을 기운 일어나니
金風決陰雲	서녘 부는 바람 먹구름 지게 하네
月出天地白	달이 올라오니 천지가 환하고
萬井息游氛	우물마다 떠다니던 연무가 걷히네
繁慮蕩無跡	번거로운 많은 생각들 쓸어 없애 흔적 없고
幽興自歡欣	그윽한 흥취가 저절로 일어 즐겁구나
瑤琴二三曲	아름다운 거문고 두세 곡조에
滿堂爐煙薰	향로에 피운 향의 연기 당에 가득 훈훈하네
對景發深省	어두워진 마음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肅然事天君	경건한 자세로 하늘의 뜻을 섬기리

(하략)

이 시에 나타난 시간적 탄주 배경은 ‘달이 뜬 가을밤’이다. 번거로운 생각을 다 떨치고 나니, 그윽한 흥취가 절로 일어나 즐겁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름다운 두세 곡을 연주함으로 인해 경건함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며 하늘의 뜻을 잘 섬기겠다고 하였다. 거문고를 연주함으로써 雅趣를 습득하게 되고, 또한 修身하게 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시에 나타난 공간

261) 홍대용, 앞의 책, 내집 3권 시 「寄陸篠飲飛」(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적 탄주 배경은 ‘달빛·연무·향의 연기’이며, 연주 장소는 ‘집안의 대청이나 사당 앞 마루’일 것으로 짐작된다.

섬돌에 빗방울이 흐르고, 처마 밑에 오동잎이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 밤이면, 거문고 타기에 알맞다는 권근(權近, 1352~1409)의 「雨亭記」에 나타난 내용이다.

(전략) 가랑비가 자욱하게 주렴에 뿌리고 뜰에 이끼 낀 고요한 낮에 이르면 마땅히 바둑을 둘 만하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섬돌에 방울져 떨어지고, 처마 밑에 오동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밤이면, 마땅히 거문고를 탈 만하다. 찌는 듯한 불꽃더위는 이미 씻은 듯이 가고, 맑은 바람이 상쾌하게 불면, 항상 술자리를 벌이거나 항상 시를 읊조려도 마땅하다. (후략)²⁶²⁾

이 기(記)에 나타난 시간적 탄주배경은 일단 ‘가을 밤’이다. 이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주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빗방울이 섬돌에 구르는 소리가 나고, 오동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이르러 거문고를 타기에 알맞다고 하였다. 탄주하기에 알맞은 날씨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음향을 끌어들이며 제시하였다. 자연의 음향과 거문고의 울림을 함께 듣자는 것이다. 자연과 어우러짐으로써 급조된 실내악이 시청각적으로 고즈넉한 운치를 자아내게 하는 풍경이다. 그런데 작가인 권근은 비가 와 습한 날에는 현(絃)이 느슨해져 맑은 소리와 음량이 점감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오히려 ‘맑은 날의 달밤에 상쾌한 바람이 불 때’가 적시라고 본다. 이 글에 나타난 공간적 탄주 배경은 ‘빗방울이 섬돌에 구르는 소리가 나고, 오동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밤’이며, 탄주 장소는 ‘집안의 방이나 대청마루’일 것이다.

서거정의 시 「園中晚吟」²⁶³⁾에는 초승달이 떠오를 때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들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262) 서거정 등, 앞의 책, 제79권 기 「雨亭記」 / 권근(權近) (前略) 至若霏微洒簾, 庭苔, 晝寂而宜碁. 浙瀝滴階, 簷梧夜響而宜琴. 炎蒸已洗, 清飈洒然, 或宜置酒, 或宜哦詩 (後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63) 위의 책, 제20권 시류 「園中晚吟」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矮亭幽獨一園深	자그만 정자 한 정원 깊숙이 덩그란데
仕罷歸來坐樹陰	공무 마치고 돌아와 그늘에 앉자
宿雨未晴雲自闊	간밤의 비 아직 안 개어 구름만 제냥 들락말락
晚風初定日將沈	해거름에 일던 바람 몇자 해는 점점 잠기네
從教竹露衣巾濕	대숲의 이슬은 옷과 두건을 젖게 하고
付與荷香杖屨侵	연꽃 향기는 지팡이와 신에 스며드네
且待東岑新月上	장차 동녘 봉우리에 초승달 떠오르길 기다려
小娘纖手更鳴琴	어린 낭자의 섬섬옥수로 거문고를 타게 하리

이 시의 시간적 탄주배경은 ‘초승달이 뜨는 밤’이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와 분위기는 한적한 장소에서 한가로운 때를 맞이하여 ‘대나무 숲의 이슬에 젖고 연꽃향기가 스며드는 초승달이 뜰 때’이다. 어린 낭자의 섬섬옥수로 거문고를 타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거문고의 줄을 내리치는 단단한 술대가 가녀린 소녀의 손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주게 될지는 의아스럽다. 이 시에 나타난 공간적 탄주 배경은 ‘정원의 나무그늘·대숲·연못·초승달’이며, 탄주 장소는 ‘집안 정원 깊숙이 있는 정자’이다.

맑은 날 달밤에 모여 거문고와 술로 옛 정을 나누자는 내용이 나타난 서거정의 「四和三首」 중 세 번째 시²⁶⁴이다.

疎星穿草屋	드문드문 별빛은 초가집을 파고들고
纖月落風林	가느다란 달빛은 바람 부는 숲에 떨어지네
更約清宵會	맑은 밤에 모일 것을 다시 약속하니
琴樽話舊心	거문고 타며 동이술로 해묵은 회포를 다스려보세

이 시에 나타난 시간적 탄주배경은, ‘맑은 날 달밤’이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와 분위기는 별들이 드문드문 초가집을 비추고, 흐린 달빛이 바람 부는 숲을 비출 때이다. 모일 것을 약속하여 거문고 타고 술잔 나누면서 옛 정을 나누자고 하였는데, 당시 선비들의 의례적인 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264) 서거정 등, 앞의 책, 제5권 「四和三首」 중 세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이 시에 나타난 공간적 탄주 배경은 ‘별빛·달빛·바람 부는 숲’이며, 탄주 장소는 ‘초가집 안의 방’이다.

거문고의 시간적 탄주 배경에는 ‘달이 뜨는 밤 시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희의 「雜興」²⁶⁵⁾에서도 “글은 읽기 싫어지고, 시는 그런대로 읊조릴 만하고, 달 밝으면 거문고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였다. 또 김집(金集, 1574~1656)의 「次龜峯次山居」²⁶⁶⁾에서는, “버드나무 푸른 물오르고, 산 빛 따라 새들이 날고, 매미가 그늘 찾는 시간, 달이 좋아 오래도록 거문고를 만진다.”라고 하였다.

이이(李珣, 1536~1584)의 雜著 「學校模範」²⁶⁷⁾에서는, 거문고 등의 기예를 즐길 때는 규범을 두어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이의 『聖學輯要』 「正家」²⁶⁸⁾에서는, 『예기』 「曲禮 上」에 보이는 내용을 인용하여, 부모가 편찮으실 때에는 거문고를 타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시 「題吉處士再詩卷」²⁶⁹⁾에는, 삼년상을 지낼 때는 거문고를 통겨도 음률이 안 맞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265) 신희, 앞의 책, 제17권 시 오언절구 「雜興」: 老覺看書懶 늙어가니 글 보기도 싫어지고 / 閑從閉戶深한가로이 문을 꼭꼭 닫는다네 / 唯堪供嘯詠 휘파람에 시 읊기는 그래도 할 수 있어 / 明月近瑤琴달 밝은 밤이면 거문고를 가까이하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66) 김집, 『신독재전서』 제1권 시 「次龜峯次山居」: 堤柳煙光動 들의 버드나무 푸른빛 감돌고 / 長條拂地垂 늘어진 가지는 땅을 쓸고 있네 / 鳥分山色起 산 빛 따라 새들은 날아가고 / 蟬逐樹陰移 매미는 그늘 찾아 자리 옮기지 / 愛月携琴久 달이 좋아 오래도록 거문고 만지고 / 銜杯就枕遲 술 마시느라 잠자리 더디 든다네 / 寤言忘早暮 혼자 깨어 아침저녁도 잊은 채 / 閒誦考槃詩 한가로이 현자 기리는 시를 외운다네 // 규룡(虯龍): 구불구불한 소나무의 모양을 비유한 것이다. 이하 제1권에 실려 있는 시는 모두 귀봉의 시 제목을 그대로 써서 지은 것임을 밝혀둔다.(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267) 이이a, 『栗谷全書』 「율곡선생전서」 제15권 雜著 「學校模範」: “(前略) 讀書之暇 時或游藝. 如彈琴習射投壺等事. 各有儀矩. 非時勿弄. 若博弈等雜戲. 則不可寓日以妨實功. 글 읽는 여가에는 때로 기예를 즐기되 거문고 타기, 활쏘기 연습, 투호(投壺) 등의 놀이는 모두 각자의 규범을 두어 적당한 시기가 아니면 놀지 말고, 장기·바둑 등 잡희에 눈을 돌려 실제의 공부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후략)라고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268) 위의 책, 제23권 聖學輯要 5 제3 「正家」: “(前略) 父母有疾. 冠者不櫛. 行不翔. 言不惰. 琴瑟不御. 食肉不至變味. 飲酒不至變貌. 笑不至矧. 怒不至詈. 疾止. 復故. 부모가 편찮으시면 성인(冠子)은 빗질을 하지 않고 길 가는 데 팔을 내젓고 다니지 않으며, 말을 삼가고, 거문고와 비파를 타지 않으며, 고기를 먹어도 입맛이 변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고, 술을 마셔도 용모가 흐트러질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으며, 웃더라도 잇몸[齒本]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노하더라도 욕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다가 병환이 나오면 다시 그전대로 돌아간다.”(후략)라고 하였다.(『예기(禮記)』 「曲禮 上(曲禮上)」에 보인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269) 변계량, 『春亭集』 제2권 시 「題吉處士再詩卷」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曾將孝友樂餘生 진작 바라던 효도하고 우애 있게 여생을 즐기니
菽水還能薄世榮 변변친 못해도 도리어 세속 영화 가벼이 여겼네
祥禪相知哀未盡 상담 때에 슬픔 다하지 못함을 서로 알았으니
援琴應亦不成聲 거문고를 탄다한들 마찬가지로 성음을 이루겠는가

祭禮에서 사람이 죽은 지 만 두 돌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례인 大祥과 대상을 치른 다음 달에 지내는 禫祭인 祥禫 때에 슬픔을 다하지 못함을 서로 아는 만큼 ‘거문고를 타도 성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조의 「敦孝錄序」²⁷⁰⁾에서는 喪을 마치고 나서 거문고의 연주를 시도할 때는, 금(거문고)의 곡조도 맞지 않고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일이나, 곡조도 맞고 소리도 제대로 나는 일들은 다 ‘선왕이 만들어 놓은 예를 감히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며,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남구만의 「家乘瀟灑堂記」에 나타난 거문고의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적 탄주 배경에 관한 내용이다.

(전략) 26대를 전하여 후손에 두환이 있었으니, 젊어서부터 높은 뜻이 있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고요함과 편안함을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초당 세 칸을 뒤의 넷가에 지으니, 남기 빛이 처마에 들어오고 물소리가 뜰을 맴돌며, 흰 모래가 비단처럼 깔려 있고 푸른 버드나무가 장막처럼 이어져 있었다. 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집 앞에 비스듬히 누워 있고, 대나무 창문과 가시나무 사립문이 규룡이

270) 정조, 『홍재전서』 제8권 序引 1 「敦孝錄序」: “(前略) 子夏既除喪而見. 予之琴. 和之而不和. 彈之而不成聲. 作而曰哀未忘也. 先王制禮而不敢過也. 子張既除喪而見. 予之琴. 和之而和. 彈之而成聲. 作而曰. 先王制禮. 不敢不至焉. 夫子皆曰君子也. 奚獨喪制然. 生事死葬皆然也. 得爲而不爲. 非禮也. 不得爲而爲之. 非禮也. 非禮則斯非孝矣. 자하는 상을 마치고 공자를 뵈었을 때 거문고를 주자 곡조를 맞추려 해도 곡이 되지 않고, 타도 소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를, ‘슬픔을 아직 잊지 않았으나 선왕이 만들어 놓은 예를 감히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지요.’ 하였고, 자장은 상을 마치고 공자를 뵈었을 때 거문고를 주자 곡조를 맞추면 맞고, 타도 소리가 제대로 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기를, ‘선왕이 만드신 예이기에 감히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자, 공자께서 다 군자라고 했다. 이것은 상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살아 섬기는 일, 죽어 장례 모시는 일도 다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도 예가 아니다. 따라서 예가 아니면 그것은 효도도 아닌 것이다.(하략)라고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서리고 꿈틀거리는 사이로 은은히 비추었으며, 또 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언덕을 쌓아 학을 길렀다. 주인이 여기에 아침저녁으로 머물러 거문고를 타고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겨, 일찍이 명예와 이익을 사모하는 일이 없었다. 현종 7년(1666) 병오년 대가가 온양에 행차할 적에 길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상이 수행하는 관원을 돌아보고 묻기를, “저기가 누구의 집인가?” 하자, 주인의 이름을 대답하였는데, 상은 오랫동안 바라보고 말하기를, “소쇄하다, 저 당이여.” 하니, 듣는 자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후략)²⁷¹⁾

넷가에 초당 세 칸을 지었는데, 산 속에 생기는 깨끗하고 수려한 기운이 처마에 들고, 물소리가 뜰을 맴돌고, 흰 모래가 깔려 있고, 푸른 버들 숲이 있고, 노송이 기울어져 있고, 대나무 창문, 가시나무 사립문이 있는 풍경이 있는 곳에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심고 학을 길렀다고 하였다. 여기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문장 안에 나타난 주인은 거문고의 공간적 탄주 배경을 매우 훌륭하게 가꾸어 놓은 셈이다. 또 주인은 여기에 아침저녁으로 머물러 거문고를 타고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겼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시간’이 시간적 탄주 배경이 되는 셈이다.

정약용의 시 「李周臣宅小集」²⁷²⁾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적 탄주 배경과 탄주 장소에 이끌려 거문고를 타러 오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醞藉溪山草閣深	산골짜기 시냇가 흐르는 곳에 깊숙이 자리 잡은 초가집,
小庭榆柳晚交陰	작은 뜰에 느릅나무·버드나무가 저물녘에 그늘을 이루었네
瓜蔬錯落移鄉井	오이와 푸성귀가 들쭉날쭉하니 고향 땅에 이른 것인가
翰墨雍容聚士林	필묵과 함께 온화하고 점잖은 선비들이 모였구나
漏日遠明花更色	구름 틈으로 해가 비치 하늘이 밝아지니 꽃빛같이 새로워지고
輕霏欲度葉先吟	적은 비가 오려는지 나뭇잎이 앞서 소리를 내고
巖蹊犂确宜驢步	바위가 많고 가파른 길에는 마땅히 당나귀를 걷게 해야지
且抱幽琴月夜尋	달뜨는 밤이면 그윽한 거문고를 껴안고 찾아와야지

271) 남구만, 『약친집』 제26권 「家乘瀟洒堂記」: (前略) 傳六世有孫斗烜 少而有高志 棄舉業樂靜便 構草堂三間於後川之邊 嵐光滴簷 水聲環除 白沙鋪錦 翠柳連幄 又有老松一株偃蹇堂前 竹牕荆扉隱映於虬龍盤屈之間 且鑿池種蓮 築塢養鶴 主人於焉朝夕 彈琴讀書 充然自得 未嘗有名利之慕 當顯宗七年丙午之幸溫陽也 路過其前 上顧問從官曰彼誰堂也 以主人名對 上延眺久之曰瀟洒哉堂也 聞者榮之 (後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272) 정약용, 앞의 책, 제3권 「李周臣宅小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 시내 · 나무 · 푸성귀가 나있는 고향 땅 같은 산골짜기의 초가집 · 갯 하늘에 새로운 꽃빛깔 · 비가 오려 하면 나뭇잎이 소리내어 알려주는 곳’ 등, 이 모두가 이 시에 나타난 준비된 공간적 탄주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작가는 달이 뜨는 밤이 오면 당나귀에 거문고 싣고 오기만 하면 된다. 역시 이 시에서도 시간적 탄주 배경은 ‘달밤’이다.

정조의 「松壇記」 무술년의 기록에 나타난 인위적으로 거문고의 공간적 탄주 배경을 만든 내용이다.

단이란 높고 밝은 데 위치한, 군자가 놀고 쉬는 곳을 말한다. 금원에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에 축대를 쌓고 단을 만들었더니 내려다보면 못이 있고, 누대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어 좋은데, 그 단에 올라 여러 경관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연가슴이 확 열리고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해 지는 줄도 모르게 기쁘고 후련함을 느끼게 되는데, 거문고 뜯으며 즐길 만하다.”(후략)²⁷³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두 그루의 소나무에 축대를 쌓고 단을 만들어 ‘못 · 누대 · 우거진 숲이 보이게 인위적으로 공간적 탄주배경을 조성하여 거문고를 즐길 만하다’고 하였다.

김정중(金正中)의 『연행록(燕行錄)』 「奇遊錄 壬子 正月」²⁷⁴에 나타난 거문고의 공간적 탄주 배경이다.

문밖에 작은 대가 숲을 이루었는데, 모두가 한 길 남짓하다. 그 아래에서 자유로이 맑은 운치에 도취하여 금(琴; 거문고)을 익히며 몇 시각이라도 머무르고 싶으나, 동행이 재촉하매 억지로 문을 나서니, 아닌 게 아니라 걸음마다 머리를 돌리게 된다. (후략)

273) 정조, 앞의 책, 제14권 記 「松壇記」 무술년 : (前略) 壇者. 居高而處明. 君子之所遊息也. 苑有二松. 築而壇之. 俯而望. 有池臺林木之勝焉. 登而覽. 可以酒. 可以詩. 可以風. 可以琴而樂.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274) 김정중, 『연행록』 「奇遊錄 壬子 正月」 (前略) 門外有小升成林. 長皆一丈有奇. 嘯傲其下. 清韻習瑟. 竊欲盤桓數晌. 而爲同行催促. 黽勉出門. 未嘗不步步回首也.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문밖에 있는 대숲이 맑은 운치가 있어 보여 그 속에서 금(琴; 거문고)을 익히면서 머무르고 싶다는 내용이다.

2. 精神的 탄주 배경

1) 흥이 일어날 때

이규보의 「草堂端居和子美新賃草屋韻」 중 두 번째 시²⁷⁵⁾에는 감흥이 일면 거문고를 두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략)

寓興撫桐孫	감흥이 일면 거문고를 두드리고
虛心對竹君	거리낌 없이 대나무를 대하네
林深鴉哺子	수풀이 깊으니 까마귀는 새끼를 기르고
園靜鳥呼群	동산이 고요하니 새들은 무리를 부르네
坐石吟移日	돌에 앉아 해가 지도록 시를 읊다가
開窓臥送雲	창을 열고 누워 구름을 보내기도 하지
塵喧卽咫尺	속세의 떠들썩함이 곧장 손이 닿을 거리에 있으나
閉戶不曾聞	문을 닫고 있으니 이전 것은 들리지 않네

(하략)

이 글에 나타난 작가의 감흥이 일어난 시기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떠나 속세를 등지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은둔의 삶을 누릴 때인 것’으로 보인다.

2) 홀로 마음만으로 줄 없는 거문고를 타고 싶을 때

정조 때 북경에 거주했던 홍대용의 친구 손유의(孫有義)²⁷⁶⁾의 「山樓鼓

275) 서거정 등, 앞의 책, 제9권 「草堂端居和子美新賃草屋韻」 / 이규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76) 홍대용, 앞의 책, 「외집 부록」 「洪德保墓誌銘」 / 박지원 : 德保沒。越三日。客有從年使入中國

琴」²⁷⁷⁾이다.

獨坐小樓寂	홀로 적막한 작은 망루에 앉아
清心理素琴	맑은 마음 무현금을 연주하네
響沉新月上	가라앉은 울림에 초승달을 타고 오르니
相戀似知音	서로 그리워하여 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네

이글에 나타난 ‘소금’은 ‘줄이 없는 거문고’를 일컫는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거문고도 없고, 들어주는 지음도 없다. 다만 작가인 손유의가 마음속으로 거문고를 타고, 소리 없는 울림이 초승달을 타고 오르는 것으로 상상했으며,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소리를 알아듣고 있는 것으로 표현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작가는 이 글을 통하여 ‘줄 없는 금(琴: 거문고로 순화)을 즐겨 탔다던 도연명의 취향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3) 봄이 찾아와 琴客들의 생각이 많아질 때

이규보의 고을시 「復和」²⁷⁸⁾에는 거문고를 잘 연주하거나 좋아하는 금객들은 봄이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一龍期作友	한 용으로 벗이 되고자 약속하였으니
凡鳥豈題扉	어찌 평범하고 변변치 못한 인물이라고 대문쪽에 쓰겠는가
琴客春多思	거문고 연주거나 애호가들은 봄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棋僧晚未歸	바둑 두는 중은 저물도록 돌아가지 않네
身窮道轉富	몸은 궁색하나 도는 한결 더 넉넉하고
心是貌還非	마음은 바르나 행동거지는 도리어 바르지 않아
不羨夸毗子	비굴하게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者。路當過三河。三河有德保之友。曰孫有義號蓉洲 덕보(德保)가 별세한 지 3일이 되던 날 손님 중에서 연사(年使 해마다 가는 동지사(冬至使)를 말함)를 따라 중국에 들어가는 이가 있는데, 그 행로가 삼하(三河)를 통과하게 된다. 삼하에는 덕보의 친구가 있는데, 성명은 손유의(孫有義)로 호(號)는 용주(蓉洲)이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277) 홍대용, 앞의 책, 愛吾廬題詠 八詠 「山樓鼓琴」 / 손유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78) 이규보, 앞의 책, 제7권 고을시 「復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裘輕馬亦肥 가벼운 갖옷과 살찐 말 또한 부러워하지 않으리

이 고을시에서는 각각 용²⁷⁹⁾의 머리·배·꼬리로 세 사람의 절친한 벗에 대한 고사를 인용하였다. 먼저 그들에 대하여 凡鳥²⁸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빈하지만 도가 높으며, 행동거지가 떳떳하고, 귀한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읊었다. 한편, ‘금객²⁸¹⁾’으로 표현된 거문고 연주가·거문고 애호가들은 봄에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글에 나타난 작중인물들의 품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고의 진행 중 파악되는 거문고 연주가·거문고 애호가들이 추구하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 발견된다.

4) 옛 생각이 나거나 고향 생각을 하는 등의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고 싶을 때

이색의 시 「遣懷二首」 중 첫 번째 시²⁸²⁾에는 옛 뜻을 그리워함이 무성하여 홀로 거문고를 두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279) 화흠(華歆)·병원(邳原)·관녕(管寧) 세 사람이 절친한 벗이었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흠을 용의 머리, 원을 용의 배, 녍을 용의 꼬리라 칭했다. (『위략(魏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80) 鳳자를 분해하면 범상한 새[凡鳥]가 된다. 『世說新語』에 “혜강이 여안(呂安)과 서로 친하여 언제나 생각만 나면 천리라도 달려가곤 했었다. 어느 때 여안이 혜강을 찾았으나 집에 있지 않고, 그 아들 희가 나와 맞이하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대문 위에다 鳳자를 써놓고 갔는데 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좋아했다.”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81) 조선 전기 음악은 유교 이념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雅樂·唐樂·鄉樂·鼓吹樂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생산력 증대와 신분계급의 변동 등 사회적 변화로 음악 수용층은 왕실 중심에서 궁중 밖으로 확대되었다. 학문 활동을 했던 사림과 선비들과 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중인계층이 새로운 음악 수용 층으로 등장하였다. 禮樂을 중시하던 당시 학문 풍토는 음악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선비로서의 그들은 음악을 몸소 익혀 마음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거문고 음악으로 발현되었다. 조선 후기 거문고는 가곡의 반주음악에 사용되어 선비라면 으레 거문고를 연주할 줄 알았고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면서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익힌 음악을 악보로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전해지는 거문고 악보집 『玄琴東文類記』를 지은 이득윤과 『游藝志』를 지은 서유구 등은 대표적인 금객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국내외 상업과 무역을 통해 경제력을 키운 중인계층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이들은 풍류를 즐기며 상류문화와 민중문화 사이의 중간 형태인 음악문화를 만들어나갔는데 이들이 바로 가객과 금객이다. 이렇게 형성된 음악문화가 바로 正樂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지금도 연주되고 있다. 숙종 때 가객 김천택과 더불어 음악을 즐겼던 김성기는 대표적인 거문고 금객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82) 이색, 앞의 책, 제7권 시 「遣懷二首」 중 첫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古意沈沈獨撫琴 옛 뜻을 그리워함이 무성하여 홀로 거문고를 타니
 海山無事境彌深 바다와 산에는 아무 일도 없고 지경은 더욱 깊어라
 雙鳬乘鴈寧多少 쌍부와 승안이 어찌 많고 적겠는가
 別鶴孤鸞自古今 별학과 고란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걸.
 最喜白雲埋谷口 가장 큰 기쁨은 흰 구름이 곡구에 쌓이는 것인데
 更邀明月到天心 다시 하늘의 뜻에 도달한 밝은 달을 맞았네
 三韓近日文章盛 삼한의 문장이 오늘날에야 번성하니
 誰數中朝老翰林 어느 누가 조정의 내부에 늙은 한림을 세워줄까

이 시에서는 옛 뜻을 그리워함이 많아 홀로 거문고를 어루만진다고 하였다. 그 옛 뜻이란 쌍부와 승안.²⁸³⁾ · 별학과 고란²⁸⁴⁾의 고사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태평 시대에는 국가에 현신이 많고 적음을 모르고, 아침에 권력을 잡으면 卿相이 되고, 저녁에 권세를 잃으면 필부가 된다는 내용을 인용하여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또 부부가 서로 헤어진 것을 뜻하는 도연명의 「擬古」 시에, “上絃驚別鶴 下絃操孤鸞 윗줄은 경별학이요, 아랫줄은 조고란이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조정을 떠나있는 자신에 대하여, ‘누군가의 천거를 통해 조정에 다시 서고 싶다는 심정을 읊은 것’으로 보인다.

정온의 칠언절구 「夜起酸茶」²⁸⁵⁾에는 춘추 시대 쑤나라에서 고향인 楚나라의 음악을 연주했다는 ‘鍾儀에 대한 고사’를 인용하여 향수를 표현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病如杜甫中消渴 병은 두보와 같은 당뇨병이고
 心似鍾儀奏楚愁 초나라를 그리워 금을 연주한 종의처럼 고향을 그리네

283) 태평 시대에는 국가에 賢臣이 많아도 많은 줄을 모르고, 없어도 없는 줄을 모른다는 뜻이다. 乘鴈은 네 마리의 기러기를 가리키는데, 양웅(揚雄)의 「해조(解嘲)」에, “아침에 권력 잡으면 卿相이 되고, 저녁에 권세 잃으면 필부가 되나니, 비유하자면 마치 강호의 언덕이나 발해의 섬에는 네 마리의 기러기가 모여도 많은 게 되지 않고, 한 쌍의 오리가 날아가 버려도 적은 게 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84) 부부가 서로 헤어진 것을 뜻한다. 도연명의 「擬古」 시에, “上絃驚別鶴 下絃操孤鸞 윗줄은 경별학이요, 아랫줄은 조고란이로다.”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85) 정온, 앞의 책, 속집 제1권 시 칠언절구 「夜起酸茶」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半夜起擎茶碗酸 한밤중에 일어나 제기 사발을 높이 들어 차를 마셨더니
頓知氷雪爽枯喉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과 갈음을 갑자기 알게 될 줄이야

이 절구에는, 거문고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종의에 대한 고사²⁸⁶⁾가 인용되어 있어, 금을 타며 고향을 그리워했다던 종의처럼, 작가가 향수에 젖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색의 시 「忽記聞琴題此」²⁸⁷⁾에는 때로 창자에 열이 나면 거문고로 「백설곡」을 타고 싶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病久無他望 병이 오래되어 다른 바라는 바는 없고
身閑獨苦心 몸이 한가하니 홀로 마음만 괴롭구나
落梅春水闊 낙매 한 곡조에 봄 물결은 출렁거리고
悲栗暮雲深 비울 한 가락에 저문 날 구름만 깊어라
昌運光前後 번창한 국운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나니
危途亘古今 위태로운 길은 예나 지금이나 뻗쳐있다
有時腸內熱 때로 창자 속에 열이 나면
白雪欲鳴琴 거문고를 붙들고 백설곡을 탄다

이 시의 서두에서는 몸이 병들어 한가해지니 마음만 괴롭다고 하였는데, 괴로운 것 보다는 마음만 바빠진 걸로 보인다. 그리고 첫대 가락 「낙매(落梅)」²⁸⁸⁾에 봄을 느끼고, 오랑캐 피리인 비울(悲栗)²⁸⁹⁾의 처량한 가락에 저문 날 구름만 깊어진다고 하였는데, 환희와 수심을 교차하여 나타낸 시구인 것 같다. 또 國運은 끝까지 번창하고 있는데, 위태로운 길은 언제든지 있다고 하였다. 시의 맺는 부분에서는 ‘때로 창자 속에 열이 나면 거문고를 붙들고 「백설곡」을 탄다.’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시어만 살피면, 뜨거

286) 춘추시대 楚나라 사람이다. 鄭나라에 포로가 되었다가 晉나라에 바쳐졌는데, 진나라 경공景公이 거문고를 주면서 연주하게 하자, 초나라의 음악을 연주하여 고향을 잊지 않고 그리워했다고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87) 이색, 앞의 책, 「목은시고」 제8권 시 「忽記聞琴題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88) 고적곡(古笛曲)의 이름인데, 이백의 시에, “黃鶴樓中吹玉笛 江城五月落梅花 황학루에 올라 옥것대 불어 대니, 강성이라 오월의 낙매화로세.”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289) 호중(胡中)의 악기인 觱篥을 가리키는데, 그 소리가 매우 처량하다고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운 열을 차디찬 의미의 백설로 제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시의 내용대로 국가가 위태로워질 때면, 마음으로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창자에 열이 난다고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고아한 가곡인 「백설곡」을 ‘거문고로 연주함으로써 마음을 평정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충성심의 발로에서 ‘창자가 열이 날 정도로 속이 터질 때면, 그 때마다 거문고를 탄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청나라 杭州 선비 엄성(嚴誠, 1732~?)²⁹⁰의 「山樓鼓琴」²⁹¹에는 긴 밤이 아까워 거문고를 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幽人惜遙夜	숨어사는 사람이 긴 밤의 시간이 아까워
起坐理朱絃	일어나 앉아 朱絃을 연주하네
樓高萬籟靜	망루는 높고 만물은 고요한데
響與空山連	가락의 울림은 빈산에 붙어 이어지네
悠悠念皇古	멀고도 아득한 상고시대를 생각하며
茲意誰能傳	이 뜻을 그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은자처럼 사는 엄성이 밤중에 일어나 금을 연주한다고 하였다. 가락의 울림은 고요한 빈산에 부딪쳐 되울려 오니, 아득하고 먼 옛 시대의 뜻을 누가 전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적막한 ‘밤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 거문고의 연주를 시도해 보면서, 막연하게 상고시대 古琴의 옛 뜻을 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송(李淞, 1725~1798)의 「山樓鼓琴」²⁹²에는 거문고를 타기 전에는 소리가 마음에 있고 타면 소리가 줄에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未彈音在心 연주하기 전에는 소리가 마음에 있고

290) 홍대용, 앞의 책, [序] 湛軒書序[鄭寅普] : (前略) 先生嘗隨其叔父使燕。交陸飛, 嚴誠, 潘庭筠。事具先生燕記及筆譚尺牘。三人於先生 선생은 일찍이 숙부를 따라 燕京에 가서 陸飛・嚴誠・반정균 등과 사귀었는데, 그 일은 모두 선생이 지은 「燕記」, 「筆譚」 및 「尺牘」에 실려 있다. 이 세 사람은 선생과 생사 간에 서로 잊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및 주 참조)

291) 위의 책, 외집 부록 「山樓鼓琴」 / 엄성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292) 위의 책, 「山樓鼓琴」 / 이송(李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既彈音在絃 이미 연주하게 되면 소리는 줄에 있다네
 絃長因自直 줄이 긴 고로 스스로 곧으니
 此心元相連 이 마음과 근원이 서로 이어져
 來世儻有解 후세에 이해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心與音共傳 마음과 소리를 함께 전한다네

연주하기 전에는 소리가 마음에 있고, 연주를 하게 되면 소리가 줄에 있다고 하였는데, 『예기』 「악기」 1. 악본의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대체로 소리(音)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人心)에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중략)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사람의 마음이 물(物)에 감응하면 움직이어 소리(聲)로 형용된다.’²⁹³⁾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줄이 길어서 곧다고 하였는데, 실은 줄을 팽팽히 당겨야만 곧게 되는 것이다. 여하튼간에 작가는 줄의 곧음이 자신의 곧은 마음의 근원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세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여 옛 뜻과 이어지는 자신의 곧은 마음을 소리와 함께 전한다고 하였다.

어두운 달빛은 거문고에 가득하다며 방랑하는 마음이 나타난 서거정의 「有懷」²⁹⁴⁾이다.

天地吾堪老 이 세상은 내가 늙을 만한데
 星霜病已深 세월 속에 병은 이미 깊어졌네
 鄉愁連鴈字 고향 생각은 기러기 떼에 이어지고
 客夢破蛩吟 나그네의 꿈은 귀뚜라미 울음에 어그러지네
 細細風翻帙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책장이 날리고
 沈沈月滿琴 어두운 달빛은 거문고에 가득하다
 生涯眞若此 일생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飄泊若爲心 이와 같이 방랑하는 마음을 어찌 다스릴까

세상은 아직 늙어가면서 살 만한데, 살다보니 병이 깊어졌다고 하면서,

293) 조남권·김중수 공역, 「樂記」 (서울: 민속원, 2005) 23면. 1. 악본(樂本)

294) 서거정, 앞의 책, 제8권 시류 「有懷」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기러기 떼를 보니 고향 생각이 나서 귀향길에 오르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람은 산들거리며 책장을 넘기고, 거문고에는 어두운 달빛이 비친다고 하였는데, 이 시의 절정을 치닫는 이 단락의 시상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작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랑하는 마음을 평정하고 싶지만, 쉽게 극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거문고는 아예 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술기운에 임금에 대한 감사의 곡조

이식의 「尙成安琴銘并小引」²⁹⁵⁾에는, 조금 술기운이 오를 때마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곡조를 문득 연주하곤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故相인 尙成安公은 평소에 거문고를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집에도 거문고 하나를 놓아두고는 악보를 보면서 그 묘한 솜씨를 한껏 발휘하였다. 그리고 임종 무렵에 직접 지은 글 가운데, “늘그막에 거문고를 배운 뒤로는 조금 술기운이 오를 때마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곡조를 문득 연주하곤 하였다.”는 말이 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말을 음미하면서 공의 충성심을 재확인하곤 한다. (후략)

성안공 상진은 집에서 악보를 보며 거문고를 연주하여 묘한 솜씨를 발휘하였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상당한 음악성과 연주 실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술기운이 오를 때마다 임금에게 感恩하는 곡을 연주했다’고 하였는데, 충성심이야 확인이 되겠지만, 왜 술을 먹을 때만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는 ‘술이 얼근해졌을 때만 거문고를 끌어당겨 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당시의 임금은 본인의 말년에 거문고를 배워 탔

295) 이식, 『택당집』 택당선생 별집 제12권 명(銘) 「尙成安琴銘并小引」: 故相尙成安公雅好琴 家置一琴 能按譜盡其妙 臨終自誌 有晚學琴 微醺輒彈 感君恩一曲之語 人至于今 味其語而知其忠焉.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다고 했으니 조선 제13대 명종(明宗, 1545~1567 재위)으로 파악된다.

6) 거문고를 타지 말라고 훈계한 경우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의 「歷朝舊聞一燕山」²⁹⁶⁾에 나오는 자제들에게 거문고와 그림을 익히지 말라고 훈계하는 내용이다.

훈도 유우는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으며, 거문고와 그림 두 가지 다 잘하였다. 어느 날 연산군이 승정원에 묻고 그를 시험해 보겠으니 대기시키라 하였다. 공이 부름을 받고 승정원에 가서 시험을 받고 나왔는데, 그 뒤에 다시 부르지 않았으니, 아마 잊어버린 것일 것이다. 공이 평생토록 이 일을 언짢아 여겨 거문고를 부수고 붓을 문질러 버리고서는, “매양 시험 보던 일을 생각하면 즉시 땅을 파 들어가 버리고 싶지 않은 때가 없다. 이미 시험해 보고서 또한 잊어버리는 것은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여, ‘자제들에게 거문고와 그림을 익히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후략)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으며, 거문고와 그림 두 가지 다 잘하여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연산군이 다시 부르지 않아 ‘붓과 거문고를 부수어 버리고 자제들에게 거문고와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훈계하였다’는 내용이다.

제 3 절 거문고의 음향에 대한 감상

1. 情緒的 감상

허봉(許篈, 1551~1588)의 『海東野言』 2 「成宗」에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난 감상을 ‘숨씨가 시냇가에 피어 있는 매화의格과 같다고 감탄하였다.’

296) 박동량, 『寄齋雜記一』 「歷朝舊聞一燕山」: 柳訓導藕 學行卓絶 琴畫兩妙 一日燕山問於政院 試之以待 公承召到政院 就試而出 其後不更召 蓋忘之也 公平生竦然 毀琴絶筆而曰 每思就試之事 未嘗不直欲穴地而入也 既試之 又忘之 何也 戒子弟 勿習琴畫.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종실인 수천부정 정은은 날마다 詩酒와 琴瑟로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삼고, 시문과 음률이 百源 이창과 이름이 같았다. 金大猷의 책망을 듣고 모든 구습을 버리고, 짐짓 俗態를 꾸미고 두문불출하고 과감히 친구와 왕래를 끊었더니, 과연 홀로 무사히 보존하였다. 참관 金紐는 그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솜씨가 시냇가에 피어 있는 매화의 격과 같다’고 감탄하였다²⁹⁷⁾.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종친 李貞恩의 거문고 연주를 듣고 당시의 참관 김유는 그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솜씨가 시냇가에 피어 있는 매화의 격과 같으면서 감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매화의 높은 절개와 빼어난 아름다움을 거문고의 맑은 음색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책인 『海東野言 3』 「燕山君」에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탄복하며 칭찬하기를, “궁중의 모란이 맑게 갠 날 활짝 피어 화려한 것과 같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종실 茂豐正 李摠의 자는 百源인데, 鷗鷺主人이라 自號하였다.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 예법에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쫓나라 시대의 풍도가 있었다. 書史를 읽고 시문을 배웠으며, 음률을 알아서 모두 극히 오묘하였다. 참관 김유가 거문고 소리를 듣고 탄복하며 칭찬하기를, “정히 궁중의 모란이 맑게 갠 날 활짝 피어 화려한 것과 같다.” 하니, 有秋(이여李畬의 자)가 말하기를, “김재상은 음률을 알아 듣는 귀가 있다.” 하였다²⁹⁸⁾.

역시 종친 李摠이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를 김유가 듣고 탄복하며 칭찬하기를, “정히 궁중의 모란이 맑게 갠 날 활짝 피어 화려한 것과 같다.”

297) 허봉, 『海東野言』 2 「成宗」: 宗室秀泉副正貞恩. 日以詩酒琴瑟自娛. 詩文音律. 與百源齊名. 聞大猷責我. 盡棄舊習. 故作俗態. 閉門不出. 不敢與親故通. 果獨保. 參判金紐聞琴嘆曰. 手段政如澗邊梅花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298) 위의 책, 『海東野言』 3 「연산군」: 宗室茂豐正摠字百源. 自號鷗鷺主人. 倜儻不羈. 有晉時風. 讀書史. 學詩文. 解音律. 俱極其妙. 金參判紐聞琴聲嘆曰. 政如宮中牧丹爛熳晴天. 有秋曰金宰相有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꽃의 왕 또는 꽃의 신으로, 또 부귀를 뜻하는 식물로서 ‘富貴花’라고도 부르는 ‘모란의 귀하고 화려한 모습을 거문고의 맑은 음색에 비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기가 없는 모란꽃에 대한 비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儒仙 같은 사람이 뜯는 거문고의 소리가 모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라는 내용이 나타난 김성일의 시 「次韻」²⁹⁹⁾이다.

聞汝儒仙指下琴	유선 같은 네가 손을 내려 거문고 타는 것을 들으니
聲聲都是故園心	들리는 소리마다 모두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使乎別有風流處	사신으로 부름 받아 특별히 풍류하는 곳이 있으니
要使蠻夷識正音	오랑캐들로 하여금 바른 음악을 알게 하여라

‘유선 같은 사람이 거문고를 타니, 가락마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린다고 하였다.’ 사신으로 가서 풍류를 하는 장소가 있으니, 그 곳에서 연주하여 오랑캐에게 正音을 알게끔 하라는 것인데, 앞의 고향 생각과 정음의 관계가 자못 이어지지 않고 있다. ‘故園心’을 ‘上古시대의 옛 뜻’으로, ‘정음’을 ‘태고의 소리’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면, 고향생각과 정음과의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지한 오랑캐들에게 옛 성인의 바른 음악을 깨닫게 해줄 수가 있게 되리’라고 볼 수 있다.

거문고 소리로 인해 감정이 북받쳐 오르니 거문고 연주를 그만두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표현된 서거정의 오언고시 「瀋陽雜詩」³⁰⁰⁾이다.

(상략)

比隣有遠客	이웃에 먼 데서 온 손님이 있어
席月鳴瑤琴	달빛을 깔고 앉아 요금을 탄다
初彈紫芝曲	처음에는 자지곡(紫芝曲)을 타더니
漸變操南音	차츰 곡조가 변하여 남방의 음악을 연주한다
聞之三嘆息	듣고 나서 세 번 탄식하고는
和以梁父吟	양보음(梁父吟)으로써 화답하였다

299) 김성일, 앞의 책, 「학봉일고」 제2권 시 「次韻」(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00) 서거정 등, 앞의 책, 제4권 오언고시 「瀋陽雜詩」(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徘徊月漸側 어정거리는 동안에 달은 점점 기울어가고
 悲風生遠林 쓸쓸하고 구슬픈 바람이 먼 숲에서 불어온다
 將子且止之 원컨대, 그대는 우선 거문고 연주를 그쳐
 毋使我沾襟 내 옷깃을 젖게 하시지 말게나

商山の 四皓가 산에 숨어 있으면서 지어 불렀는데, “붉은 芝草는 요기할 수 있네.”라는 「紫芝曲」³⁰¹⁾을 타자, 제갈량이 숨어 살 때에 노래를 잘 불렀다는 “어진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탄식한 「梁父吟」³⁰²⁾이란 곡조로 화답하였다고 하였다. ‘곡조와 분위기가 고조되자 옷깃을 적시게 될까 봐 연주를 그만 두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마도 ‘자신의 처지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일 것’으로 보인다.

조엄(趙巖, 1719~1777)의 『海槎日記 2』 12월 29일 辛亥」에서는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곡조를 귀히 여김이 아니라 그 雅趣를 취한 것이라 하였다.

북쪽으로 봉래산이 바라보이는데, 산 빛이 밝고 아름다워서 은자가 考槃으로 찾을 만하고 마치 약초 캐는 仙人을 따르는 것 같다. 남쪽으로는 강물에 임하여 가슴이 시원하고 明沙의 해당화는 맑은 향기를 멀리 보내주며, 雙鶴은 달밤에 오락가락 하고, 百花는 봄바람에 울긋불긋하다. 그때 주인 늙은이 형제가 黃冠과 野服으로 누각 위에 기대어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곡조를 귀히 여김이 아니라, 그 雅趣를 취한 것’이며, 혹 바둑을 두고 投壺) 하니 승부를 겨루지 아니라, 흥을 보내려는 것이다³⁰³⁾.

음악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주 실기나 감상 같은 것 등은 원래부터 잘 모르니, 우아하고 고상한 정취나 취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

301) 商山の 四皓가 산에 숨어 있으면서 「紫芝曲」을 지어 불렀는데, “붉은 지초는 요기할 수 있네.”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02) 제갈량이 숨어 살 때에 「梁父吟」이란 노래를 잘 불렀는데, 그것은 어진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탄식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03) 조엄, 『해사일기(海槎日記)』 2 12월 29일 「辛亥」: 北瞻蓬萊 山色明麗 可尋隱者之考槃 如追仙人之採藥 南臨江水 胸次豁然 明沙海棠 遠送清香 雙鶴翩跹於月夜 百花爛熳於春風 于時主人翁兄弟 黃冠野服 徙倚樓上 或彈琴而和歌 不貴調而取其趣也 或圍碁而投壺 不較勝而爲遣興也.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교적 예악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답습하였을 것이니, 선비들에게 있어서 거문고의 음악과 정신에 대한 것은 필수적 교양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거문고에 대한 문외한들은 이 글의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즐기는 척이라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규보의 고을시 「江南舊遊」³⁰⁴⁾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둘 만한 젊은 날, 거문고를 타고 있던 아리따운 아가씨의 자태 등을 흠쳐보며,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일을 述懷하였다.

結髮少年日	옛날 상투를 틀던 젊은 시절에는
輕裝寄漢南	가벼운 행장(行裝)을 한강 남쪽에 두었지
(중략)	
仙姝爭自媚	선녀처럼 예쁜 아가씨들 자신들의 아리따움을 다투는데
笑臉最憐欲	미소 띤 뺨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였지
纖玉哀彈妙	절묘한 거문고의 울림 가녀린 섬섬옥수에서 나오니
流波注視嫵	모두들 즐겁게 눈길을 주며 추파를 던지네
金釵嬌不整	금비녀 반듯하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羅袖弱難堪	연약한 몸매는 얇은 비단 소매를 감당키도 어려워 보이는구나
(하략)	

異性에 관심을 가질만한 젊은 시절에 한강 남쪽에 잠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문고의 절묘한 울림보다는 예쁜 아가씨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점’이 나타나 있다.

2. 比喻的 감상

1)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신라 제10대 奈解王 때의 물계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을 지고서 사체산(어느 곳인지 알 수 없음)으로 들어갔는데,

304) 이규보, 앞의 책, 제1권 고을시 「江南舊遊」(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대나무의 性癖을 슬퍼하고, 이에 가탁하여 노래를 짓고,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에 의지하여 금의 곡조를 지으며’ 은거하니.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³⁰⁵⁾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문헌상에 나타난 인물이 3세기 초엽의 이었으므로, 거문고 소리가 물소리와 관련된 최초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중기 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崔承制十字閣記晉康侯元嗣」에는 ‘東吳의 절색과 南國의 佳人³⁰⁶⁾이 거문고 줄을 통기면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듯하고, 노래를 부르면 가는 구름도 멈추었다.’고 하였다.

화창한 바람이 맑고 질탕하여 복숭아꽃·살구꽃이 만발할 때에는 蟬冠에 龜帶를 띤 자와 揖讓하고 龍鬚草의 자리에 앉으며, 등근 소반이 엮겨 놓이고 금 술잔이 가볍게 오가며, 東吳의 절색과 南國의 佳人이 거문고 줄을 통기면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듯하고 노래를 부르면 가는 구름도 멈추며, 향기로운 바람과 난초 냄새가 수십 리에 풍겨 花柳와 꽃다움을 다투니 이것은 내가 봄에 얻는 풍경이다.³⁰⁷⁾

위 시에 나타난 이러한 감상이 일기 전에, 이미 아름다운 주변 환경, 고급스런 주연)의 자리, 미색의 연주가 등이 나타난 배경에서 이미 흥을 돋을 수 있게끔 준비해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미색과 가인의 훌륭한 연주는 배경과 더불어 더욱 더 향기롭고 아름답게 들려졌을 것이라 여겨진다.

掌樂院의 儀軌와 악보를 정리하여 『악학궤범』을 유자광 등과 함께 편찬한 성현(成俔, 1439~1504)의 오언율시 「冷泉亭」³⁰⁸⁾에서는 ‘푸른 구멍에

305) 일연 저·최호 역해, 앞의 책, 411~2면. 제3권 제8「避隱」: (前略) 乃被髮荷琴入師彘山(未詳), 悲竹樹之性病寄托作歌, 擬溪澗之咽響扣琴制曲隱居, 不復現世.

306) 吳나라와 楚나라에 미인들이 많았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07) 이규보, 제앞의 책, 24권 記「崔承制十字閣記 晉康侯元嗣」: 若夫和風澹蕩. 桃杏齊坼. 吾與珥蟬腰龜者揖讓. 坐於龍鬚之席. 貝案綺錯. 金鍾羽飛. 東吳絕艷. 南國佳人. 撫絃而清泉激. 唱歌而行雲過. 香風蘭澤. 噴散數十里. 而與花柳爭芳. 此予之有得於春也.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08)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제6권 오언율시 「冷泉亭」 / 성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서 흘러나오던 한 줄기 샘물이 산골에 떨어지다가 팔팔 숲 속으로 팔팔 흐르는데, 물줄기의 울어댐을 돌 위의 거문고 소리'로 표현하였다.

一派飛泉脈	한 갈래의 나는 듯한 샘물줄기가
來從翠竇深	푸른 구멍 깊은 데서 흘러나온다
涓涓初落澗	처음에는 졸졸 산골에 떨어지더니
瀾瀾細通林	나중에는 팔팔 숲 속으로 흐른다
淨瀉巖頭練	깨끗하게 쏟아지니 바위 위의 비단이요
寒鳴石上琴	차갑게 울리니 돌 위의 거문고다
炎時來憩此	더울 때 이곳에 와서 쉬노라면
涼氣滌塵襟	시원한 기운이 마음속의 티끌을 씻어준다네

푸른 구멍에서 흘러나온 샘물줄기가 산골에 졸졸 떨어지다가, 이윽고 숲 속으로 팔팔 흘러들어 간다고 하였다. 깨끗하게 쏟아지는 모습은 바위 위의 흰 비단처럼 보이고, 차가운 울림은 돌 위의 거문고 소리처럼 들린다고 표현하였다. 피서차 이곳에 와 쉬게 되면, 시원한 기운이 마음 속의 티끌까지 씻어준다고 하였다.

‘一派飛泉脈～淨瀉巖頭練’에서는, 한 갈래의 물줄기가 점점 불어나 바위 위에 흰 비단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靑綠과 淸白의 깨끗하고 시원해 보이는 ‘시각적 묘사’가 두드러진 단락이다.

이 글의 작가는 자신이 직접 편찬에 관여했던 『악학궤범』의 「향부악기도설」 현금조에서 “바위 틈에서 자라난 ‘石上桐’이 거문고의 材木으로 최상급”³⁰⁹⁾이라고 하였다. ‘寒鳴石上琴’에서의 ‘석상금’은 최상급의 재목인 오동나무, 즉 석상동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그 소리 또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차갑게 울리는 물소리를 최상급의 음질과 음색을 가진 거문고 소리에 비유’하면서 ‘청각적인 묘사’를 이루어 이 울시가 나타내고자하는 바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309) 이혜구 역주a, 앞의 책, 690면. 제7권 「향부악기도설」 현금조 : (전략) 凡桐木俗云石上桐最好 (후략)

‘炎時來憩此～涼氣滌塵襟’에서는, 몸이 더워서 이곳에 와 쉬게 되면 마음 속의 분진까지 털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물과 물소리의 시원함으로 몸의 더위를 식힐 뿐만 아니라, ‘거문고 소리와 닮았다고 표현한 물소리’를 들음으로써, 거문고 소리를 감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까지 정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心象的 묘사’를 하고 있다.

이 글의 작가인 성현은, 흐르는 물이 점점 맑게 자라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그 물소리는 거문고의 맑은 소리와 비길만하다고 여기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문고 소리처럼 맑은 물소리는 작가 자신의 내면마저 정화시켜 줄 수 있다’고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의 「送梁山元洪同庚」³¹⁰⁾에서는 “섬돌 가 시냇물 소리는 거문고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였다.

(상략)

萬竿如玉碧沈沈	옥 같은 대숲의 줄기는 질푸름이 무성하고
遶砌寒溪響似琴	섬돌을 맴도는 시냇물의 소리는 거문고와 같구나
遊宦人間多熱惱	떠돌며 벼슬하는 인간에겐 열뇌(熱惱)가 많으니
何人來此不澄心	누구든 여기 와서 마음을 맑게 하지 않겠는가

반질반질한 대숲의 줄기가 뻑뻑이 들어서 있는데, 섬돌을 감도는 시냇물의 소리는 거문고의 소리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벼슬살이를 하다 보니, 극심한 마음의 괴로움, 즉 熱惱³¹¹⁾가 많아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냇가에 찾아와 ‘거문고의 소리처럼 맑게 들리는 시냇물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 둘 다 씻을 수 있다는 重意的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武人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출세를 단념하고, 중국의 죽림칠현에 비겨 ‘죽림고회’란 모임을 만들어 산촌에 묻혀 시와 술을 즐겼던³¹²⁾, 고려 명종

310) 서거정, 앞의 책, 제42권 시류 「送梁山元洪同庚」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11) 사람의 속을 태우는 고뇌를 말한다. 『법화경』에 “我等以三苦故 於生死中 受諸熱惱 迷惑無知 우리들은 세 가지 고통 때문에 생사의 가운데 열뇌를 받아서 마음이 미혹되어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화엄경』에 “以白旃檀塗身 能除一切熱惱而得清涼也 백진단향을 몸에 바르면 일체의 열뇌를 물리쳐서 청량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때의 학자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紅挑井賦」³¹³⁾에서는, ‘泠然流出於石縫~然後入於溝瀆 돌 틈으로 졸졸 흘러나오는 해맑은 샘물이 거문고처럼 맑은 소리로 흐르다 도랑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였으며,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書白雲洞詩卷樞府李念義所居」³¹⁴⁾에서는 ‘石泉冷冷代琴筑 찰랑찰랑 돌 샘물이 거문고를 대신하고’로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글에서는, ‘졸졸’ 또는 ‘찰랑찰랑’ 흐르는 샘물을 거문고의 맑은 소리로 비유하고 있다. 두 작가가 경지에 이른 연주의 거문고 소리를 감상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와 같이 표현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물소리, 즉 자연의 음향을 닮은 거문고의 소리라고 한다면, 최고의 경지에 있는 연주가만이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후기의 문신인 백문절(白文節, ?~1282)의 「訪山寺」³¹⁵⁾에서는, ‘丁東山溜響於琴 산골 물방울소리가 거문고소리를 이긴다.’라고 표현하였으며, 이식의 「遊鬱巖寺贈先歸數子朴公應善元生振溟及具得元沈德用同歸」³¹⁶⁾에

312) 이기백, 앞의 책, (서울: 일조각, 1984), 184면 참조.

313) 서거정 등, 제앞의 책, 2권 賦 「紅挑井賦」 / 이인로 : 栢堂東麓 백당 동편 산기슭에 / 有泉澄澈 해맑은 샘이 / 泠然流出於石縫 돌 틈으로 졸졸 흘러나와 / 若漱白雲之幽谷 흰 구름 그윽한 골짜기를 씻어낼 듯 / 旱而不渴 가물어도 안 마르고 / 響如琴筑 거문고처럼 맑은 소리 / 縈迴六七步 예닐곱 걸음 감돌아서 / 然後入於溝瀆 도랑으로 들어가는데 / 遂使傍泉而居者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 皆快意於挹掬 모두 시원히 움켜 마시네 (하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14) 위의 책 「속동문선」 제4권 칠언고시 「書白雲洞詩卷樞府李念義所居」 / 김종직 : 崧山五百王氣非 송산 오백 년의 왕기가 사라지니 / 紫霞仙人無所依 자하선인이 의지할 곳 없었고 / 華嶽昌期萬萬世 한양 만세의 태평이 이룩되니 / 白雲洞主追芳徽 백운 동주가 승사를 이었네 / 鳳城西北金盞地 봉성(왕동) 서북 금잔 같은 땅에 / 松樾陰森行徑微 솔이 울창하여 오솔길이 희미한데 / 架岩鑿谷築精舍 바위에 나무 걸치고 골짜기를 뚫어 정사를 지으니 / 中和之堂絕依倚 옛날 중화당과 비슷한 도저이고 / 石泉冷冷代琴筑 찰랑찰랑 돌 샘물이 거문고를 대신하고 / 澗霧簇簇爲屏幃 뭉게뭉게 안개가 병풍을 이뤘는데 / 朝出金魚映繡幃 아침에 날 댄 금어가 수레 수장을 비추고 / 暮歸鶴髯裝衰衣 저녁에 돌아오면 관복 벗고 학장을 걸치네 (하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15) 위의 책, 제20권 칠언절구 「訪山寺」 / 백문절 : 十笏禪房花木深 십홀(사방이 홀(笏) 10개의 길이를 가진 방(房) 《불경》)의 선방에 꽃과 나무 우거졌는데 / 丁東山溜響於琴 산골 물방울소리 거문고소리 이기누나 / 解衣盤礴雙楓下 옷을 풀고 한 쌍 신나무 밑에 발 뻗고 앉았노니 / 時有人間未見禽 때로는 이 인간에서 보지 못한 새 보이네 / 樹陰無罅小溪流 나무 그늘은 틈이 없고 실개울은 흐르는데 / 一柱清香滿石樓 한 십지 맑은 향은 돌다락에 가득하구나 / 苦熱人間方卓午 더위에 괴로워하는 인간에서는 한낮이 한창이려니 / 臥看初日在松頭 누워서 처음 해가 소나무 머리에 있는 것을 보겠구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16) 이식, 앞의 책, 제2권 시 「遊鬱巖寺贈先歸數子朴公應善元生振溟及具得元沈德用同歸」 : 鬱巖開士深結社 울암사 스님과는 깊은 인연 맺은 처지 / 砥峽老翁來叩扃 지평(砥平) 골짜기 늙은이가 다시 또 찾아왔소 / 飛湍自發琴筑響 나는 듯한 여울물은 거문고에 비파 소리 / 怪壁返走熊豹形 험상궂은 저 바윗돌 표범과 곰이 달아나듯 / 雲窓僧語月灩灩 선창(禪窓)의 스님 얘기 달빛이 넘실 넘실 / 松逕客去風冷冷 소나무 길에 객 떠나니 바람결 썰렁썰렁 / 西村數子肯相訪 서쪽 마을 여

서는, ‘여울물을 거문고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次石洲集韻并序」³¹⁷⁾에서는 ‘시냇물, 빗물이 날날이 다 거문고 소리’라고 표현하였다. 이 두 글에서는 거문고 소리를 ‘산골 물방울 소리’와 ‘여울물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자연의 음향인 ‘물방울 소리’가 사람이 연주하는 ‘거문고의 음향’ 보다 더 낫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거문고 음악이 추구하는 바가, 하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 즉 ‘자연과의 합일’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의 「絕句」³¹⁸⁾에서는 충주의 탄금대(彈琴臺) 아래의 남한강이 흐르는 걸 보고, ‘여울물 소리를 거문고의 가락’에 비유하였는데, 탄금대는 신라 진흥왕 때 우륵이 이주해와 가야금을 타고 가르치던 곳이므로 가야금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규보는 고을시 「次韻李侍郎上晉陽公女童詩呈令公并序」³¹⁹⁾에서 ‘맑은 거문고 소리가 목메어 흐르는 물 같다’고 표현하였다.

이행(李荇, 1478~1534)의 「瀟湘夜雨」³²⁰⁾에는, 밤비 소리가 거문고를 연주하는 소리인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러분 부디 서로 자주 만나 / 邂逅沙頭雙素瓶 모래사장 언덕에서 술병 비워 봄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17) 이덕무, 『靑莊館全書』 嬰處詩稿二 「次石洲集韻并序」: 冷冷溪水向人鳴 서늘한 시냇물이 사람을 향해 / 疑是幽音空外生 그윽한 소리 허공 밖에서 나는 듯하네 / 十月雨來石出後 시월이라 비 내리고 돌 드러났으니 / 清流——作琴聲 맑은 물결_날날이 바로 거문고 소리일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18) 성대중, 『靑城雜記』 제5권 醒言 「絕句」 / 신유한: 行至忠原縣 충원이라 고을에 이르러 보니 / 下有彈琴江 저 아래 탄금강 흘러가는데 / 聽聲似琴調 거문고 가락인가 여울물 소리 / 灘征客倚雲 구름 피는 창가에 기댄 나그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19) 이규보, 앞의 책, 『동국이상국집후집』 제8권 고을시 「次韻李侍郎上晉陽公女童詩呈令公并序」: (상략) 禁闌未必無名媛 대궐 안에도 이름난 규수가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나 / 新伎應稀見少娥 이렇게 새로운 재능과 화동(和同)함을 가진 예쁜 아이는 보기가 드물다 / 因想九重跡宴集 그리하여 생각해보면 궁궐에 연회(宴會)의 모임이 적어져 / 未容一日示醺醺 술 취해 붙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 遣供宸昚資歡緒 이번 어람에 이바지를 진상하여 즐거움의 실마리를 풀리게 하였으므로 / 不怕天顏轉笑渦 비록 (근엄하기만 했던) 용안(龍顏)이었을 지라도 웃음기가 맴돌고 있네. / 嘹亮絃聲鳴咽水 맑고 큰 현(絃: 거문고)의 소리는 목메어 흐르며 우는 물 같고 / 翩躚舞態往來梭 가뿐하게 추는 춤의 교태(嬌態)는 배 짜는 북처럼 오고가며 매끄럽다 / 纏頭不計翔鸞錦 상(賞)에는 관심 없이 비란삼(緋鸞衫)을 나부끼며 나는 듯이 맴돌며 / 隨意兼拋織鳳羅 마음먹은 대로 펼쳐지는 춤사위는 봉황을 향해 그물을 던지네 (하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20) 이행, 『容齋集』 제1권 칠언절구 「瀟湘夜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蒼梧望斷幾千載	창오에서 어찌지도 못했던 일 몇 천 년이나 되었나
竹上斑斑餘淚痕	대나무 위에는 얼룩얼룩 눈물의 흔적이 남았구나
暝雨如聞鼓瑟響	거문고를 타는 울림처럼 들리는 밤비 소리
靑山何處招帝魂	청산 어느 곳에서 순 임금의 혼을 부를까

순임금이 남쪽으로 巡行하다가 죽어 장사 지냈던 蒼梧에서 천년의 세월이 지난 일을 회상하며³²¹⁾, 瀟湘斑竹에 순 임금의 두妃 娥皇과 女英의 눈물이 남아 있는 것 같다³²²⁾고 하였다. 그리고 ‘거문고 소리처럼 들리는 밤비 내리는 소리’, 청산 어느 곳에서 순임금의 혼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暝雨如聞鼓瑟響 거문고 소리처럼 들리는 밤비 내리는 소리’에서는 이시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볼 때, ‘거문고 소리와 밤비 내리는 소리에다가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함께 시상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바람소리에 비유한 경우

이색의 시 「追記安東映湖樓夜飲」³²³⁾에는, 처마 바람이 거문고 소리처럼 들린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澆愁謀飲酒	근심을 털고자 술을 마시며 애썼는데
避亂亦由天	피난 또한 하늘의 뜻에 말미암네
江月開塵匣	강위에 뜬 달은 먼지 낀 갑이 열린 듯
簾風聽雪絃	처마에 이는 바람은 거문고의 소리를 듣는 듯
謳吟勞北望	노래하거나 읊조릴 때는 걱정스레 북쪽을 바라보다가

321) 蒼梧는 지명으로 일명 九疑라고 하는데 순임금이 남쪽으로 순행하다가 이곳에서 죽어 장사 지냈다 한다. (『史記』 「五帝本紀」) 여기에서는 순 임금의 두 비인 娥皇과 女英이 순 임금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322) 중국의 瀟湘江 일대에서 나는 자줏빛 반점이 있는 대나무인 瀟湘斑竹을 말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순 임금의 두 비인 아황과 여영이 순 임금이 승하하자 눈물을 흘려 대나무에 뿌렸더니 얼룩이 생겼다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323) 이색, 앞의 책, 「목은시고」 제19권 시 「追記安東映湖樓夜飲」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醉倒忘南遷 술에 취해 쓰러지면 남녘의 파천(播遷)을 잊곤 하였지
 且盡杯中物 우선 잔 속의 술이나 비워야겠다
 巖廊集衆賢 조정에는 현인들이 모여 있으니

근심을 잊고자 홀로 술을 마시면서 난을 피하는 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강 위의 달이 뿌연 구름 사이로 나오는 모습이 마치 먼지 낀 갑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 처마에 이는 ‘바람은 고결한 현(絃: 거문고)의 소리’를 듣는 듯하다. 노래하거나 읊조릴 때는 북쪽을 바라보며 걱정을 하고, 술에 취해 쓰러지면 공민왕이 대궐을 떠나 청주를 거쳐 안동으로 파천³²⁴)한 일을 잊곤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술이나 먹어야겠다면서, 조정에는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난국을 잘 타개할 것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독백을 하고 있다.

전란 중에 일어난 답답한 심사로 고민하고 있는 작가에게 처마에 이는 바람은 신선하고 맑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 ‘바람소리를 거문고소리로 착각하는 일마저 애오라지 자위의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정약용의 시 「松風樓雜詩」³²⁵)에는, 사철 내내 부는 술바람 소리가 피리이자 거문고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山居無事不蕭閒	산에 사니 일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아 한가론데,
新縛茅庵只二間	새로 띠를 베어 묶어 만든 집이 단지 두어 칸
製室僅堪容病骨	방은 병든 몸 하나 겨우 용납될 만하고
鑿窓聊可對青山	들창은 애오라지 청산을 대할 만큼 하다오
四時笙瑟松風響	사철 울리는 술바람의 소리는 피리이자 거문고이고
一面屏帷石翠班	푸른빛을 깔아놓은 바위들은 병풍과 휘장이라
爲有縹緗二千卷	이 천권의 책(縹緗)들이 쌓여 있기에
入門相見每歡顏	매번 기뻐하는 얼굴로 문에 들어와 서로 만난다네

(하락)

324) 여기서는 고려 공민왕 10년(1361)인 신축(辛丑)년 겨울에 홍건적의 대거 침입으로 인하여 공민왕이 대궐을 떠나서 를 거쳐 안동으로 播遷해 있었던 일을 가리킨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25) 정약용, 앞의 책, 제5권 시 「松風樓雜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한가롭고 여유로운 두 칸짜리 오막살이는 병든 몸 하나 기거할만하고, 들창은 마음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청산을 마주할 만큼은 뚫어 놓았다고 하였다. 사철 내내 불어대는 ‘솔바람의 울림은 생(笙: 생황, 피리로 순화)이자 슬(瑟: 현악기, 비파, 큰 거문고, 거문고로 순화)이고’, 푸른빛을 깔아놓은 바위들은 한 면에 걸친 병풍과 휘장이라. 이 천권의 책(縹緗)³²⁶들이 쌓여 있기에, 매번 기뻐하는 얼굴로 문에 들어와 서로 만난다고 하였다. 자연의 소리인 솔바람의 울림을 피리와 거문고 소리에 비유하였다. 소리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도 자연 속에 살면서, 모두가 ‘자연과 일체가 되고 싶은 심회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의 시 「淸夜誦陶令詩」³²⁷에서는 ‘바람이 불어 숲을 스쳐서 거문고 소리를 낸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으며, 성현의 부(賦) 「石假山賦」³²⁸에서는 ‘술술 부는 바람 소리는 곧 자신의 거문고’라고 표현하였다. 전자에서는, 바람이 불어 숲이 내는 소리이고, 후자에서는, 바람 소리 자체가 자신의 거문고 소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권근의 시 「梧桐歌贈田判事德成」³²⁹에서는 ‘바람이 불면 거문고 소리가 저절로 난다’고 하였다.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오언절구 「洛山寺香鱸峰」에서³³⁰는 만물이 근원으로 돌아가고 맑은 날 경치가 좋으니 ‘바람이

326) 縹는 淡青色의 비단이고, 緗은 淺黃色의 비단인데, 옛사람이 이것을 책의 표지로 사용하였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327) 이덕무, 앞의 책, 嬰處詩稿二 「淸夜誦陶令詩」: 明月照園菊 맑은 달은 뜰 국화를 비추고 / 白露盈秋襟 흰 이슬은 가을 옷깃에 가득하네 / 欲辭煙火食 속세를 떠나려다가도 / 仍有唐虞心 이내 나라를 못잊는 마음 있어서라 / 商飈蘇肺氣 서넉 바람이 폐경(肺經) 기운을 소생시키고 / 度林生瑟琴 숲을 스쳐 거문고 소리 내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28)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제1권 賦 「石假山賦」 / 성현: 有大人先生 어떤 대인선생이 / 以天地爲蘧廬 천지를 오막집으로 삼고 / 六合爲幃幃 육합을 병풍 삼고 煙雲爲氣候 연운을 기후 삼고 / 江海爲襟胸 강해를 회포 삼고 / 風籟膠刀 술술 부는 바람 소리는 / 卽我之絲桐 곧 나의 거문고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29) 권근, 『陽村集』 「양촌선생문집」 제4권 시 「梧桐歌贈田判事德成 自註 判事家庭 梧桐自生」: 我昔移來杏村宅 내 옛날 행촌 댁에 이사를 오니 / 樓前碧梧高百尺 다락 앞의 벽오동 높이가 백척 / 朝陽雖無丹鳳宿 조양이라 봉황새 오진 않지만 / 夏日能蔽朱鳥 여름날 햇빛은 잘 가려주네 (중략) 天將桐孫遺友生 하늘이 동손을 친구에게 끼쳐주어 / 孤枝挺出當軒楹 외로운 가지 높이 솟아 난간에 마주 섰네 / 風中自作琴瑟聲 바람 불면 거문고 소리 절로 나고 / 雨後如聞環珮鳴 비 뒤에는 환패가 울린다고 (하략) // 조양(朝陽)이라 봉황새: 조양은 산 동쪽 별바른 곳. 『시경』 대아 권아(卷阿)에 「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兮 于彼朝陽 봉황새 훨훨 날아 높은 뒀에 앉아 우네. 오동나무 무는 동녘 산에 별바른 데 우뚝 섰네.” 한 데서 온 말이다. / 桐孫: 桐木의 孫枝. 즉 오동나무 가지에서 다시 생겨난 가지를 말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30) 남효온, 『秋江集』 제3권 시 오언절구 「洛山寺香鱸峰」: 芸芸物歸根 무성했던 만물이 뿌리로 돌

불어 거문고를 올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글에 나타난 표현에서는, 바람 부는 소리가 거문고 소리처럼 들린다거나, 부는 바람이 거문고 줄을 흔들어 거문고에서 소리가 실제로 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바람과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

이규보의 「聞琴次韻陳學正漣」³³¹⁾에는, 바위에 샘물이 떨어지는 것 보다 맑고 골짜기에 바람이 생기는 것 보다 깊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人琴幸暗合	사람과 거문고 다행히도 우연히 만났으니
絃手穩相迎	줄과 손이 서로 만나 편안하게 어울려
寓古心逾淡	옛 뜻에 머무르니 마음 더욱 맑아지고
通仙骨欲輕	신선과 통했는지 몸이 날아갈 듯 가볍구나
清於巖溜落	바위에 낙숫물 떨어지는 것보다 맑고
幽於谷風生	골짜기에 바람이 이는 것보다 그윽하다
聽罷月微側	듣고 나니 달이 희미하게 기울었는데
泠然洗我情	나의 마음은 씻은 듯이 개운해지네

사람의 손으로 거문고를 타는 소리가 옛 뜻에 부합되니, 일단의 느낌은 마음이 맑아지고, 몸은 가볍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또한 深化된 감상에서는, ‘바위에 방울져 떨어지는 낙숫물 떨어지는 것보다 맑고, 골짜기에 되돌아가 이는 바람보다 그윽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 듣고 난 후에는 不時에 상쾌하여졌다고 하여 ‘맑고 그윽한 소리가 심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규보의 序「送宗上人南遊序」에서는 “물소리와 풍악이 서로 어울리고 술바람과 거문고가 섞여 올리면, 上人은 이에 응접하느라 겨를이 없어 침

아가니 / 落日展清眺 떨어지는 햇빛에 맑은 경치 펼쳤네 / 風進淨琴張 바람이 불어 맑은 거문고 울리고 / 山尖白月小 높은 산 뿔쪽하여 흰 달이 작구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31) 서거정 등, 앞의 책, 제9권 오언율시 「聞琴次韻陳學正漣」 / 이규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식도 잇을 것이니, 비록 선뜻 끊고 돌아서고 싶지만 그 쪽에서 끌어당기고 놓아주지 않는 데야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무릇 내가 무심코 대하면) 비록 정이 있는 물건이라도 아무런 정이 없고, 내가 생각을 기울이면 비록 정이 없는 물건이라도 도리어 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대가 산수를 구경할 만한 것이라 여기고, 또 江南을 산수의 으뜸이라 여겨 지금 이 유람이 있는 것인데, 만일 항시 기대하였다가 특별한 곳에 가보면, 산은 더욱 곱고 물은 더욱 아름다워 정을 머금고 자태를 지어서 앞뒤로 애교를 부리지 않는 것이 없으며, 구름 서린 산봉우리는 길고 미끈한 푸른 눈썹을 나타내고 맑은 호수는 곱고 고와 아담한 단장을 하였으며, 물소리와 풍악이 서로 어울리고 솔바람과 거문고가 섞여 울리면, 上人은 이에 응접하느라 겨를이 없어 침식도 잇을 것이니, 비록 선뜻 끊고 돌아서고 싶지만 그 쪽에서 끌어당기고 놓아주지 않는 데야 어찌하겠는가.³³²⁾

사물과 산수에 정을 쏟으면, 산과 물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물소리와 솔바람이 각각 풍악과 거문고와 어울리게 되면, 주객이 서로 즐기는 일로 바빠지게 되어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표현한 글인데, ‘물소리를 풍악에, 솔바람 소리를 거문고 소리에 비유하여 실제 음향과 분위기가 어우러져 조성된 환경을 표현’하고 있다.

4) 사람의 목소리에 비유

윤증(尹拯, 1629~1714)의 시 「從弟搢挽」³³³⁾에는 ‘詩書를 읽는 소리가 낭랑하여 마치 거문고를 연주하는 울림과 같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吾家三年少 우리 집안의 젊은이 세 사람 중에
嗟子尤精出 그대가 참으로 유달리 뛰어났었지

332) 서거정 등, 앞의 책, 제83권 序「送宗上人南遊序」/ 이규보 : 雖無情之物 反爲 有情 子以山水爲可賞 抑以江南爲山水之最者 而今有是遊也 若懸懸傾佇 特地往觀 則山益佳 水益美 莫不含情作態 媚嫵於前後 烟岫焉呈翠眉之脩嫵 清湖焉作淡粧之嬋妍 水樂交奏 松絃雜彈 上人於是 應接不暇 忘寢廢食 雖欲豁斷而來 奈彼牽引不放何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33) 윤증, 『明齋遺稿』 제1권 시 「從弟搢挽」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俊容似玉人 용모는 옥을 다듬어 놓은 듯 준수하고
 英英自清澈 아름다운 싹처럼 절로 깨끗하고 맑았네
 八歲誦詩書 나이 여덟에 시서를 외우면
 泠然若琴瑟 맑고 시원함이 금슬과 같았고
 握管學書字 붓을 쥐고 글씨를 배울 때는
 峭快有氣骨 날카롭고 산뜻한 기품 있었지
 (하략)

‘글 읽는 소리를 거문고의 울림’에 비유하였다. 맑은 소리라는 관점에서 비유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당시의 거문고 애호가나 연주자가 선호했던 ‘거문고의 소리는 화려하거나 번잡한 것 보다는 맑고 잡티가 없는 소리였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容貌聲音」에서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하여 “작은 소리는 시원한 샘물이 졸졸 솟아나고 거문고 줄에서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맑으면서 등글고 굳으면서 맑고 느리면서 강렬하고 급하면서 화창하고 길면서 힘차고 위엄이 있으며, 큰 소리는 쇠북이 울리고 북이 진동하는 것과 같고 작은 소리는 시원한 샘물이 졸졸 솟아나고 거문고 줄에서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으며, 남과 서로 접할 때는 粹然하게 말을 하고 悠然하게 대답해야 한다.³³⁴⁾

남과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목소리의 억양을 거문고의 소리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4) 기타의 경우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시 「棲碧亭秋日」³³⁵⁾에는, 새 소리와 옛 거문고와 어울리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34) 최한기, 『人政』 「측인문3(測人門三)」 「容貌聲音」: 淸而圓堅而亮 緩而烈急而和 長而有力有威 若音大如洪鍾發響鼙鼓振響 音小似寒泉飛酌琴徽奏曲 接其語 則粹然而後動 與之言 則悠然而後應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35) 김정희, 『阮堂集』 「완당전집」 제10권 시 「棲碧亭秋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一二禽聲叶古琴 몇 마리의 새 소리는 옛 거문고와 어울리고
 斜陽明瑟過脩林 기울어진 햇빛은 거문고를 밝게 비추며 숲을 지나네
 名泉恰似閒供養 이름 난 샘은 마치 한가로운 공양(供養) 같고
 俱是眠雲跂石人 사람들은 이곳에서 구름 아래 즐기기도 하고 돌 위를 기어 다닌다네

두세 마리 ‘새들의 지저귀는 거문고 소리’와 화음을 이루고, 석양의 기울어진 햇빛은 거문고를 밝고 긴 숲을 가로질러 가는데, 좋은 샘은 바리때에 밥을 수북하게 담아 대중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과 같으니,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에 모여 구름 아래서 즐기기도 하고, 돌 위를 기어 다니기도 한다는 풍경화 같은 평화로운 시상을 엿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문신 이행의 「舟中作」³³⁶⁾에는, 바위 아래에서 거문고를 통기면 그 소리가 더욱 씩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략)

冉冉黑雲縈鬢髮 뉘엿뉘엿한 검은 구름 머리털을 휘감고
 蕭蕭白雨散尊壺 부슬부슬 흰 비는 술동이에 흩어져 내리누나
 巖下撥琴聲更壯 바위 아래 거문고 통기니 소리 더욱 씩씩하고 (중략)
 扣舷時復和鳴鳴 뱃전을 두드리며 때로 노래 소리에 화답하도다 (택지)

(하략)

현악기의 공명은 장소에 따라 각각 차이³³⁷⁾가 있다. 인위적으로 공명이 잘 되게 시설한 장소, 물가나 바위 위에서 타면 대체로 맑은 소리가 나고, 잔디밭이나 숲속에서는 吸音이 되어 공명의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 주변 연주자들의 직간접 경험으로 볼 때, 바위 위에서의 연주가 가장 분명한 음색이 들릴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조 우천계의 「廳琴」³³⁸⁾에는 음악 이론과 의성어 그리고 음악의 정

336) 이행, 앞의 책, 제4권 「後蠶頭錄」 15일, 「舟中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37) 鄭章仙(鄭河韻으로 改名), 「彈琴臺 地域에 대한 伽倻琴의 演奏時 共鳴에 대한 感度調査」 『彈琴臺 地表調査 報告書』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忠州市, 1991) 321~4면.

신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이 표현되어 있다.

畫堂白日開錦筵	화려한 집, 좋은 날씨, 비단 자리에서
琴師爲我張絲桐	금사가 거문고를 다루었네
絃將手語雅韻多	손과 줄이 속삭이는데 아담한 운율이 많아
宮商角徵相爲宮	궁·상·각·치가 번갈아 궁성으로 되나니
小成大成度不盡	소성·대성 도수가 다하지 않는 곡조며
極清極濁聲無窮	극청·극탁으로 무궁한 소리
蕩如楊花急飄散	탕한 곡조는 버들가지가 갑자기 날아 흩어지듯
鬧如玉佩搖玲瓏	시끄러운 제는 옥 패물이 흔들려 쟁그랑거리듯
獨雁叫群飛曉霜	외기러기 짝을 찾아 새벽 서리에 날으듯
幽禽得友呼春風	골짜기의 새가 벗을 얻어 봄바람에 울부짖듯
山靜流泉落深澗	산은 고요한데 흐르는 샘물 깊은 시내에 떨어지듯
風吹冷雨侵孤蓬	바람이 불어 찬비가 외로운 뗏집[篷] 위에 뿌리듯
錚鏘攫繹動入神	쟁글당글 뜯고 누름이여 모두 입신이라

(후략)

‘宮商角徵相爲宮～極清極濁聲無窮’에서는 궁·상·각·치·우 즉 5음의 순환, 小成·大成 즉 樂節의 단위, 極清·極濁, 즉 ‘고저·청탁의 音域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蕩如楊花急飄散～鬧如玉佩搖玲瓏’에서는 음란·방탕한 곡조는 버들가지가 사방으로 흩날리는 것으로, 시끄러운 聲音은 옥으로 만든 佩物이 흔들리다 부딪는 소리에 비유하였는데, 전자의 시구에서는 ‘청각적 감상을 통해 얻은 미학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후자에서는 자못 의성어가 연상될 만한 시청각적인 현상으로 전환시켜 표현한 점이 관찰된다.

‘獨雁叫群飛曉霜～風吹冷雨侵孤蓬’에서는 외로운 기러기가 짝을 찾아 새벽 서리를 맞으며 絶叫하듯, 골짜기의 새가 벗을 얻고자 봄바람 속에서 부르짖듯, 고요한 산속을 흐르던 샘물이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듯, 바람이 불어 찬비가 외로운 蓬廬에 스며들듯이 등으로 나타낸 시구에서는 ‘소리 속

338) 주) 185), 본고 80면에 예문 일부를 게재하여 ‘張絲桐’에 대한 논의를 함.

에 함축되어 있는 내면, 즉 음악외적 이면을 더욱 심화하여 표현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鍾鏘攪繹動入神’에서는 ‘쟁쟁(鏘鏘)’이나 ‘장장(鏘鏘)’과 같이 옥이나 쇠불이 같은 것이 울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소리의 울림을 나타내는 의성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거문고의 성음을 나타내는 의성어는 실제 음향과 가깝게 표현된 ‘슬기둥’·‘스르랭’·‘싸랭’·‘뜰’ 등으로 나타내는 口音이다. 그러므로 ‘쟁쟁’이나 ‘장장’과 같은 의성어는 거문고의 성음을 나타내는 표현과는 거리감이 있다. 오히려 石磬의 성음을 표현하기에는 알맞을 것이다. 또한, 중국 금의 성음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생래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성어들은 현악기가 내는 소리의 맑음을 표현하기 위해 차용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연하면 『악학궤범』에 구음이 한글로 병기³³⁹⁾되어 있기는 하지만, 편찬 전후를 막론하고 한문 문장 안에 향악기인 거문고의 구음을 적절한 의성어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악기인 금 등에서는 중국식 표기의 의성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건너온 아악기와 우리의 향악기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만큼, ‘발음체의 열개와 음악적 언어도 달라서, 소리를 나타내는 각각의 문학적 의성어도 많은 차이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박연(朴堧, 1378~1458)의 시 「五言絶句」³⁴⁰⁾에는, 거문고 소리는 신령이 듣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一川逗秋雨	온 시냇가에 가을비가 머물다 간 뒤라
萬壑泣坤靈	골짜기마다 땅의 귀신이 우는구나
爽風林淨	맑고 시원함은 청정한 바람이 부는 숲과 어울리고
琴彈神物聽	거문고 타는 소리는 신령이 듣네

가을비가 내린 뒤 시냇물의 흘러가는 소리를 땅의 귀신이 우는 소리로

339) 이혜구 역주a, 앞의 책, 688면. 제7권 향부악기도설 현금조 : (전략) 文絃順畫五絃至武絃而止曰挑作_レ俗稱스랭實有聲者 兩淸而已匙端向外者武絃逆畫五絃至文絃而止曰勾作_レ俗稱ㄷ랭實有聲者兩淸與按絃而已如挑文遊大三絃 匙至桴上淸而止作_レ俗稱겹술 (후략)

340) 남효온, 앞의 책, 제3권 시 「五言絶句」 / 박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표현하였다. 이는 곧 地籟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냇물의 맑고 시원함은 청정한 바람이 부는 숲과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몹시도 푸르고 맑은 시상이다.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거문고의 울림이 상징하는 바와 상통하게 된다. 또한 ‘거문고의 소리는 玄妙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신령이 듣는다고 하였을 것’이다.

이규보의 고을시 「次韻文長老聞友人彈琴」³⁴¹⁾에는, 거문고 소리가 차가울 땐 술을 두드리며 달을 가두고, 고요할 땐 대 바람이 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通仙從水府	신선들은 수부(水府)를 지나서 왔고
舞幻向珠宮	환상적인 춤은 날을 향했네
淚滴哀彈裏	눈물은 슬픈 곡조 속에 방울져 떨어지고
心冥古韻中	마음은 예스러운 운치(韻致) 안에 아득하니
寒敲松檻月	추울 땐 술을 두드리며 달을 가두고
靜落竹階風	고요함이 흠어질 때는 바람이 섬돌을 오르네
不待煩柔指	번거로움을 좇아 손을 놀릴 필요가 없네
都令骨肉融	도령(都令)이 뼈와 살을 녹인 것을

신선들은 수부³⁴²⁾를 통해서 왔고, 환상적인 춤은 호화찬란하게 꾸민 궁궐을 향함으로써 공연자와 관객이 동원되었다. 이윽고 슬픈 곡조가 연주되면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예스러운 운치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니, 추울 땐 술을 두드리며 달을 품고, 고요함이 흠어질 때는 바람이 섬돌을 오른다고 하였다. 모두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 데다, 이미 수석 승지가 높은 수준의 연주를 함으로 인해, 뼈와 살을 녹이도록 만들어 놓아서, 작가는 구태여 손을 놀릴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남구만의 시 「眷言思休寓郡望姓名字離合成詩」³⁴³⁾에는, 방아 찹는 소리를 거문고 소리로 대신한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341) 이규보, 앞의 책, 제14권 고을시 「次韻文長老聞友人彈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42) 唐나라 제도로 戶曹 또는 戶部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343) 남구만, 앞의 책, 제1권 시 「眷言思休寓郡望姓名字離合成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상략)

昕夕尙營廩 조석(朝夕)간의 끼니를 여전히 녹미(祿米)로 지어 살다보니
斤然氣欲索 이치에 맞는지 수효를 세어 근원을 따지고 싶어지네
古來賢達人 옛날부터 줄곧 현명하고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一去不計腹 한 번 떠나면 먹을 것을 헤아리지 않았다네
杵聲代鼓琴 절구방아 쪼는 소리를 거문고 타는 소리로 대신하고
木食甘遯迹 나무뿌리와 열매 따위를 먹고 자취를 감춰 사는 것을 달게 여긴다
네

(하략)

끼니를 국가의 祿米로 해먹다보니, 혹여 일한 것보다 더 받아먹는지 헤아려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옛날부터 현명함과 높고 훌륭한 덕망을 겸비한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먹을 것은 따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방아 쪼는 소리를 거문고 타는 소리로 대신하면서, 나무뿌리나 열매를 먹고 살면서 은둔하는 것을 달게 여긴다고 하였다.

이 시에서는, 신라 자비왕 때에 백결 선생이 집이 몹시 가난하였다. 마침 설을 쇠기 위하여 이웃집에서 모두 방아를 쪼었으나 자기 집에는 방아 쪼을 만한 곡식이 없어, 아내가 이것을 한탄하자 ‘백결선생이 금을 타서 방아 쪼는 곡조를 연주했다³⁴⁴⁾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대용의 「鳳凰山」³⁴⁵⁾에서는 ‘솔바람 시냇물 사이로 조용히 울려오는 맑은 소리에 심신이 절로 상쾌해진다. 이는 결코 거문고나 다른 악기에 비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자연의 음향을 음악 감상의 頂點에 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소나무 밑에 앉아 옷을 풀고 땀을 식히는데, 산 왼쪽 숲 속 깊이 두견새 우는 소리가 들려 왔다. 솔바람 시냇물 사이로 조용히 울려오는 맑은 소리에 심신이

344)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416면 「열진」 제8 백결 선생 : 百結先生 不知何許人 居狼山下 家極貧 衣百結若懸鶉 時人號爲東里百結先生 嘗慕榮啓期之爲人 以琴自隨 凡喜怒哀歡 不平之事 皆以琴宣之(하략).

345) 홍대용, 앞의 책, 집 9권 燕記「鳳凰山」: 遂坐松下 披衣納涼. 忽聞杜鵑聲. 出山左樹林深處. 音韻清切. 悠揚於松風澗水之中. 心神清醒. 絕勝於琴筑也.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절로 상쾌해진다. 결코 거문고나 다른 악기에 비할 것이 아니다. (후략)

두견새 우는 소리·솔바람 소리·시냇물 소리 등 자연의 음향을 듣다보니, 심신이 맑고 깨끗해진다고 하면서, 거문고나 축의 소리보다도 훨씬 낫다고 하였다. 물론 자연의 음향을 들은 작가가 심신 양면으로 체감하는 바도 있었겠지만, ‘거문고 울림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경지를 추구함에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의 고을시 「尹同年儀見和復次韻贈之」³⁴⁶⁾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로 타는 거문고 소리는 깨어지는 얼음소리보다 차다,’라고 하였다.

(전략)

到頭其手晴飛雪	뛰어난 바둑 솜씨는 갠 날 우박이 나는 듯하고
(予與君敵手	나와 그는 적수였다.)
餘事琴聲冷軌水	여사로 타는 거문고 소리는 깨어지는 얼음소리보다 차네
(君學琴	그는 거문고를 배웠다.)
趁日携遊償得不	날마다 함께 노닐던 즐거움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數年離恨不堪勝	여러 해 떨어져 있는 괴로움은 견디기 어려우리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로 타는 거문고 소리는 부딪혀 깨지는 얼음처럼 차다고 하였다. ‘거문고의 정신성이 부여되지 않은 채 연주하거나, 별 의미가 없는 환경에서 연주하는 일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후 변화에 따른 거문고 소리가 나타난 이규보의 고을시 「夏日卽事三首」³⁴⁷⁾에는 바람 부는 새벽엔 거문고 소리도 목이 메어 탁하다고 표현하였다.

風曉床琴咽	바람 부는 새벽엔 거문고 소리도 목이 메어 탁하고
陰天桂礎津	날씨가 흐리면 주춧돌도 津液이 흘러나와 축축하구나

346) 이규보, 앞의 책, 제11권 고을시 「尹同年儀見和復次韻贈之」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47) 위의 책, 「동국이상국후집」 제10권 고을시 41수 「夏日卽事三首」 중 첫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讀殘書在手 읽다 남은 책이 손에 있는데
睡氣着來頻 졸리는 기운이 자주 찾아오네

3. 心象的 감상

1) 心象性 위주의 無絃琴 감상

이규보의 「琴銘」³⁴⁸⁾에는 “시원한 그 소리는 돌 사이 여울에서 가져온 것인가, 서늘한 그 소리는 소나무 바람에서 빌려온 것인가? 만일 시원한 소리는 여울로 돌려보내고, 서늘한 소리는 소나무로 돌려보낸다면, 다시 고요하고 고요하여 저 허공으로 환원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我琴無調

孰商孰宮

琴是何物

聲從何沖

其泠泠溜溜者

傳聲於石瀨乎

其瑟瑟颼颼者

借韻於松風乎

若以泠泠者付乎瀨

瑟瑟者還于松

則其復寥乎寂乎

反於大空者乎

나의 거문고는 곡조가 없으니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궁인지

이 거문고란 어떤 물건이라서

어찌 비어있는 구멍에서 소리가 나온다지

그 시원하고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는

여울의 돌 틈에서 보내준 것인가

그 서늘한 바람 소리는

소나무 바람을 그대로 빌려온 것인가

만약에 시원한 소리는 여울로 돌려보내고

서늘한 소리는 소나무로 돌려보낸다면

다시 고요하고 또 고요하여

저 허공으로 돌아갈 것인가

거문고가 곡조가 없고 비어 있는 공명상자만이 있다는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규보의 거문고는 “줄과 꺾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무현금”이다. 따라서 實在的 현상으로서의 소리는 낼 수가 없다.

다만, 마음만으로 거문고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소나무에 이는 바람소리’를 들었을 터이니, 작가의 말대로 빌려온 소리들을 다시 소리가 있

348) 이규보, 앞의 책, 제19권 銘 「琴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던 것으로 돌려보낸다면 허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줄 없는 거문고는 본디 고요했으니, 소리의 오고감이 없이 그대로일 뿐이다. 그리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소나무에 이는 바람소리’는 작가의 마음만으로 빌려온 것들이다. 따라서 다시 돌려보내든 말든 간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소리 내는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모든 技藝에는 어둡지만 “마음만으로는 거문고의 소리를 마주하여 알아들을 만하다.”고 표현한 장유의 「玄琴銘」³⁴⁹⁾이다.

清兮泠泠	맑게 소리를 내면 청량하고
靜兮愔愔	고요하게 소리를 멈추면 화평해지고
我昧斯藝	나는 모든 기예에는 다 어둡지만
而契其心	그 마음만으로는 (인연이) 맺어지네
禁而邪思	요사스럽고 나쁜 기운을 억누르고
養而沖襟	온화한 마음을 기를 것이라
山高水深	산은 높고 물은 깊어
無古無今	태고도 없고 지금도 없네

줄을 통겨서 맑게 소리를 내면 상쾌해지고, 줄을 놓아 소리를 멈추면 평온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예에 어두워 연주는 하지 못하니 마음만으로 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악한 기운을 누르고 온화한 마음을 기를 것이라 하였는데, 『白虎通』의 「禮樂」에 ‘琴者禁也 禁止於邪 以正人心也 琴은 禁이다. 사악함을 금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³⁵⁰⁾라는 금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山高水深~無古無今’에서는 백아의 「高山流水曲」에 대한 고사를 인용하여 표현한 것도 아니고, 山水가 항상 그대로이니 예도 지금도 없다고 표현하였는지, 필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玄琴銘」에서는 “연주능력이 없어 그저 듣기만 한다면, 거문고에 이전된 금의 정신성만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의 오언율시 「獨坐」³⁵¹⁾에서는 “거문고 소리가 그쳤어도 마음속

349) 장유, 앞의 책, 제2권 箴銘贊 중 「玄琴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50) 이 구절은 「양금신보」 (양덕수, 1610)를 비롯한 많은 고악보에 나오는 글귀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에는 아직도 소리의 여운이 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獨坐無來客	찾는 손님 없이 홀로 앉아 있노니
空庭雨氣昏	빈 뜰엔 빗 기운이 어둑어둑
魚搖荷葉動	고기가 흔들여 연잎이 움직이고
鵲踏樹梢翻	까치가 밟아 나무 끝이 너풀거리도다
琴潤絃猶響	거문고 그쳐도 줄에 아직 소리 있고
爐寒火尙存	화로는 찬데 불은 상기 남아 있네
泥途妨出入	진흙길이 출입을 방해하거니
終日可關門	오늘 하룻랑 문 닫아 두자

거문고가 그쳐도 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애당초 울리지도 않는 거문고 소리를 마음 속으로만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색의 시 「悶雨歌」³⁵²⁾에서는 “결상엔 맑은 바람이 불고 숲에서는 새가 지저귀니, 즉 자연의 음향 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무현금을 다시 둘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무현금을 둔다고 하는 것은 악기가 준비되어 있어도 어차피 연주는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줄 없는 거문고인 무현금이 나타난 예문 중 이규보의 고을시 「讀陶潛詩」³⁵³⁾이다.

吾愛陶淵明	내가 사랑하는 도연명이
吐語淡而粹	뱉어내는 말은 담담하고 순수하다
常撫無絃琴	항상 줄 없는 무현금을 어루만졌으니
其詩一如此	그 시 또한 한결같이 이러하다

351)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제6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52) 이색, 앞의 책, 「목은시고」 제29권 시 「悶雨歌」: (상략) 白髮臥病忝封君 흰머리로 병들어 누워 군에 봉해지고 / 三重大匡領藝文 삼중대광으로 예문을 주관하는 이 몸 / 淸風滿榻鳥啼林 탑상엔 청풍이요 숲에선 새가 노래하니 / 不用更置無絃琴 무현금을 다시 둘 필요가 뭐 있으리요 (하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53) 이규보, 앞의 책, 제14권 고을시 「讀陶潛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至音本無聲	경지에 도달한 음률은 본디 소리가 없는 법
何勞絃上指	어찌 줄 위에 손가락을 올려 수고롭게 하겠는가
至言本無文	이치에 맞는 말은 본디 문체가 없으니
安事彫鑿費	어찌 새기고 뚫어 꾸미는 일로 시간을 소비하겠는가
平和出天然	자연에서 나온 평온하고 화락한 말들
久嚼知醇味	뜻을 새길수록 그대로의 순수하고 진한 맛을 느끼게 한다
解印歸田園	사직을 하고 전원으로 돌아와
逍遙三徑裏	세 갈래 오솔길 안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노니노라
無酒亦從人	술이 없으면 남을 따라가서
頽然日日醉	술에 취해 날마다 쓰러져 있었다
一榻臥羲皇	한 평상에 희황 ³⁵⁴ 이 누워 있으니
清風颯然至	맑은 바람이 가볍고 시원하게 휩 들어온다
熙熙太古民	맑고 깨끗한 아주 오랜 옛날의 백성이며
岌岌卓行士	행실이 뛰어난 높은 선비로다
讀詩想見人	그 시를 읽고 그 사람을 헤아려 보면
千載仰高義	천 년의 세월 동안 높은 의리를 우러르게 된다

무현금을 어루만지며 경지에 도달한 음률은 본디 소리가 없는 법이라며, 도잠이 살아온 환경과 그의 奇行을 시상에 옮겨 놓으며, 그를 칭송하고 있다. 실제로는 ‘거문고 연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신적인 경지만 내세우고 있는 내용’이다.

이영서(李永瑞, ?~1450)의 칠언율시 「無絃琴」³⁵⁵이다.

淵明自有一張琴	도연명이 금 한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不被朱絃思轉深	주현(朱絃: 줄)을 걸치지 않았으니 뜻이 자못 깊구나
眞趣豈能聲上得	참된 취향을 어찌 소리를 통해 얻으랴
天機須向靜中尋	하늘의 뜻은 모름지기 소리가 없는 가운데서 찾아야 하니
鯤絃鐵撥渾閑事	곤어(鯨魚)·줄(絃)·쇠(鐵)·채(撥)도 다 부질없는 것이라

354) 한 평상에 희황상인(羲皇上人: 도잠(陶潛)의 자호(自號)이자, 복희씨(伏羲氏) 시대인 태곳적의 사람이란 뜻으로, 속세를 떠나 한가히 지내는 사람을 말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355) 서거정 등, 앞의 책, 제17권 칠언율시 「無絃琴」 / 이영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流水高山謾苦心 백아의 고산유수(高山流水)곡도 공연히 애만 쓰는 일이고
古調未應諸俗耳 옛 곡조가 속인(俗人)의 귀에는 조화롭게 옹하지 아니하니
悠悠千載少知音 유구(悠久)한 천년의 세월 동안 지음(知音)은 많지 않네

앞의 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문고를 탈 줄도 모르는 사람이 ‘높은 경지의 옛 곡조는 속인의 귀에는 조화롭게 옹하지 아니하여 예로부터 지음은 드물다’고 묘사하고 있다.

도연명의 거문고가 나타나는 윤증의 시 「次崔來叔泰昌韻」³⁵⁶⁾이다.

弊廬無長物 내 보잘것 없는 오두막에 존귀한 물건은 없지만
庭樹可怡襟 뜰에 심은 나무가 마음속으로 기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네
有月堯夫院 달이 떠있는 소옹(邵雍: 堯夫는 자)의 풍정 좋은 집³⁵⁷⁾이요
無絃元亮琴 줄 없는 도원량(陶元亮)의 금³⁵⁸⁾이라
誰誇一青蓋 하나의 푸른 일산을 누가 자랑했던가?³⁵⁹⁾
不數五楸陰 다섯 그루의 개오동나무³⁶⁰⁾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지
忽見新詩句 홀연히 새로 지은 시구를 보니
知君會此心 그대가 내 마음을 이해한 걸로 알겠다는 내용이다

356) 윤증, 앞의 책, 제4권 시 「次崔來叔泰昌韻」: 庭中碧梧. 客來多賞之. 而未見有形於吟詠者. 今承惠韻. 物亦似有遇歎. 謹步和以謝. 뜰에 있는 벽오동을 객이 오면 대부분 감상하지만 시로 읊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내 준 시를 받고 보니 사물 역시 만남이 있는 듯하구려. 삼가 보운(步韻)하여 사례하는 바외다.(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57) 요부(堯夫)는 송나라의 학자 소옹(邵雍)의 자이다. 요부의 집이란, 소옹의 시 「月到梧桐上吟」에 “月到梧桐上 風來楊柳邊 院深人復靜 此景共誰言 오동나무 위에는 달이 이르고, 버드나무 가에는 바람이 불어오네. 서재가 깊숙하고 사람도 조용하니, 이 경치를 누구와 더불어 말을 할까.”라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擊壤集』 卷1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58) 도원량(陶元亮)은 진(晉)나라 때의 처사(處士) 도잠(陶潛)으로 원량은 그의 자이다. 도잠은 음률(音律)을 잘 몰랐는데, 줄이 없는 거문고 하나를 지니고 있다가 술기운이 오르면 거문고를 연주하듯이 어루만져 자신의 뜻을 부치곤 했다 한다. (『陶靖節傳』) 여기에서는 오동나무가 거문고의 재료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 뜰에 선 오동나무를 도잠의 무현금(無絃琴)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59) 당나라 杜甫의 시 「桤木爲風雨所拔歎」에 “滄波老樹性所愛 浦上童童一青蓋 한 즉, “창파와 늙은 나무 내 천성이 사랑하니, 물가에 또렷이 서 푸른 일산 같았네.”라고 한 구절을 두고 한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주 참조)

360) 당나라 韓愈의 시 정추庭楸에 ‘庭楸止五株 共生十步間’ 즉, “다섯 그루에 불과한 마당의 개오동, 열 걸음 거리에서 뻐뻐하게 자랐어라.”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여기에서는 자기 집의 벽오동이 한유의 뜰에 있었던 개오동을 훨씬 능가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이 글에서는 오동나무가 악기의 재료로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어졌다는 내용은 없다. 그저 ‘살아있는 오동나무를 관찰하면서, 제작이 완성된 금에 대한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곧 미래에 악기로 제작되어질지도 아닐지도 모를 생나무를 보면서 귀한 물건이라 여기고 즐거워하며, ‘도연명의 무현금에 대한 심상만을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의 작가인 윤증은 작중 인물인 최내숙이 보내 준 글에서 정원의 오동나무를 바라보는 감상의 내면이 같음을 알게 되었고, 사물을 보는 관점에서 정서상의 동질성을 발견함으로써 더욱 흡족해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아와 종자기는 실제로 연주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표현하고자 하는 이면을 읽어낼 줄 알았다는 데에서 ‘지음’이라 하였다. 그런데, 윤증과 최내숙은 악기의 재목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은 그 특징을 발휘할 수 없는 뜰 앞의 오동나무를 보고 감상하였다. 그리고 줄이 없어 소리를 낼 수 없는 무현금의 정신적 가치를 부여했다. 아마도 윤·최 두 사람은 도연명처럼 악기를 다루지 못하여 그저 풍취로만 즐겼을 것이며, 금이나 거문고에 대한 정신성에 있어서도 도연명의 그것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물을 대함에 있어 공감대가 형성된 내면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서로가 마음이 통하게 되고, 또한 서로의 의중을 읽어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를 살펴 볼 때, 또 ‘다른 지음(知音)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달충(李達衷, 1309~1385년)의 칠언율시 「次襄州官舍詩韻」³⁶¹⁾에는, 거문고 곡조에서 옥전(玉田) 연기가 일어난다고 표현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此樓風景僅瞻前	이 누각의 풍경을 간신히 앞만 보았더니
來往登臨又一年	오가며 올라온 지 또 일 년이 되었구나
簾額冷霑銀漢露	주렴과 현판에는 차가운 은하수의 이슬이 젖어들고
琴心暖起玉田煙	금의 울림엔 온화한 옥전 연기가 일어난다. ³⁶²⁾

361) 서거정 등, 앞의 책, 제16권 칠언율시 「次襄州官舍詩韻」 / 이달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62) 琴瑟無端五十絃 一絃一柱思華年 莊生曉夢迷胡蝶 望帝春心託杜鵑 滄海月明珠有淚 藍田日暖玉生煙 此情可待成追憶 只是當時已茫然 금슬을 얻어보니 공교롭게 오십 줄, 줄마다 기둥마다 젊은 날이 생각난다. 장자 잠 깨어 나비였나 혼동하듯, 꿈만 같았던 내 청춘 망제가 소쩍로 변해 애타케

清閑可喜壺中日 마음은 맑으니 병 속의 별천지³⁶³)에서 사는 날들이 즐겁고
 阨塞還嫌瓮裏天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어려우니 독 속의 하늘이 원망스럽구나
 欲和諸公冰雪句 얼음·눈 같은 맑고 서늘한 시를 화답하러니
 羞將短綆汲深泉 두레박 짧은 줄로 어이 깊은 샘물 길으리

이 글의 ‘琴心暖起玉田煙’에서는 당나라 李商隱의 「錦瑟詩」에 나오는 “藍田日暖玉生煙 남전에 날이 따스해 옥에서 연기가 나는구나!”의 ‘玉田煙)을 인용하여 曲調의 和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금의 이상이자, 고대로부터 예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중심사상인 것이다. 또한, 예에서의 절과 악에서의 화를 이룸이다. 즉 “大樂與天地同和 大禮與天地同節 大樂은 天地와 그 和를 함께하고 大禮는 천지와 그 節文을 함께한다.³⁶⁴⁾”는 것이다.

신흙의 시 「癸丑歲除有懷」³⁶⁵⁾에는, ‘갑 속에서 「아양곡」이 울린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一座團蒲萬慮捐 한 자리 부들 풀로 만든 방석에 온갖 생각을 버리고
 小窓燈火坐蕭然 작은 창 등불 아래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 있네
 誰知玄叟金陵日 현수(玄叟)의 금릉(金陵) 시절 그 누가 알았을까³⁶⁶⁾
 正直蘇翁赤壁年 소옹(蘇翁)의 적벽 귀양살이 하던 때를 바로 맞이하였네³⁶⁷⁾
 老去又逢新歲月 늙어가면서 또 다른 새로운 날들을 만나게 되고
 謫來猶臥舊林泉 유배와서 오히려 옛 숲과 샘이 있는 은사가 사는 곳에 누워 있다네

부르던 봄인 양 가버렸지. 슬픈 일도 있었지, 창해의 달빛 아래 진주인 듯 눈물인 듯, 기쁜 일도 있었지, 따뜻한 날 남전산 옥에 연기 피어나듯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름다운 추억 어찌자고 그 때는 그리도 망연했던가? (지세화 편저, 『이야기 중국문학사 上』, 일빛, 2002년 4월) 참조.

363) 한나라 비장방(費長房)이 “신선을 따라 병 속에 들어갔더니 별천지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64) 권오돈 역해a, 앞의 책, 『364면.

365) 신흙, 앞의 책, 제14권 시 칠언율시 111수 「癸丑歲除有懷」(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66) 玄叟는 상촌의 별호가 玄翁)므로 자신을 가리키고, 금릉은 경기 김포의 옛 이름이다. 곧 상촌이 이때 계축(癸丑: 1613년)옥사로 삭탈관작되어 김포의 선영 밑으로 돌아와 계부 光緒의 두 칸짜리 농가에서 何陋菴이라 편액을 걸고 거처하였는데, 자기에게 이와 같은 날이 있을 줄을 미처 몰랐다는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67) 蘇翁은 송 나라 蘇軾을 가리키고, 적벽은 黃岡縣 성 밖에 있는 강으로 소식이 神宗 元豐 5년(1082)에 당쟁으로 혁신당에게 몰려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다. 상촌 또한 소식처럼 초야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多情唯有瑤琴在 정감이 넘치는 유일한 거문고 하나 있으니
匣裏峨洋向我絃 갑 속에서 나를 향해 아양곡을 울려준다네

이 글의 작가인 신흠은 송(宋)나라의 학자 소식(蘇軾)의 유배생활을 비유의 예로 들어 자신의 귀양살이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왕 귀양 온 김에 자신의 처지를 은사로 자처하고 있다. 정을 줄만한 것은 오직 한 장의 거문고뿐인데, 갑 속에서 아양곡을 울려준다고 표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배중인 신흠이 이 거문고를 유일한 지음(知音)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점이 추정된다. 또 ‘갑 속에서 꺼내지도 않았으며, 연주도 하지 않았는데 아양곡을 울려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갑 속에 든 거문고는 줄이 없는 무현금이었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커진다.’ 줄이 없어 소리를 낼 수 없는 무현금의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는 음악(大音希聲)을 듣는 것처럼 듣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만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종의 沒我的 상태로 듣는다는 것이다. 이는 본고의 논의 도중 고전문헌에서의 은사들의 취향이 나타난 경우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2) 심상성을 부정한 무현금 감상

이행의 오언시 「走筆和翠軒和示之什」³⁶⁸⁾에는 ‘줄 없는 거문고는 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타난 있다.

(상략)

挹翠詩見尋 읍취헌(挹翠軒) 박은(朴聞)이 시를 들고 찾아와서 만났네
舊興不復作 그 옛날 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
如鼓無絃琴 줄이 없는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음이라
公才是大海 공의 재주는 큰 바다와 같고
賤學元一涔 나의 천한 학식(學識)은 원래 한 줄기 길바닥에 핀 물이라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잠의 무현금을 비유한 문장들에서

368) 이행, 앞의 책, 제3권 오언시 「走筆和翠軒和示之什」(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는 ‘높은 경지의 홍취로서 줄이 없는 거문고를 감상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는 연주하는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거문고의 정신성만 감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홍취가 일어나지 않음을 줄이 없는 거문고를 뜯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 경우는 줄이 없는 전자의 감상을 하니 소리가 없어 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연주가나 애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경우이다.

이 글의 경우에서는, 당시를 살아가던 ‘작가의 정신적인 감상 수준이 높지 않았다거나, 현실성 없는 정신적인 감상을 부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한편, ‘줄이 있는 거문고라도 홍이 일어나야 뜯는다’는 내용도 앞의 논의 과정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는 연주가나 애호가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또, 홍익한(洪翼漢)의 「花浦先生朝天航海錄卷之二初四日癸丑」³⁶⁹⁾에는, ‘익숙한 樂工이라도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前略) 以大事垂成. 經用已竭. 以來求容錢者. 輒作明文立信約. 以完事爲期. 故爭持契券. 交手相符. 而巧婦不能辦無米之炊. 良伶不能鼓無絃之曲. 을축년 천계(天啓) 5년 (1625, 인조 3) 1월 4일(계축) (전략) 대개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재정은 바닥난 상태였기 때문에 용전을 요청하는 자에게 문권을 써 주고 일이 완성된 후에 주기로 약속했으므로 모두 문권을 가지고 와서 독촉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은 여자라도 쌀 없이 밥을 지을 수 없고, 익숙한 악공이라도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수 없는 법이다. (후략)

이 글의 ‘巧婦不能辦無米之炊 良伶不能鼓無絃之曲’에서는,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은 여자라도 쌀 없이 밥을 지을 수 없고, 익숙한 악공(樂工)이라도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수 없는 법이라고 하였다. 재정이 바닥난 현실로 인해, 드높은 이상만 앞세웠던 거문고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점이 나타나 있다. 실학사상의 씨앗이 될 만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369) 홍익한, 『朝天航海錄』 「花浦先生朝天航海錄卷之二初四日癸丑」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參奉王君墓碣銘」³⁷⁰⁾에는 지금까지의 ‘무현금에 대한 내용과 배치되는 표현으로 보이는, 줄 없는 거문고(琴)는 병어리나 마찬가지로’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이 제4장에서는 거문고음악의 전승 계보의 기록에 나타난 성격과 시·공간적 탄주 배경 그리고 정신적 탄주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음향감상에서는 정서적·비유적·심상적 감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삼국사기』 잡지 1 신라악 현금조의 신라 금도의 맥을 이어온 거문고 연주가의 계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옥보고를 시점으로 하여 속명득·귀금선생으로 3대를 이어간 예술적 성향에 대하여 은거·은둔·은일 등의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성향은 성장방향에 따라 노장사상·선선사상·고신도사상 뿐만 아니라, 무교사상·바탕풍류도 등으로 거문고음악사상체계의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수음악을 하는 악사로서의 궁극적인 수련의 목적은, 음악적·음악외적 자기완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금도는 수양을 통한 자기완성이라는 개인적 효용, 풍류로서의 사회적 효용, ‘현묘지도’로서의 국가적 효용가치를 발휘하였을 것으로 보였으며, 국가적 道의 脈을 이어가는 ‘위국지도’로 신봉되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가야금은 우륵을 통하여 이미 금도를 이루었을 것이고, 옥보고는 거문고가 천존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자타의 의지대로 입산하여 금도를 이루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승계보를 이어감에 따라 금도의

370) 박지원, 『燕巖集』 제2권 煙湘閣選本 「參奉王君墓碣銘」: 王氏高麗時. 皆公族.¹⁾ 當鼎革¹⁾時. 自相怖嚇. 變姓逃匿. 世所傳玉琴馬全田五姓. 多王氏寄竄. 有遇諸野行歌¹⁾且和曰. 彼珮玉者不忘本也.¹⁾ 有琴無絃. 其聲啞啞. 非蒟伊粟. 飯彼之馬. 伏於田間. 甘處人下.¹⁾ 蓋不能無畏約 爲隱¹⁾以相識云. 王氏가 고려 시대에는 다 公族이었는데, 나라가 바뀌자 자기네끼리 서로 공포에 떨어 성을 변경하고 도피하여 숨어 살았으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玉氏, 琴氏, 馬氏, 全氏, 田氏 등 다섯 성에 왕씨들이 많이 숨어들었다. 우연히 들에서 서로 만나면 걸어가면서 노래를 불러 주고받기를, ‘玉을 찬저 사람은 근본을 잊지 않네.’ ‘거문고는 있어도 줄이 없으니 병어리나 마찬가지네.’ ‘꿀 아닌 곡식으로 저 말에겐 밥을 먹이네.’ ‘밭 사이에 었다어서 달갑게 남 밑에 사네.’ 하였다. 이는 대개 두려움으로 움츠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은어를 만들어 서로 알아차리도록 한 것이라 한다. 『운산만첩당집』의 목차에는 ‘顯陵參奉王君묘갈명’으로 되어 있고, 성균관대 소장 필사본 『연암집』 散稿에는 ‘麗陵參奉王君묘갈명’으로 되어 있다. 후자는 대본에 비해 간략하며 자구의 차이가 적지 않아 초기작으로 추정되지만, 銘辭를 갖추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갈증이 해소된 극상과 극종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천존고에 보관되었던 거문고는 세상에 나와 본격적으로 빛을 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문고의 탄주 배경에서는, 시·공간적 탄주 배경과 정신적 탄주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시간적 탄주 배경으로는 봄·가을의 달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달밤이 아닌 초저녁이나 아침저녁으로 탔다는 경우도 있었다. 작가에 따라서는 일기(日氣)나 탄주공간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여름철이 묘사된 문장도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공간적 배경과 탄주 장소는 매우 다양하다. 계절과 일기 등에 따른 자연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탄주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적 탄주 배경과, 탄주 장소에 이끌려 거문고를 타러 오겠다는 내용이 나타난 글도 관찰할 수 있다. 또, 거문고를 타기 위해 산골짜기의 시냇가에 초가집을 짓거나, 대숲이 있어 맑은 운치가 느껴지는 곳에 인위적으로 탄주공간을 마련하였다는 내용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탄주할만한 절경이 발견되면 거문고를 타고 싶어지고, 거문고가 있으면 탄주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유유자적했던 거문고 애호가들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자료들도 있다.

시공(時空)을 달리한 연주 장소에 따라, 음색이나 음질도 다채롭게 변형되어 들릴 것으로 보이며, 연주 곡조 또한 다양한 연주환경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했으리라 보인다. 무대라는 일정한 규격의 공간에서 정해진 곡을 연주하는 현행 연주가들이 느낄 수 없는, 끝없이 열려있는 다양한 감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환경의 다양함에 따른 즉흥성을 악상에 유감없이 펼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한편, 고전문헌상에는 거문고 연주를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내용도 나타나 있는데, 글 읽는 여가에 거문고 타기 등의 기예를 즐기되 각자의 규범을 두어 적당한 시기가 아니면 놀지 말라고 한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 또, 부모가 편찮으실 때에는 거문고를 타지 말라고 한 경우와, 삼년상을 지낼 때는 ‘거문고를 타도 성음을 이룰 수 없다’고 한 내용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상을 마치고 나서 거문고의 연주를 시도할 때는, 곡조도 맞지 않고 소

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일이나, 곡조도 맞고 소리도 제대로 나는 일들은 다 선왕이 만들어 놓은 예를 감히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며,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글도 발견되고 있다.

정신적 탄주 배경에서는, 은둔의 삶을 누리는 시기에 흥이 일어날 때 타는 경우와, 도연명의 취향을 모방하여 홀로 마음만으로 줄 없는 거문고를 타고 싶을 때, 그리고 거문고를 잘 연주하거나 좋아하는 금객들은 봄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므로 탄다는 내용 등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처지에 대한 불만스런 마음을 평정하기 위해, 긴 밤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 거문고를 타며 막연하게 상고시대 고금의 옛 뜻을 기린다는 경우,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싶은 경우, 방랑하는 마음이 생길 경우 등 거문고를 연주하거나 타고 싶다는 등 매우 다양한 심사로 나타나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술기운이 오를 때마다 임금에게 감은하는 곡을 연주한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는 술이 얼근해졌을 때만 거문고를 끌어당겨 탔을 것으로 추정케 하는 점이다.

거문고의 음향에 대한 감상에서는, 정서적 감상과 비유적 감상 그리고 심상적 감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서적 감상에서는, 거문고의 맑은 음색을 ‘매화의 格’, ‘화려하게 핀 모란’ 등에 비유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또, 儒仙 같은 사람이 뜯는 거문고의 소리는, 모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라는 내용도 나타나 있다. 그리고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것은, 곡조를 귀히 여김이 아니라 그 아취를 취한 것이라 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선비들에게 있어서는 ‘거문고의 음악과 정신에 대한 것이 필수적 교양이었을 것이므로, 거문고에 대하여 문외한인 선비들은 이와 같이 즐기는 척이라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문고의 절묘한 소리보다는 거문고를 타는 이성애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비유적 감상에서는,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바람소리에 비유한 경우·물소리와 바람소리를 동시에 비유한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세분하여 논의하였다.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에서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에 의지하여 금의 곡조를 지으며 은거했다는 물계자에 대한 일화가 그 효시임이 확인되고 있다. 고전문헌에 나타난 거문고의 소리로 표현된 물의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샘물·숲속을 흐르는 물·시냇물·돌 틈으로 흐르는 물·산골 물방울·여울물·빗물·목매어 흐르는 물·밤비 내리는 소리 등으로 각각의 개성을 살린 세분된 정서의 시어로 표현되어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문고 소리를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에는, 거문고 소리의 청각적 맑음과 물이 흐르는 모습의 시각적 맑음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거문고 소리와 닮았다고 표현한 물소리를 들음으로써, 마음까지 정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정신적인 감상마저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문고 소리와 밤비 내리는 소리에다가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함께 시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맑고 큰 거문고 소리는 목매어 흐느끼며 우는 물 같다는 의인화된 표현도 발견되고 있다.

바람소리에 비유한 경우에는, 처마에 이는 바람은 현(絃: 거문고)의 소리·바람이 불어 숲을 스쳐서 거문고 소리를 낸다는 경우·바람 소리를 자신의 거문고라 한 경우·바람이 불면 거문고 소리가 저절로 난다는 경우 등으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소리인 솔바람의 울림을 피리와 거문고 소리에 비유한 경우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도 자연 속에 살면서 모두가 자연과 일체가 되고 싶은 심회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람과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 중, 거문고의 소리가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보다 맑고, 골짜기에 이는 바람보다 그윽하다는 경우에는, 손으로 거문고를 타는 소리가 옛 뜻에 부합되니, 느낌은 마음이 맑아지고 몸은 가볍게 여겨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물소리와 풍악이 서로 어울리고 솔바람과 거문고가 섞여 울리면 주객이 서로 바빠지게 된다는 경우에는, 실제 음향과 분위기가 어우러져 조성된 환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문고 소리를 사람 목소리에 비유한 경우 중, 글 읽는 소리가 거문고를 타는 것처럼 맑고 시원했다는 경우에는, 당시의 거문고 애호가나 연주자

가 선호했던 거문고의 소리가 화려하거나 번잡한 것 보다는 맑고 잡티가 없는 소리이었음을 추정케 하고 있다. 또 작은 목소리는 시원한 샘물이 졸졸 솟아나고 거문고 줄에서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경우에는, 남과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목소리의 억양을 거문고의 소리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 경우 중, 새들의 지저귀는 거문고 소리와 어울린다는 경우에는 시상에 평화로운 풍경화를 그리기 위한 경우로 보이며, 바위 아래서 거문고를 통기니 소리가 더욱 씩씩하다는 내용의 이유로는, 현악기의 공명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조 우천계의 칠언고시 「廳琴」에서는 다양하고 구체화된 소리의 맵시들을 표현하였는데, 청각적 감상을 통해 얻은 미학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점·자못 의성어가 연상될만한 시청각적인 현상으로 전환시켜 표현한 점·소리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면, 즉 음악외적 이면을 더욱 심화하여 표현한 점 그리고 거문고의 실제 음향과는 거리가 먼 의성어로 표현한 점 등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또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땅의 귀신이 우는 소리로 표현하여 신령이 듣는다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자연의 소리와 거문고 울림의 상징하는 바가 상통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슬픈 곡조가 연주되면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예스러운 운치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니, 추울 땐 술을 두드리며 달을 품고, 고요함이 흠어질 때는 바람이 섬돌을 오른다는 예문도 발견되고 있다.

방아 찼는 소리를 거문고 타는 소리로 환치하면서, 나무 뿌리나 열매를 먹고 살며 은둔하는 것을 달게 여긴다는 예문에서는, 중국 춘추시대의 은사 영계기(榮啓期)를 흠모했다던 백결선생의 방아 찼는 곡조를 연주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음향을 듣다보니 심신이 맑고 깨끗해진다고 하면서, 거문고나 축의 소리보다도 훨씬 낫다고 표현한 예문의 경우에는, 자연의 음향을 들은 작가가 심신 양면으로 체감하는 바도 있겠지만, 거문고 울림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경지를 추구함에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로 타는 거문고 소리는 부딪혀 깨지는 얼음처럼 차다고 표현한 경우에는, 거문고의 정신성이 부여되지 않은 연주를 말하거나, 별 의미가 없는 환경에서 하게 되는 불필요한 연주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적 감상 중, ‘기예에 어두워 연주는 하지 못하니 마음만으로 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악한 기운을 누르고 온화한 마음을 기를 것이라는 예문에서는, 『백호통』의 「예악」에 나오는 금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주능력이 없어 그저 듣기만 한다면, 거문고에 이전된 금의 정신성만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거문고가 그쳐도 소리가 남아 있다는 예문에서는, 애당초 울리지도 않는 거문고소리를 마음속으로만 듣고 있는 경우로 파악된다. 또 ‘자연의 음향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무현금을 다시 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도, 역시 무현금을 둔다고 하여도 어차피 연주는 할 줄 모른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무현금을 어루만지며 ‘경지에 도달한 음률은 본디 소리가 없는 법’이라며, 도잠이 살아온 환경과 그의 기행을 시상에 옮겨 놓으며, 그를 칭송하고 있는 예문에서는, 거문고 연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신적인 경지만 앞세우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당나라 이상은의 「錦瑟詩」에 나오는 ‘玉田煙’을 인용하여 곡조의 화음을 표현하고 있는 예문에서는, 금의 이상이자, 고대로부터 예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중심사상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 무현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난 예문들도 관찰되고 있다. ‘줄 없는 거문고는 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무현금을 내세워 놓고 맑은 경지만 노래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타나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익숙한 악공이라도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수 없는 법’이라고 기술한 예문에서는, 재정이 바닥난 현실로 인해 드높은 이상만 앞세웠던 거문고의 사대적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변곡점에서는, 음악 방면에 있어서 실학사상의

씩이 자라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또 박지원의 「參奉王君墓碣銘」에서는, 소리의 울림이, 악기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현실성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점이 관찰되고 있다.



제5장 거문고의 效用

제 1 절 儒家的 理想 受容

1. 국가적 이상 수용

중국 고대사회에서 琴의 이상은 고전문헌에 ‘太古의 소리’·‘千古의 소리’·‘懷古의 情’·‘옛 뜻’ 등의 어휘들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 어휘들은 중국 고대 음악의 기원과 무관치 않으리라 본다. 고전문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의 기원을 ‘우주의 초인적 역량’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산림과 계곡, 즉 자연의 소리를 본떠 노래를 만들고, 새 소리에 근거하여 音高의 표준을 정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³⁷¹⁾ 그리고 통치자에게 음악을 관장하는 권한이 주어졌을 것이다.³⁷²⁾ 이러한 음악을 통하여 고대의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대변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통치자는 지배 영역을 확보한 후, 음악의 정신을 지배 이념으로 정립하여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고 통치권을 굳건히 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058년 周나라에 예악이 정비됨에 따라 음악은 구별과 제한을 두는 계급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왕조 통치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³⁷³⁾

이후 음악을 좋아했던 공자는 기원전 484년에 305수를 정선한 가사집인 『시경』을 편찬하여 제자들에게 ‘시가’를 가르쳤을 것이다.³⁷⁴⁾ 이러한 계기로 음악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에서 더 나아가 당시 사회의 진면목도 전반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71) “帝堯位 乃命質爲樂. 質乃效山林溪谷之聲以歌. 요임금이 제위에 올라 질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질은 산림과 계곡의 소리를 본떠 노래를 만들었다. 역주: ‘質’은 夔로서 堯임금의 樂正을 말한다. (『중하기·古樂』, 『여씨춘추』) (양 리인우(楊蔭瀏) 지음·이창숙 옮김 『중국고대음악사』 (술출판사, 1999), 23면, 주) 6) 재인용.)

372) 권오돈 역해a, 앞의 책, 367면: “王者攻成作樂 왕 된 사람은 공을 이루면 음악을 만든다.”

373) 양 리인우(楊蔭瀏) 지음·이창숙 옮김, 앞의 책, 66~67면.

374) 위의 책, 86~87면. 참조.

유가의 음악 사상이 완전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기원전 5세기 공손니(公孫尼, B.C. 498년경 출생)의 「樂記」와 기원전 3세기 순자(荀子, B.C. 286 ~ B.C. 238 활동)의 「樂論」의 저술이 이루어진 시기일 것이다. 그들은 이 문헌들을 통해 음악에는 사회적 기능이 있으며, 음악은 내용이 먼저 중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음악의 등급 구분을 해야 한다는 점과 음악의 창작은 통치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원전 5세기의魯나라 악사 師襄에게 금을 배운 鄭나라 악사 師文의 명언에서 나온 “得心應手 마음을 얻어야 손이 따른다.”³⁷⁵⁾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술 숙련을 나타내는 관용어에서, 고전문헌의 작가들이 금이나 거문고를 대하는 개인적인 심상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고대음악의 수용과정을 살펴보면, 금에 이미 포태되어 있는 유가적 이상의 생래적인 면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고대음악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예문들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온의 「兵使設酌」³⁷⁶⁾에는 ‘거문고 소리가 태고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勝日高筵敞	화창한 날 훌륭한 연회의 자리를 베풀어주니
將軍氣宇宏	장군의 기개와 도량이 참으로 크구나
琴鳴太古意	거문고의 울림은 태고의 뜻을 전하는 듯
舞學漢宮輕	춤은 한나라 궁궐의 경쾌함을 배워 온 듯
威壓陰山重	위엄은 그늘진 산의 무게로 누르는데
杯留遠客程	술잔이 갈 길이 먼 나그네를 머무르게 하네
萍漂無籍在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정처없이 유랑하는 인생
何幸近戎城	용성이 가깝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화창한 날 연회장에서 울리는 ‘거문고는 태고의 뜻을 전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 시에 나타난 ‘태고의 뜻’이란 몸을 닦고 성품을 다스려 자연 그 대로의 참됨으로 돌아가게 하는, 즉 금을 수양의 도구로 삼아 심신을 수련

375) 양 리인우(楊蔭瀏) 지음·이창숙 옮김, 앞의 책, 136면. 참조.

376) 정온, 앞의 책, 제1권 오언율시 「兵使設酌」(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함으로써 하늘의 참뜻, 즉 本然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³⁷⁷⁾ 이러한 금의 사상이 고전문헌에서 태고의 소리·천고의 소리·회고의 정·옛 뜻 등으로 표현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以復其性’이나 ‘以復其初’의 내용과 거의 같은 의미이다. 이는 유가의 사상적 측면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⁷⁸⁾

다음은 장유가 썼다는 「鰲城府院君李公行狀」³⁷⁹⁾의 ‘천고의 소리’이다.

8세 때에 비로소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뛰어나게 총명하므로 참찬공이 명하여 劍琴 두 글자로 駢句를 짓게 하니, 공이 즉시 부르기를, “칼에는 장부의 기상이 있고, 거문고엔 천고의 소리가 담기었네.”라고 하였으므로, 들은 이들이 장차 대성할 것을 알았다. (하략)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 8세 때에 썼다는 글이므로, 이 글에서의 ‘琴藏千古音’은 그에게 글을 가르쳐 준 선학들로부터 배워온 문구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아이가 태고의 소리 즉,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귀와 가슴을 아직은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서양음악의 천재들이 3~5세 때에 연주 실기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사실은 있다. 그리고 이미 소년기에 창작곡을 만든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의 조기교육에서 비롯된 유·소년기의 음악활동에서는 명실상부한 일가를 이루지는 못했다. 아울러 우리의 현행 음악영재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글을 통하여 추정할 만한 점이 있다면, 거문고 애호가와 연주를 즐기던 선비, 그리고 거문고에 관심있는 성리학자들은 태고를 통해서 거문고의 이상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에

377) 본고 16면 참조.

378) 앞의 주와 동일.

379) 이항복, 『白沙集』 부록 「鰲城府院君李公行狀」 / 張維 : 八歲 始授書 聰悟絶人 參贊公命以劍琴作駢句 公應聲曰 劍有丈夫氣 琴藏千古音 聞者知其將大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이러한 사항이 고증만 될 수 있다면, 만년에 거문고를 반려의 대상으로 삼았던 작가들은 문헌상에서 흔히 나타나 있으므로, 거문고를 선호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제를 달 만한 악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문고 줄이 회고의 정을 품은 것’으로 비유한 이색의 「君子」³⁸⁰⁾이다.

君子中夜興	군자가 한밤중에 흥(興)이 일어
堯舜歌以賡	요순(堯舜)의 노래에 화답하고
申之文王操	문왕(文王)이 지은 노래를 거듭하니
琴絃含古情	금(琴: 거문고)의 줄이 옛 정을 품었네
乾坤何蕩蕩	하늘과 땅은 어찌나 광대한지
日月何明明	해와 달은 어찌나 밝고 환한지
庶不累方寸	내 마음에 번거로움이 없기를 바라며
俟命順吾生	나의 인생은 하늘의 명을 기다리며 순응하리라

이 글에서는 군자로서 ‘꼭 알아야 할 태고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먼저 순임금의 노래에 고요(皐陶)가 화답하여 노래했다는 『서경』 「益稷」에 나오는 고사³⁸¹⁾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태고의 음악들은 금으로 연주되던 곡들이었을 것이므로 이 글을 쓴 이색은 옛 정서를 금(琴: 거문고)의 줄에 함축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참뜻으로 운용되는 우주 즉,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남은 인생을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예문을 통해서 볼 때, 중국 고대사회에서 금의 이상은 ‘하늘의 뜻’이자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 본연의 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을 수양의 도구로 삼아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하늘의 참뜻, 즉 본연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파악되었다.

380) 이색, 앞의 책, 제21권 시 「君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381) 舜 임금의 일찍이 노래를 하자, 皐陶가 여기에 화답하여 노래한 데서 온 말이다. 순 임금의 일찍이 노래를 하자, 고요가 여기에 화답하여 노래한 데서 온 말이다. (『書經』 「益稷」)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동양 정신의 창세기와 같은 금의 이상은 고대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고착화되면서 통치의 수단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훗날 정립된 유교적 사상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거문고의 이상으로 이전되어 우리 고전문헌에 자주 인용됨으로써 선비 정신의 구심점으로 남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대의 통치자는 음악을 통하여 ‘하늘의 대변자’로서의 신분을 얻고자,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본고의 논의 도중 고전문헌의 예문에 나타난 ‘선정을 베푸는 성군의 음악으로 통치하였다.’라는 내용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색의 「有感三首」 중 두 번째 시 「峩洋篇」³⁸²⁾에는, 금의 명곡으로 잘 알려진 백아의 아양곡과, 통치의 수단이었던 순임금의 음악 「韶鈞」의 상징성이 나타나 있다.

峩峩峩峩	높고도 높고
洋洋洋洋	넓고도 넓구나
洋洋復峩峩	넓고도 다시 높고
峩峩復洋洋	높고도 다시 넓구나
琴心淸風生	금(琴: 거문고)의 울림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나니
山海何渺茫	산과 바다는 어찌 이리 아득할까
渺茫不可見	까마득하여 볼 수는 없지만
森然滿中堂	집안에 가득히 늘어서 있구나!

(중략)

於是作五絃之琴	이런 까닭으로 (순임금이) 오현금을 만들어
歌以南風傳至今	남풍시로써 노래 한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 오는데
阜財解慍是大欲	재물이 많은 것과 노여움을 푸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니
峩峩洋洋徒苦心	아아양양은 다만 마음만 괴롭힐 일에 지나지 않을 뿐
使禹復生必不樂	우 임금이 다시 살아나도 반드시 즐거워하지 않으려니와
況值膏肓民病深	하물며 백성이 낫기 어려운 병이 깊어질 때를 당했음에랴
我今撫琴歌南風	나는 지금 금을 어루만지며 남풍시를 노래하여

382) 이색, 앞의 책, 제22권 시 「有感三首」 중 두 번째 시 「峩洋篇」(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躋世直與唐虞同	곧장 요순이 함께 했던 세상의 높은 곳에 올려놓으니
河淸海晏光岳合	황하와 바다는 맑고 아름답고 편안하여 천지가 화하니 ³⁸³⁾
蹈舞如在韶鈞中	소균 ³⁸⁴⁾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
何須更奏峩洋曲	어찌하여 아양곡을 다시 연주하는 것을 바라겠는가
聖人垂衣坐法宮	성인이 의상을 드리우고 정사를 돌보는 궁궐에 앉아 있는데

‘峩峩峩峩～森然滿中堂’에서는 백아가 금으로 연주했다는 아양곡의 제목과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나타내고 있다. 즉 고산(高山: 峩)과 유수(流水: 洋)에 대한 칭송을 표현함에 있어, 반복과 도치를 거듭한 문구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설명처럼 잘 만들어진 명곡과 남의 마음을 울릴만한 기량을 가진 연주자가 탐으로써 더욱이 맑은 음색을 내는 금의 소리가 높은 산과 넓은 바다를 건너 아득히 먼 거리에 있는 집안에까지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는 이 시의 전반부는 백아의 「아양곡」에 대하여 극찬한 내용 일색이다. 그런데 이 시의 후반에서는 순임금의 음악 「소균」이 나타난다. 그리고 「아양곡」과 「소균」에 대한 음악적 내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사회적 효용가치를 비교하게 되는 문장에 또한 보이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반부의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阜財解慍是大欲’에서는, 순 임금이 오현금을 만들어 「남풍시」로 노래한 까닭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백성들의 재물에 대한 바람과 노여움을 푸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라 하였는데, 『공자가어』 「변악해」³⁸⁵⁾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於是作五絃之琴～況值膏肓民病深’에서는 이 시의 전반부에서 백아의 곡을 극찬하던 내용과는 달리 「아양곡」 따위는 마음만 괴롭힐 뿐 아무 쓸모

383) 황하가 맑고 바다가 평온하다는 것은 천하가 태평함을 의미한 말이고, 光岳은 三光五岳의 약칭으로 곧 天地를 의미하는데, 元나라 馬端臨의 『文獻通考』 「自序」에, “光岳既分 風氣日漓 광악이 나누어진 이후로 풍기가 날로 경박해졌다.” 한 데서 온 말로, 광악이 합쳐졌다는 것은 바로 풍기가 순후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84) 소는 舜 임금의 음악 이름이고, 균은 天上의 미묘한 음악인 鈞天廣樂을 가리킨 것으로, 전하여 매우 아름다운 樂曲을 의미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85)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 남풍의 훈훈함이며, 우리 백성의 노염을 풀 만하도다. 남풍이 제 때에 불어옴이며, 우리 백성의 재물을 풍부하게 하리로다.” 한 데서 온 말이다. (『孔子家語』 「辯樂解」)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순 임금으로부터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아 夏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禹임금이 다시 살아나도 반드시 싫어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흥취로서 순수하게 맑음만 추구했던 아양곡을 멀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나마 실용적인 순임금의 음악을 선택하여 백성들을 달래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악곡을 바꾼다고 현실이 개선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성향으로 정책을 바꿔 백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의지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금을 연주하면서 「남풍시」를 노래하여, 중국 고대의 태평성대인 堯舜 시대의 분위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黃河는 맑고 바다가 평온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황하는 주변의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황토의 붉은 색만으로도 중국 전체의 문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이 붉음을 숭상하는 이유가 삶의 모태와 터전이었을 붉은 색의 황토에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하의 변영은 곧 천하가 태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三光五岳」의 약칭으로 곧 천지를 의미하는 「光岳」, 즉 천지가 和하게 되니³⁸⁶⁾, 「균천광악」, 즉 「鈞」을 통합하여 의미하는 「소균」³⁸⁷⁾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이 궁궐에 앉아 어렵고 힘든 백성을 잘 돌보고 있으니, 개인의 호연지기나 기르는 「아양곡」 따위는 다시는 연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大殿端午帖」 중 첫 번째 시³⁸⁸⁾에는, 순임금의 가락이 나타나 있다.

薰風吹轉上林園 상림³⁸⁹⁾이라 대궐의 동산에는 따스한 바람³⁹⁰⁾이 불어 감돌고

386) 元나라 馬端臨의 『文獻通考』 「自序」에, “光岳既分 風氣日漓 광악이 나누어진 이후로 풍기가 날로 경박해졌다.” 한 데서 온 말로, 광악이 합쳐졌다는 것은 바로 풍기가 순후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87) 「소」는 순 임금의 음악 이름이고, 균은 천상의 미묘한 음악인 「鈞天廣樂」을 가리킨 것으로, 전하여 매우 아름다운 악곡을 의미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88) 김창협, 『農巖集』 제1권 詩 「大殿端午帖」 중 첫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 문)

晝漏稀傳建禮門	건례 ³⁹¹⁾ 라 궁궐 문에서 한낮이라는 물시계의 시각을 전하네
細葛衣輕初拜賜	가벼운 갈포 옷 처음으로 삼가 공손히 받고 ³⁹²⁾
香蒲酒熟共霑恩	향기로운 창포주 ³⁹³⁾ 라 모든 곳에 은혜가 두루두루 미치었네
虞絃解慍廣歌盛	근심을 풀어주는 순임금의 곡에 백성들의 노래는 보답하고 ³⁹⁴⁾
羲卦生陰儆戒存	복희씨의 괘가 탄생함에 경계심이 존재한다네. ³⁹⁵⁾
聖主從來不受獻	군주는 예부터 기리고 축하하는 것을 받지 않았으니 ³⁹⁶⁾
阿誰金鑑進徽言	누가 아름다운 말로 『금감록』 ³⁹⁷⁾ 을 진상할 것인가

389) 한 무제(漢武帝) 때에 진(秦)나라 옛 궁의 동산을 새롭게 확대하여 조성한 동산으로 장안의 대궐 안에 있는데, 곧 대궐의 동산을 뜻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90) ‘南風之薰兮’의 훈풍으로 오월에 부는 바람이란 뜻으로 쓰인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91) 건례는 漢나라 때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의 시중을 드는 尙書郎이 근무하던 곳의 궁문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승정원을 뜻한다. 觀象監에서 물시계로 시간을 재고 있다가 오월 오일 午時가 되면 그 소식을 승정원에 전달해 온다는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92) 『杜詩批解』 권6 「端午日賜衣」에 “宮衣亦有名 端午被恩榮 細葛含風軟 香羅疊雪輕 궁의 하사 명단에 내 이름 있어, 단오 명절 황제의 은총 입었네. 칩베옷 바람처럼 보드랍고요, 고운 비단 눈꽃처럼 가볍고말고.” 한 데서 온 것이나, 이때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시기이므로 실제로 가볍고 서늘한 베풀을 하사받았을 수도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93) 창포주는 민간의 풍속에서 단오절에 마시면 사기(邪氣)와 독을 제거한다는 술로, 창포뿌리를 잘게 썰거나 가루를 내어 술에 담가서 발효시킨 것이다. 혹은 창포 꽃을 술에 띄워 마시기도 한다. 宋 神宗 때 太子 少保를 지낸 元絳이 지은 「端午帖子」 시에 “菖華泛酒堯樽綠 菰葉縈絲楚糗香 창포 꽃으로 빛은 술에 띄운 요 임금 술잔 푸르고, 갈댓잎 실로 엮은 초나라 주악 향국해.”라고 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94) 순임금이 五絃琴을 타면서 “파스한 남풍이여 우리 백성 노여움 풀 만하네. 순조로운 남풍이여 우리 백성 살림살이 불릴 만하네.”라는 「南風詩」를 지어 불렀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孔子家語』 卷8 「辯樂解」 곧 숙종 대왕이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마음이 평온해진 나머지 너도나도 선정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95) 복희씨 역괘는 주역의 팔괘를 伏羲氏가 맨 처음 정하였기 때문에 한 말이다. 오월은 사월의 純陰에서 初六이 初九로 바뀐 姤卦에 해당하는데, 음효가 처음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96) 『莊子』 「天地」에 나오는 ‘華封三祝’을 인용한 것으로, 거룩한 임금은 개인의 안녕과 부귀를 바라는 송축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봉삼축’은, 화 땅에 봉해진 사람이 요 임금에게 장수를 누리고 부를 지니고 많은 아들을 낳으라는 세 가지의 송축을 올리자, 요 임금은 거절하기를 “장수하면 욕되는 일이 많고 부자가 되면 하는 일이 많고 아들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니, 이런 것들은 다 덕을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데서 나온 성어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397) 당나라 제상 張九齡이 千秋節에 玄宗에게 올린 『千秋金鑑錄』의 약칭이다. 전국 시대 초나라 충신 屈原이 간신의 참소를 받고 懷王으로부터 쫓겨나 번민하다가 5월 5일에 汨羅江에 투신하여 죽은 고사로 인해 당나라 때 조정의 공과 왕들이 揚子江에서 청동거울을 주조하여 임금에게 바침으로써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충신과 간신을 명철하게 구분하라는 뜻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장구령은 거울 대신에 임금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총 10章의 『금감록』을 지어 바쳤다. 곧 임금의 경사스런 날에 신하가 축하하는 정성을 표하는 것으로는 무엇보다도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충언을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다. 『新唐書』 卷126 「張九齡列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화창한 단오 날, 신하와 백성들은 임금의 은혜에 感恩하고, 또한 임금은 백성들의 安危를 경계하는 가운데, 누가 임금에게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충언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남풍가로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중국 고대 순임금의 고사를 시상에 반영하여 작가의 衷情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의 「同前謝表」³⁹⁸⁾에는, 거문고 줄을 고루 잘 다룰 수 있음에 대한 상징하는 바가 나타나 있다.

(전략) 이는 대개 성상 폐하께서 정사를 하심이 거문고 줄을 자유로이 고르는 것처럼 하시고, 사람을 쓰심이 나무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처럼 하시므로, 천박한 자질도 거두시어 특이한 장려를 주심을 삼가 만난 것이옵니다. (후략)

이 글의 ‘爲政若張琴之緩急’에서는 ‘정사를 펼침에 거문고 줄을 자유로이 고르는 것처럼 한다’고 하였다. 부연 설명한다면,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거나 느슨하게 하여 조율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거문고의 여섯 줄은 모두 이름이 다르고 줄의 굵기 또한 각각 다르다.³⁹⁹⁾ 그래서 굵기가 다른 줄들을 알맞게 당겨야만 연주가 용이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줄마다의 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이 글에서 거문고 줄을 자유로이 고르는 것처럼 정사를 펼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치를 함에 있어 개별능력의 장단이 서로 다른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특성을 잘 살펴서, 장차 맡을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였다는 지혜로운 치세를 말함’일 것이다.

김성일의 「答許書狀箴」⁴⁰⁰⁾에는, ‘膠柱鼓瑟’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398) 이규보, 앞의 책, 卷 第三十一 表 「同前謝表」: (前略) 此蓋伏遇聖上陛下爲政若張琴之緩急. 用人如制木之方圓. 故收譴薄之資. 兼畀殊尤之獎. (後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399) 이혜구 역주a, 앞의 책, 689면. 卷七 鄉部樂器圖說 현금조호현條 (전략) 凡六絃 大絃最大 文絃武絃次大 樑上清稍細 歧樑清次細 遊絃次細 줄은 모두 6현으로, 大絃이 가장 굵고, 文絃・武絃이 다음으로 굵고, 樑上清은 조금 가늘고, 歧樑清(樑下清)이 그 다음으로 가늘고, 遊絃이 그 다음으로 가늘다. (후략)

400) 김성일, 앞의 책, 제5권 書 答許書狀箴 허 서장관 성에게 답하는 편지.: (前略) 足下又曰, “古人待夷狄, 必曰恩信懷綏而已. 何嘗有體貌字說出來云云?” 此眞所謂知一不知二, 膠柱鼓瑟者也.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전략) 죽하는 또 말하기를, “옛사람이 오랑캐들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은덕과 신의로써 회유할 뿐이었다. 어찌 일찍이 체모라는 글자를 말한 적이 있었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며,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이고서 비파를 타는 격입니다“. (후략)

이 글의 후미에 나타난 ‘膠柱鼓瑟’⁴⁰¹⁾은 줄여서 ‘膠瑟’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자료 예문에서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여 놓고 비파를 연주하다.’로 해석되어 있다. 그러나 ‘琵琶’라는 악기는 기러기발⁴⁰²⁾이 없으므로 25개의 기러기발이 있는 ‘瑟’로 해석됨이 바람직하다. 줄을 꺾어 받치고 있는 기러기발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줄을 고를 수 있도록 설치한 부품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교로 붙여 놓으면 조율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연주하게 된다면 귀에 곪끄러운 소음을 낼 뿐이다. 즉 음악적으로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된 소리만 내게 됨으로 인해, 음악적으로는 변조를 할 수 없게 되고, ‘음악외적으로는 변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곧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는 것이다. 또 변통할 줄을 모른 채 고지식하게 옛것을 답습하기만 하는 ‘구태의연한 정사’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

이상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순임금과 남풍가는 금으로 연주되는 음악이나 관련된 사례 중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오현금은 순임금만 연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록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금은 통치자의 악기였으며,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으며, 그 이상 또한 하늘의 뜻이라고 일컬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은 수직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최초의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401)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趙括이 이론만으로 작전을 감행한 끝에 40만 대군을 몰살시키는 중국 역사상 최대 최악의 참패를 가져온 고사에서 인용한 것임. (『史記』廉頗 藺相如列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02) 기러기발을 사용하는 악기로는 우리의 가야금·거문고·아쟁·대쟁 등과 중국의 瑟·箏 등이 있다.

2. 사회적 이상 수용

‘백성 교화’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적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통치의 상대적인 요소는, 당연히 백성 존립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통치자들은 엄격한 ‘예’로 다스리는 가운데,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융화를 ‘음악’으로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립의 「送全羅沈監司方叔公以玄琴一張自隨而行」⁴⁰³⁾에는, 백성을 교화하고 선정을 베풀기 위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雙節按南服	쌍절 ⁴⁰⁴⁾ 을 들고 남방으로 조사하여 살피러 가시는 분
隨以一張琴	한 장의 거문고 거느려 몸에 지니고 가시니
知公欲少事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알 만한 일일랑 적게 하시면서
毋與吏職侵	벼슬아치의 직무에는 빠져들지 않으실 것 같네.
咨詢足餘晷	자문하며 살피는 소임을 다하다가 잠시 여가가 생기면
理此甘棠陰	감당나무 ⁴⁰⁵⁾ 그늘에서 연주를 할 텐데
還識琴法無	거문고의 연주법을 대저 알고 계시는지
請公聽我吟	공에게 청하니 나의 말을 들으시오.
躁心生促節	조급한 마음에서 촉박한 박자나 음의 흐름이 나오고
和氣在稀音	희음 ⁴⁰⁶⁾ 은 조화로운 기운에 있으니
膠柱見良惑	교주고슬도 진실로 미혹되었다고 보겠지만
改絃思貴深	개주장현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
瓜及琴亦成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거문고의 곡조 또한 완성하여
歸來觀聖明	돌아와 聖上을 뵈고 확실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니
南風歌正美	참으로 아름다운 남풍의 노래를
莫使無人賡	아무도 계승할 수 없도록 하리라

403) 崔崧, 앞의 책, 제6권 「焦尾錄」 중 「送全羅沈監司方叔公以玄琴一張自隨而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04) 唐代 刺史가 出行할 때의 儀仗으로, 관찰사의 행차를 뜻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이다.

405) 周 武王 때 召公이 西伯으로 정사를 베풀다가 감당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고사에 서 유래하여, 善政을 행하는 지방 장관을 형용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다. (『詩經』 「召南」 甘棠 序·『春秋左氏傳』 「昭公 2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06) 『老子』 41장에 “大音希聲 大象無形 큰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큰 형상은 모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雙節按南服～毋與吏職侵’에서는 임지로 떠나가는 작중인물인 전라 감사 심방숙을 작가인 최립이 전송하는 풍경을 그려 놓았다. 민정을 살피러 가는 사람이 거문고를 가져가니 직무에는 태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거문고를 가져간다는 것은 ‘백성을 교화하고 선정을 베풀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咨詢足餘晷～請公聽我吟’에서는 일을 하다가 짬이 나면 그늘에서 거문고를 탈 텐데 연주하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방법을 일러 주겠다는 것이다.

‘躁心生促節～改絃思貴深’에서는 거문고의 연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서 선율이 복잡해지고 빠른 음악으로 변해 가는 경향이 생기고, 보통 사람이 귀로 듣지 못하는, 즉 소리 없는 위대한 연주라는 뜻의 ‘稀音’은 조화로운 기운에 있다고 하였다.

또 ‘교주고슬’은 미혹된 것이라 하였고, ‘改柱張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교주고슬’은 이미 논술하였거니와, ‘개주장현’은 기러기 발을 다시 바꾸고 거문고 줄을 새로 매단다는 뜻으로, 更張, 즉 개혁 정치를 가리킨다. 거문고를 비유의 매개체로 하여 정치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곧 “촉급한 마음을 다스리면서, 조화로운 기운을 중히 여기며, 융통성 없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개혁을 단행하고자 할 때는 깊이 생각하라”는 진심어린 도움말인 것이다.

‘瓜及琴亦成～莫使無人賡’에서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선정을 베풀어 「남풍가」 407)와 같은 노래를 지을만한 업적을 가져와 성상께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남풍의 그 노래는 남쪽 전라도 지방을 잘 다스린 치적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박지원의 「煙湘閣選本狀金孺人事狀」 408)에는, 민간의 시를 채집하는 관

407) 옛날 순임금이 五絃琴을 만들어, 治國富民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南風歌」를 지어 불렀다는 『禮記』 「樂記」 · 『孔子家語』 「辨樂」에 나오는 고사를 援用하여 비유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08) 朴趾源, 앞의 책, 제1권 「送全羅沈監司方叔公以玄琴一張自隨而行」: 以故其潛懿幽操. 莫得其十一. 而衆情之激感如彼. 則亦豈民彝之所得以已者哉. 古者男女告戒之辭. 不過閭巷風謠之語. 而陶出性情. 有裨風教. 則採詩之官. 獻諸王國. 典樂之職. 播之絃歌. 所以風動四方. 感發民生也. 今金氏之所成. 若是其卓絕. 有光聖化. 則豈特風謠之所採而絃歌之所播而已哉. 嗟 吾搢紳大夫章甫諸君子. 合辭

리가 나라에 바치고, 음악을 맡은 관리가 거문고의 노래에 올렸던 것은, 이로써 사방을 감동시키고, 백성을 감발하게 하자는 때문이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런 까닭으로 그 숨은 선행과 그윽한 지조가 열에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감격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인간된 도리로서 그만둘 수 있는 일이겠는가? 옛날에 남녀 간에 서로 경계하는 말이 여항 민요의 가사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성정에서 우리나라와 교화에 보탬이 된다면, 민간의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나라에 바치고 음악을 맡은 관리가 거문고의 노래에 올렸던 것은, 이로써 사방을 감동시키고 백성을 감발하게 하자는 때문이었다. 지금 김씨가 성취한 바는 이와 같이 우뚝하여 성상의 교화를 빛나게 함이 있으니, 어찌 민요에서 채집되어 거문고의 노래에 올려 전할 뿐이겠는가. 아, 우리 벼슬하는 관리들과 의관을 갖춘 선비들이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집사(執事: 禮曹判書)에게 달려가 아뢰는 바이다.

민간의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나라에 바치고, 음악을 맡은 관리가 거문고의 노래에 올리려 하는 것은 ‘백성들의 선행이나 지조, 그리고 삶을 파악하여 선정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통치자의 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거정의 「送忠州黃牧使允亨三首」 중 1수⁴⁰⁹⁾에는, 공자의 제자 宓子賤이 항상 거문고만 타고 앉아 있었으나, 고을이 잘 다스려졌다는 고사가 나타나 있다.

今時刺史古諸侯	오늘날의 자사가 옛날의 제후이니
受命分符寵渥優	명을 받고 부신을 나누어 갖게 되는 은총을 입었네
直以循良頻出宰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을 잘 지켜 자주 지방관으로 나가더니
更將盤錯好爲州	처리하기 힘든 일이 있는 고을을 위해 다시 나가려 하네
謳歌襦袴千家樂	속옷 바지를 칭송하여 노래하며 집집마다 즐거워하고 ⁴¹⁰⁾

同聲. 走告執事.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409) 서거정, 앞의 책, 제51권 시류 「送忠州黃牧使允亨三首」 중 1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10) 후한 때 廉范이 일찍이 蜀郡太守가 되어 선정을 베풀자,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여 노래하기를 “廉叔度 來何暮 不禁火 民安作 平生無襦今五袴 염숙도여, 어찌 그리 늦게 왔느뇨. 불을 금하지 않

雨露桑麻百里稠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끝없이 그득하여라
 掃盡簿書清似水 공무를 물 흐르듯 깨끗이 처리하고
 鳴琴閉閣自優游 관청의 문을 닫고 유유자적하겠지⁴¹¹⁾

성품이 매우 인애하여 單父를 다스릴 적에 항상 거문고만 타고 앉아서 堂 아래를 내려가지 않았으나 선보가 잘 다스려졌다는 공자의 제자 ‘宓子賤’에 대한 고사에 나타난 이미지를 시상에 옮겨, 목민관으로서 자질이 뛰어난 작중 인물 황윤형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이색의 「行至幽丘北嶺遇太夫人回抵溫水縣宿」⁴¹²⁾에는, 화목하게 사는 것을 거문고 타는 것에 비유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략)

我欲慰母意 나는 어머님의 뜻을 위로하고자 하는데
 我病母先箴 어머님께서도 나의 병을 먼저 신경 쓰시니
 欣欣若有得 얻음이 있는 것 같아 기쁘고도 기뻐서
 不覺患難侵 환난이 불시에 침범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네
 有母聖如是 어머님의 성스러움은 이와 같으니
 愧予牛馬襟 옷 입은 소나 말 같은 내가 부끄럽네
 迎養有主饋 맞아 부양하며 집안 살림을 책임을 질 여자가 있으니
 順矣如鼓琴 거문고를 타는 것처럼 거스름 없이 어울려 안락하리라

(하략)

이 글의 ‘順矣如鼓琴’에서의 ‘順矣 곧 안락하리라’는 『시경』 「소아」의 ‘常棣’에 “妻子好合 如鼓瑟琴 처자가 서로 좋아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금과 슬을 타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에 대하여 공자가 “부모는 기뻐하실

아서, 백성들이 밤 시간의 일을 편안히 하여, 평생에 속옷도 없다가 이젠 바지가 다섯 벌이라네.”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인데, 여기서는 지방관의 선정을 비유한 것이다. (『後漢書』 卷31 「廉范列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11) 여기서 거문고를 탄다는 것은, 孔子의 제자 宓子賤이 성품이 매우 인애하여 單父를 다스릴 적에 항상 거문고만 타고 앉아서 堂 아래를 내려가지 않았으나 선보가 잘 다스려졌다는 데서 온 말이다. (『說苑』 「政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12) 이색, 앞의 책, 제4권 시 「行至幽丘北嶺遇太夫人回抵溫水縣宿」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것이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⁴¹³⁾ 한편, ‘如鼓瑟琴’을 ‘거문고와 비파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훈으로 해석한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고유의 명칭인 금과 슬로 바로 잡아 해석함이 옳다’고 본다. 그 이유는 거문고는 우리의 악기 이름이고, 실제 편성된 아악의 연주에서도 서로의 어울림이 자연스러운 악기는 금과 슬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악 편성에서 거문고는 가야금과 동일 진행의 선율을 연주하며 합주의 저음부를 담당한다.

권근의 시 「蹈來餉」⁴¹⁴⁾에는 ‘가정의 예의와 법도는 금슬의 화락함에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女奴携酒饌	계집종이 술과 안주를 들고
云自蹈家來	도(권근의 아들)의 집에서 왔다고 이르네
貧約憐渠甚	가난하고 절약함이 어찌나 심해 불쌍한데
飴甘慰我衰	맛 좋고 단 음식으로 늙은 아비를 위로하니
人倫慈孝至	인륜이라는 것은 자애로움과 효심이 지극해야 되고
家道瑟琴諧	가정의 예의와 법도는 금슬의 화락 ⁴¹⁵⁾ 함에 있다네
菽水歡須盡	숙수라도 모름지기 기쁨을 다할 수 있으니 ⁴¹⁶⁾
孜孜益勉哉	부지런히 더욱 힘써야 하리라

이 글에 나타난 금슬의 화락에 대하여는 이미 『시경』 등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 등을 비롯하여 여러 문헌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가난한 아들이 아비를 위하는 걸 보면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하여, 금슬의 화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본받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하고

413) 주희·한상감 역a, 앞의 책, 第15章 (서울: 삼성출판사, 1986) p386면 “詩曰, 妻子如合 如鼓琴瑟 兄弟既翕 宜爾室家 樂爾妻帑 시경에 이르기를 처자가 잘 화합하는 것은 금과 슬을 타는 것과 같 으며, 형제가 이미 화합하여 화락하고 또 즐거워한다. 너의 집안을 잘 해 나가며, 너의 처자식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였다. 子曰, 父母其順矣乎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기뻐하실 것이다.” 하였다.

414) 권근, 앞의 책, 제10권 시 「蹈來餉」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15) 큰 거문고와 작은 거문고로 부부를 가리킨다. 『醒世姻緣傳』 제52회에 “젊은 부부가 금슬처럼 잘 조화된다면,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 같을 것이다.” 한 데서 나온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416) 菽水는 콩과 물 즉 변변치 못한 음식을 말한다. 『禮記』 「檀弓篇」에 “변변찮은 음식으로 봉양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이것이 효이다.”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주 참조)

있다.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시 「宋判書奎濂夫人挽詞」 417)에는 『시경』 「주남」 ‘관저’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先生孫女相公妹	선생(김상헌)의 손녀요 상공(김수홍)의 누이로 세
八座夫人大諫慈	팔좌의 부인이요 대사간의 어머니이시네418)
七十人間琴瑟友	인생살이 칠십 평생 금슬을 벗 삼았고419)
一雙庭下鵲鸞兒	슬하에 한 쌍의 난곡과 같은 아이들을 두었네420)
古來完福誰能似	자고이래로 완전한 복을 누가 이와 같이 누릴 수 있을까
自是深仁享得宜	원래 인을 깊게 하였으니 누림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後谷他年參長者	다른 해에 후곡421)에서 어르신을 뵈는다면
可堪追憶起居時	지난 일을 회상하며 살아가시는 모습을 어찌 차마 보겠는가

집안과 자식 복이 많은 부인이 칠십 평생을 해로하였는데, 평소에 ‘仁’을 실천하면서 살아서 당연히 그 복을 누린다는 내용인데, 이 글의 ‘금슬은 부부가 화목하게 오래 살았다’는 의미로 표현되었다.

한편, 허균의 「惺翁識小錄 中」 422)에는 사치스런 생활 속에서 타는 거문

417) 권상하, 『寒水齋集』 「한수재선생문집」 제1권 시 「宋判書奎濂夫人挽詞」: 한수재 61세 때 지은 것이다. 송규렴의 부인은 청음 金尙憲의 손녀이자 金光燦의 딸로, 1632년(인조10)에 출생하여 1701년(숙종27)에 작고하였다. 영의정을 지낸 金壽興·壽恒과 남매간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18) 팔좌는 육조판서와 좌우참찬을 가리키는데 송규렴이 예조판서를 지냈으므로 한 말이다. 大諫은 大司諫의 약칭인데 부인의 맏아들 宋相琦가 대사간을 지냈으므로 한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19) 부부가 偕老하였다는 것이다. 부군 송규렴은 부인이 작고한 8년 뒤에 죽었다. 琴瑟은 『詩經』 「周南」 ‘關雎’의 “窈窕淑女 琴瑟友之 요조숙녀를 금과 슬로 벗 삼네.”에서 나온 것으로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냄을 말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20) 슬하에 준수한 두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다. 맏아들 宋相琦는 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당시에 대사간에 제직 중이었고 둘째 아들 宋相維는 나중에 府使를 지냈다. 난곡은 『五百家注昌黎文集』 권33 「唐故殿中少監馬君墓誌」의 “翠竹碧梧鸞鶴停峙 푸른 대나무와 벽오동에 난새와 고니가 머물러 있는 듯하다.”에서 나온 말로 준수한 자녀에 대한 별칭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21) 후곡은 충청남도 懷德의 마을 이름으로 송규렴이 살던 곳이고, 어르신은 송규렴을 가리킨다. 그는 한수재보다 1년 연상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22) 허균, 앞의 책, 「說部」 2 「惺翁識小錄 中」: [朴元宗居家豪侈鄭士龍黃汝獻見而效顰] 平城以省揆兼判兵曹。寵權隆重。思欲引避。告病在陶山墅。朝廷有大事。上必問之。時鄭湖陰 士龍黃柳村汝獻 俱爲兵部郎。以公務往。平城素豪侈。大治苑囿池臺館宇。鋪設極其靡麗。侍妾數十人披羅縠。善謳彈。以二君之才。待之極豐。珍羞羅列。奏樂侑觴。令侍婢各求一詩。酣暢極驩而散。二君相約治生得裕。必

고가 나타나 있다.

평성(平城, 朴元宗의 封號)은 평소에 사치한 것을 매우 좋아하여 苑囿·池臺·館宇를 크게 짓는 등 집을 가꾸는 것이 매우 화려하였으며, 侍妾 수십 명은 비단 치마를 입었고 노래와 거문고에도 능하였다. 평성은 호음(鄭士龍)과 유촌(黃汝獻)이 才士라 하여 매우 극진히 대접하였다. 진수성찬을 차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술을 권하였고 시비에게 각자 시 한 수씩을 요구토록 하여 잔뜩 취하고 한껏 즐긴 뒤에 흠어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짐하기를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평성의 생활 중 한 가지를 본뜨겠다.’고 하였다. 호음은 만년에 가서 음식을 사치스럽게 들었고, 유촌은 제택을 크게 짓고 비첩에게 거문고도 타고 노래도 부르게 했는데 이것은 모두 평성을 흉내 낸 것이다. 그러나 寒士의 하는 일이 어찌 훈신귀족과 같을 수 있겠는가.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성리학자나 거문고를 애호하는 문인들이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교화’나 ‘수기치인’의 성향을 가진 것과는 달리 ‘매우 사치스런 환경에서 거문고와 더불어 향락을 일삼는 경우’가 나타나 있다. 해속의 한 사례로 보인다.

이규보의 「桂陽草亭記」 423)에는 해속의 상징으로서 거문고가 나타나 있다.

이 따위 무당이나 박수의 허망한 말은, 선비가 된 자가 마땅히 말하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속담과 향간의 이야기도 때로는 맞는 것이 있으니,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다. 내가 오기 전에, 이 정자는 뜻밖에 거문고를 불태우고 학을 굶는 자에게 헐리게 되어, 황폐하고 쓸쓸한 옛터만 남았을 뿐이었다.

미신 따위를 믿는 것은 풍속을 어그러지게 하는 해속 행위이므로 선비가 삼가야 하는 것인데 때로는 믿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燒琴煮鶴’

效平城之一事。湖陰晚年侈其饌。而柳村大起第。教婢妾絃歌者。蓋效其聲也。寒士拮据。奚並勳貴哉。(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423) 이규보, 앞의 책, 제24권 記「桂陽草亭記」: 斯類巫瞽不經之說, 儒者所宜慎導. 然俚言野語有時而中, 亦不可不信也. 先僕之末, 忽爲燒琴煮鶴者所毀, 荒涼舊地而已.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에서는 ‘풍경을 해치는 자’라는 뜻으로 『義山雜纂』 「殺風景」조에 보이는 내용을 인용한 것⁴²⁴⁾이다. 이는 공자가 행단 위에 앉아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제자들은 그 곁에서 강학을 했었다는 ‘행단의 고사와 공자의 제자 자천이 單父에 수령으로 있으면서 당상에서 거문고만 타고 있어도 고을이 잘 다스려졌다는 고사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사회 환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음’은 끊어져가고 ‘속음’이 우월한 것 같게 보이지만, 이는 악기나 악기를 타는 손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평 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 이색의 시 「琴棋書畫吾俗謂之四藝作四絶」⁴²⁵⁾이다.

理象年來異大同	다스리는 모양새가 몇 해 이래 대동 사회와는 달라져서
正音將絶俗誇雄	정음은 점차 끊어져 가고 속음이 뛰어난 것처럼 자만하지만
非絲非木還非指	줄과 나무의 구실과 손가락의 기능에서 비롯됨이 아니라
只在人心方寸中	다만 일촌 평방쯤 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

세상의 형편이 함께 변영하는 사회와는 달라져서, 正音은 쇠퇴하고 俗音이 번창할 것 같지만, 악기를 구성하는 부품과 사람의 연주 기능에서 비롯됨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한 평 쯤 되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예기』 「악기」 1. 악본의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대체로 소리(音)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人心)에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아악의 장려를 독려하는 시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때 최자(崔滋, 1188~1260)의 「復次韻」⁴²⁶⁾에는 앞의 예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今樂이 古樂이며 향악을 장려하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략)

琴弄未終還弄笛 거문고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피리를 연주하고

424)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25) 이색, 앞의 책, 「목은시고」 제9권 시 「琴棋書畫吾俗謂之四藝作四絶」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26) 서거정 등, 앞의 책, 제18권 칠언배율 「復次韻」 / 최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錦纏猶歎更纏羅	비단 전두도 성에 차지 않아 다시 능라 전두까지
嘗聞今樂斯爲古	금악이 곧 고악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었으니
正似弛文武作跣	문과 무가 헛디더 죄었던 것이 풀어짐과 같은 것이네
若也吾民聞管籥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이 관악지음을 듣게 되면
欣然喜氣遍山河	흔연히 기뻐하는 기운이 삼천리강토에 두루 미치리
是誠天地神明鑑	천지신명께서 이 진실을 살피 주시리니
猶勝韶鈞律呂和	소와 균의 울려가 어울리는 것보다 오히려 낫네
寄語小娥須努力	소아들에게 부탁하며 전하니 반드시 노력을 하여
鄉音雖鄙好吟哦	우리 음악이 비록 비루하다 하나 열심히 노래하여라

거문고와 피리로 연주하는 향악을 듣고 과분한 사례(纏頭)를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금악’이 곧 ‘고악’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⁴²⁷⁾ 그래서 잘못된 일이 바로 잡힌 길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管籥之音’을 듣게 되면 모두가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다.⁴²⁸⁾ 또한, ‘태고의 소리라 일컬어지고 숭상되어 왔던 「소」와 「균」과 같은 아악⁴²⁹⁾보다 낫다고 하였다. 소아들에게 당부하여 비록 천대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음악인 향악을 열심히 배워 양성하라’고 하였다.

이는 신라에서는 융성했던 향악이 고려 중기에 이르러 송나라의 司樂⁴³⁰⁾이 우리의 아악으로 자리 잡은 이래, 상대적으로 천시되었던 향악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볼 때 그 효시라 할 만큼 앞선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본고의 논의가 진행하는 과정 중, 조선시대의 문

427) 맹자가 梁惠王에게 묻기를, “들은즉 왕이 음악을 좋아한다 하니 왕이 음악을 좋아하면 나라가 잘될 것입니다.” 하니, “나는 ‘古樂’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今樂’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맹자는, “금악이 고악과 같습니다. 왕께서 혼자만 즐기시지 말고 백성과 함께 즐기십시오. 백성들이 잘살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28) 주희·한상갑 역b. 55면. 今王 鼓樂於此, 百姓聞王鐘鼓之聲, 管籥之音, 舉欣欣然有喜色曰 而相告曰, 吾王庶幾無疾病與何以能鼓樂也. 이제 왕께서 악기를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종과 북, 그리고 피리소리를 듣고 모두들 기뻐하는 빛을 띠고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아마도 우리 임금에 질병이 없으십시오. 어이하여 저토록 북을 잘 치실 수 있을까?’

429) 「韶」는 虞舜의 樂이요, 「鈞」은 진 趙簡子가 꿈에 하늘에 올라가서 들었다는 「鈞天樂」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30) 양 인리우(楊蔭瀏) 지음·이창숙 옮김, 앞의 책, 608~609면. 북송 회녕 연간(1068~1077)에 중국 궁정은 악공을 고려에 보내 음악을 전수하고 몇 년 후에 귀국시켰다. 고려의 사신이 올 때마다 중국의 음악가를 선생으로 청하므로 사신의 숙소로 가서 음악을 전수하였다. 1117년 고려는 대성 아악과 연악을 배우고자하여 송나라의 동의를 얻었고 악보도 받았다.

현상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진 인물들에 의한 유익한 국수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예문을 살펴 볼 때, 금의 이상은 중앙의 정사·지방의 행정·민간의 풍속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그 효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고의 음악으로 시작하여 훗날 ‘예악’으로 정립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이상을 내포한 금(거문고)의 음악 정신은 ‘예’와 더불어 질서와 조화라는 유가적 덕목으로 모든 사회의 영역에 두루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3. 개인적 이상 수용

1) 知音

고전문헌의 작가들은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에서 비롯된 ‘知音’ 그리고 지음과 관련된 ‘줄을 잇거나 끊어지는 현상을 표현한 어휘’ 등을 문장에 사용하여, 師弟·부부·知己之友 등과의 만남·기다림·이별·회고 등의 애뜻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지음’은 知己와의 수평적 인간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고전문헌의 많은 문장에 널리 사용되어진 점이 발견되고 있다.

최치원(崔致遠)의 「秋夜雨中」⁴³¹⁾에 나타난 ‘지음’이라는 표현은, 작가의 생존 연대를 볼 때, 최초로 발견되는 사례일 것으로 보인다.

秋風惟苦吟	스산한 가을 밤 괴로이 읊조리자니
舉世少知音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窓外三更雨	창 밖에는 한밤 중에 비가 내리는데
燈前萬古心	등불 마주한 내 마음은 옛 뜻 향해 먼 길을 달리네 ⁴³²⁾

431) 이종건, 『한시가 있어 이야기가 있고』 (새문사, 2003) 12면.

432) 참고로 다른 판본에는 ‘惟’가 ‘唯’로, ‘舉世’가 ‘世路’로, ‘萬古心’이 ‘萬里心’으로 되어 있다. 이 시에 대해 허균은 “孤雲 崔學士의 시는 唐末에 있어 역시 鄭谷이나 韓偓의 유를 벗어나지 못하여 대개는 경조하고 부박하여 후한 맛이 없다. 다만 이 절구 한 수는 아주 뛰어나다.” 하였다. (『惺

이 시는 작가가 당나라에 있을 때, 객고를 못 이겨 향수를 노래한 것으로, 자연과 작가의 변함없는 마음이 그려진 군더더기 없는 시상을 엿볼 수 있다.

김성일의 시 「贈樂師林桓」⁴³³⁾에는 장년의 나이에 벼슬을 버리고 이곳 저곳을 떠돈 뒤 마지막으로 가야산으로 들어가 가야금을 뜯으면서 지내다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최치원의 가야금에 대한 지음’이 있겠느냐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十二絃空在 열두 줄의 가야금이 적막하게 있는데
知音有幾人 그 음(音)을 아는 이 몇이나 있으랴
孤雲千載後 고운이 떠난 지 천 년의 세월 지났는데
憑汝偶傳神 우연히 그대를 만나 신묘함을 전해 듣는구나

열두 줄의 가야금이 텅 빈 곳에 있는데, 그 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고운이 떠나고 천 년이나 지나 보게 되어 신묘함을 전해 듣는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거문고의 이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인데, 이러한 논점의 중심이 되는 ‘거문고’라는 악기에 앞서 이미 신라의 ‘가야금’이라는 악기에 이미 ‘현묘의 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예악사상의 중심에 중국의 ‘금’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한반도에서 그것을 계승한 악기는 ‘거문고’라는 점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금과 거문고를 연계하여 연구한 결과물 등에서 같은 맥락의 정신성을 지니고 있는 가야금에 대한 설명은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중국의 아악기인 ‘금’과 우리의 향악기인 ‘거문고’가 정신성을 주고받은 중간 지점에는 반드시 향악기인 ‘가야금’이 가교 역할을 한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의 「送南原梁君誠之詩百韻」⁴³⁴⁾에는 백아와 종자기의 ‘續絃’에 대

所覆韻稿』 卷25 「惺叟詩話」, 『韓國文集叢刊』74輯)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433) 김성일, 앞의 책, 「학봉일고」 제2권 시 「贈樂師林桓」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략)

論交期皓白 사귀를 논할 때 머리털이 희어지기까지를 약속하였고
信誓有蒼玄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함은 푸른 하늘빛에 있었다
管鮑會投漆 관중과 포숙은 일찍이 교칠지교(膠漆之交)⁴³⁵의 칠을 던졌고
期牙又續絃 백아와 종자기는 줄을 이었다
一生思附驥 천리를 달린다는 말인 기(驥)의 꼬리에 붙어 잘 되기를 생각했고,
萬事又憐虺. 모든 일에서는 살림이 빈곤하고 어려운 노래기를 감쌌네.

(하략)

친구의 사귀에는 머리털이 희어질 때까지 약속하면서 푸른 하늘에 맹세 하였다고 하였다 즉, ‘管鮑之交’나 ‘지음’의 고사와 같이 하였다는 것이다. 사는 것은 능력 있는 선배에게 가까이하여 힘을 얻어 살아갔으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감싸며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거문고와 관련된 문구는, 백아와 종자기의 ‘지음에 대한 고사’의 인용인데, ‘論交期皓白~期牙又續絃’까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며, ‘진실로 지기지우가 되는 조건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續絃之耳’와 ‘希聲之音’이 비유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는 장유의 「祭任丈鎡文」⁴³⁶이다.

(상략)

風雅之韻 시를 짓고 읊조리는 고상하고 품위를 갖춘 멋
自此遂絕 이제는 끝내 저절로 끊어지고 말았는데
博達之辯 모든 것에 널리 통달한 지혜로운 변론
於何復得 아! 어디에서 다시 얻어들을까요

434)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오언배율 「送南原梁君誠之詩百韻」 / 서거정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35) 서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교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白樂天이 친구 元微之에게 보낸 편지에, 아교로 붙인 것은 떨어지지 않고 옷칠을 한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한 말에서 유래한다. (『국어사전』 참조)

436) 장유, 앞의 책, 제9권 「祭任丈鎡文」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彼人世之迫隘 인간 세상이 인정 없이 모질고도 험하니
 固瑰才之落拓 인재들이 불우하고 역경에 빠지는 것은 원래가 그렇다 하겠지만
 而造物之無私 그러나 사심이 없는 조물주마저
 亦何忍於遽奪 어찌 갑자기 빼앗아 간단 말리오
 眷余鄙劣 돌아보면 비열한 나
 蚤附驥尾 선배의 덕택을 입어⁴³⁷⁾
 投以希聲之音 희성의 소리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고
 許以續絃之耳 끊어진 거문고 줄을 다시 이을 만큼의 감상능력을 인정받았지요
 忘形之懼 아무 조건이나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이루어진 사귄
 耿耿何已 한결같음이 어찌 그치는 것일까요
 乃無何而至此 뜻밖에도 얼마 안가서 이 지경이 되다니
 嗟萬事之已矣 만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락

이 글에서 거문고와 관련된 상징적 문구는 ‘희성지음’과 ‘속현지이’이다.

‘희성지음’에 대하여는, 『道德經』 41장에 “大器는 晩成이요, 大音은 希聲이라.”⁴³⁸⁾고 하였다. 즉,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지고, 위대한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희성’은 ‘심오하여 잘 들리지 않는 위대한 소리’라는 뜻으로 임전(任鉉, 1560~1611)의 詩文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위대한 소리는 신묘하여 경지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작중인물인 임전에 대한 시문의 높은 경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문구인 것이다. 아울러 ‘금이나 거문고로 연주되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소리의 상징적 표현을 차용하여 작중인물에 대한 높은 학문의 경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續絃之耳’는 끊어 버린 금(거문고) 줄을 다시 이을 정도로 듣는 자의 감상 능력이 뛰어난 것을 말한다. 춘추 시대 금의 명인 백아가, 그의 지음인 종자기가 죽자 자기 음악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는 금의 줄을 끊어 버렸다는 ‘絶絃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듯 고전문헌에 나

437) 蚤附驥尾 : 천리마의 꼬리에 붙은 벼룩이 되어, 즉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顔淵이 비록 학문에 독신했지만 孔子라는 천리마 꼬리에 붙음으로써 그 행적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史記』 伯夷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38) 장기근 역, 『老子』 (서울: 삼성출판사, 1986) 41장 「同異」 122면.

타나는 문장들에서는 ‘절현’ 즉 들을 줄 아는 ‘지음이 없으면 금(거문고) 줄을 끊고, ‘續絃’ 즉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잇는다는 표현과 함께 금(거문고) 줄을 아교로 붙여 사용하겠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이들 모두는 소리가 일차적으로 발현되는 줄을 소재로 하여 ‘헤어짐’과 ‘다시 만남’, 그리고 ‘만나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관찰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이 글에서는 도가적 이상과 유가적 이상이 분명하게 혼재되어 나타나 있다.

김부식의 시 「哭權學士適」⁴³⁹⁾에는 鸞膠로도 거문고 줄을 못 잇는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상략)

忽忽浮生驚大夢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 뜻밖의 정조로 크게 길한 꿈인가
飄飄逸氣返元精 나부끼는 듯 세속 벗어난 기개 자연으로 돌아갔구나
斷絃難得鸞膠續 끊어진 줄을 난교⁴⁴⁰⁾로 잇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含淚悲吟老友生 눈물을 글썽이며 슬프게 우는 늙은 친구의 생각이라네

이 글에서는, ‘악기의 줄이 끊어진 것에 대하여 죽어서 이별하게 된 일에 비유’하였다. 또 작중인물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음에 대하여 끊어진 줄은 난교로도 붙일 수 없다는 것에 비유’하였다. 결과적으로 죽은 다음에 다시 만나고자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응희(李應禧)의 「玄琴」⁴⁴¹⁾에서는 지음의 상징으로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를 인용한 점이 나타나 있다.

玄琴三尺短 석 자의 작은 현금

床角伴吾生 침상 한 모퉁이에서 나와 짝이 되어 살아가고

439) 서거정 등, 앞의 책, 제12권 칠언률시 「哭權學士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40) 西海에서 바쳤다는 난새를 고아 만든 갓풀이다. 武帝의 활줄이 끊어진 것을 그 갓풀로 이으니 줄의 두 끝이 서로 붙어 종일 쏘아도 끊어지지 않았다. (『漢武外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41) 이응희, 『玉潭詩集』 萬物篇 樂器類 [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玉柱貞心固 옥 기러기발은 절개를 지키는 견고한 것이고
 朱絃直道明 붉은 줄은 사람이 행해야 할 도리가 밝은 것이라
 高山月下曲 고산은 달빛 아래 곡조이고
 流水雨中聲 유수는 빗속의 소리라
 世路知音少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지음이 많지 않으니
 峩洋獨自聆 백아의 아양곡을 홀로서 듣는다

이 글에서 현금의 길이는 삼척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악기는 밝혀진
 금의 제원⁴⁴²⁾에서 확인되는 바, 거문고가 아니고 중국의 금이라는 것을 쉽
 게 알 수 있다. 그리고 현금은 『삼국사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우리 거문
 고의 다른 이름⁴⁴³⁾이다. 지금까지 여러 고전문학작품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는, ‘현금’이 중국 금의 이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
 며, 이 글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와 『악학
 궤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전문학작품에서는, 향악기인 우리의 거문고
 를 ‘현금’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오히려 대
 부분의 작품상에서는, 중국 금의 이칭을 차용하여 우리의 거문고를 표현한
 경우가 논의과정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전문학작품에서는 중국의 금과 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당히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견되고 있다. 이
 는 그것들의 정신을 우선하여 작품에 반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 악
 기들을 몸소 연주해 본 경험이 없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한 번도 직접 대
 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단지 성리학 위주
 의 학습을 통해서 중국의 문헌이나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先學들의 이론
 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악기에 대한 진면목
 보다는 악기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 등을 위주로 하여 작가의 관점으로 끌
 어들여 표현하는데 급급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朱絃 역시 거문고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슬의 윤현, 즉 제13현의
 이름이기도 하고, 중국 금의 붉은 줄⁴⁴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442) 이혜구 역주a, 앞의 책, 740면. 卷六 雅部樂器圖說 琴條 ‘樂書云 長三尺六寸六分 象期之日也 廣六寸象六合也.’

443) 김부식 찬·최호 역, 앞의 책, 164면. 卷 第三十二 雜志 第一 祭祀 樂 ‘玄琴象中國樂部琴而爲之.’

거문고의 줄은 굵기가 모두 다른 흰색의 명주실이다. 그리고 고전문헌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붉은 줄에 대하여는 ‘줄’보다도 ‘붉은’이라는 색채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기』 「악기」에 “淸廟之瑟 朱絃而疏越 壹倡而三嘆 有遺音者矣 淸묘의 슬은 붉은 현으로 되어 있고 소리가 느릿하여, 한 사람이 선창하면 세 사람이 화답하여 여음이 있다.”라고 하였다. ‘淸廟之瑟’에서 청묘란 사전적으로 맑고 깨끗한 종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시경』에 수록된 305편 중 주송 31편은 周 왕조의 각종 의식에 사용된 頌歌인데, 그 첫 수가 청묘⁴⁴⁵⁾이다. 이 청묘는 文王의 덕을 칭송하고 기리면서 본받고자함을 암시하는 글이다. 따라서 청묘란 청명한 덕을 지닌 문왕을 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를 제사하면서 이시를 노래했던 것은 청명한 하늘의 덕을 본받은 문왕을 그리워하며 아울러 대를 물려 본받고자함일 것이다. 그리하여 ‘문왕의 덕은 이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지표가 되었을 것이고, 후대에게 있어서는 청명한 덕의 효시가 되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숭앙을 받는 청묘에 붉은 줄의 슬이 있다고 하였다. 즉 특별한 곳이라는 점이 강조된 장소에 비치된 슬의 줄이 붉다는 것이다. 이는 슬에 설치된 붉은 줄의 ‘붉음’이 적어도 청묘에 버금가는 정신세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슬의 주현에 국한된 시각을 보다 넓혀 색채로서의 ‘붉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史記』 「孟子傳」에 의하면 전국시대 말 제나라의 철학자 鄒衍은 중국을 ‘赤縣’ 또는 ‘神州’라고 했다. ‘적현’의 ‘붉을 적(赤)’은 황하 유역의 흙의 색깔이 거의 붉은 색에 가까운 황색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현재의 중국 國旗의 바탕 색깔도 거대한 황토를 의미한다. 중국인들이 붉은 색으로 글씨를 쓰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붉음을 숭상하는 이유도 황토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다.⁴⁴⁶⁾ 이렇듯 중국인들은 자연산물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444) 이해구 역주a, 앞의 책, 742면. 卷六 雅部樂器圖說 瑟條 ‘.....聞絃與黃鐘同並紅染用丹木琴絃同.....’

445) 김학주 역지, 앞의 책, 650면. 「周頌」淸廟：於穆淸廟 肅雝顯相 濟濟多士 秉文之德 對越在天 駿奔走在廟 不顯不承 無射於人斯

446) 이수웅·김경일, 『중국문화의 이해』 (대한교과서(주) 도서개발부, 1995) 4면. 참조

삶의 모태가 되었던 황하를 중심으로 고대 농본사회를 이루어 삶을 영위하면서 황토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 볼 때, 정신적인 지주로 숭앙을 받는 청묘가 중국문화를 펼쳐나가는 근간이자 정신세계의 효시라고 한다면, 붉은 색은 중국문명을 이끌어 온 원류이자 국력신장의 남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 결론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高山流水에 대한 곡조인 「아양곡」 같은 명곡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며 같이 들어줄 벗인 지음이 없어 홀로 외롭게 듣는다는 것’이다.

이색의 시 「聞琴有感」⁴⁴⁷⁾에서는, 지기(知己)의 죽음을 거문고 소리의 끊어짐에 비유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指法須師授	운지법은 스승이 전수해 주어야 하지만
心源在自尋	소리에 부쳐 탄주하는 마음의 근원은 스스로 찾아야지
五更生夜氣	인시에 차갑고 맑은 밤공기가 일어나면
一點見天心	한 점 하늘의 뜻을 마음에 터득할 수 있으리
要妙雖成曲	현묘함을 얻어 곡조를 이루기는 하지만
和平詎在琴	화평함이 진실로 금에 있겠는가
古音今已矣	옛 소리는 이제 끝났음이라
流水恨沈沈	유수가 보일락 말락 하는 것이 한스럽구나

이 글에서는 유수(流水: 「고산유수곡」)를 내세워 춘추 시대에 백아가 타는 금의 소리를 잘 알아들었던 종자기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연주하지 않았다는 고사를 逆으로 인용하여 표현하였다. 즉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와는 반대로 들을 곡이 없어져서 들을 사람이 없다’고 나타난 이 글에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지기가 없어지게 됨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정철(鄭澈, 1536~1593)의 「四律一首」⁴⁴⁸⁾에는 친구가 죽어 거문고를 끊겠

447) 이색, 앞의 책, 「목은시고」 제6권 시 「聞琴有感」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48) 조정남, 『亂中雜錄』 2 임진년 하, 「四律一首」 ‘十日金沙寺’ / 정철: 三秋故國心 삼년의 세월 동안 고국을 마음 속으로 걱정할 듯 / 夜湖噴爽氣 한밤의 호수는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 歸雁有哀音 돌아가는 기러기는 슬픈 소리로 울면서 가네 / 虜在頻看劍 적이 있으니 자주 칼을 보고 / 人亡欲斷琴 지인(知人)이 죽었으니 거문고를 끊으려 한다 / 平生出師表 평생에 읽던 출사표를 /

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신흙의 「金郊驛見時晦書」 449)에는, 지기와의 회고의 정이 담긴 거문고가 나타나 있다.

郵亭忽見故人書	역참의 객사에서 갑자기 옛 친구의 편지를 보게 되니
一紙緘封錦不如	한 장으로 봉한 종이지만 비단보다 낫다 ⁴⁵⁰⁾
魂夢每驚千里外	꿈결에서는 매번 천리 밖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分携已是數年餘	헤어진 지 벌써 여러 해 남짓 되었네
琴樽舊事今能記	거문고를 타고 술잔을 나누던 옛 일들 지금도 기억나는데
鷗鷺新盟且莫踈	갈매기의 맹서·해오라기의 언약을 장차 소홀히 하지 말게
聞說瀟西生事薄	들리는 말에 새로 사는 곳에서 생활이 어렵다 하더니만
耦耕何日共谿廬	농사를 지으며 개울가의 초막에서 함께 할 날은 언제나 올까

옛 친구의 편지를 받고 거문고 타고 술잔을 나누던 옛 일을 떠올리면서 맺은 언약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것이다. 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가 함께할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흙의 「丁未至日」 451)에는 지음을 기다리고 있는 갑 속의 거문고가 나타나 있다.

蜀道爭如世道難	어려운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는 촉나라로 가는 길과 같은데
頻波何日是回瀾	쇠되하는 추세는 언제나 되돌릴까
浮生冉冉過中歲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은 한들거리며 중년을 넘었는데
短景駸駸逼小寒	겨울철의 짧은 해는 바싹바싹 소한으로 다가오네
殘雪有痕危磴躑	녹지 않고 남은 눈의 흔적이 있어 돌 비탈길 위태롭고
疎林無影暝煙團	그림자 없는 성긴 숲에는 어두운 연기가 모여들고
逢人且莫投明月	사람을 만나면 ⁴⁵²⁾ 잠시라도 명월주 ⁴⁵³⁾ 를 던지지 말라

臨難更長吟 난을 당하여 다시 길게 읊노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49) 신흙, 앞의 책, 제13권 시 칠언율시 110수 중 「金郊驛見時晦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50) ~不如~의 용법이 百聞不如一見과 같은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함.

451) 신흙, 앞의 책, 제14권 시 칠언율시 「丁未至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52) “逢人且說三分話, 未可全拋一片心....., 사람을 만나거든 우선 말을 삼할(30%)만 하되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을 다 털어 버리지 말지니.....,” (『明心寶鑑』 139 「逢人」) (한국고전번

아무나 만나서 속내를 털지 말라면서 갑 속의 거문고를 홀로 탄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지음을 만나지 못한 것이며, 또한 ‘지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문고를 꺼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희의 오언율시 「供仕」⁴⁵⁴⁾에는 소리를 알아주는 ‘지음은 예로부터 드물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송시열의 칠언절구 「玉溪瀑布次疇孫韻」⁴⁵⁵⁾에는, ‘옛날 종자기는 만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한편, 신희의 칠언절구 「聽琴」⁴⁵⁶⁾에는 이 세상에 지음이 적다고 하지만, ‘明月淸風, 즉 주위의 풍광이 바로 종자기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무현금의 감상은 거문고가 없어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칠언절구에서는 ‘사람이 타는 거문고를 자연 풍광이 알아듣는다’ 라고 하였다. 전자는 노장사상이, 후자는 자연합일이 지배하는 견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예문들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지음’의 효용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를 수반하는 문장에서의 지음의 대상은 친구가 가장 많다. 그리고 사제지간·선후배 등이 문장에 나타나 있다. 한편, 드물기는 하지만 부부가 지음의 대상이 된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지

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53) “명월주와 야광주를 노상에서 비밀히 낚신 사람에게 던져준다면 어느 누구라도 칼을 꼬나 잡고 노려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이 자기 앞에 왔기 때문이다.”에서 나온 것으로, 속에 품은 재주를 선불리 남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史記』 卷83 「鄒陽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54) 신희, 앞의 책, 제9권 시 오언율시 1백 23수 중 「供仕」: 供仕已無況 벼슬살이에는 이미 더 이상 바람이 없으니 / 如何歸計違 어찌하여 돌아 갈 계획이 어긋났을까 / 物情濃復淡 세상일의 실정은 진하기도 하고 다시 뉘기도 하는데 / 世事是兼非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옳고 그름을 겸비하였네 / 素髮羞丹竈 백발은 도사가 고은 단약을 부끄럽게 하고 / 紅塵澆薛衣 속된 인간세상은 은자의 옷인 벽라의를 더럽히는구나 / 知音自古少 소리를 알아듣는 지음은 예로부터 적으니 / 誰與度瑤徽 누구와 더불어 요휘의 가락을 올릴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55) 송시열, 『송자대전』 「제2권」 시 칠언절구 「玉溪瀑布次疇孫韻」: 雨餘遙看勢尤奇 비 내린 뒤 멀리서 보면 기세가 더욱 기이하여 / 嫩綠殘紅杜宇時 어린 싉록과 지고 남은 꽃에 두견새의 시절이라 / 瑤琴彈盡峨洋裏 요금을 아양(峨洋) 속에서 끝까지 연주했지만 / 只恨難逢古子期 그 옛날 종자기를 만나기가 어려움이 다만 한스럽구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56) 신희, 앞의 책, 제19권 시 칠언절구 175수 중 「聽琴」: 閒捻瑤琴度曲遲 한가한 틈을 비집어 요금을 안고 느리게 타는 가락 / 離鸞別鶴共參差 이별을 노래한 이란조와 별학조가 다함께 들쭉날쭉 들려오네 / 休言世上知音少 이 세상에 지음이 적다고 말을 하지 말게 / 明月淸風是子期 청풍명월이 바로 종자기가 아니던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음’은 금(거문고)과 관련된 ‘정신성의 활용’면에서 볼 때, 수평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朋友有信・交友以信 등의 인륜과 계율을 설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대변자

대변자로서의 거문고라 함은, 글 전체의 내용이 제시하고자 하는 요점이 거문고에 함축되어 나타난 경우를 말함이다. 우선, 거문고를 다루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것에 대한 조치 내용이다. 그 중에서 문장 전체 내용에 적합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비유의 매개체로 하여 표현한 문장을 살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가는 사회 등 공적인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문고’라는 악기 자체만으로 글 전체의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주로 작가 자신의 正體性이 담긴 사적인 환경 등이 잘 나타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항목에서는 문장 전체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정서 중에서, 자신을 대변하고자 하는 요점을 파악하여 간략한 사항만을 논의에 반영하였다.

장유의 오언율 「贈別淸陰歸石室」⁴⁵⁷⁾에는, 임금이 신하와 소통하지 않음을 팽팽하게 당긴 거문고 줄에 비유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蘭芳荃不揆	어진 신하의 마음을 임금이 살펴 주지 못하심은 ⁴⁵⁸⁾
弦急調難和	팽팽하게 당겨놓은 거문고 줄을 어울리게 조율함을 꺼림이라
世事遽如許	세상 일을 이와 같이 어수선하게 하시다니
主恩將若何	임금의 은혜를 장차 어찌 하시렵니까
雲迷京國遠	구름은 흐릿하고 고국의 서울은 먼데

457) 장유, 앞의 책, 제29권 오언율 148수. 「贈別淸陰歸石室」(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58) ‘荃’은 향초의 이름으로 임금을 비유하고, ‘蘭芳’은 ‘난초 향기와 같은 賢臣’을 비유한다. 『楚辭』 「離騷」에 “荃不察余之中情兮 反信讒而齎怒”라 하고, 『초사』 「招魂」에 “結撰至思 蘭芳假些”라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秋入故園多 가을의 기운이 풍성하게 들어섰을 고향의 정원
 衰闕終須補 곤궁(459)을 보좌하는 일을 마땅히 다하여야 하는데
 那能戀芰荷 어찌 지하(460)만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임금이 정사를 집행함에 있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자신의 절조만을 고집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을 ‘팽팽하게 당긴 거문고 줄을 제대로 조율하지 않는 일’에 비유하여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장유의 칠언율시 「贈閔丈伯高二首」⁴⁶¹⁾에는, 살림살이가 거문고와 책 뿐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가난함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酒兼賢聖藥君臣 술에 현성이 함께 있듯 약에도 군신이 있는데⁴⁶²⁾
 康濟唯能及一身 오직 한 몸 편안하게 구제함에 힘이 닿는다고 할 수 있을까
 笑我尙纏玄晏病 현안의 병(463)을 즐기며 매달린 나도 우습지만
 憐君未脫子桑貧 자상의 가난(464)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대도 가련하구나
 空齋日暖琴書靜 따스한 날 빈 집엔 차분하게 놓여있는 거문고와 책
 小圃春深杞菊新 봄이 깊은 텃밭엔 구기와 국화의 어린 싹이 오르고
 乘興不妨頻命駕 거리낌 없이 흥이 오르면 빈번하게 수레 타고 와서
 白頭相對兩閑人 흰머리 한가하고 일 없는 사람끼리 짝하여 서로 만나보리

술과 약의 귀천을 구분하면서도 자신과 지인은 둘 다 소박하게 살면서,

459) 정사를 행하는 임금의 결점을 말한다. 『시경』 「大雅」 烝民에 “衰職有闕 維仲山甫補之”라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60) 자신의 깨끗한 절조만을 고집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초사』 「離騷」에 “製芰荷以爲衣兮 纫蘭以爲佩”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61) 장유, 앞의 책, 제31권 칠언율시 2백 33수 중 「贈閔丈伯高二首」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62) 淸酒를 聖人이라 하고, 濁酒를 賢人이라고 하며, 『삼국지』 「위지 徐邈傳」에 약을 조제할 때 병을 치료하는 主藥을 君이라 하고, 이를 돕는 補藥을 臣이라 한다. (『素問』 「至眞要大論」)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63) 남이 부탁해 오는 비평이나 시문을 써 주며 저술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玄晏은 晉나라 皇甫謐 自號이다. 일찍이 左思의 三都賦 서문을 써 주자 장안의 紙價가 급등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5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64) 子桑은 莊子가 꾸며낸 인물로, 10일 동안의 장맛비에 간혀 자신의 가난한 운명을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莊子』 「大宗師」)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만년에 할 일 없는 사람끼리 어울리자는 뜻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거문고와 책만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청렴하고 가난한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이규보의 고을시 「莫導爲州樂」⁴⁶⁵⁾에는 거문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를 지방 행정의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憂深何以遣	깊은 걱정으로 어찌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些少宴遊晨	대수롭지 않은 잔치를 하며 날이 새도록 놀리라
蠶聲生青暈	푸른 녹은 술잔에 생기고
琴箏羈素塵	금과 쟁 위엔 먼지만 하얗게 덮였구나
江山應蓄怨	강산은 응당 원한이 쌓일 것이고
花柳若爲春	화류는 봄을 위해 피는 것만 같다
不是風情薄	풍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官箴大逼人	지방행정의 지침이 백성들에게는 꺾박함이 큼이라

바쁜 벼슬살이에 거문고에는 먼지만 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거문고 소리가 나지 않음은 그 지방의 행정이 번거로워 백성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꺾박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거문고 소리가 백성들의安危를 대변해줄 수 있다는 점이 파악된다.

변중량(卞仲良, ?~1398)의 칠언율시 「寧海」⁴⁶⁶⁾에는, 귀양을 가서도 변함없는 자신의 충심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二月江城霽景遲	이월 강성에 비가 아직 개지 않았는데
芳洲散策動春思	물가에 한가로이 걸어보니 봄 생각이 살아난다
少年流落傷豪氣	젊어서는 떠돌며 호기로 날을 보내며
半日娛歡遇舊知	반나절을 즐기며 옛 친구를 만나 기뻐하곤 하였지
梅柳開時難把酒	매화와 버들이 피는 시절 술잔을 잡기도 어려우리
樓臺多處謾題詩	높은 누각 많은 곳에서 시 쓰는 것을 게을리 하라
京華北望幾千里	화려한 서울이 있는 북쪽을 멀리 내다보니 몇 천 리 길인가

465) 이규보, 앞의 책, 제9권 고을시 「莫導爲州樂」 4수 중 넷째 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66) 서거정 등, 앞의 책, 제16권 칠언율시 「寧海」 / 변중량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每賦瓜亭獨自悲 정과정⁴⁶⁷)으로 심경을 읊을 때마다 홀로 비통해 하노라

젊은 시절 호방한 기상으로 즐기며 살던 것을 회상하다가, 억울하게 귀양 와서 ‘임금을 그리워하여 거문고를 타면서 슬프게 <정과정>을 노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거문고 소리로 자신의 충성심을 대변하고 있는 점이 관찰된다.

3) 品格 · 品性

고전문헌의 작가들은 거문고를 좋아한 것만으로도 고상한 자질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거문고 탐을 인생을 달관함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知人들에 대한 생전의 행적을 표현한 글에서는 주로 고결한 품성과 성정을 거문고에 의탁한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거문고의 맑은 소리를 스스로의 고아한 인품이나 淸職과 같은 직무와 관련지어 표현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지기를 만남에 있어 거문고와 비파를 즐기지 않고 오직 예절과 마음으로만 대접한다는 예외의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거문고가 내는 맑은 소리의 자극이 없어도 본인 스스로가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라 보인다.

한편, 강직한 성품을 거문고의 곧은 줄에 비유하여 표현한 글에서는, 굳은 절개를 표현한 경우와, 이와는 반대로 강직함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화를 입게 되는 사례들을 표현한 경우도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祭大谷成先生文」⁴⁶⁸)에는 고결한 품성과 성정을 거문고에 의탁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상략)

467) 고려 毅宗 때 정서(鄭絳, 호는 과정)가 죄 없이 참소로 동래에 귀양 가서 임금을 그리워하며 거문고를 타고 슬피 노래한 곡조. (『고려사』 「악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68) 장현광, 『旅軒集』 「여헌선생문집」 제11권 제문 「祭大谷成先生文」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惟我先生

肥遯一生

不事王侯

高蹈一世

不屑爵祿

安僻鄉之潛寂

飽大谷之風煙

雪月以爲襟懷

雲林以爲生涯

任性情於琴詩

寄身世於廣漠

于以送了八十年春風秋月焉

孰不曰高人也

孰不曰逸士也

(하략)

우리 선생님을 생각하면

느긋하게 만족하며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여

제왕과 높은 벼슬아치를 섬기지 않았고

한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살며

관작과 녹봉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

다 이에 후미진 시골에 고요히 잠겨들어

우람한 계곡의 바람과 연무에 만족하였습니다

눈과 달로써 가슴에 깊이 품은 회포로 삼고

구름과 숲으로 평생을 삼아

성정을 거문고와 시에 맡기고

몸과 세상을 넓고 아득한 천지에 부쳤습니

다 이로써 팔십년의 나이를 버렸으니

누가 뜻·품행이 고상한 분이라 하지 않겠으며

그 누구인들 은사라 하지 않겠는가

이 글은 장현광이 남긴 조선 중기의 학자인 성운(成運, 1497~1579)에 대한 제문이다. 장현광은 조선 후기의 주자학자로 도덕정치의 구현을 강조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 글에서는 성운의 성정을 거문고와 시에 맡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금의 이상이 이미 거문고에 차용되어져 있고, 또 금의 이상은 선비나 학자가 꼭 갖추어야 할 덕성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다른 설명이나 간접적인 비유도 없이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의 이상은 개인의 영달 즉, 정치적 지위나 경제적 탐욕으로부터 초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문고에 성정을 맡긴다는 것은 청렴한 관료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권상하의 시 「次任大仲墜見寄韻庚戌」⁴⁶⁹⁾에서는 요즘이 갑에서 나와 티끌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내용으로 스스로의 고아한 인품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469) 권상하, 『한수재집』 「한수재선생문집」 제1권 시 「次任大仲墜見寄韻庚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茶爐煙細篆香消	다로에 연기 가늘어져 향기가 사라지는데
一室圖書坐寂寥	단칸방 도서 가운데 고요하고 쓸쓸하게 앉아 있네
山客乞詩時見訪	시를 구걸하는 산중 사람 때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隣翁醺釀數相招	술을 빚어 거르는 이웃 노인 서로 자주 부르다네
瑤琴出匣塵心淨	요금이 갑에서 나와 속세에서 더럽혀진 마음 깨끗해지고
梅月窺窓靜興饒	매화나무위의 달이 창 밖에서 엿보니 고요한 흥이 일어
獨倚胡牀眠不得	겉상에 기대어 잠 못 이루고 있는데
戛然孤鶴響清霄	외로운 학의 울음소리는 맑은 하늘을 울리는구나

한적한 환경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발길 주는 길손 한가로이 맞다가, 요금이 갑에서 나오면 더럽혀진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지고, 매화나무 위의 달이 방안으로 들어오니, 고요한 흥이 일어 잠 못 이루는데, 학의 울음이 맑은 하늘에서 들린다고 하며, ‘스스로의 고아한 인품을 시상에 나타내고 있다’.

홍대용의 시 「贈元若虛」⁴⁷⁰⁾에는, ‘젊을 때부터 거문고를 좋아한 것을 고상한 자질을 지녔음으로 표현’하였고, 기대승의 시 「領府事尙公挽詞」⁴⁷¹⁾에는, 술에 부친 삶은 天命을 앎이고, ‘거문고를 타는 것은 인생을 달관하였음’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정약용의 「奉和聖製夜登芙蓉亭小樓復申甲寅詩令與舟中嶼中人分韻口呼」⁴⁷²⁾에는, 규장각·예문관·홍문관 등의

470) 홍대용, 앞의 책, 』내집 3권 시 「贈元若虛」: 愛君蘭蕙姿 그대의 군자다운 고상한 기질을 소중히 여긴다네 / 早悅山水音 일찍이 高山流水를 즐길 줄 알았었지 / 文心述家訓 마음의 씩씩이는 집안의 가르침을 이었고 / 眞意見疏襟 참된 마음은 넓고 큰 가슴으로 알겠네 / 長揖桃李谿 유능한 인재로 천거됨을 끝내 허리를 굽혀 사양하고 / 振衣桑柘林 훌훌 털고 뽕나무 숲으로 가는구나 / 海國饒甘旨 섬나라에는 맛있는 음식이 풍족하다던데 / 稻蟹秋已深 가을이 이미 깊었으니 버는 익고 게는 살이 올라 있겠지(하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71) 기대승, 앞의 책, 제1권 시 「領府事尙公挽詞」: 厚德人皆仰 두터운 德은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고 / 崇班世共榮 높은 地位는 세상에서 다함께 영화롭게 여겼네 / 屢陳辭位懇 여러 번 陳言하여 벼슬자리를 간절히 사양하였으니 / 終遂引年情 마침내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 뜻을 이루었네 / 寓酒疑知命 술에 假託하였으니 아마도 하늘의 뜻을 아는 것 같고 / 彈琴見達生 거문고를 탔으니 인생을 達觀한 걸로 보인다 / 淒涼江上兆 처량한 강가의 무덤에는 / 相送泣公卿 전송하는 公卿들이 소리를 내어 슬피 우네.(하략) // 尙公은 尙震: 1493~1564)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木川, 자는 起夫, 호는 松峴·嚮日堂·泛虛亭, 시호는 成安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72) 정약용, 앞의 책, 제2권 시 「奉和聖製夜登芙蓉亭小樓復申甲寅詩令與舟中嶼中人分韻口呼」: 蓮葉

淸職을 지닌 사람과 거문고와의 관련성이 나타나 있다. 거문고 소리의 맑음과 그들의 職務와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권근의 「有明朝鮮國諡文簡公安公墓碑銘並序」에는, 거문고와 비파를 즐기지 않고 오직 예절과 마음으로 대접한 경우가 나타나 있다.

(전략) 집 뒤 언덕에 정자를 지어 쌍청(雙淸)이란 현판을 걸고 그 쌍청으로 자신의 호를 삼았다. 손이 오면 반드시 술대접을 하였으나 풍성하고 사치한 것에 힘쓰지 않았으며, 거문고와 비파를 즐기지 않고 오직 예절과 마음으로 흠족하게 대접할 뿐이었다. (후략)⁴⁷³⁾

이 글에서는 ‘雙淸’이란 현판을 걸어두고 사치하지 않고, 거문고 등의 악기를 동원하여 향락을 일삼지 않은 것을 두 가지의 맑음(雙淸)으로 여기고 오직 예절과 마음으로만 대접하였다고 했다. 못 선비들이 ‘거문고를 지음과 듣는 것을 생활화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라 하겠다.

거문고 줄의 질감을 굳은 절개로 비유한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哭九畹李同樞立之」⁴⁷⁴⁾이다.

(상략)

少年卽相託	어렸을 때 서로 의지하여
情親如骨肉	맺은 정이 깊고 친절하여 형제와 같았네
論心白水淸	마음속의 생각을 말하면 티 없이 깨끗한 물처럼 맑았고
秉節朱絃直	절개를 지킴에 있어서는 슬의 붉은 줄과 같이 곧았네
賦命有短長	천생적으로 타고난 수명에는 길고 짧음이 있고

輕浮太乙船 太一真人 蓮葉舟가 가볍게 뗏는데 / 仙官攄在鏡中天 仙官은 모두 거울 속의 하늘에 담겨있네 / 珠徽度曲迷春水 거문고 타는 가락은 눈 녹아 흐르는 물에 어른거리고 / 銀燭成行透夕煙 줄을 이뤄 비치는 아름다운 불빛은 저녁 안개를 뚫어넘는다 / 千樹花枝承委佩 많은 나무와 꽃가지는 佩玉을 받아들이고 / 三山翠蓋壓芳筵 푸른 日傘 씌운 三山이 좋은 자리에 올라 앉아있네 / 盈盈法醕猶餘醉 맑디맑은 下賜酒에 아직 醉氣가 남아있어 / 乘月歸來御柳邊 대궐 버들 모퉁이로 달빛 타고 돌아온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73) 권근, 앞의 책, 제38권 碑銘類 「有明朝鮮國諡文簡公安公墓碑銘並序」: (前略) 作亭於宅之後岡. 扁以雙淸. 因爲自號. 客至必置酒. 不務豐侈. 不喜琴瑟. 惟以禮意款洽. (後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474) 김상헌, 『淸陰集』 제8권 오언고시 54수 「哭九畹李同樞立之」 6수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時運有通塞 그 시대의 운수에는 트임과 막힘이 있는 것이라
 我在君已逝 나를 두고 그대는 이미 떠나갔으니
 天意終難測 하늘의 뜻은 끝까지 헤아리기 어렵구나
 (하락)

어려서 친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성정은 맑고 절개는 거문고 줄과 같이 곧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수에 길고 짧음이 있고, 운수에는 트임과 막힘이 있어, 먼저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으니, 하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 시에서는 ‘거문고의 곧은 줄을 곧은 절개를 지닌 성품에 비유’하였다.

직간하여 상소하는 강직한 성품을 거문고 줄의 팽팽함에 비유하여 표현한 장유의 「送趙日章出宰知禮」⁴⁷⁵⁾이다.

公車諫疏斷	임금에게 상소하는 글은 그만두어야지
學士佩銅章	학사가 지방 수령이 차는 관인(官印)을 차게 되었네
虎豹天關迥	홍악한 사람들이 호표처럼 으르렁대며 판을 치는 대궐은 멀고
臚獠嶺邑荒	다람쥐와 원숭이가 나무를 타며 넘나드는 황량한 영남 고을
朱絃徒自直	거문고의 팽팽한 주현은 단지 스스로 곧을 뿐
白璧若爲光	백옥이 광채를 내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二字恩褒重	소중하게 기린 은혜로운 두 글자로
聊堪緩別腸	애오라지 이별의 정한을 감당할 만하게 하였으니

지나치게 강직하여 직간을 하다가 궁중에 있던 학사가 지방 수령으로 좌천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작가는 처음에는 상소하는 것을 말렸지만, 떠날 때는 ‘거문고 줄은 스스로 곧고, 백옥의 광채 또한 이와 같다’는 칭찬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이별의 정한을 감당할 만하다고 하였다.

현을 다시 당겨야만 거문고를 탈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 김성일의 시 「次五山見惠韻」⁴⁷⁶⁾이다.

475) 장유, 앞의 책, 제29권 오언율 148수 「送趙日章出宰知禮」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476) 김성일, 앞의 책, 「학봉속집」 제1권 시 「次五山見惠韻」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多口君無歎鑠金	입에 오르내리는 것 ⁴⁷⁷⁾ 이 쇠도 녹일 수 있음을 탄식하지 말고
願加韜晦祕希音	들려오는 소리를 헤아리지 말고 종적을 감추고 살기를 바라네
人須爲學方知道	사람은 모름지기 배워야만 바야흐로 도를 알고
絃必更張可理琴	반드시 줄을 다시 당겨야만 거문고를 탈 수 있게 되니
貧賤困窮元玉汝	빈천함과 어렵고 딱한 처지는 너를 훌륭하게 만드는 근원이라
孤臣孿子始操心	외로운 신하나 첩의 자식이 되어봐야 비로소 조심하게 된다네
爲仁都在這中熟	인을 행함은 모두 이러한 것들에 익숙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
爲誦前言綴短吟	옛사람이 남긴 말을 외워 짧은 시를 엮었네

이 글의 전체 맥락을 볼 때 ‘絃必更張可理琴’에서는 일단, ‘줄을 당겨서 조율을 하여야만 연주가 가능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단순한 조율보다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연주기술을 연마하여야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글 전체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 어려운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며, 또한 극복하여야만 ‘仁’을 행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또 장유의 「送羅夢賚宰江東」⁴⁷⁸⁾에서도 팽팽하게 당겨진 거문고 줄이 성정의 곧음에 비유되었다. 거문고의 줄처럼 곧음으로써 융통성이 없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작중인물들의 융통성 없는 처세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작가 장유는 이들의 기개를

477) 『맹자』에 나오는 ‘土增多口’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주 참조)

478) 장유, 앞의 책, 제25권 오언고시 162수 중 「送羅夢賚宰江東」: 潘南崑玉姿 반남은 마치도 崑崙山 옥과 같아 / 烈火驗純剛 치솟는 화염 속에 순수한 剛度 입증했고 / 杞溪朱絲弦 기계는 흡사 거문고 줄과 같아 / 促柱無緩張 팽팽하게 당겨진 채 풀릴 줄을 몰랐었고 / 羅生稍通偉 나생은 조금 융통성 있었어도 / 慷慨懷剛腸 비분강개 그 뜻만은 鐵石 같았지 / 三子在玉署 그대 세 사람 옥당에 있을 적에 / 直氣何堂堂 곧은 기운 그 얼마나 당당했던가 / 不謂遽如許 누가 알았으랴 이렇게 느닷없이 / 片語成讐殃 한 마디 말 때문에 처벌을 받을 줄을 / 黃綬謫關塞 수령 인곤 차고 변방으로 내쫓겨나 / 有母不得將 어미도 장차 봉양을 못 하다니 / 秋陰晦天宇 음산한 가을 기운 하늘 뒤덮어 / 白日難回光 밝은 햇빛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구려 / 膽子猛虎行 그대에게 맹호행 읊어 주려니 / 邑邑獨沾裳 펜스레 슬퍼지며 눈물이 흐르누나. // 羅夢賚는 羅萬甲의 字이다. 홍문관 교리로 있다가 박정·유백증과 함께 같은 사유로 外職에 좌천되었다. / 潘南은 貫鄉이 반남인 朴堧을 가리킨다. / 杞溪는 관향이 기계인 俞伯曾을 가리킨다. / 猛虎行은 樂府의 이름이다. 아무리 험난한 지경에 처해도 굳은 절조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主調를 이루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칭송하면서도 한 순간 말을 잘못하여 내쳐짐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장유의 「宋監司聖求挽」 479)에서는 팽팽한 거문고 줄처럼 곧은 성품으로 과격하긴 했지만, 혼탁한 당시의 습속에서도 티끌 하나 없이 백설처럼 깨끗한 일생을 살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청렴

청렴함을 표현한 대부분의 문장에는 ‘거문고와 학’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원이 부임하는 경우・戰功을 세우고 난 경우・벼슬을 그만 둔 말년의 경우 등의 여러 환경이 시상에 표현된 가운데, 주로 宋나라 趙抃의 고사⁴⁸⁰⁾를 인용한 점이 관찰되고 있다.

이산해(李山海, 1539~1609)의 「王按察別章三首」 중 두 번째 시⁴⁸¹⁾이다.

經年馬首漲煙塵	해가 지나도록 전쟁터의 먼지 속에서 말머리를 돌리고서
幹事歸來鬢未銀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니 귀밑머리 아직 은발이 아니구나
蜀道行裝伴琴鶴	촉도의 행장은 거문고와 학을 짝하니 ⁴⁸²⁾
潁川勲業冠麒麟	영천의 큰 공로는 기린각에서 으뜸이로세 ⁴⁸³⁾

479) 장유, 앞의 책, 제29권 오언율 148수 「宋監司聖求挽」: 溷濁傷衰俗 혼탁하기 그지없는 말세의 습속 / 貞孤見若人 이렇듯 깨끗한 이 찾기 힘들지 / 朱絃嫌太急 팽팽한 거문고 줄 과격한 혐의는 있었지만 / 白雪淨無塵 티끌 먼지 묻지 않고 백설처럼 깨끗했네 / 只有中郎女 중랑의 여息 하나 달랑 남긴 채 / 俄拋下壽身 예순의 나이로 세상 그만 버렸고녀 / 潛翁墓草宿 묵은 풀 우거진 잠옹의 묘소 / 泉路待情親 황천길 들어서면 반갑게 맞으리라. // 송성구는 宋象仁의 字로, 임진왜란 때 東萊府使로 장렬히 전사한 宋象賢의 아우이다. / 중랑의 남긴 채 : 아들을 보지 못하고 文才가 뛰어난 딸 하나만 남겼다는 말이다. 後漢 때 中郎將을 지낸 蔡邕의 딸 文姬가 선친으로부터 4천여 권의 책을 물려받고 喪亂의 시대에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서적을 모두 망실했으나 그 래도 40여 편을 암송하여 다시 복구시켰다는 고사가 전해 온다. (『後漢書』 「列女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480) 청렴한 관원의 赴任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宋나라 趙抃이 成都의 轉運使로 부임할 적에 오직 거문고 하나와 학 한 마리를 가지고 떠났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夢溪筆談』 「人事」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81) 이산해, 『鵝溪遺稿』 제4권 「王按察別章三首」 중 두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82) 가진 재물 없이 청빈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宋나라 趙抃이 필마로 촉 땅으로 들어갈 때 거문고 한 벌과 학 한 마리만 데리고 갔던 고사에서 유래한다. 『宋史』 「趙抃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83) 漢나라 때 黃霸가 潁川太守로 있으면서 크게 善政을 베풀었으므로 높이가 한 길이나 되는 수레 덮개를 특별히 하사받는 등 융숭한 褒獎을 입은 데서 유래한다. (『漢書』 「循吏傳・黃霸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甘棠細雨藩京晚 甘棠⁴⁸⁴에 가랑비 내릴 때 서울의 땅은 저물고
 玉節東風上國春 봄철에 부는 훈풍에 옥처럼 변하지 않는 절개는 상국의 봄이라
 只爲深恩緘骨髓 단지 깊은 은혜가 골수를 움아매고 있어서이지
 不應離別解傷神 이별하여 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에 옹함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해가 지나도록 많은 공을 세웠지만, 가진 재물은 없다면 서
 청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송나라 조변이 필마로 축 땅으로 들어갈 때
 거문고 한 벌과 학 한 마리만 데리고 갔던 고사’를 인용하여 표현하였다.
 또 최립의 「送洪君瑞令公由都憲出安東」⁴⁸⁵에도 한 틀의 거문고와 한 마
 리의 학으로 말단 촌락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금학을
 들어 청렴하게 벼슬살이를 한다는, 즉 ‘거문고와 학을 가까이에 두는 것을
 청고 염결한 기상으로 표현’하였다. 장유의 「奉送李侍郎出尹完山」⁴⁸⁶에서
 도 마찬가지로 선후배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관리가 임지로 떠
 나며 ‘한 틀의 거문고와 한 마리의 학’을 가지고 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
 다. 또한, 이색의 「自歎」⁴⁸⁷에도 ‘금학’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시에 나

484) 周나라 文王 때 南國의 백성들이 召伯의 선정에 감사하는 뜻에서 그가 다니며 쉬었던 감당나무
 를 소중히 여겼던 고사에서 유래한다. (『시경』 「召南」 ‘甘棠’)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85) 최립, 앞의 책, 제8권 「환경록」 「送洪君瑞令公由都憲出安東」: 永嘉偶自同名地 영가라는 지명
 이 뜻하지 않게 똑같으니 / 靈運遙應異世期 아득히 먼 저 세상에서 영운과 기약을 하였음인지 /
 宰相何妨三品職 삼품의 재상이 간들 어찌 거리낌이 있으랴만 / 江山不負五言詩 강산은 오언시 짓
 기에 모자람이 없는 것을 / 靑簾白舫將迎日 푸른 대발을 두른 흰 배를 거느리고 영접하는 날이라
 / 一鶴孤琴歸去時 한 틀의 거문고에 한 마리의 학으로 돌아가는 시절이로세 / 不是年來隣里索 근
 년 이래 말단 촌락에 떨어져 외롭게 살아 본 사람이 아니라면 / 誰能此別淚如絲 이 헤어지는 마
 당에서 누가 실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 君瑞는 洪履祥의 字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
 전종합DB 원문)

486) 장유, 앞의 책, 제28권 오언 율시 150수 「奉送李侍郎出尹完山」: (전략) 擁節臨關外 闔帥로 변
 방에 나가 있다가 / 橫金入省中 횡금 띠고 臺省에 들어왔어라 / 風流重前輩 풍류로 선배들에 중
 하게 대우 받고 / 禮數及愚蒙 예절로 후배들을 이끌었던 분 / 長物唯琴鶴 가지고 가는 것은 거문
 고와 학 뿐 / 名都又畫熊 이제 또 화웅 타고 명도로 가는구려 / 官梅臘前白 세밑 이전부터 피어
 있을 매화꽃 / 東閣興何窮 동각의 흥취 어찌 한이 있으리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487) 이색, 앞의 책, 제10권 시 「自歎」: 汝髮白汝面黑 네 머리털은 희고 네 얼굴은 검지만 / 內有靈
 臺方寸赤 속에는 한 치의 착한 마음이 들었어라 / 頂戴蒼蒼足蹈黃 머리엔 하늘을 이고 밟로는 땅
 을 밟고 / 手中五色線甚長 손에는 아주 기다란 오색실을 지녔기에 / 上補舜殿垂衣裳 위로는 순
 임금의 의상을 촘촘히 기고 / 六合一縫無綻傷 천지 사방을 터진 데 없이 모두 기워서 / 安燠萬姓
 歸虞唐 만백성 편케 다스려 요순시대 만들라고 했더니 / 人生謬算竟寥落 인생의 잘못된 계획은
 끝내 수포로 가고 / 雪擁空庭對琴鶴 눈 덮인 빈 뜰에 금(琴)학(鶴)을 마주하노라니 / 有時明月滿
 中庭 때때로 밝은 달은 뜰 가운데 가득하고 / 門前流水歸舊壑 문 앞의 유수는 옛 구렁으로 돌아

타난 시기는 벼슬살이를 그만 둔 말년이다. 젊은 시절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했던 ‘포부를 이루지 못함을 스스로 탄식하며 눈 덮인 빈뜰에 ‘금학’을 마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희의 「明遠被臺評將舟下金浦松楸居焉遙賦以贈」⁴⁸⁸⁾에서도 벼슬살이하는 사람이 탐욕을 부리지 않고 거문고와 학을 신변에 두어 즐긴다는 비유의 대상으로 ‘금학’을 들어 청렴하게 벼슬살이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두수의 「次平遠堂韻爲府使時所建」⁴⁸⁹⁾에도 경치 좋은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행장은 ‘학과 거문고 뿐’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김종직의 「次善源贈廬君韻」⁴⁹⁰⁾ 에는 청렴의 상징으로 거문고가 나타나 있다.

가누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488) 신희, 앞의 책, 제16권 시 칠언율시 105수 「明遠被臺評將舟下金浦松楸居焉遙賦以贈」: 簿領沈冥一世豪 공문 처결 원님으로 한 시대 호걸 묻히어 / 七年琴鶴厭塵勞 일곱 해를 금학 속에 실컷 고생하였지 / 征南薏苡名甘挫 정남의 울무 비방에 명예 손상 달게 받고 / 彭澤田園臥自高 팽택의 전원 돌아가 고고하게 누우려네 / 淺碧細傾池上酌 맑고 푸른 못가에서 한가로이 술 따르고 / 團黃快劈手中蟹 둥글고 누런 꽃게를 가뿐하게 쪼개리 / 呼牛呼馬何關己 소니 말이니 하는 말 내게 무슨 관계이라 / 江海悠悠足我曹 넓디 넓은 강해는 우리들 살기 충분해 // 정남의 울무 비방: 정남은 漢 光武帝 때 伏波將軍이 되어 남쪽의 交趾를 정벌하였던 馬援을 가리킨다. 마원이 교지를 평정하고 돌아올 때 약으로 쓰기 위해 많은 양의 울무를 수레로 실어왔는데,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진주를 실어왔다고 비방했다는 데서 나온 말로, 지방의 수령으로 있는 상촌의 아우 鑑이 억울하게 탐욕하다는 비방을 받은 것을 뜻한다. / 팽택의 전원 돌아가: 도연명이 팽택령을 지나다가 전원으로 돌아갔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신감이 수령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 소니 …… 관계이라: 『장자』 「天道」의 “저변에 자네가 나를 소라고 불렀을 때 내 자신도 소라고 생각했고 나를 말이라 불렀을 때 또한 말이라 생각했다.”에서 나온 것으로, 자신에 대한 남들의 실없는 칭찬이나 비방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489) 윤두수, 앞의 책, 제1권 「次平遠堂韻爲府使時所建」: 次韻, 亭榭環滁勝 정자는 환자와 같이 경치가 좋고 / 江湖范老心 강호에서는 범로와 같은 마음이로다 / 經營眞戲劇 경영한 일이라곤 참으로 장난질에 불과하니 / 跬步亦登臨 반걸음 짧은 거리 또한 올라보았네 / 景物詩兼畫 경물은 시에 그림을 겸할 만한데 / 行裝鶴與琴 행장은 학과 거문고 뿐이라네 / 美人何處在 미인은 어느 곳에 있느냐 / 華嶽入沈吟 화악이 깊은 시름 속으로 들어오네 // 環滁: 송나라 歐陽脩의 「醉翁亭記」에 “環滁皆山也 저주를 빙 둘러싼 것은 모두 산이다.”라는 구에서 나온 말로, 여기서는 경치가 좋은 평원당과 비교하기 위해 취옹정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范老와 같은 마음: 범로는 송나라의 명신 范仲淹을 가리키는데, 그의 「岳陽樓記」에서 “廟堂의 높은 곳에 처하면 백성들을 걱정하고 江湖의 먼 곳에 처하면 그 군주를 근심한다.” 라고 하였다. / (紫氣: 貴人이나 귀인의 거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函谷關의 말단 관료인 尹喜는 천문학에 정통하였는데, 老子가 西遊할 적에 그 위 하늘에 자기가 서린 것을 보고 真人이라고 여겨 뒤쫓아 가니, 노자가 그를 기특히 여겨 『道德經』을 지어 주었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卷63 「老子列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490)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제7권 칠언율시 「次善源贈廬君韻」 / 金宗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屢把詩書叩倚廬	여러 번 시서를 손에 쥐고 상중에 거처하는 초막을 찾았더니
人多不足子贏餘	사람은 많지 않았으나 자네는 부족하지 않았네
何須活水勤三沐	어찌하여 일부러 흐르는 물로 자주 머리를 감는데 힘쓰겠는가
終擬長風借一噓	마침내 거센 바람에 견주어 탄식함을 빌렸다
裴几塵侵琴上雁	비자나무 책상의 먼지는 거문고 위의 안죽을 범했고
寒廚日照釜中魚	곤궁한 부엌에는 해가 가마솥 안의 물고기를 비추고 있다
善源眞箇吾同志	선원은 진실로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
故贈鞞鞞珎瑀瑀	그런 연고로 옥으로 된 노리개를 바치노라 ⁴⁹¹⁾

이 글의 ‘裴几塵侵琴上雁’에서는 ‘비자나무 책상에 있는 거문고의 기러기 발에 먼지가 쌓여있었다’고 하였다. 즉, 거문고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문고는 들어 줄 사람이 있어야 연주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글에 나타난 작중 인물에게는 찾아주는 지음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문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때, 일단 ‘가난함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청렴함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색의 시 「有感三首」 중 두 번째 시⁴⁹²⁾에는, 가난하여 거문고를 땀감으로 쓴다는 고사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夜雨侵茅屋	밤중에 비가 와 땀집으로 스며드니
衰翁感嘆長	쇠약한 늙은이 상심이 일어 길게 탄식을 한다
自持工部傘	공부의 우산 손에 쥐고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데
誰對子瞻床	자침의 잠자리를 누가 마주 대하였을까
獨宿彌岑寂	홀로 자다보니 적막함이 계속되니
長歌欲奮揚	떨치고 일어나 보려고 길게 노래를 불러본다
悠悠千載下	아득한 천년 뒤의 오늘날
幾箇襲餘芳	남은 향내에 젖어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491) 김학주 역저, 앞의 책, 166~167면. 「衛風」 ‘木瓜’ : 鞞鞞珎瑀瑀는 投我以木瓜 報之以瑀瑀 “ 한 데서 온 말인데, 즉 서로의 友好를 나타낸 말이다.

492) 이색, 앞의 책, 제32권 시 「有感三首」 중 두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이 글에서는 금이나 거문고가 직간접으로 나타난 문구는 보이지 않으나, ‘子瞻床 자침의 잠자리’에서 소식(蘇軾)의 시에 지붕이 셀 때 우산을 받쳐 들고 있다가, 워낙 ‘가난하여 땀감이 없어 금이라도 때고자 했다’는 고사⁴⁹³⁾를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을 구워 먹고 거문고를 땀감으로 썼다는 駭俗의 예와는 달리 청렴함과 가난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道家的 理想 受容

道家的 음악사상은 老子가 대표한다. 그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몰락귀족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자연계의 변화를 기계적 반복과 순환의 과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소박한 생활로 돌아가려는 환상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여 음악에 있어서도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고전문헌에서는, 벼슬에 뜻이 없어 처음부터 현실을 도피하여 自意的으로 隱逸한 경우와 掛冠·晩年에 자연스럽게 귀향하여 隱居하게 된 경우, 그리고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타의 의지에 영향을 받아 隱遁하게 된 경우 등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도가사상과는 차별되는 우리 고유의 신선도도 발견될 것이다. 이러한 도가적 이상을 수용한 작가들은 고전문헌에서 신선과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지향하는 관점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면으로는 은둔 생활을 수용하는 듯 보이나, 내심으로는 제도권으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심상을 표현한 경우도 있다. 또한 악기를 대함에 있어서도, 줄 없는 악기를 선택하여 연주한다면서 도가적 건지의 높은 경지를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허무주의의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악

493) 工部는 杜甫의 별칭이고 자침은 蘇軾의 字인데, 목은이 공부와 자침을 혼동해서 뒤바꿔 놓은 듯하다. 두보의 시에 “床床屋漏無乾處 雨脚如麻未斷絶 잠자리마다 빗물 새어 마른 곳이 없는데, 삼대 같은 빗발은 끊임없이 퍼붓구나.”라는 구절이 나오고, 소식의 시에 “破屋常持傘 無薪欲爨琴 지붕이 새니 언제나 우산을 받쳐 들고, 땀감이 없으니 이제는 거문고라도 땀까 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10 「茅屋爲秋風所破歌」·『蘇東坡詩集』 卷27 「次韻朱光庭喜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주 참조)

기에 대해 문의한인 작가의 위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가적 이상 수용의 ‘청렴’과 도가적 이상 수용의 문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청빈’은 둘 다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표현하는 어휘들이지만, 문장의 내용을 좀 더 천착한다면, ‘청렴’은 유가적 이상을 스스로 수용한, 즉 탐욕 없는 인품에서 비롯된 선비의 삶에 가깝고, ‘청빈’은 도가적 이상을 수용한, 즉 자타의 이유로 몰락하여 가난하게 된 은자의 삶에 가깝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선비의 단출한 살림에 자주 나타난, 책·거문고·학에서는 작가의 거처에 따라 유가와 도가의 이상이 혼재하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아울러 다른 어휘가 표현된 여러 문장 안에서도, 유가적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유가와 도가의 이상이 오버랩(overlap)되고 있는 문학적 영상⁴⁹⁴⁾이 계속 발견되리라 보인다.

1. 自意的 이상 수용

이규보의 「白雲居士傳」에는, 스스로 실천에 옮긴 삶 속에 도가적 이상이 잘 나타나 있다.

白雲居士는 선생의 자호이니, 그 이름을 숨기고 그 호를 드러낸 것이다. 그가 이렇게 자호하게 된 취지는 선생의 『白雲語錄』에 자세히 기재되었다. 집에는 자주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를 잊지 못하였으나 거사는 스스로 유쾌히 지냈다. 성격이 소탈하여 단속할 줄을 모르며, 우주를 좁게 여겼다.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혼미하였다.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반갑게 나가서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아마도 옛적 도연명의 무리라.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이것은 그의 기록이다. 거사는 취하면 시를 읊으며 스스로 傳을 짓고 스스로 贊을 지었다. 그 찬은 이러하다. “뜻이 본래 천지의 밖에 있으니, 하늘과 땅도 그를 얹매지 못하리로다. 장차 元氣의 母體와 함께 무한한 공허의 세계에 노니리라.”⁴⁹⁵⁾

494) 주) 436)의 예문과 본고 184~186면의 내용 참조.

495) 이규보, 앞의 책, 제20권 傳 白雲居士傳 : 白雲居士 先生自號也 晦其名顯其號 其所以自號之意 具載先生白雲語錄 家屢空 火食不續 居士自怡怡如也 性放曠無檢 六合爲隘 天地爲窄 嘗以酒自昏

가난했으나 우주를 좁게 생각하는 등 호방한 기개를 보였으며,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하였다. 도연명의 행적처럼 살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은자를 자처하며 太初의 기운과 함께 空虛의 세계에서 노닐겠다고 하였다.

서거정의 「贈吳鄰老孝永」⁴⁹⁶⁾에는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의 고사 등을 인용하여 자신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吳君大隱市城頭	오군은 대은 ⁴⁹⁷⁾ 으로 성곽의 위 저자에 살면서
龜鶴精神七十秋	거북과 학 같은 정신으로 칠십의 나이가 되었네
早歲掛冠眞自適	젊은 시절에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 참으로 유유자적하였으니
浮名脫屣復何求	헛된 명성을 켜신 벗듯 하고 또 다시 어찌 구할 것인가
朝廷豈少嵇中散	조정에서는 어찌 嵇中散을 소홀히 여기겠는가 ⁴⁹⁸⁾
閭里皆稱馬少游	여향에서는 모두가 마소유라고 부르는데 ⁴⁹⁹⁾
自愧功名頭白盡	공명을 좇다가 머리가 다 희어진 게 스스로 부끄러워라
十年行止謾悠悠	십 년 간의 종적이 아득하기만 하구나

人有邀之者 欣然輒造 徑醉而返 豈古陶淵明之徒歟 彈琴飲酒 以此自遣 此其錄也 居士醉而吟 自作傳 自作贊 贊曰 志固在六合之外 天地所不囿 將與氣母遊於無何有乎.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496) 서거정, 앞의 책, 제30권 시류 「贈吳鄰老孝永」(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497) 몸은 朝市에 있으면서도 뜻은 아주 고상한 데에 있는 것을 이른다. 쑤나라 王康琚의 反招隱 시에 “小隱隱陵藪 大隱隱朝市 伯夷竄首陽 老聃伏柱史 소은은 산림 속에 숨고, 대은은 조시에 숨나니, 백이는 수양산으로 도망갔고, 노담은 주하사에 은복하였네.”라고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498) 嵇中散은 진나라 때 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일찍이 中散大夫를 지낸 嵇康을 가리키는데, 혜강의 친구인 山濤가 일찍이 자기의 官職을 대신하도록 혜강을 천거한 데 대하여, 혜강이 絶交書를 지어서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 절교서의 대략에 “今但願守陋巷 敎養子孫 …… 濁酒一杯 彈琴一曲 志願畢矣 지금 나는 다만 누추한 시골을 지키고 살면서 자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거문고 한 곡조만 탈 수 있다면 내 소원은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499) 馬少游는 後漢의 名將 馬援의 從弟이다. 마원이 일찍이 南方인 交趾로 정벌을 나가서 적군 수천 級을 斬獲하고 크게 격파하여 新息侯에 봉해졌다. 이때 군사들을 犒餼하면서 부하 官屬에게 이르기를 “나의 종제 少游가 일찍이 말하기를 ‘신비가 세상에 나서 衣食이나 해결할 만하여 下澤車를 타고 款段馬를 몰고 선영의 墳墓나 잘 수호하며 조용히 지내서 향리로부터 善人이란 말만 들으면 될 것이요, 넘치는 행복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괴로울 뿐이다.’라고 하더니, 내가 이곳에 와서 미처 虜를 멸하기도 전에 瘴熱의 薰蒸으로 인하여 술개가 水中으로 툭툭 떨어지는 것을 쳐다보면서, 내 종제가 평상시에 하던 말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후한서』 卷24 「馬援列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거문고 한 곡조만 탈 수 있다면 내 소원은 다 이루는 것’이라고 했던 진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의 고사가 나타난 예문이다. 작가는 청렴한 중국의 옛 명사들을 시상에 끌어 들여 공명을 쫓던 자신의 십 년 간의 종적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서거정의 시 「次逍遙亭見寄詩韻」⁵⁰⁰⁾에서는, 중국 고대 은자들의 고사를 내세워 자신의 소박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讀君詩律中宮商	그대의 시를 읽어보니 운율이 궁·상 ⁵⁰¹⁾ 에 치우치지 않네
出處閑忙已了腸	출처와 한가롭고 바쁨을 이미 마음으로 잘 이해하였네
謝老一生愛丘壑	사로는 평생 산수를 좋아했으며 ⁵⁰²⁾
陶君千載稱酒觴	도군 ⁵⁰³⁾ 은 천 년 세월 술 즐기는 것으로 칭송되어 왔네
掩門獨坐青山近	문을 가리고 홀로 앉아 있으면 청산이 다가오고
揮麈高談白日長	주미 ⁵⁰⁴⁾ 를 내저으며 고담 나누려면 여름 낮은 길기만 하다
斗室蕭然無俗物	적막하고 조용한 작은 방에 세속의 물건은 없고
藥爐茶鼎共琴床	약화로 · 차술 그리고 금상 위의 거문고가 모두라

중국 고대 은자들의 성품과 삶에 대한 것 등을 시상에 늘어놓은 다음, 그들의 삶을 모방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세속의 물건은 없고 살림살이가 화로 · 술 · 거문고 뿐’이라고 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박하게 살았는지는 이 시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김시습⁵⁰⁵⁾의 오언율시 「閑適」⁵⁰⁶⁾에는 당대의 재사로 일컬어졌지만, 승

500) 서거정, 앞의 책, 제50권 시류 「次逍遙亭見寄詩韻」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01) 五音의 宮音과 商音을 합하여 칭한 것으로, 전하여 악곡이나 시가의 음조를 말한다. (필자 주)

502) 사로는 東晉의 명신 謝安을 가리킨다. 사안은 40세에 이르도록 東山에 은거했는데, 그는 특히 당대에 풍류와 雅量이 높기로 유명했던 바, 매양 내외 子姪들과 기녀들을 거느리고 동산의 별장에서 주연을 꾸미하게 베풀고 풍류를 한껏 즐기기도 했었다. 두보의 「奉觀嚴鄭公廳事岷山沱江畫圖十韻」시에 “從來謝太傅 丘壑道難忘 예전에 사 태부도, 산수의 뜻을 잊기 어려웠었네.” 라고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03) 동진의 처사 ‘陶潛’을 가리킨다. ‘陶君’은 곧 그를 ‘徵君’이라 칭하는 데서 온 말인데, 정군은 조정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학덕 높은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04) 麈尾: 고라니의 꼬리털로 만든 먼지떨이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淸談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가졌고, 후세에는 佛徒들도 이것을 많이 가져서 설법할 때에 흔히 사용했다고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05) 이기백, 앞의 책, 242면.

506)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제6권 오언율시 閑適 / 김시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려의 행색을 하고 방랑으로 일생을 마친 자화상을 그려 놓았다.

自少無關意	젊어서부터 세상 일에 뜻을 두지 않았더니
而今愜素心	지금은 평소의 생각에 흡족하다
種花連竹塢	대나무 독에 줄줄이 꽃씨를 심고
蒔藥避棠陰	아가위 그늘 피해 약초 모종을 낸다
苔蘚人蹤少	사람의 자취가 적어 이끼가 끼고
琴書樹影深	나무 그늘 깊은 곳에는 거문고와 책이 있다
從來樗散質	지금까지 내려온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질에다
更與病侵尋	다시 병이 찾아들어 점점 깊어지니

젊어서부터 세상 일에 뜻을 두지 않고, 텃밭에 농사나 지으며, ‘거문고와 책을 가까이 하면서 소박하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 이라고 자평하면서 병이 찾아온다고 하였다.

한편, 신희의 오언율시 「暮坐」⁵⁰⁷⁾에는, 봉황의 덕이 쇠해졌음을 깨닫게 되어⁵⁰⁸⁾ 은거할 만한 자리에 들어 맑은 물에 더럽혀진 귀를 씻을 만하고⁵⁰⁹⁾, 연잎이 많아 옷을 짓기에 넉넉하니⁵¹⁰⁾, 때로는 홀로 거문고를 타기도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였다. 또 서거정의 시 「月下彈琴」⁵¹¹⁾에서는, 부드러운 비단 휘장처럼 온화한 봄기

DB 원문)

507) 신희, 앞의 책, 제10권 시 오언율시 135수 중 「暮坐二首」 중 두 번째 시 : 鳳德知衰矣 봉황의 덕이 쇠해졌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 雲林自可依 구름이 걸쳐 있는 숲에 스스로 의지하여 은거할 수 있게 되었네 / 水清堪洗耳 물이 맑아 속세의 일에 더럽혀진 귀를 씻을 만하고 荷密足爲衣 연잎이 뽕뽕하여 옷을 짓기에 넉넉하겠네 / 緩步隨山澗 산골 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서서 長竿坐釣磯 긴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낚시터에 앉았다네 / 古琴時下指 오래된 거문고를 때로는 타는데 / 不嘆賞音稀 내 음악을 감상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한탄치는 않는다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08) 태평성대를 이룩할 자신의 역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임. 봉황은 성군이 나오면 나타나는 상서로운 새로서 상춘 자신을 비유한 것임. 『論語』 「微子」에 “鳳兮鳳兮 何德之衰 봉황새야, 봉황새야, 너의 덕이 어찌하여 이렇게도 쇠해졌니.” 하였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09) 요임금이 許由를 불러 九州의 長官을 삼겠다고 하자, 허유는 그 말을 들은 것이 부끄러워 潁水에서 귀를 씻었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도를 즐기며 고고한 뜻을 지키는 은사의 생활을 형용한 것임. (『高士傳』 권상 「許由」)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10) 『楚辭』 「九歌」 ‘少司命’의 “荷衣兮帶 儵而來兮忽而逝 연잎 옷에 혜초의 띠를 띠고 금방 왔다가 훌쩍 떠나네.” 에서 나온 것으로 역시 은사의 생활을 말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11) 서거정, 앞의 책, 제44권 시류 「月下彈琴」: 春溫如玉羅幃縠 봄기운은 부드러운 비단 휘장처럼

운⁵¹²⁾ · 복사꽃 · 수놓은 발이 걸려있는 아름다운 규방⁵¹³⁾ · 沈香 · 隱逸 · 달
밤 등 계절 · 시각 · 후각 · 청각 · 脫俗한 분위기 등 ‘선경 같은 배경’을 모
두 다 갖추어 놓은 다음, 거문고를 타고 있으나,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였다.

2. 掛冠 · 晩年の 이상 수용

권상하의 「平沙閔士昂以其壁上諸作送示求和」⁵¹⁴⁾에는 벼슬을 그만 두고
나서의 삶을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重重煙霧洞天深	겹겹이 피어오르는 안개 연기처럼 하늘에 맞닿은 골짜기
可愛清流與茂林	맑게 흐르는 무성한 숲 가히 사랑스럽고
靜坐默觀千聖意	단정하고 조용히 앉아 성현의 뜻을 말없이 관조하노니
高居肯許一塵侵	존귀한 거처에 어찌 한 점 티끌의 침범을 허락하겠는가
已從叢桂期終老	이미 계수나무 숲에서 생애를 마칠 것을 기약하였으니
暫謝柴荆豈素心	누추한 시골집 잠깐 떠남을 어찌 본심이라 하라
待得歸來賦就日	기다리다 귀거래사 이루어진 날
孤琴蘿逕慣相尋	외로운 거문고와 함께 덩굴 길 버릇대로 서로 찾아보세

閔士昂이 金井驛丞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그만두려고 했다. 그러나 감히
아버이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이
에 권상하가 ‘벼슬을 그만두는 날 거문고로 덩굴 길을 서로 찾아보자는 의

온화하고 / 屋角桃花紅錦萼 집 모퉁이에는 붉은 비단 같은 복사꽃송이 / 綠窓珠戶捲繡簾 아름다
운 집의 규방에는 수놓은 발을 돌돌 감아올렸고 / 水洗一炷黃金鴨 누런 향로엔 수침향 한 심지
피워 놓고 / 高人早有遺世心 뜻이 높고 고상한 사람은 일찍이 세속을 떠난 마음이 있어 / 整襟坐
撫瑤徽琴 옷깃을 여미고 앉아 아름다운 옥 거문고를 타니 / 清夜沈沈一輪月 둥근 달 아래 맑은
밤은 깊어만 가네 / 高山流水無知音 태고의 고산유수를 알아듣는 지음이 없구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12) 『시경』 「秦風」 ‘小戎’에 “言念君子 溫其如玉 군자를 생각하니, 온화함이 옥 같도다.” 라고 하
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13) 綠窓珠戶의 녹창은 綠色의 紗窓으로 여자의 거실을 가리키고, 주호는 珠玉으로 장식한 문인데
흔히 閨房을 가리킨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14) 권상하, 앞의 책, 제1권 시 「平沙閔士昂以其壁上諸作送示求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원문)

견을 제시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는 쯔나라 도잠이 彭澤丞을 지내다가 그만 두고 돌아오면서 귀거래사를 지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이규보의 「又以長篇二首求墨竹與寫眞并序」 중 「求寫眞」 515)에서는 掛冠 후의 삶이 나타나 있는데, 즐거운 일이란 오직 거문고와 술 뿐이니 세상의 한가한 한 늙은이로 지내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규보의 「祭李平章光挺文代希禪師行」 516)에서는 담박하고 검소했던 다른 선비들의 생활과는 달리 ‘영화를 누리며 사치했던 기록’도 보이고 있다. 벼슬을 그만 두고도 음악과 여색을 가까이 한 사례도 관찰되고 있다.

한편, 이색의 시 「小雨三首」 517)에서는, 도연명의 ‘葛巾漉酒의 고사⁵¹⁸⁾’를 인용하여 ‘거문고와 책으로 노후에 담박한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도연명의 학덕을 기린 나머지 그의 삶마저 모방하려는 의지가 나타난 시이다.

이색의 시 「左尹兄見和前韻有對床風雨之語復作一首」 519)에서는, 이색이 병

515) 이규보, 앞의 책, 제4권 고을시 98수 「又以長篇二首求墨竹與寫眞并序」 중 「求寫眞」: (상략) 予雖么麼驅 나는 비록 작고 하찮은 몸이기는 하나 / 歷位足馳驟 관직을 지내느라 매우 바쁘게 달려왔네 / 慕道亦云深 도를 흠모함 또한 깊어서 / 心地了無垢 마음의 본바탕에는 분명히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네 / 年亦過七旬 나이 또한 칠순이 지났으니 / 似可謂之壽 오래 살았다고 이를 수 있을 것 같네 / 怡然乞身退 즐거운 마음으로 사직서를 내고 물러났었고 / 所樂唯琴酒 즐거운 일이란 오직 거문고와 술뿐이니 / 笑哉復何疑 우습구나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 天地一閑叟 세상의 한가한 한 늙은이라 / 寫之尙不妨 그래도 오�히려 무방할 것이니 / 以此卜然否 이것으로써可否를 결정하리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16) 위의 책, 제37권 「祭李平章光挺文代希禪師行」: (前略) 獨我夫子 摠而有之 出而爲將 豹轟紅旗 入而爲相 玉鉉黃扉 將相之榮 惟公兼資 列屋蛾眉 窈窕嬋妍 日擁珠翠 吸簫按絃 雖至懸車 旅力不愆 聲色之嗜 不減壯年 유독 우리 선생께서는 영화와 향락을 다 겸하셨으니, 나가면 장수가 되어 표범 무늬의 가마에다 붉은 旗의 행차이며, 들어오면 정승이 되어 구슬 패물에다가 금빛 사립이라, 장수와 정승의 영화를 공이 다 차지하셨는가 하면, 이집 저집의 아리따운 여인들 그 아양 떠는 속에서 날마다 구슬을 안고 향기를 마시고 거문고를 탔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서도 근력이 좋아서 聲色을 즐기심이 젊을 때 못지 않았습니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517) 이색, 앞의 책, 「목은시고」 제11권 시 「小雨三首」 중 마지막 시: 素琴黃卷室無塵 먼지 없는 방안에는 줄 없는 거문고와 누런 책만 있고 / 頭上淵明漉酒巾 머리 위엔 도연명의 술 거르던 갈건을 썼네 / 淡泊老來還有味 늙어가니 깔끔하고 번잡하지 않는 생활이 도리어 재미가 있으니 / 羲皇上世是何人 태고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 바로 누구이던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18) 羲皇은 상고 시대 伏羲氏를 가리키는데, 쯔나라 隱士 陶潛이 분디 音律을 알지 못하면서도 평소 줄 없는 거문고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흥을 부치었고, 또 잘 익은 술을 만나면 머리 위에 쓴 葛巾을 벗어서 그 술을 다 걸러 먹고는 다시 그 갈건을 머리에 썼으며, 또 일찍이 스스로 회황 이상 시대 사람이라고 자칭했던 데서 온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19) 이색, 앞의 책, 「목은시고」 제31권 시 「左尹兄見和前韻有對床風雨之語復作一首」: 靜處寧教谷鳥驚 고요한 골짜기의 새를 어찌 놀라게 했을까 / 琴書一室足平生 방 한 칸에 거문고와 책이면 평

란을 당해 떠도는 신세 가 된 외형 金左尹⁵²⁰)을 그리워하며 그의 인품을
 읊은 가운데, ‘단칸방에 거문고와 책이면 흡족할 것’이라 표현하였으나, 작
 가인 이색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귀농하겠다고 하였지
 만, 아직은 관직에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표현한 것을 살펴보
 면, 결국은 ‘말만으로 소박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神仙道 이상 수용

이규보의 「北山雜題九首」 중 네 번째 시⁵²¹)에서는 仙境이란 만한 환경을
 표현하였다.

岸幘倚青松	건을 젖혀 이마를 드러내고 푸른 소나무에 기댄 채
拂琴掃白石	거문고의 먼지를 털어내고 흰 바위를 쓸어내는데
落瀑截翠微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는 청록색 산허리를 끊어버리고
寒峯界危碧	잠잠하던 봉우리는 푸름의 경계에 위태롭게 솟아 있네

의관의 격식도 잊어버리고 푸른 소나무에 기댄 채 거문고를 털어내고
 흰 바위를 쓸어내는데, 하얗게 부서지는 물줄기가 청록색 산허리의 중심에
 흩뿌려지고, 잠겨있던 산봉우리가 푸름의 경계에 아스라이 서 있다고 하였
 다. ‘仙境이라 할 만큼 靑白色의 맑고 밝은 시상의 풍경이다. 작가의 자유
 로운 상상력대로, 스스로의 의지를 펼쳐 넘나들만한 우주의 공간을 그려
 놓은 것’ 같다. 임춘(林椿, 1328~1396)의 「逸齋記」⁵²²)에서는, 언제나 복건

생토록 흡족할 뿐인 것을 / 心期報國還無術 마음이야 충성을 다짐하지만 다시 돌아가 실천할 방
 법이 없으니 / 口說歸田似不情 입으로야 귀농을 말하지만 속마음은 아닌 것 같네 / 風定天容寒更
 甚 바람은 자나 날씨는 추위가 더 심해지고 / 雲濃雪意晚來成 짙은 구름이 눈을 머금더니 날이
 저물어 눈발이 날리네 / 老衰骨肉恩逾重 늙고 쇠해짐에 빗줄의 정은 점점 더 애뜻해지는데 / 夜
 話何時直到明 언제나 날이 밝도록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
 문)

520) 조용한 산골 마을에 병란이 발생했다는 말이다. 「목은시고」 제30권에 “外兄 金左尹이 寧海에서
 왔기에 서로 만나게 된 것이 기뻐서 짧은 시를 읊조리다.” 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鄉里優游
 自少年 干戈飄泊在華顛 소년 때부터 자유롭게 뛰놀던 시골 마을, 백발의 몸 지금은 병란을 당해
 떠도누나.”라는 구절이 나온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21) 이규보, 앞의 책, 제5권 고을시 44수 「北山雜題九首」 중 네 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DB 원문)

에 학창의를 입고 黃庭經과 거문고를 좌우에 두고, 혹여 ‘거문고라도 울리게 되면 지나간 사람들이 선선으로 착각하게끔 하였다’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한편, 이색의 시 「題山水圖」⁵²³⁾에서는 언제라도 신선이 사는 환경에서 편히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깊고 깊은 산 속의 정자와 소나무 몇 그루 있는 곳에서, 평상의 거문고와 뜰의 학을 마주하던 옛 정자의 풍경을 그리면서, ‘언제쯤이라도 마음 편하게 신선처럼 살고 싶다’는 심정을 읊고 있다. 또 석굉연(釋宏演)의 칠언율시 「題劉仙巖」⁵²⁴⁾에서는, 피서차 산에 있는 대에 오르니 신선이 사는 궁전 같은 곳이다. 높고 고상한 사람은 대숲 밖으로 거문고를 안고 나오고, 샘물을 길어다가 술 대신 산 속의 차를 신선처럼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다.

고려시대 海東孔子로 불리던 최충(崔冲, 984~1068)의 「絕句」⁵²⁵⁾에는, 선

522) 서거정 등, 앞의 책, 제65권 記「逸齋記」/ 林椿：(前略) 世之有道之士 體是道者 惟海東李左司一人而已 仲若 先生名也 子眞 先生字也 (中略) 齋之北 有小嶺蔚然秀出而聳立 者 名爲玉電峯 恒以幅巾鶴氅 登其頂 燕坐彌日 如抱葉之蟬 凝目之龜 澹乎自處 黃庭在左 素琴在右 或撫而弄之 聲振林木 樵蘇遇之 以爲神仙也 至今其迹宛然 每煙消雨霽 萬竅不呼 泠泠清響 如在人耳. 세상에 도를 지닌 학자로서 이러한 도리를 체득한 문은 다만 우리나라의 李左司 한 사람뿐이다. 仲若은 선생의 이름이요, 子眞은 선생의 字이다. (중략) 재의 북쪽에 작은 고개[嶺]가 있는데 웅장하게 우뚝 솟아 오른 것은 이름을 玉電峯이라 한다. 언제나 幅巾을 쓰고 鶴氅衣를 입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홀로 앉아 있는데 나무 앞에 붙어 있는 매미나 눈을 감고 있는 거북과 같았다. 담담히 혼자서 거처하는 데에는 왼편에는 『황정경(黃庭經)』이 있고 오른쪽에는 거문고가 있었다. 간혹 어루만지며 이를 통기면 소리가 숲에 울려 나무꾼들이 지나가다가 신선인 줄로 생각하였다. 지금도 그 자취가 완전히 남아 있어, 연기가 사라지고 비가 개인 다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때면 또렷한 맑은 소리의 여운이 사람의 귀에 들리는 듯하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523) 이색, 앞의 책, 제8권 시「題山水圖」：慘慘愁肝腎 간장·신장이 다 타들어 가는 것 같이 마음이 몹시 슬프고 괴로워 / 紆餘散腰脚 허리와 다리는 늘어져 남은 힘마저 달아났구나 / 千里又萬里 천 리에 또 만 리 까지 멀어진 / 一丘復一壑 하나의 언덕에다 또 다시 하나의 골짜기라 / 古亭松數株 옛 정자엔 소나무 몇 그루 / 床琴對庭鶴 평상의 거문고는 뜰의 학을 마주하였네 / 何時托幽棲 언제쯤이나 그윽한 보금자리에 의탁하여 / 人境共洒落 사람과 처지 모두가 상쾌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려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24) 서거정, 앞의 책, 제17권 칠언율시「題劉仙巖」/ 석굉연 2수 중 두 번째 시：避暑看山上石臺 더위를 피하고 산도 볼 생각에 돌을 쌓아 만든 대에 오르니 / 紫霞宮殿一時開 신선이 사는 궁전이 단번에 열렸네 / 松陰圍座靑凝嶂 숲 그늘이 둘러 앉아 푸름이 산봉우리에 머물렀고 / 櫚葉連山翠作堆 떡갈나무 잎이 산에 이어져 파랗게 쌓여졌네 / 童子雲中採藥去 동자는 구름 속으로 약초를 캐러 가고 / 高人竹外抱琴來 뜻이 높고 고상한 사람은 대숲 밖으로 거문고를 안고 나오네 / 汲泉旋煮山中茗 샘물을 길어다가 산 속에 있는 차를 다리니 / 不用蒲萄浸酒杯 포도주가 스며든 술잔은 쓰지 않는다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25) 위의 책, 제19권 칠언절구「絕句」/ 최충：滿庭月色無煙燭 정원에 가득 찬 달빛은 연기가 없는 촛불이요 / 入座山光不速賓 자리로 들어오는 산의 빛은 부르지 않은 손님이라 / 更有松絃彈譜外 술 거문고가 있어 악보에 없는 가락을 다시 타니 / 只堪珍重未傳人 다만, 진기하고 소중한 여

경과 같은 분위기에서 술 소리가 자연의 음향을 연주하니 진기하고 소중하게 여겨 못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규보의 고을시 「次韻吳東閣世文呈誥院諸學士三百韻詩并序」⁵²⁶⁾에는,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가 섬돌과 추녀의 평고대를 가린 분위기⁵²⁷⁾에서 ‘학을 길들이고 거문고로는 맑은 물⁵²⁸⁾을 연주하고, 문장을 다듬어서 옥을 찾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또 이이의 『石潭日記』의 「處士 成運에 관한 글」⁵²⁹⁾에는 산수가 좋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한가한 날이면 소를 타고 가서 쓸쓸히 홀로 앉아 가끔 ‘거문고를 두어 곡을 타며 자적할 뿐’ 이었고, 쉼을 즐기며 학문을 좋아하였고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으며, 살림살이에는 있고 없는 것을 묻지 않으며 ‘간혹 끼니를 굶는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상의 예문들을 살펴볼 때, 작가들 대부분이 도가적 이상과 함께 은둔의 삶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은일의 삶을 누렸던 은자와 같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물론 애당초 그러한 삶을 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는 掛冠이나 晩年에 자연스럽게 이행된 歸農의 현상으로 나타난 점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은둔의 삶에 대하여는 적잖은 위선이

거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마시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26) 이규보, 앞의 책, 제5권 고을시 44수 중 「次韻吳東閣世文呈誥院諸學士三百韻詩并序」: (전략) 玉羽馴他鶴 옥우의 학을 길들이고 / 莎鞭射却鷗 채우의 켑을 화살을 날려 쫓아버렸네 / 美琴彈淥水 멋진 거문고로 맑은 물을 연주하고 / 琢句覓清琪 문장을 다듬어 맑은 옥을 찾는다 / 綠竹環階砌 푸른 대나무는 편편하고 길쭉하게 다듬은 섬돌을 둘러싸고 / 青松蔭梧櫳 푸른 소나무는 추녀의 평고대를 가렸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27) 景福殿賦의 註에는 連簷木으로 표기하였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28) 樂府 琴曲의 가사 이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29) 이이b, 『石潭日記』 「石潭日記卷之下」 萬曆七年己卯 1579년(선조2) 處士 成運에 관한 글. (前略) 處士成運卒 運守靜山林 謝絕世紛 餘四十年 距家數里 有溪壑可玩 築小室其間 每閑日騎牛而往 蕭然獨坐 有時彈琴數曲 自適而已 人有願聽者 皆不爲彈 樂善好學 與物無忤 居家不問有無 簞瓢或空 晏如也 明廟朝 薦以遺逸拜六品 徵至京城 病不能進見 辭職而歸 今上朝 屢召以爵命 皆不至 特賜穀帛 以優其老 是時卒 上命致別賻 學者推之爲大谷先生. (後略) 처사 成運이 죽었다. 성운은 산림에 고요히 살며 분요한 세상을 사절한 지 40여 년이었다. 집에서 두어 마장 떨어진 곳에 산수가 좋은 곳이 있어서 작은 집을 그 사이에 짓고 한가한 날이면 소를 타고 가서 쓸쓸히 홀로 앉아 가끔 거문고를 두어 곡 타며 자적할 뿐이었다. 거문고를 들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오히려 타지 않았다. 쉼을 즐기며 학문을 좋아하였고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다. 살림살이에는 있고 없는 것을 묻지 않으며 간혹 끼니를 굶는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생각하였다. 명종 조에 遺逸로 천거되어 육품에 제배되어 서울까지 왔으나 병으로 알현하지 못하고 사직하고 돌아갔다. 금상이 여러 번 爵名을 더하여 불렀으나 번번이 오지 아니하니, 때때로 곡식과 포백을 내리어 노인으로 우대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임금이 특별히 賻儀를 명하였고, 학자들이 大谷先生이라 추존하였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도교적 仙境이라 할 만한 곳을 직접 찾아가거나, 스스로 조성하여 복장
마져 갖춘 다음에 도교적 정서를 만끽하고자 시도한 사실 등을 표현하고
있다. 유가적인 엄격한 사회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망중한이라도 즐기
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을 충족시켜
주는 가운데 도가적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신적인 품격을 양성시키고
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世俗的 受容

고전문헌에 투영된 거문고에는 태고의 소리·통치수단·백성교화·풍속
· 선비나 관료로서의 상징성 등 禮樂과 공적인 측면에 관한 것과, 유가적
· 도가적 사유 즉 이념적·철학적인 논의의 대상이 수록되어 있다. 이 단
락에서는 전자의 대상을 제외한, 평범한 일상에서 다양하고 다채롭게 일어
나는 사적인 생활, 즉 소시민적 심사에 대하여, 風流的·自慰的·餘暇的·
情緒的·比喩的 수용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風流的 수용

풍류는 일반적으로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라 알려져 있다. ‘풍
류’라는 어휘가 최초로 수록되어 있는 최치원의 『鸞郎碑』序⁵³⁰⁾에는 다음
과 같은 기록이 나타나 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敎’를 만든 근원은 『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핵심은 3교(儒·佛·仙)를 포함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다.”

530) 김부식 찬, 최호 역해, 앞의 책, 80면 : “國有玄妙之道曰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內包含三敎
接化群生.”

이러한 사상체계를 갖춘 풍류는 신라 화랑의 중심 사상으로 이어져 왔다. 화랑들의 풍류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相摩道義, 相悅歌樂, 遊娛山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서로 도의를 연마하고, 서로 음악을 즐기고, 산수를 즐기면서 논다는 말이다. 화랑들이 즐겼던 풍류는 서정·서경적 오락에다 사람의 도리를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풍류란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놀되,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즐기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또 풍류는 취미생활을 뜻하기도 하며, 줄(현악 중심)풍류·대(관악 중심)풍류에서처럼 전통음악의 악곡명으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연주함도 풍류라 일컫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거문고·술로 풍류를 즐기는 작가나 작중인물들의 심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약용의 「題畫」 531)에는 배자루에 거문고를 담아 나귀에 싣고 어디론가 유람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자취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깨끗한 옷차림으로 거문고를 당나귀에 싣고 해금강일지는 모르지만 어디론가 풍류를 즐기려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면을 살필 때, 작가의 부러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기대승의 「癸亥圓機再用詩字韻寄示同龍門和呈遂與往復」 532)에서는 봄철에 한가로이 유람하는 것이 원래 스스로 좋아하는 일이라 하였다. 그리고 풍류심이 절로 일어 한잔 술에 회포를 풀고 거문고를 타게 되니, 봄날을 맞아 유람을 가고 싶다는 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고려 중기의 문인인 이규보의 「草堂日暮值琴客置酒」 533)에서는 한가한

531) 정약용, 앞의 책, 제2권 시 「題畫」: 沙上靑驢路 모래 위로 검푸른 당나귀 길 가는데 / 琴頭皁布囊 배자루에는 거문고의 머리가 검게 보이네 / 客裝殊洒脫 나그네의 옷차림은 유달리도 깔끔하니 / 疑向海金剛 아마도 해금강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32) 기대승, 앞의 책, 제1권 「癸亥圓機再用詩字韻寄示同龍門和呈遂與往復」 중에서: 得酒生新興 술을 얻어 새 흥이 일지만 / 疎狂已諱詩 거칠고 황급해서 이미 시를 꺼리네 / 樓雲霏漸合 누대의 구름에는 비가 흩날리다 점점 모여들고 / 池月影初奇 연못에 비친 달그림자는 시작부터 기이하여라 / 玉筯開懷遠 옥 술잔에 묵은 회포 풀리고 / 瑤琴下指遲 요금(瑤琴)에 천천히 손가락을 내려놓는다 / 清遊元自勝 한가로이 유람하는 것이야 분디 좋아하는데 / 行樂況春時 더군다나 봄날에 즐겁게 노니는 때임에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33) 이규보, 앞의 책, 제13권 고을시 「草堂日暮值琴客置酒」: 落日無端百感生 해가 떨어지자 온갖 생각이 실없이 일어 / 茅齋閒坐若爲情 떠집에 한가히 앉았노라니 정회 사뭇 새로워 / 霜風釀作秋光醞 찬바람은 가을빛을 진하게 빚어 놓았고 / 煙月裝成晚景清 놀과 달빛은 저물녘 경치를 맑게 장식하였구나 / 賴有故人彈綠綺 옛 친구가 찾아와 綠綺琴을 울리는데 / 時呼稚子酌烏程 때 맞춰

때, 가을날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가, ‘거문고를 잘 타는 옛 친구를 맞이 하여, 한 곡조에 한 잔씩 술을 나누며 집안에서 풍류를 즐기는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석양에 한가히 앉아서 저물녘 가을 경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옛 친구가 찾아와 거문고를 울리자, 侍妾을 불러 술을 따르게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곡조 끝날 때마다 한 잔씩 따르기로 작가가 먼저 정하였다고 하였다. 거문고의 연주를 한 곡조 씩 감상하면서 끝나는 대목마다 한 잔씩 술을 마시는, 즉 ‘거문고의 울림과 취흥이 점차 무르익어가는 방식으로 풍류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려 말의 유학자인 이달충의 「金晦翁南歸作村中四時歌以贈」⁵³⁴⁾에서도 ‘술을 지고 거문고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한 잔에 한 곡조, 그윽한 흥을 돋우어 저녁까지 어울린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한편, 고려 말의 학자인 이색의 시 「得寧海金左尹書」⁵³⁵⁾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었던 좋은 시절’에 정자 위에서 ‘술을 마시면서 거문고를 타며 즐길 수 있었던 풍류를 회고’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박은(朴闇, 1479~1504)의 「泛興陽浦晚登亭縱飲」⁵³⁶⁾에서도 ‘친구들을 만나서 음식과 술을 풍족하게 실은 배를 띄워, 피리와 통소를 불고 거문고를 타면서, 해질 녘까지 춤을 추며 놀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모두 술과 거문고로 풍류

어린 아이를 불러 오정주를 따르게 하였네 / 此時酒令吾先畫 이때 내가 먼저 술을 마시는 방식을 정해 놓고 / 弄一聲來輒數觥 한 곡조 끝날 때마다 한 잔씩 따랐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34) 서거정 등, 앞의 책, 제7권 칠언고시 「金晦翁南歸作村中四時歌以贈」 / 李達衷 : (전략) 雖無心交共清吟 비록 같이 읊는 마음의 친구 없어도 / 亦有好事來相尋 또한 서로 찾는 호사자는 있다 / 白頭野老擔美酒 머리 흰 들 찻지는 술을 지고 / 綠骨山人携素琴 뼈 푸른[소동파의 시구] 산 사람은 거문고 메다 / 一觴一曲愜幽興 한 잔, 한 곡조 그윽한 흥을 돋구어 / 相將未覺生夕陰 서로 어울려서 저녁 그늘지는 줄 몰라라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535) 이색, 앞의 책, 「목은시고」 제12권 시 「得寧海金左尹書」 : (전략) 流沙亭上酒杯深 유사정 위에서 술잔 가득 부어 마실 제 / 記得清歌月滿琴 맑은 노래 달 가득 거문고가 기억나누나 / 前輩風流誰復繼 전배들의 풍류를 누가 다시 이을 건고 / 邇來烽火照雲林 근래에는 구름숲에 봉화가 마냥 비추리 (후략) // 流沙亭 : 영해에 있는 정자 이름인데, 목은이 일찍이 그 記文을 지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536)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제3권 오언고시 「泛興陽浦晚登亭縱飲」 / 朴闇 : 有羞從滿盤 만가득 음식이 많아 좋으니 / 有醕亦盈壺 술도 또한 병속에 가득 / 相逢幸無事 우리 만나 다행히 무사하니 / 不飲非我徒 술 아니 먹으면 친구 아닐세 / 急角競清簫 급한 피리 맑은 통소 다투어 불고 / 古琴與之俱 옛 거문고 한 곡조를 어울려 타니 / 篙師密迴艇 사공도 슬그머니 배를 돌려서 / 其迷南北隅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정신 못 차리네 / 勝事恐易盡 좋은 놀이 쉬 끝날까 걱정이 되니 / 緩棹且踟躕 사공아, 배 늦추어 머뭇거려라 / 落日更登樓 해질 녘에 다시 다락에 올라 / 屢舞雜歌呼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 불렀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를 즐긴 고려 중기에서 조선 중기에 이르는 작품들이다. 그렇지만, 그 때와 장소, 그리고 동기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 있다. 이규보는 가을날 저녁 무렵 한가한 때 옛 친구를 만나 집에서, 이달충은 술을 지고 거문고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색은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었던 좋은 시절 정자위에서, 박은은 친구들을 만나 음식과 술을 풍족하게 실은 배를 띄워, 피리와 통소도 불고 술을 마시며 거문고를 탔다고 하였다.

서거정의 시 「移菊寄居昌君愼公承善」⁵³⁷⁾에는 重陽節에 국화주를 마시고 자 봄날의 아침나절 비온 때를 틈타 국화를 심었으니, 중앙절에는 거문고를 안고 오라 하면서 ‘지기와 의 풍류를 기약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또 서거정의 시 「春仲偶興以待花期」⁵³⁸⁾에서도 풍류를 미리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봄을 맞기에는 아직 이른 때에 술을 빙게 하고, 거문고를 손질케 하고 있는 내용에서 넘치는 북해의 술⁵³⁹⁾과 밝은 달빛⁵⁴⁰⁾을 상상하면서, 귀한 손님들을 불러 술잔을 나누게 될 ‘봄맞이 풍류를 미리 物心으로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서거정의 시 2수에서는 풍류를 즐길만한 시기를 예상하여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훗날의 풍류 모임에서 느낄 수 있는 감회를 예견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권필(權驥, 1569~1612)의 「寄呈二梧亭主人」⁵⁴¹⁾에서는 절경의 땅을 사서

537) 서거정, 앞의 책, 제31권 시류 「移菊寄居昌君愼公承善」: 三三小徑初移菊 삼월삼진달 오솔길에 처음으로 국화 옮겨 심었으니 / 九九良辰可舉杯 중앙절(重陽節)엔 술잔을 들어 국화주를 마실 수 있으리라 / 我欲今朝因雨種 내가 오늘 아침 비 오는 때에 심었으니 / 君宜當日抱琴來 그대는 바로 그 날에 꼭 거문고를 안고 오게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38) 위의 책, 「春仲偶興以待花期」: 花時今未到 꽃피는 시기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는데 / 預作賞花心 꽃놀이하는 마음을 미리 지어보네 / 倩婦催新釀 부인에겐 새로 술 빙트라 재촉하고 / 呼兒理古琴 아이를 불러 해묵은 거문고를 손질케 하네 / 樽須盈北海 술동이는 반드시 북해에 넘치지만 / 月亦直南金 달 역시 형주·양주의 금에 기울지 않으리 / 一座皆佳客 이 자리에 모인 분 모두 귀한 손들이라 / 相酬滿意斟 흔쾌한 마음으로 잔 주고 반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39) 北海는 후한 때의 학자로 일찍이 北海相을 지낸 孔融을 가리키는데, 그는 본디 선비를 좋아하고 후진들을 교도하기 좋아하여 빈객이 항상 그의 문에 가득했다. 일찍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坐上客恒滿 樽中酒不空 吾無憂矣 자리에는 빈객이 항상 가득하고, 동이에는 술이 항상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근심이 없겠다.”라고 했다 한다. (『후한서』 卷70 「孔融列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40) 南金은 중국의 남방인 荊州와 揚州 지방에서 나는 금을 말하는데, 품질과 가치가 다른 금보다 값질 높기로 유명하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41) 권필, 앞의 책, 제3권 오언율시 「寄呈二梧亭主人」: 處世享清福 세상사 청아하고 한가하게 사는

물가 근처에 집을 지어서, 정원엔 오동나무 심고 연못에는 연꽃을 심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고즈넉한 환경을 일부러 조성한 다음, 거문고를 타고 술을 따른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짝이 드물 정도로 청아하고 한가하게 사는 복 많은 주인을 부러워하며, 맑은 냇가 옆에 지은 집에서 고요한 정원과 오동나무·맑은 연못과 연꽃을 보는 것만도 즐거운 일인데, ‘거문고가 울리고 술잔이 오가니 모든 것이 풍류’라 하였다. 가히 서정과 서경적인 풍류를 함께 누리는 ‘相悅歌樂’과 ‘遊娛山水’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또 조선 중기의 문신인 정온의 「鄭贊甫滿月堂記」⁵⁴²⁾에도 평소에 갈망하던 집을 양지 바른 곳에 지어 연못도 만들어 연꽃을 심고, 아울러 風月도 함께 있게 하며, 그 곳에서 거문고를 탄다면 즐거울 것이라 하고 있다. 권필의 오언율시와 정온의 記에서는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고즈넉한 환경을 일부러 조성하여 ‘서경적 풍류를 즐기는 것과 동시에, 거문고와 술로 풍류를 이어가니 모든 것이 다 풍류’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식의 시 「海山亭」⁵⁴³⁾에서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절경인 해금강을 찾아서 ‘맑은 술에 거문고 몇 곡을 타니 무엇이든 풍류가 아닌 일이 없다’라 표현하였다. 또 성사홍의 「芒浦村舍訪權學士質」⁵⁴⁴⁾에서는 흰 갈대

복을 누림이 / 主人眞少儔 주인과 짝할 이 실로 드므리라 / 傾家買絕境 집안의 재산을 기울여 절경의 땅을 사서 / 卜宅近滄洲 물빛 좋은 냇가 가까이에 살 곳을 정하였지 / 院靜桐陰夕 고요한 정원에 저물녘 오동나무가 그늘지고 / 池涼荷氣秋 못에 서늘한 기운 서리면 연꽃 향기요 / 鳴琴與斟酒 거문고 울림과 더불어 술잔을 주고받으니 / 無事不風流 풍류가 아닌 일이 없구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42) 정온, 앞의 책, 제2권(記「鄭贊甫滿月堂記」) : (상략) 賢哉贊甫 훌륭하다 찬보여 / 肯構其堂 기어이 그 집을 지었네 / 惟堂之敞 집이 통창한 것은 / 背陰面陽 음지를 등지고 양지를 향했기 때문이라 / 于以鑿之 그리고 못을 파서 / 貯漣其中 그 속에다 물을 가득었네 / 惟源有水 근원 있는 물이 되고 보니 / 其出無窮 그 솟음이 다함이 없으라 / 煙霞不孤 연하는 외롭지 않으리 / 風月依居 풍월도 함께 있는 바로다 / 彈琴其上 그 위에서 거문고를 타면 / 其樂只且 즐겁기도 하겠네 (하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543) 이유원, 『林下筆記』 제37권 「海山亭」 / 이식 : 剝破金剛麓 금강산 기슭을 파고 깎은 곳 / 平臨度索洲 도색주를 평평하게 굽어보네 / 虛簷山翠濕 허공의 처마는 푸른 산 빛에 젖고 / 半壁海霞浮 반쪽 벽엔 바다의 노을 떠 있네 / 絕境終誰至 이 절경 누가 와서 차지할 건가 / 良辰辦此遊 좋은 때 이 놀이를 마련하였네 / 清樽琴數曲 맑은 술에 거문고 몇 곡을 타니 / 無事不風流 무엇이든 풍류 아닌 일이 없으라 // 지(至) 자가 어떤 본에는 주(主) 자로도 되어 있다. / 도색주(度索洲) : 동해 속에 있다는 전설상의 섬 이름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544) 서거정 등, 앞의 책, 21권 칠언절구 「芒浦村舍訪權學士質」 / 成士弘 : 衆寮齊吹雜嘯吟 뭇 구멍에서 뒤섞인 소리를 내게 하며 일제히 부는 바람은 / 長天捩闔盪秋陰 높은 하늘의 문짝을 열어젖힐 듯 내리쳐 가을의 음기를 밀어 내네 / 寒雲萬壑蛟螭變 골짜기마다 겨울 구름은 교룡이 조화부리는 듯하고 / 煙雨千林燕雀深 숲마다 부영계 내리는 안개비에 제비와 참새는 자취를 감추었네 / 綠藕摧垂承露掌 이슬을 받쳐 들던 손바닥 같은 푸른 연잎은 꺾여 늘어졌고 / 紅焦鬪斷耐霜心 서

꽃, 강가의 붉은 나무, 금빛 모래 시각적으로 대단히 흡족할 만한 시절을 맞아 ‘풍류에 필요한 거문고와 술을 조각배에 싣고 詩翁을 방문 중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상의 예문들에서는, 작가들의 풍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의 풍류에는 반드시 詩·琴·酒가 따랐겠지만, 자연을 감상하는 일 또한 풍류의 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문에 나타나 있는, 이들이 즐겼던 풍류를 살펴보면, ‘상열가악’과 ‘유오산수’를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2. 自慰的 수용

신흙의 「野望」 545)에서는, 날씨가 차가와진 시절, 글 물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종일토록 문을 닫고 있다고 하였다. 병든 몸 처방하고, 시름 속에서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은연중에 나타내는 寓言을 쓴다고 하였다. 어느새 ‘만년에 이르게 됨이 서글퍼져 거문고와 술을 마주 대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신흙의 오언율시 「不樂」 546)에서는, 제 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만 들게 된 일에 마음이 울적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불만한 풍광도 안 되는 사방을 해 넘어가도록 둘러보고 살펴보다가 거문고를 타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신흙의 「有人來說余龍灣舊跡余口占一律贈之」 547)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고상하고 화려했던

리 건던 굴은 절개 붉은 파초는 버티다 끊어지고 말았구나 / 冉冉群芳趨歲暮 한들거리는 향기로
운 초목들은 저물어가는 세밀으로 달려가니 / 幽愁撩亂倚枯琴 마음속에 깊은 근심 다스리기 어지
러워 수척한 거문고에 기대어 보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45) 신흙, 앞의 책, 제10권 오언율시 135수 중 「野望」: 夕露濕平楚 저녁이슬은 평지의 숲을 촉촉
하게 적시고 / 寒烟生遠村 찬 연기는 먼 마을에서 이는구나 / 無人來問字 글자를 묻고자 찾아오
는 사람이 없어 / 盡日獨關門 종일토록 문을 닫고 홀로 있네 / 羸疾須丸藥 병들어 수척한 몸에
환약을 쓰고 / 閑愁著寓言 부질없는 시름에 우언을 쓴다네 / 流光又遲暮 세월은 빛처럼 흘러 만
년에 이르고 / 悵悵對琴樽. 서글퍼짐에 거문고와 술동이를 마주 대하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
전종합DB 원문)

546) 위의 책, 오언율시 「不樂」: 我懷忽不樂 내 마음이 홀연히 鬱寂해져 / 扶杖上山阿 지팡이 짚고
산비탈로 올라왔네 / 水澗流猶澁 얼어붙은 산골 물줄기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 陽坡草未莎 양지
바른 언덕엔 풀의 싹도 피지 않았네 / 佳辰還潦倒 좋은 날에는 도리어 길바닥에 권 물처럼 초라
하게 되고 / 徂歲任蹉跎 지나쳐버린 나날들 뜻을 얻지 못한 채 나이만 많아졌네 / 俛仰日西夕 해
가 서녘에 넘어가도록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우러러보다가 / 鼓琴仍浩歌 거문고 탐으로 인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옛 행적을 이야기하기에 ‘깊은 시름을 못 가누어 거문고 줄을 고른다’라고 노래했다.

이상의 예문들에는, 대부분이 시름을 잊거나 외로울 때 거문고를 자위의 도구로 사용한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항목에서는 시름이나 외롭게 된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만, 결국 거문고의 효용은 ‘自慰’에 있으므로, 전체 문장의 내용에 대하여는 천착하지 않았다.

3. 餘暇의 수용

앞의 자위적 수용에서는 ‘시름이나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 거문고를 탔다고 했는데, 여가적 수용에서는, 消日・餘裕・閒靜 등의 주로 시간이 많아 발생할 수 있는 정서 속에서 거문고를 타는 경우가 나타나 있다.

이규보의 고을시 「又次新賃草屋詩韻五首」⁵⁴⁷⁾에서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草屋에서 고요를 즐기는 삶을 살아감을 표현하고 있다. ‘한가롭게 보내는 말년의 처지에 흥이 일면 거문고를 탄다’고 하였으며, 이색의 「欲出」⁵⁴⁹⁾에는 봄은 살아날 듯하고 꽃은 피어날 듯한 봄날의 오후 시간에 홀로 적적해지니, 책을 보거나 청량한 ‘거문고 소리를 울려보면서, 그 옛날 공자가

547) 신희, 앞의 책, 제14권 칠언율시 107수 중 「有人來說余龍灣舊跡余口占一律贈之」: 陳蹤忽憶十年前 십년 전의 묵은 자취를 갑자기 생각하여 늘어놓으니 / 鴨水清遊夢渺然 압록강에서 고상하게 놀았던 일 꿈이런 듯 묘연하네 / 錦帳夜闌香欲燼 깊은 밤 비단 휘장을 비추던 향불은 깜빡거리고 / 瓊筵人散月初圓 사람들 떠난 화려한 연석에는 갓 떠오른 둥근 달 / 當時神女期難遇 당시에 놀던 신녀는 만날 기약 어려운데 / 此日劉郎鬢已鮮 오늘의 유랑은 머리털이 이미 성글어져 / 悵望煙花春又暮 불꽃같은 봄날 경치를 맥없이 바라보니 봄은 또 다시 저물어가고 / 幽愁無賴度瑤絃 깊은 시름 극복하지 못해 거문고 줄 헤아려 고른다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48) 이규보, 앞의 책, 제10권 고을시 「又次新賃草屋詩韻五首」 5수 중 두 번째 수: 寓興撫桐孫 감흥이 일어나면 거문고를 두드려 보고 / 虛心對竹君 아무 거리낌 없이 대나무와 마주한다 / 林深鴉哺子 숲이 깊으니 까마귀는 새끼를 키우고 / 園靜鳥呼群 정원이 고요하니 새가 같은 무리를 부른다 / 坐石吟移日 돌에 걸터앉아 해가 다 지도록 시를 읊고 / 開窓臥送雲 창 열고 누워서 구름을 보낸다 / 塵喧卽咫尺 속세의 떠들썩함 곧 바로 지척이건만 / 閉戶不曾聞 출입문 닫으니 곧장 들리지 않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49) 이색, 앞의 책, 「목은시교」 제28권 시 「欲出」 3수(三首) 중 두 번째 시. 春晚生微暖 저무는 봄날 따사로운이 어렴풋이 살아나고 / 天晴散薄陰 낮은 구름은 가벼이 흩어지고 하늘은 개었으나 / 行雲猶雨意 지나가는 구름은 아직도 비를 내릴 생각이 있고 / 臥樹亦花心 넘어져 누운 나무 역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마음이 있다 / 寂寂對黃卷 적적하니 책을 마주 대하기도 하고 / 冷冷調素琴 맑디맑은 거문고를 타보기도 한다 / 孔子深樂處 공자께서 마음에 두고 크게 즐거워하셨던 일을 / 更向此中尋 이 속에서 다시 찾아보리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마음에 두었던 뗏뗏한 安貧樂道의 생활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서거정의 「長夏」 550)에는 ‘긴긴 여름날 손님도 찾지 않아 한가하여 닭싸움하는 아이들을 구경하다가 옛 악보 찾아 거문고로 소일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의 시 「寄李偉淳昌縣監」 551)에서는 ‘업무가 한가해 일이 없어 날마다 거문고를 탄다’고 하였으며, 기대승의 「次息影亭韻紀四五言四韻四首」 중 1수⁵⁵²⁾에서는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것은 저녁녘 노비에게 맡기고 ‘거문고와 책을 들고 정자로 향하다가 소낙비가 내려 대문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서거정의 「次韻尹叔保見寄四首」 중 1수⁵⁵³⁾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 시험삼아 거문고 책을 벗 삼으니 파랑새가 날고 물고기가 회롱한다’고 하면서 언젠가 이를 지 모를 오막살이 짓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한편, 이규보의 「次韻朴學士見和寄曆詩親訪贈之又一首」 554)에서는 평소

550)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제7권 칠언율시 「長夏」 / 서거정 : 長夏深園瓦屋低 긴긴 여름 깊은 동산에 기와집은 나지막한데 / 官閑心跡似幽樓 한가로운 마음이 하는 일은 그윽한 망루(望樓)에 있는 것 같다 / 客稀門巷堪羅雀 손님이 드문 문 밖 길에는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을 만하고 / 兒戲庭除政鬪鷄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은 닭싸움을 일삼는다 / 永日琴鳴尋舊譜 온종일 거문고 타다가 옛 악보 찾아보고 / 小窓分紙寫新題 작은 창외 종이를 뜯어 새로운 제목의 글을 베킨다 / 綠陰蔭地門長掩 푸른 숲의 그늘이 갑자기 내려와 문 앞을 오래도록 가려버리니 / 留與嬌鶯自在啼 아름다운 피조리 머물게 하여 자유로이 지저귀게 하리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51) 정극인, 『不憂軒集』 제1권 시 「寄李偉淳昌縣監」 : 郡北樓高等北岑 고을의 북쪽 높은 망루(望樓)는 북쪽 산봉우리와 견줄만한데 / 官閑無事日彈琴 업무가 한가해 일이 없어 날마다 거문고를 탄다네 / 穿山渡水非無望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싶은 바람이 없지 않으나 / 殘暑猶存汗滴襟 한풀 꺾인 더위가 아직은 있어 땀이 방울져 옷깃에 떨어지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52) 기대승, 앞의 책, 「고봉속집」 제1권 시 식영정의 「次息影亭韻紀四五言四韻四首」 중 1수 : 淡淡松風起 담담하게 솔바람이 일어나니 / 微涼滿一亭 서늘한 기운이 어렴풋이 정자에 가득 차네 / 琴書携驥子 거문고와 책을 들고 기자¹⁾도 함께 데려가고 / 耕耨任奴星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것은 저녁녘 노비에게 맡기었네 / 急雨聲搖壑 급하게 쏟아지는 소낙비 내리는 소리는 골짜기를 흔들었고 / 明虹影過庭 무지개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정원을 지나쳤네 / 悠然罷幽夢 초탈하였던 깊은 꿈에서 깨어나 / 步履到前局 팔각팔각 걸어 문 앞에 이르렀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53) 서거정, 앞의 책, 제29권 시류 「次韻尹叔保見寄四首」 중 1수 : 世事多如髮 세상 일은 머리털 같이 술하게 많지만 / 心閑自可梳 마음이 한가해지니 대빗으로 빗은 것처럼 절로 가지런해지네 / 都無迷簿領 공무에 정신이 빠질 일 전혀 없어 / 試此伴琴書 시험삼아 거문고와 책을 짝하니 / 花落飛靑鳥 꽃은 떨어지고 파랑새는 날아가네 / 蒲翻鱖白魚 부들은 나부끼고 뱀어는 놀고 있네 / 南山家悔晚 남산의 집은 늦어져서 후회스럽구나 / 何日結茅廬 어느 날에나 초가집 하나 지을 수 있을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54) 이규보, 앞의 책, 「동국이상국후집」 제8권 고율시 57수 중 「次韻朴學士見和寄曆詩親訪贈之又一首」

한가로울 때에 만나 거문고와 책을 함께 즐겼고 자신의 병문안도 와주었지만, 마음에 품은 것을 펴지 못함을 유감이라고 하였다. 또 서거정의 「復用前韻」 555)에서는 ‘태평한 시대라 한가로우니 이웃에게 거문고 안고 오가며 사귀자’고 하였다.

4. 情緒的 수용

윤증의 시 「挽李尙輔光佐內」 556)에서는 死別한 부인과의 情理를 표현하고 있다.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다가 사별하게 된 부인의 아름다운 명성은 거문고에 티끌처럼 쌓여있는데, 이슬 젖은 무덤을 보며 만사를 짓게 되니 사람의 정리로 인해 ‘슬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윤휴(尹鑄, 1617~1680)의 「酬李祖然」 557)에서는 서늘하고 고요한 달밤, 빈 마루에서 홀로 거문고를 타고 있으나, 타는 음악이 옛 곡조라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감회를 표현하였으며, 홍대용의 「寄嚴鐵橋誠」 558)에서는 가랑비 오는 쌀쌀한 날 맑은 거문고는 절로 평상에 비껴 누워 있는 것을

首」：平時奉緒餘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만나서 못 다한 얘기를 하거나 / 餘事及琴書 거문고를 타고 책도 보았는데 / 病裡逢清裁 병중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방문해 주었는데 / 中懷恨未舒 마음 속에 품은 것을 펴지 못한 게 유감으로 생각된다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55) 서거정, 앞의 책, 제22권 시류 「復用前韻二首」 중 1수：官閑無事樂清時 업무가 한가로워 일없이 태평한 시대를 즐기니 / 花月狂荒亦自奇 꽃과 달에 거침없이 빠짐도 절로 편리하기만 하네 / 同閑交遊良不惡 이웃하여 살면서 오가며 사귀이 진실로 나쁘지 않은데 / 抱琴來往亦何辭 거문고 안고 오가는 것을 어찌 사양하는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56) 윤증, 앞의 책, 제4권 시 「挽李尙輔光佐內」：夫婿乘龍早 남편은 일찍이 벼슬하여 귀하게 되었고 / 寧馨種玉奇 훌륭하고 빼어난 핏줄을 두었기에 / 爭稱好福履 좋은 복을 누린다고 다투어 칭송하였는데 / 誰謂短生涯 짧은 인생으로 끝날 줄을 그 누가 생각했으랴 / 靜瑟芳塵暗 아름다운 명성은 고요한 슬(瑟: 거문고)처럼 숨어있고 / 新原草露滋 새 무덤의 풀에는 이슬만 흠뻑 적셔있네 / 悽然求挽語 쓸쓸하고 처량하게 만사를 청하니 / 情義使人悲 사람의 마음과 의리가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57) 윤휴, 『白湖全書』 제2권 시 오언절구 「酬李祖然」：月出鳥不飛 달이 떠도 새들은 날지 않고 / 夜涼人宴坐 서늘한 밤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때 / 虛堂撫六弦 빈 마루에서 6현의 거문고를 타도 / 調古無人和 곡조가 옛 것이라 화답하는 사람이 없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58) 홍대용, 앞의 책, 내집 제3권 시 「寄嚴鐵橋誠」：疎雨響庭梧 가랑비에 정원의 오동이 울리고 / 高齋生夕涼 높은 집 저물녘에 쌀쌀한 기운이 도네 / 古鼎香煙歇 옛 술에 연기의 향이 그치니 / 清琴自橫床 맑은 거문고는 절로 평상에 비껴 누워있네 / 炎暑忽已徂 불꽃같던 무더위는 훌연히 가고 / 時物增感傷 철에 따른 산물이 나오니 마음속에 애태움만 늘어가네 / 沈吟不能寐 깊이 생각하다 보니 잠 못 이루고 / 悠悠思遠方 먼 곳의 벗 생각이 요원해진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보고 ‘먼 곳의 벗이 생각나는 감회’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승려인 釋禪坦의 「古風 (1)」⁵⁵⁹⁾에는 ‘요순시절의 태평성대가 재현되길 기다린다는 회고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색의 「自詠」⁵⁶⁰⁾에서는 인생은 헛된 명성과 함께 덧없이 늙어가지만 ‘거문고 안의 애뜻한 심사는 오랜 세월 변함이 없다는 감회’를 표현하였다.

신흙의 칠언절구 「到牙城感舊」⁵⁶¹⁾에서는, 정자를 찾아가 먼지 쌓인 악기들을 보고, ‘평안한 시절 풍류를 함께 했던 일들에 대해 회상하며, 예전과 달라진 시절을 당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조선 초기의 문신인 이경동(李瓊全, 세종?~중종?)의 「贈別安東判官用鮑昭樂府東門行韻」⁵⁶²⁾에서는 ‘이별의 곡조를 듣는 거문고 소리와 술잔을 감당하지 못하여 눈물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윤희의 「將入三山轉向驪江留別權思誠」 임오년 1월⁵⁶³⁾에서는 산속으로

559) 서거정 등, 앞의 책, 제4권 오언고시 「古風 (1)」 / 석선탄(釋禪坦) 有琴掛寒壁 거문고는 차가운 벽에 걸어 두었는데 / 爛盡南山石 남산의 돌이 문드러져 다 닳았네 / 唐堯與虞舜 唐堯와 虞舜이 더불어 / 九泉已零落 이미 구천으로 이슬처럼 떨어졌으니 / 秋燈一曲調 가을 등잔 밑에 한 가락 노래를 하며 / 坐待東方白 앉아서 동방이 밝기를 기다린다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60) 이색, 앞의 책, 「목은시고」 제27권 시 「自詠」: 日照南窓似鏡明 남창에 해가 비쳐 거울처럼 환한데 / 白頭危坐感浮生 허연 머리로 앉아 있자니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란 느낌이 든다 / 尊中有酒山當戶 술독 안에는 술이 있고 산도 바로 문 앞에 있지만 / 門外無人雪滿城 문밖에는 사람이 없고 예는 눈만 가득 쌓여 있네 / 病與心安非大患 병과 마음이 함께 자리 잡음은 큰 걱정꺼리는 아니나 / 老爲身累是虛名 늙어서 몸을 괴롭히는 것은 실속이 없는 헛된 명성이라 / 香煙一燧琴三尺 한 줄기 불사르며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 아래 석 자 거문고에 있는 / 誰識悠悠萬古情 아득하고도 먼 오랜 세월 변함없는 애뜻한 심사를 그 누가 알겠는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61) 신흙, 앞의 책, 제18권 시 칠언절구 146수 중 「到牙城感舊」: 妓榭寥寥絃管塵 기녀가 있던 정자는 쓸쓸하고 거문고와 피리에는 먼지만 쌓였네 / 繁花細柳不勝春 갖가지 꽃과 가느다란 버드나무는 봄을 이기지 못하고 / 傷心欲問昇平樂 평안한 시절 즐기던 일 물어보고 싶어도 마음이 아파 / 誰是梨園第一人 그 누가 풍류로 제일이었던 사람이었던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62) 서거정 등, 앞의 책, 「속동문선」 제3권 오언고시 「贈別安東判官用鮑昭樂府東門行韻」 / 李瓊全: 離絃不堪聽 이별의 곡조를 듣는 거문고 소리를 감당하지 못해 / 絃急無和聲 급한 현의 울림에 화답하는 소리 없었고 / 離觴不可醉 이별의 술잔에 취하지 못하다가 / 觴盡還淚零 잔을 비우니 맺혔던 눈물이 펄펄 돌며 흐르네 / 停盃且勿彈 술잔도 멈추고 탄주도 그치고 / 與君相一訣 그대와 더불어 서로 이별하는 말 한 마디 / 丈夫識輕重 사내는 적당함을 알고 있으니 / 悲權不在別 희비가 이별에 있지 않네 (하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63) 윤희, 제 앞의 책, 2권 시 五言四韻 「將入三山轉向驪江留別權思誠壬午年一月」: 何事成長往 무슨 일로 멀리 떠나게 되었는가 / 吾今和子琴 그대의 거문고에 내가 지금 화답하겠네 / 歲寒龍定窟 심한 추위가 오면 용도 굴속에서 머무르고 / 天暮鳥知林 하늘이 어두워지면 새도 숲으로 돌아갈 줄을 알지 / 開花離岳裏 산속을 떠나면 꽃이 피어 있고 / 落木大江濤 큰 강가에는 낙엽 진 나무들이라 / 從君看去就 그대가 결정한 거취를 보면 / 爲我笠晴陰 내 앞날의 갸과 흐림을 점칠 수

들어가는 權思誠에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으면서 ‘이별하는 마음을 들려주는 거문고 소리’에 화답하겠다고 하였다.

신흙의 「龍川館夜坐」⁵⁶⁴⁾에서는, 분위기가 소슬하게 느껴지는 가을날의 달빛 저가는 밤에, ‘누군가가 연주하는 이별의 곡조가 들려와, 부부 사이의 그리움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가 눈물지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장유의 「臘日看童子捕鳥雀戲」⁵⁶⁵⁾에서는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아이들이 만물을 생성하는 조화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거문고를 탄다면 살기가 풍겨 나올 것이라 하였다. 이는 ‘일상의 환경으로부터 反響 될 수 있는 거문고의 상징적인 음색과 음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 比喻의 수용

1) 선비의 살림살이

조선 인조 때의 문인 권별(權鰲, 1589~1671)의 국내 최초의 왕조별, 인물사전류인 『해동잡록』 2 本朝 「金正國」⁵⁶⁶⁾에서는 ‘아무리 청빈하고 한가롭게 사는 늙은 선비일지라도 거문고 한 틀을 비롯한 필수적인 살림살이는 구비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또, 정약용의 「西山遷人之思也離其

있으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64) 신흙, 앞의 책, 제18권 시 칠언절구 146수 중 「龍川館夜坐」: 星河欲沒畫樓西 단청을 한 누각 서편으로 은하는 잠기려 하는데 / 蟋蟀聲高月影低 귀뚜라미는 소리 높여 울고 달빛은 낮아지네 / 誰把瑤琴奏金縷 그 누가 거문고를 잡아 금루곡을 타는가 / 伊州行客萬行啼 이주에 놀러 온 손님들 모두가 눈물짓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65) 장유, 앞의 책, 제33권 칠언 절구 2백 91수 중 「臘日看童子捕鳥雀戲」: 臘日捕生傳習俗 납일에 살아 있는 것을 잡는 것은 전해오는 풍속 / 兒童張網遶林行 아이들은 그물을 치고 숲속을 맴돈다 / 閑看不覺機心動 재미 붙여 지켜보니 만물 생성의 조화로움을 깨닫지 못함이라 / 若復彈琴定殺聲 지금 거문고를 뜯는다면 살기가 풍겨 나오리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66) 권별, 『海東雜錄』 2 本朝 「金正國」: (前略) 居閑處約之中 所不可無者 惟書一架 琴一張 友一 四履一雙 扶老一筇 煎茶一爐 負暄一楹 納涼一窓 迎睡一枕 尋春一驢而已 此二五不可去一 送了老境 此外何求 與人書 한가로이 살며 구차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오직 책 한 시렁 · 거문고 한 틀 · 벗 한 사람 · 신 한 켤레 · 지팡이 한 개 · 차 달이는 화로 하나 · 등을 대고 따뜻한게 할 기둥 하나 · 서늘한 바람을 끌어들이 창 한 틀 · 잠을 맞이할 베개 하나 · 타고 봄 경치를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면 그만이다. 이것이 열 개의 버리지 못할 하나들이다. 늘그막을 보내는 데 이 밖에 또 무엇이 필요하라. 남에게 준 글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室家不能安土焉」⁵⁶⁷⁾에서는 잘 곳, 먹을 것, 볼 것 즐길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귀양살이로 집에 못 가게 되어 마음을 정착시킬 수 없는 심정을 토로하는 한 방편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제비 쭉이나 캐겠다고 표현한 것 같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꼭 갖추어야 할 살림살이의 하나로 거문고가 수록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雜方「掛琴」⁵⁶⁸⁾에는 “거문고는 ‘壁에 닿게 하여 흙 기운이 있게 해서는 안 되니, 오직 板壁에 걸어 놓는 것’이 묘방이다”라고 하였다.

2) 다른 事物과의 형태적 비교

이색의 「秋風」⁵⁶⁹⁾에서는 外物에 誘引되지 않으며 평상심으로 있으려 하는데, 아름다운 구름과 신선한 바람이 산수의 흥을 일으키게 하니, 은사와 시로 화답하겠다고 하였다. 세상을 피하여 외딴곳 절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蕙草는 벼랑에 늘어져 있고 ‘떨어지는 폭포수는 흰 거문고’ 같은데, 너무 멀어 잡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德音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김종직의 「琴軒⁵⁷⁰⁾子固索賦」⁵⁷¹⁾에서는 거문고에 능한 金紐(1420~?)가

567) 정약용, 앞의 책, 제4권 시 「西山遷人之思也離其室家不能安土焉」: 西山之下 유산(西山: 다산의 큰 아들 정학연(丁學淵)의 호) 아래에는 / 爰有我廬 내 초가집이 느즈러져 있다 / 洌之洋洋 드넓은 열수(洌水: 한강의 상류로 다산의 고향)에는 / 有物其魚 물고기가 가득 차 있으며 / 有園有圃 동산도 있고 채마밭도 있네 / 有琴有書 거문고도 있고 책도 있는데 / 登彼黎山 저 여산에 올라 / 言采其蔚 제비 쭉을 캐리라 (하락)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68) 홍만선, 『山林經濟』 제4권 雜方「掛琴」: 琴 不宜着壁 有土氣 惟板壁上 爲妙 神隱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569) 이색, 앞의 책, 25권 詩「秋風」: 秋風胡爲哉 바람은 어째서 / 與我偏相尋 나만 가려서 찾아올까 / 我欲絕知誘 외물에 유인되는 욕심을 끊고 / 湛然存我心 가라앉은 내 마음을 보존하려 하는데 / 忽爾雲物變 홀연히 구름의 빛깔이 곱고 아름답게 변하여 / 涼風生夕陰 신선한 바람이 어스름 저 물녘에 일어나 / 動我滄洲趣 나에게 산수의 흥(滄洲趣¹⁾)을 일으키게 하니 / 和之白雲吟 나는 백운편을 읊음으로 화답하련다 / 山中有美人 산속에 미인이 있어 / 宛在松桂林 완연히 송계의 숲 외딴 곳에 있는 것 같은데 / 蕙花垂石崖 혜초(蕙草)는 낭떠러지에 늘어져 있고 / 飛泉如素琴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흰 거문고 같네 / 邈哉不可攀 하도 멀어서 붙잡을 수가 없으니 / 信哉金玉音 믿을 수 있는 것은 금옥 같이 소중한 덕음이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70) 金紐의 당명이다. 김뉴의 자는 子固이고, 호는 雙溪齋인데, 벼슬이 吏曹參判에 이르렀고, 詩·書·琴에 모두 뛰어나서 三絶로 일컬어졌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71) 김종직, 『佔畢齋集』 「시집」 제23권 시 「琴軒子固索賦」: 琴軒正在雙溪曲 금현이 바로 쌍계의

雙溪의 골짜기에 있으니 ‘쌍계는 거문고의 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폭포의 울림 · 패옥의 소리 · 솔바람 소리 등 자연의 음향’ 모두가 거문고의 소리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미 절묘한 재주로 미묘한 성음에 담박한 弄絃마저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의인화된 자연환경이 마치 살아 움직이면서 거문고를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또, 김유가 타는 거문고의 宮聲 두어 곡조를 듣고서, 그 聲音의 절묘함을 찬미하여 『琴軒記』를 지은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은 단지, 즉 소가 우리에서 우는 소리만을 들었을 것이니, 본디 음률을 몰라서 거문고의 운치만 알면 된다고 했던 도잠을 어찌 알겠냐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유의 재주 자랑에 대하여 가르치며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종직의 시 「寄大虛」 572)에서는 여인을 버리고 홀몸으로 오다보니, 때로는 妻妾의 일로 잠자리가 나른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밤하늘의 작은 달은 거문고의 술대만 하고’, 구름은 선인이 입는 옷처럼 가볍게 휘감긴다고 하였다.

작자 미상의 『蕪山紀程』 제5권 부록 「舟車」 573)에는 “배 안에 얹은 판자로 가로막아 여남은 칸살을 만들었는데 거문고 줄과 같다.”라는 내용이

골짜기에 있으니 / 雙溪宛作琴中舌 쌍계는 완전히 거문고의 혀가 되었네 / 雨時風瀑晴佩環 비올 때 풍악 울리는 폭포이고 비개면 패옥의 소리라 / 沉有松濤吹不輟 때맞춰 물결치는 솔바람 소리마저 그치지 않음이라 / 主人妙耳兼妙指 주인은 뛰어난 귀에 절묘한 재주를 겸했으니 / 心會何曾浪研揣 마음속 깊이 깨우쳤는데 어찌 연구와 단련을 거듭할 것인가 / 微音淡弄自亶亶 미묘한 성음에 담박한 농현으로 스스로 줄곧 힘써서 / 劃然變轉驚流徵 명확하게 빠른 흐름의 치(徵) 소리로 바뀌어 달라졌네 / 垂崖但聞牛鳴蟲 귀에는 단지 소가 우리에서 우는 것만을 들었으니 / 豈知嘯傲義皇上 소요자적하던 희왕상인¹⁾을 어찌 알겠는가 / 剝剝啄啄醉把筆 딱따구리 쪼아 빗기는 곳에서 취하여 붓을 잡으니 / 敢道主人爲技癢. 감히 주인의 재주 자랑¹⁾에 대하여 가르치며 설명 하리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72) 김종직, 앞의 책, 제20권 시 「寄大虛」: 龍堰曾拋織錦機 용언궁¹⁾에서 일찍이 베틀로 비단 짜던 여인을 버리고 / 一身千里正如飛 홀몸으로 천리 길을 나는 듯이 왔으니 / 明明宿債操巾櫛 명명백백하게 묵은 빚은 수건과 빗을 잡는 일이라 / 故故乾愁滯枕幃 때때로 쓸데없는 근심은 잠자리를 나른하게 하는구나 / 夜月幾挑三寸撥 밤에 뜬 달은 거의 세 치의 거문고 술대만큼 돈았고 / 春雲常惹五銖衣 봄 하늘에 뜬 구름은 항상 오수의¹⁾처럼 휘감기는구나 / 上元金笈宜開闔 상원의 책상자를 마땅히 열고 닫으리니 / 疑是仙人宋辟非 의심하건대, 바로 선인의 총벽비¹⁾인가 하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573) 미상, 『蕪山紀程』 제5권 附錄: (前略) 津船不用搖櫓. 兩岸植鐵釘如柱. 截津施繩. 維其端于釘. 刺船緣繩而進. 雖風浪洶涌. 絕無傾覆之虞. 船中以薄板橫障. 設十數間架. 若琴瑟然. 上又鋪板. 而傍開數板. 以便衣櫛之備. 나룻배는 노를 저어 부리지 않는다. 양쪽 언덕에 기둥처럼 철주를 박고 나무를 가로질러 동아줄을 친 다음, 그 끝을 언덕의 철주에 매고 배를 잡아당겨 동아줄을 타고 나아가는데, 아무리 풍량이 세차게 일어도 전혀 전복하는 걱정이 없다. 배 안에 얹은 판자로 가로막아 여남은 칸살을 만들었는데 거문고 줄과 같다. 그 위에 또 판자를 깔고 그 곁에 두어 개의 판자를 터서 배가 새는 것을 막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수록되어 있으며, 정약용의 잡평 「李雅亭備倭論評」⁵⁷⁴⁾에서는 “日本の 지형은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길어서 마치 거문고를 비껴 놓은 것 같다.”고 하였다.

서거정의 시 「題省敏上人詩卷四首」 중 1수⁵⁷⁵⁾에는 ‘절로 가는 길은 거문고의 줄보다 가늘다’고 표현하였으며, 또한 서거정의 시 「送閻上人還龍門寺」⁵⁷⁶⁾에서도 ‘招提一路細於絃 절로 가는 한 길은 거문고 줄처럼 가늘다.’라고 표현한 문구가 나타나 있다.

한편, 서거정의 시 「題菟山村墅五首」 중 1수⁵⁷⁷⁾에서는 ‘바람이 대숲에 부는 모습을 보고 거문고 줄을 타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3) 선비 외 거문고 연주 및 애호가

574) 정약용, 앞의 책, 제22권 雜評 李雅亭의 備倭論에 대한 評 : 日本地形. 南北短而東西長. 一若橫琴然. 惟其東北角稍凸. 我邦之人. 每云其北界直與我六鎮相對. 此不蔽之言也. 일본의 지형은 남북이 짧고 동서가 길어서 마치 거문고를 비껴 놓은 것 같은데, 그 동북각만이 좀 뽕족할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그 북쪽 지역이 우리나라 육진(六鎮)과 상대된다.’고 하나 이것은 분명히 알지 못하고서 하는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75) 서거정, 앞의 책, 제31권 시류 「題省敏上人詩卷四首」 중 1수 : 紺岳山高磨遠天 紺岳山은 먼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 招提一路細於絃 절(招提)로 가는 한 길은 거문고의 줄보다 가늘다 / 深春榕葉黃鸝外 깊은 봄날 보리수 잎 위에는 피꼬리가 날고 / 明月梨花杜宇前 달빛 밝은 배꽃 앞에는 두견새가 찾아오네 / 欲尋懶子燒紅芋 붉은 토란을 불에 굽던 懶殘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 肯許香山社白蓮 香山의 白蓮 結社를 승낙해주려나 / 我亦前身老蘇晉 나 역시 이전 몸이 늙은 蘇晉이어서 / 醉中時復愛逃禪 술 취하면 때때로 다시 불교의 계율을 위반하기를 좋아한다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76) 위의 책, 제20권 詩類 「送閻上人還龍門寺」 : 回首龍門插碧天 돌아보니 용문산은 푸른 하늘에 치솟았고 / 招提一路細於絃 절로 가는 한 길은 거문고 줄처럼 가는데 / 携筇又入煙蘿去 지팡이 끌고 또 무성한 숲 속으로 들어가 / 四月山深屬杜鵑 사월이라 깊은 산 두견새를 따르려 하네 / 驪江來往十年曾(여강래왕십년중) 내가 십 년 전부터 여강을 내왕하면서도 / 悵望龍門不一登 용문산을 바라만 보고 한 번도 못 올랐는데 / 已作晚年蓮社計 만년의 백련사 계획이 이미 정해졌으니 / 丁寧有約話青燈 등잔 아래서 담화기로 정중히 약속함세나 // 白蓮社 계획 : 동진 때 여산 東林寺의 高僧 慧遠法師가 당대의 名儒인 陶潛, 陸修靜 등을 초청하여 僧俗이 함께 (念佛修行을 할 목적으로 백련사를 結成)고 서로 왕래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데서 온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577) 위의 책, 제3권 시류 「題菟山村墅」 : 睡起扶筇渡水湄 자고 일어나 지팡이를 붙들고 물가를 건너서 / 淸風滿袖立尋詩 맑고 신선한 바람이 소매에 가득한 곳에 서서 시를 생각하니 / 探梅訪柳今三載 매화와 버들을 구경코자 찾아감은 이제 삼년이나 되었거니 / 種芋栽瓜又一奇 토란과 오이를 심는 것 또한 하나의 기이한 일인데 / 雨入蓮塘磨鏡面 비는 연못에 들어 잔잔하고 맑은 수면을 문지르고 / 風歸竹塢撥琴絲 대숲에 바람이 돌아오니 거문고 줄을 타는 것 같네 / 江東渭北無窮思 강 동쪽渭水 북쪽의 생각이 끝이 없는데 / 落日深山叫子規 해 떨어지자 깊은 산에는 子規가 우는구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신흘의 시 오언고시 「靜女篇」 578)에서는 ‘여염집 부인’이 거문고를 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변함없는 지조와 부녀자의 도리가 빛나는 여인의 남편과 이별한 심사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다. 가을바람 소슬한 가운데 누구를 위해 치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다가, 이 여염집 부인은 근심 속에 거문고를 타면서 인생의 가을이 왔음을 깨닫고 있다. 579) 아정한 소리는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어 슬퍼하고 있다.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거나 충애를 다시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한나라 때 사마상여의 부인인 탁문군이 지은 「歌詞」 580)와 사마상여가 지은 「長門賦」 581)를 각각 인용하고 있다.

김창협 시 「到公州適館老妓家見破琴在壁戲賦艷體」 582) 583)에는 젊어서는 여느 미녀들처럼 사랑을 받았겠지만 584),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퇴색하니, 거문고만 벽에 걸어두고, 이제 ‘늙은 기생’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낭군을 그리는 여인의 애절한 심경을 노래하는 곡조 585)는 타지 않을 것이

578) 주) 177), 본고 75면 참조.

579) 商聲은 五音 가운데 하나로 음조가 굳세고 경쾌한 것으로서 四時로 말하면 가을에 해당하고, 楊林은 버들숲으로서 봄에 해당하니, 즉 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뜻하는데, 전하여 사람도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늙어짐을 비유한 말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80) 아내가 끝까지 잘하면 소원해졌던 남편이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말이다. 白頭吟은 漢나라 때 司馬相如의 부인인 탁문군이 지은 歌詞인데, 사마상여가 茂陵의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려 하자 탁문군이 이 노래를 지어 이혼하기를 청하니, 사마상여가 마침내 첩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81) 사마상여가 지은 것으로, 즉 漢武帝의 陳皇后가 충애를 잃고 長門宮에 있을 때 명을 받아 황후의 비통한 정상을 기술한 것인데, 이를 무제에게 보이자 무제가 다시 진 황후를 충애하였다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82) 艷體詩 ; 아름답고 고운 말을 써서 짓는 시체의 하나로 청춘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할 때 주로 사용한다. 당나라 온정군(溫庭筠)이 즐겨 지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83) 김창협, 앞의 책, 제1권 시 「到公州適館老妓家見破琴在壁戲賦艷體」: 門前錦水向西流 문 앞의 금강물이 서쪽을 향하여 흐르는 곳 / 十五羅敷與莫愁 열다섯 어린 미녀 나무와 막수야 / 陌上使君頻遣問 발두둑 위로는 사신들을 빈번하게 보내오고 / 城中年少舊依投 성안의 소년들은 사랑함을 보낸 지 오래되었네 / 歌殘畫扇收明月 노래소리 쇠잔해지자 부채에 그린 명월도 시들어지고 / 繡拆紅裙暗石榴 刺繡가 터지니 붉은 치마는 석류 빛처럼 어두워지네 / 留取寶琴懸著壁 보배로운 거문고 남아 있어 벽에 드러나게 걸어두고 / 逢人不復按伊州 사람을 만나게 되어도 이주곡은 다시는 타지 않으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84) 羅敷는 상고 때 중국 邯鄲에 살았다는 전설상의 미녀로 牙箏를 잘 탔다. 하루는 그의 남편 王仁이 주인으로 모시는 趙王이 그녀가 뽕밭에서 뽕을 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탐욕이 생겨 부하를 보내 그녀의 신분을 물어보고 겁탈하려 하자, 「陌上桑」이란 제목의 노래를 지어 불러 그의 청을 거절하였다 한다. 莫愁는 옛 樂府 「河中之水歌」에 나오는 전설상의 미녀로 노래를 잘 불렀다 한다. (『古詩賞析』 卷5 「漢詩 陌上桑」, 卷19 「梁詩 河中之水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85) 唐玄宗 때 伊州에서 채집한 곡조의 이름이다. 수자리에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낭군을

라 하였다.

고려 때 인물 박치안의 「興海鄉校月夜聞老妓彈琴」⁵⁸⁶⁾에서는, 화려한 젊은 날에는 이런 벽지에 와서 늙을 줄을 몰랐다고 하였다. 돈이 없으니 고독하고 처량함과 입을 사모하는 정을 표현할만한 「장문부」를 살 수도 없고, 꿈에서나 여인의 애절한 심경을 노래⁵⁸⁷⁾하여 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 자주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하였다. 깊은 밤 달빛 아래서 타는 '늙은 기생'의 거문고 소리는 평생의 지기가 없음을 한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강석덕의 序 「海東釋禪坦師詩集序」⁵⁸⁸⁾에서는, “고려의 ‘중 선탄’이 시와 거문고에 능함에 대하여 들었다고 하였는데,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중이 거문고와 시로 세상에 이름난 자는 승려 석탄을 제외하고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심수경(沈守慶)의 撰 「中宗條」⁵⁸⁹⁾에는 “명기 上林春이 있었는데, 거문고를 잘 탔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권근의 跋 「書蘭坡先生詩卷後居人」⁵⁹⁰⁾에는 ‘계집중’에게 거문고를 뜯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는 여인의 애절한 심경을 노래한 것으로 2수가 전한다. (『唐詩選』 卷6 「伊州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86) 서거정 등, 앞의 책, 제17권 칠언율시 「興海鄉校月夜聞老妓彈琴」 / 박치안(朴致安) : 七寶房中歌舞時 옛날 칠보 방안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는 / 那知白髮老荒陲 이런 거친 변방에 와 백발이 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 無金可買長門賦 돈 없으니 장문부를 살 길이 없고 / 有夢空傳錦字詩 꿈에서나 금자시를 허공에 전하니 / 珠淚幾霑吳練袖 구슬처럼 떨어지는 눈물은 몇 번이나 비단 소매를 적셨을까 / 薰香猶濕越羅衣 훈훈한 향은 아직도 얇은 비단옷에 배어있는데 / 夜深窓月絃聲苦 깊은 밤 달빛어린 창 아래 괴로운 현의 소리 / 只恨平生無子期 오로지 평생을 통해 들어주는 이 없음을 한탄하는 듯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

587) 前秦의 寶滔가 襄陽을 鎮守할 때 寵姬 趙陽臺를 데리고 부임하여 그 처 蘇氏와 소식을 끊어버렸다. 이에 소씨가 한스러워하고 슬퍼하여 비단에 廻文詩를 짜넣어 두도에게 부치니, 도가 그 비단 글자를 보고 감복하여 수레를 갖추어 소씨를 맞아왔다. (『侍兒小名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주 참조)

588) 서거정 등, 앞의 책, 제94권 序 「海東釋禪坦師詩集序」 / 강석덕 : 予嘗聞高麗僧禪坦 能詩若琴 又見其早春詩云 나는 일찍이 고려의 중 선탄이 시와 거문고에 능하다고 들었다. (중략) 則東僧之以琴詩名世者 除上人餘無聞 此編迺其全集 固已明顯而向之疑釋矣. 우리나라 중이 거문고와 시로 세상에 이름난 자는 상인을 제외하고 들은 적이 없다. 이 시편은 곧 상인의 전집임이 뚜렷하여 전일의 의심이 풀여졌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참조)

589) 심수경, 『遣閑雜錄』 撰 : 中廟朝 有名妓上林春 善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590) 서거정 등, 앞의 책, 제103권 跋 「書蘭坡先生詩卷後居人」 / 권근 : (前略) 客至 必洒掃焚香 設酒煎茶 吟哦唱酬 酒酣 或令女奴絃歌 權洽而罷 不至亂. 손이 오면 반드시 물 뿌려 쓸고 향불을 피우고는 술상을 베풀고 茶를 달여 놓고, 詩를 지으며 서로 부르고 酬答하였으며, 술자리가 한창 즐겁게 어울리면, 혹은 계집중으로 하여금 거문고도 뜯고 시도 짓게 하여 歡樂을 흡족히 한 연후에 파하였으나, 난잡한 데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후략)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번역본 참조)

이상과 같이 제5장에서는 유가적 이상 수용·도가적 이상 수용·세속적 수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태고·천고의 소리·옛 뜻·회고의 정 등으로 표현된 예문들에서는, 중국 琴의 사상이 우리 거문고의 사상으로 이어져 문헌에서 시어로 표현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 ‘以復其初’에서의 내용과 거의 같은 의미의 내용에서 유가의 사상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태고’를 통해서 거문고의 이상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추정해볼 만하다. 그리고 文王이 지었다는 악부 금곡인 「文王操」를 태고의 음악을 나타내는 비유에 인용하여 대자연의 섭리를 거슬리지 않고 순응하며 남은 인생을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도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옛 뜻을 전하는 태고의 소리는 번잡하지 않은 가락을 편안하게 연주하는 현의 소리라 하고 있다.

통치의 수단으로의 거문고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고대 금곡인 「아양곡」과 「소균」의 음악적 내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사회적 효용가치를 비교하게 되는 문장이 나타나 있다. 개인적인 흥취로서 순수하게 맑음만 추구했던 「아양곡」을 멀리하고, 당시로서는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순임금의 음악을 선택하여, 백성들을 달래야겠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인이 궁궐에 앉아 어렵고 힘든 백성을 잘 돌보고 있으니, 개인의 ‘호연지기’나 기르는 「아양곡」 따위는 다시는 연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한편, 거문고 줄을 자유로이 고르는 것처럼 정사를 펼친다고 한 예문에서는, 정치를 함에 있어 개별능력의 장단이 서로 다른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특성을 잘 살펴서 장차 맡을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였다는 지혜로운 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문에 자주 나타난 ‘교주고슬’은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으로, 변통할 줄을 모른 채 고지식하게 옛것을 답습하기만 하는 구태의연한 정사를 비유할 때 표현되고 있다. 또한, ‘교주고슬’은 미혹된 것이라 하였고, ‘개주장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리하여야 선정을 베풀 수 있다고 했다.

백성교화가 나타난 예문 중, 민정을 살피려 가는 사람이 거문고를 가져 가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거문고의 휴대’가 백성을 교화하고 선정을 베풀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성품이 매우 인애하여 선보(單父)를 다스릴 적에 항상 거문고만 타고 앉아서 당 아래를 내려가지 않았으나 선보가 잘 다스려졌다는 공자의 제자 복자천에 대한 고사에 나타난 이미지를 시상에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고사의 내용을 인용한 예문들에서는, 주로 관리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작중 인물의 인품을 칭송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한편, 민간의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나라에 바치고 음악을 맡은 관리가 거문고의 노래에 올리려 한다는 예문에서는, 백성들의 선행이나 지조 그리고 삶을 파악하여 선정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통치자의 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풍속과 관련된 예문 중, 공자와 제자들의 화락한 풍경이 나타난 ‘행단금슬’은, 금의 옛 뜻과 ‘樂의 和함’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풍속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琴瑟’이 나타난 예문 중, 집안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거문고 타는 것에 비유한 경우에서는, 『시경』 「소아」의 ‘常棣’에 나오는 “妻子好合 如鼓瑟琴 처자가 서로 좋아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금과 슬을 타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을, 부부가 화목하게 오래 살았다는 의미로 표현된 경우는, 『시경』 「주남」 ‘관저’의 내용을 인용한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금슬의 화락’함이 지극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하여, ‘금슬의 화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본받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한편, 특이할만하게도 사치스런 생활 속에 거문고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대부분의 성리학자나, 거문고를 애호하는 문인들이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교화나 수기치인의 성향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매우 사치스런 환경에서 거문고와 더불어 향락을 일삼는 경우가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駭俗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거문고를 불태우고 학을 구웠다는 내용도 발견되고 있

다.

한편, 향악을 ‘태고의 소리라 일컬어지고 숭상되어 왔던 「韶」와 「鈞」과 같은 아악보다 낫다’고 하며, 소아들에게 당부하여 비록 천대받고 있지만, ‘우리음악인 향악을 열심히 배워 양성하라’는 예문도 발견되고 있다.

‘지음’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예문들에서는, ‘고산유수’에 대한 곡조인 「아양곡」 같은 명곡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며, 같이 들어줄 벗인 ‘지음’이 없어 홀로 외롭게 듣는다고 표현한 점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들 예문에서는 『列子』 「湯問」에 나타난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를 인용하여 표현한 점이 확인되고 있다.

‘지음’이란 어휘가 최초로 나타난 걸로 보이는, 최치원의 「秋夜雨中」에서는, 자연과 작가, 그리고 작가의 변함없는 마음만이 그려진 군더더기가 없는 시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최치원의 가야금에 대한 지음이 있겠냐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최치원이 탔던 가야금을 알아듣는 지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신묘함’을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미루어볼 때, 중국의 아악기인 ‘금’과 우리의 향악기인 ‘거문고’가 심상성을 주고 받은 중간 지점에는, 반드시 향악기인 ‘가야금’이 가고 역할을 한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에서 가야금을 전수했던 사실과 심상 및 당시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에 거문고가 널리 유포되기 이전에는, 같은 심상성을 가진 가야금이 거문고 대신 폭넓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백아와 종자기의 ‘속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진실로 ‘지기지우’가 되는 조건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속현지이’와 ‘희성지음’이 비유의 대상으로 나타난 예문에서는, 금으로 연주되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소리의 상징적 표현을 차용하여, 작중인물이 지닌 높은 학문의 경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줄을 소재로 하여 ‘헤어짐’과 ‘다시 만남’, 그리고 ‘만나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 등이 발견되고 있다.

知人이 죽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일을 거문고 줄의 끊어짐에 비

유한 예문에서는, 끊어진 줄은 난교로도 붙일 수 없다고 표현한 점이 나타나 있으며, 知己의 죽음을 거문고 소리의 끊어짐에 비유한 이색의 한 시에서는,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와는 반대로 들을 곡이 없어져서 들을 사람이 없다고 표현한 점이 나타나 있다.

거문고의 기러기발에 먼지가 쌓여있었다고 표현한 예문에서는, 글의 주인공물을 찾는 지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기와의 회고의 정이 담긴 거문고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거문고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가 함께 할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음을 기다리는 갑 속의 거문고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아무나 만나서 속내를 털지 말라면서 갑 속의 거문고를 홀로 탄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지음을 만나지 못한 것이며, 또한 지음을 만나기 전 까지는 거문고를 꺼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변자의 항목에서는, 거문고를 다루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것의 조치에 대한 내용 등이 표현되고 있다. 문장 전체 내용에 적합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비유의 매개체로 하여 표현한 문장 등이 관찰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 등 공적인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나 있다. 또, ‘거문고’라는 악기 자체만으로 글 전체의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로 작가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사적인 환경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 항목에서는 문장 전체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정서 중에서, 자신을 대변하고자하는 요점을 파악하여 간략한 사항만을 논의에 반영하였다.

팽팽하게 당긴 거문고 줄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되었다고 표현한 예문에서는, 자신의 깨끗한 절조만을 고집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살림살이가 ‘거문고와 책뿐’이라고 표현한 예문에서는, 가난함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이 죽은 것을 거문고 줄이 끊어진 것에 비유한 예문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는 ‘지음’의 항목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위의 상징으로 ‘거문고와 술’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객지의 벼를 사림에 있어서 술과 거문고로 즐기는 방

법을 택하라는 내용도 발견되고 있다. 거문고 소리가 나지 않음을 그 지방의 행정의 번거로워 백성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있음으로 비유하여 대변하고 있는 점도 관찰되고 있다. 또한, 거문고를 탐으로써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대변하기도 하고, 친구가 찾아주지 않음을, 거문고를 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에 비유하기도 한 예문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 고결한 품성과 성정을 거문고에 의탁한다는 예문에서는, 청렴한 관료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문고와 비파를 즐기지 않고 오직 예절과 마음으로 대접한 경우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오직 예절과 마음으로만 대접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는, 못 선비들이 거문고를 자신의 지음과 같이 듣는 것을 생활화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또 ‘요금’이 갑에서 나와 티끌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스스로의 고아한 인품을 시상에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거문고 줄의 질감을 굳은 절개로 비유한 예문에서는, 거문고의 끈은 줄을 굳은 절개를 지닌 성품에 비유하고 있다.

한편, 이 세상에 지음이 적다고 하지만, ‘明月淸風’ 즉 주위의 풍광이 바로 종자기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예문에서는, 무현금의 감상은 거문고가 없어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칠언절구에서는 사람이 타는 거문고를 자연 풍광이 알아듣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청렴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송나라 조변이 필마로 축 땅으로 들어갈 때 거문고 한 벌과 학 한 마리만 데리고 갔던 고사를 인용한 예문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거문고와 학을 가까이 두는 것을 청고 염결한 기상으로, ‘금학’을 들어 청렴하게 벼슬살이를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거문고 한 곡조만 탈 수 있다면 내 소원은 다 이루는 것이라고 했던 쯔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의 고사를 인용하여 청렴함을 내세우는 예문, 그리고 거문고의 기러기발에 먼지가 쌓여있음을 가난과 청렴의 비유로 삼은 문장도 발견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거문고 뿐’이라는 경우와

거문고와 책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에 사는 것을 ‘소박한 삶’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벼슬을 그만두는 날, 거문고로 덩굴 길을 서로 찾아보자는, 도잠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청빈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 오직 거문고와 술로 한가한 늙은이로 지내도 무방하다는 표현으로 말년의 청빈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도연명의 ‘葛巾漉酒 고사’를 인용하여 거문고와 책으로 노후에 담박한 삶을 살겠다는 내용으로 말년의 청빈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식의 시에 지붕이 셀 때 우산을 받쳐 들고 있다가, 워낙 가난하여 땀감이 없어 금이라도 때고자했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말년의 청렴함과 가난함을 상징하고 있는 예문도 발견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칸방에 거문고와 책이면 흡족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소박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도가적 이상 수용에서는, ‘가난했으나 우주를 좁게 생각하는 등 호방한 기개를 보였으며,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하면서, 도연명의 행적처럼 살아갔던 행적이 나타나 있는 예문이 발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은자를 자처하며 태초의 기운과 함께 공허의 세계에서 노닐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정이라 할 만큼 맑고 밝은 시상 속에,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의지대로, 넘나들만한 우주의 공간을 그려 놓은 작품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복건에 학창의를 입고 『황정경』을 두고, 거문고라도 타면 선선으로 착각하게끔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산 속의 정자와 소나무 몇 그루 있는 곳에서, 평상의 거문고가 뜰의 학을 마주하던 옛 정자의 풍경이 마련된 보금자리를 신선 거처로 표현한 경우도 있으며, 봄기운 · 복사꽃 · 침향 · 은일 · 달밤 등 계절 · 시각 · 후각 · 청각 · 탈속한 분위기의 배경을 선정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은거하며 홀로 거문고를 타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관심이 없다고 표현한 경우도 있으며, 높고 고상한 사람은 거문고를 안고 나오고, 술 대신 산속의 차를 마신다는 내용도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술 거문고가 자연의 음향을 연주한다는 내용도 발견되고 있으

며, 학을 길들이고 거문고로는 맑은 물을 연주하고, 문장을 다듬어서 옥을 찾는다는 내용의 예문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산수가 좋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한가한 날이면 소를 타고 가서 쓸쓸히 홀로 앉아 가끔 거문고 두어 곡을 타며 자적할 뿐이었고, 선을 즐기며 학문을 좋아하였고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으며, 살림살이에는 있고 없는 것을 묻지 않으며 간혹 끼니를 굶는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도 관찰되고 있다.

세속적 수용에서는, 예약과 공적인 측면에 관한 것과 이념적·철학적인 논의를 제외한, 일상에서의 사적인 생활에 대하여, 풍류적, 자위적, 여가적·정서적, 비유적 수용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절의 논의에서는 문장 전체의 내용을 깊게 탐색하는 것보다는 유취한 항목을 발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가운데, 모든 항목의 경우에 공통된 점은 시간적으로 한가한 가운데, 서로 다른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의 거문고 곡조를 연주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물과 형태적 비교에서는, 떨어지는 ‘폭포수를 흰 거문고’로, ‘雙鷄를 거문고의 혀’로, ‘작은 달을 거문고의 술대’로, ‘배 안의 칸살을 거문고 줄’에, ‘일본의 지형을 비껴놓은 거문고’로, ‘절로 가는 길을 가는 거문고의 줄’에, ‘바람이 대숲에 부는 모습을 거문고 줄을 타는 것’ 등에 비유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선비 외 거문고 연주가 및 애호가로는 ‘여염집 부인’, ‘기생’, ‘승려’, ‘계집종’ 등이 고전문헌에서 발견되고 있다.

제 6 장 결 론

지금껏 진행된 거문고의 음악정신·조선 선비의 금도·선비의 음악담론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기적 관념·백성교화·통치수단 등에 대한 성리학 중심의 공통된 몇몇 굵은 정서와 사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대등소이한 결론으로 귀착되어 이미 객관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찰의 시각을 정면만이 아닌 여러 각도의 측면, 즉 문화연구의 차원에서 폭넓게, 또한 깊게 분석 검토하고자 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거문고를 소개하면서, 금의 제원과 이상을 수록하였다. 또, 칠현금 개작 과정에는, 거문고의 생래적 裏面에 琴이 胞胎되어 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금의 정신적 가치가 거문고의 이상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에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연주 방법 및 樂調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제6권에는 금의 제원이, 제7권에는 거문고의 제원이 각각 실려 있으며, 제6권의 「아부악기도설」에는 ‘금’이라는 악기의 정신성이 거문고의 궁극적인 이상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금과 거문고의 분류·제원·제작법·연주법 등 여러 면의 내용이, 『삼국사기』 보다는 『악학궤범』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악학궤범』 제7권 「향부악기도설」 현금조의 기록에는, 돌 위에서 자라난 오동나무인 ‘石上桐’이 최상급으로 나타나 있다.

고전문헌에는, 애호가들이 직접 제작한 거문고의 재료로, ‘소나무’와 ‘오동나무’ 등이 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재료로는 ‘벼락 맞은 오동나무’, ‘백년 묵은 오동나무’, ‘타다 남은 오동나무’ ‘소리가 화락한 것’ 등이 나타나 있다.

한편, 타다 남은 오동나무와 벼락 맞은 오동나무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행 악기제작과정 중 상판을 인두로 그슬리는 작업의 효용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모두 다 ‘수분이 제거되어야 맑은 소리가 난

다’는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문의 작가들은 이렇게 가공된 재목으로 만들어지는 금(琴: 거문고)의 소리는 맑다고 인지하였다. 그리고 악기의 맑은 소리를 자신의 맑은 성품과 기상을 빚대어 읊고 있는 점 등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오동나무의 산지로는 중국의 ‘嶧陽山’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또한 오동나무로 금을 만들되, 모두 순임금과 文王의 제도를 써서 만든다고 한 점도 보이고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삼국 이전의 재래현악기로 명명한 악기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나타난 ‘물계자와 백결 선생의 금’ 그리고 ‘사금갑 일화의 금’에 대하여 그 연대를 추적해보면, ‘거문고’도 ‘가야금’도 아닌 모종의 ‘재래현악기’로 보인다.

고전문헌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琴’과 관련된 악기 명칭을 ‘거문고’로만 해석 또는 번역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거문고에 부여된 중국 ‘금의 심상성’에 대한 효용성 때문이며, 현악기의 통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문고’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통명사인 ‘금’이라는 문자 자체만을 ‘현악기의 통칭’으로 사용하거나, ‘현악기를 연주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전적 풀이에도 해당되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고유명사인 ‘玄琴’이라는 의미의 명칭인 ‘거문고’를 보통명사인 ‘현악기의 통칭’으로 사용했다거나, 다른 악기임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문고’로 번역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문고의 명칭에 대하여는, 『삼국사기』와 『악학궤범』에 나타나 있는 ‘현금’에 대한 기록에서, 금의 이상인 ‘자연그대로의 참뜻’, 또는 ‘처음으로의 복귀’라는 의미를 지닌 ‘反其天真’과 연계되어 있어서, 하늘의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인간의 심성을 길러주는 도구로서의 정신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금의 명칭과 이칭이 차용된 경우의 논의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금의 이칭들이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고전문헌 문장 전체의 맥락에 따라 취사선택되어 거문고를 대신하여 사용한 명칭들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 고금의 다른 이름이나 특별한 연주가와 관련되어 있는 금의 이름들이 고금의 사상과, 고금과 관련된 일화, 또 그러한 내용이 사용되어진 문장의 특별한 문구와 함께 수입되어 고전문헌에서 거문고를 대신하였으며,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 점이 파악된다.

고전문헌의 내용에는, 각 악기의 재료나 부품으로 오동나무와 명주실 등의 부품과 ‘금의 徽와 絃’, ‘슬의 朱絃·柱’ 등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거문고의 부품 중 ‘안죽’은 드물게 발견되고 있으며, 음정을 나누는 ‘樛’와 연주에 사용하는 ‘술대(匙)’에 대한 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전문헌에는, ‘膠柱鼓瑟’이라는 어휘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 문구가 나타나고 있는 악기는, 패와 안죽이 설치되어있는 거문고나 柱가 설치되어있는瑟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슬의 柱, 즉 雁足이 비유의 매개체로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부품 이름들은 제각기 상징성과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 ‘거문고를 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으며, 이들 단어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 문장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어져 상징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거문고의 연주용어로 차용된 금의 연주용어의 논의에서는, 각각의 상징성대로 선택되어. 문장 전체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금을 연주한다.’라는 내용의 용어로 사용되어졌음이 밝혀지고 있다.

고전문헌에 자주 나타난 ‘금’으로 그것의 명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소지했던 ‘고금,’즉 ‘名琴’이라 일컬어지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들 역시 명인·명금의 고사를 수반한 내용과 함께 문장 전체의 흐름에 적합한 용어로 선택되어 사용되었는데, 작가의 뜻과 품격 등을, 고사의 명인에 비유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고금의 명인과 명곡에는, 순임금의 「남풍가」, 백아의 「峨洋曲」, 嵇康의 「廣陵散」 등이 나타나 있다.

금의 부품 및 연주 용어, 금의 명인, 명곡 등이 차용된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음악적·문학적 사상과 백성교화 등의 통치 문화, 그리고 미의식을 내재한 어휘나 문구들을 작가들이 차용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대

록으로부터 한반도로 건너와 고전문헌에 수혈되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은 고사의 내용을 수반하면서 우리의 거문고 연주자나 애호가들에게 명인들의 정신성을 전달하는 가운데 명곡의 심미적 세계를 동경하게끔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악사상의 토양에서 ‘고아한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남긴 채취는 고전문헌의 내용을 통해 우리 선비들의 거문고사상으로 다시금 향기를 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삼국사기』 「잡지」 1 신라악 현금조에는, 옥보고 속명득, 귀금 선생, 안장, 청장, 극상, 극중에 이르는 신라 금도의 맥을 이어온 거문고 연주가의 계보가 나타나 있다. 옥보고를 시점으로 하여 속명득·귀금 선생으로 3대를 이어간 예술적 성향은, 은거·은둔·은일 등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성향은 성장방향에 따라 ‘노장사상’·‘신선사상’·‘고신도사상’ 뿐만 아니라, 사상·바탕풍류도 등으로 거문고 음악사상체계의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수음악을 하는 악사로서의 궁극적인 수련의 목적은, 음악적·음악외적 자기완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금도는 수양을 통한 자기완성이라는 개인적 효용, 풍류로서의 사회적 효용, ‘玄妙之道’로서의 국가적 효용가치를 발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 道脈을 이어가는 ‘爲國之道’로 신봉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야금은 우륵을 통하여 이미 금도를 이루었을 것이고, 옥보고는 거문고가 ‘천존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자타의 의지대로 입산하여 금도를 이루려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전승계보를 이어감에 따라 금도의 갈등이 해소된 극상과 극중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천존고에 보관되었던 거문고는 세상에 나와 본격적으로 빛을 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 탄주 배경으로는 봄가을의 달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달밤이 아닌 초저녁이나 아침저녁으로 땀다는 경우도 나타나 있다. 작가에 따라서는 일기나 탄주공간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으며, 여름철이 묘사된 문장은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공간적 배경과 탄주장소는 매우 다양하다. 계절과 일기 등에 따른 자연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탄주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적 탄주 배경과 탄주 장소에 이끌려 거문고를 타러 오겠다는 내용이 나타난 글도 관찰할 수 있다. 또, 거문고를 타기 위해 산골짜기의 시냇가에 초가집을 짓거나, 대숲이 있어 맑은 운치가 느껴지는 곳에 인위적으로 탄주공간을 마련하였다는 내용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탄주할 만한 絶景이 발견되면 거문고를 타고 싶어지고, 거문고가 있으면 탄주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유유자적했던 거문고 애호가들의 일면이 발견되고 있다.

時空을 달리한 연주 장소에 따라 음색이나 음질도 다채롭게 변형되어 들렸을 것으로 보이며, 연주 곡조 역시 다양한 연주 환경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였으리라 보인다. 무대라는 일정한 규격의 공간에서 정해진 곡을 연주하는 현행 연주자들이 느낄 수 없는, 끝없이 열려있는 다양한 감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환경의 다양함에 따른 즉흥성을 악상에 펼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한편, 고전문헌에는 거문고 연주를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내용도 나타나 있는데, 글 읽는 여가에 거문고 타기 등의 기예를 즐기되, 각자의 규범을 두어 적당한 시기가 아니면 놀지 말라고 한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 또, 부모가 편찮으실 때에는 거문고를 타지 말라고 한 경우와, 三年喪을 지낼 때는 거문고를 타도 성음을 이룰 수 없다고 한 내용이 나타난 글도 발견되었다. 또한 喪을 마치고 나서 거문고의 연주를 시도할 때는, 다 先王이 만들어 놓은 ‘禮’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글도 발견되고 있다.

정신적 탄주 배경에서는, 은둔의 삶을 누리는 시기에 흥이 일어날 때 타는 경우와, 도연명의 취향을 모방하여 홀로 마음만으로 줄 없는 거문고를 타고 싶을 때, 그리고 거문고를 잘 연주하거나 좋아하는 금객들은 봄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므로 탄다는 내용 등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처지에 대한 불만스런 마음을 평정하기 위해, 긴 밤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 거문고를 타며 막연하게 상고시대 ‘고금의 옛 뜻’을 기린다는 경우,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싶은 경우, 방랑하는 마음이 생길 경우 등 거문

고를 연주하거나 타고 싶다는 이유 또한 다양한 심상으로 나타나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술기운이 오를 때마다 임금에게 感恩하는 곡을 연주한다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술이 얼큰해졌을 때만 거문고를 끌어당겨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이다.

정서적 감상이 나타난 예문 중에는, 거문고의 맑은 음색을 ‘매화의 格’, ‘화려하게 핀 모란’ 등에 비유하고 있다. 또, 儒仙 같은 사람이 뜰는 거문고의 소리는, 모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것은, 곡조를 귀히 여김이 아니라, 그 雅趣를 취한 것이라 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선비들에게 있어서는 거문고의 음악과 정신에 대한 것이 필수적 교양이었을 것이므로, 거문고에 대하여 문외한인 선비들은 이와 같이 즐기는 척이라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문고의 절묘한 소리보다는 거문고를 타는 異姓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나 있다.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에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에 의지하여 금의 곡조를 지으며 은거했다는 물계자에 대한 일화가 그 효시임이 확인되고 있다. 고전문헌에 나타난 거문고의 소리로 표현된 물의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하여 각각의 개성을 살린 세분된 정서의 詩語로 표현되어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관찰된다.

한편, 거문고 소리를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에는, 거문고소리의 ‘청각적 맑음과 물이 흐르는 모습의 시각적 맑음’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거문고 소리와 닮았다고 표현한 물소리를 들음으로써, 마음까지 정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심상적인 감상마저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거문고 소리와 밤비 내리는 소리예다가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함께 시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맑고 큰 거문고 소리는 목메어 흐느끼며 우는 물 같다는 의인화된 표현도 발견되고 있다.

바람소리에 비유한 경우에는, 처마에 이는 바람은 絃의 소리·바람이 불어 숲을 스쳐서 거문고 소리를 낸다는 경우·바람 소리를 자신의 거문고라 한 경우·바람이 불면 거문고 소리가 저절로 난다는 경우 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소리인 술바람의 울림을 피리와 거문고 소리에 비

유한 경우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도 자연 속에 살면서, 모두가 자연과 일체가 되고 싶은 심회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람과 물소리에 비유한 경우 중, 거문고의 소리가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보다 맑고, 골짜기에 이는 바람보다 그윽하다는 경우에는, 손으로 거문고를 타는 소리가 옛 뜻에 부합되니, 느낌은 마음이 맑아지고 몸은 가볍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물소리와 풍악이 서로 어울리고 솔바람과 거문고가 섞여 울리면 주객이 서로 바빠지게 된다는 경우에는, 실제 음향과 분위기가 어우러져 조성된 환경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거문고 소리를 사람 목소리에 비유한 경우 중, 글 읽는 소리가 거문고를 타는 것처럼 맑고 시원했다는 경우에는, 당시의 거문고 애호가나 연주자가 선호했던 거문고의 소리가 화려하거나 번잡한 것보다는 맑고 잡티가 없는 소리였음을 추정케 하고 있다. 또, 작은 목소리는 시원한 샘물이 졸졸 솟아나고, 거문고 줄에서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경우에는, 남과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목소리의 억양을 거문고의 소리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 경우 중, 새들의 지저귀는 거문고 소리와 어울린다는 경우에는, 시상에 평화로운 풍경화를 그리기 위한 경우로 보였고, 바위 아래 거문고 통기니 소리가 더욱 씩씩하다는 내용의 이유로는, 현악기의 공명 효율의 장소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조 우천계의 「廳琴」에서는 다양하고 구체화된 소리의 맵시들을 표현하였는데, 청각적 감상을 통해 얻은 미학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점, 자못 의성어가 연상될 만한 시청각적인 현상으로 전환시켜 표현한 점, 소리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면, 즉 음악외적 裏面을 더욱 심화하여 표현한 점, 그리고 거문고의 실제 음향과는 거리가 먼 의성어로 표현한 점 등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또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땅의 귀신이 우는 소리로 표현하여 신령이 듣는다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자연의 소리와 거문고 울림의 상징하는 바가 상통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슬픈 곡조가 연주되면 눈물 방울이 떨어지고, 예스러운 운치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니, 추울 땐 술을 두드리며 달을 품고, 고요함이 흠어질 때는 바람이 섬돌을 오른다는 예문도 발견되고 있다.

방아 쪼는 소리를 거문고 타는 소리로 대신하면서, 나무 뿌리나 열매를 먹고 살면서 은둔하는 것을 달게 여긴다는 예문에서는, 중국 춘추시대의 榮啓期를 흠모했다던 백결 선생의 방아 쪼는 곡조를 연주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음향을 듣다보니 심신이 맑고 깨끗해진다고 하면서, 거문고나 축의 소리보다도 훨씬 낫다고 표현한 예문의 경우에서는, 자연의 음향을 들은 작가가 심신 양면으로 체감하는 바도 있었겠지만, 거문고 울림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경지를 추구함에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로 타는 거문고 소리는 부딪혀 깨지는 얼음처럼 차다고 표현한 경우에서는, 거문고의 정신성이 부여되지 않은 연주를 말하거나, 별 의미가 없는 환경에서 하게 되는 불필요한 연주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거문고 음향을 배제한 정신적인 감상 중, 기예에 어두워 연주는 하지 못해 마음만으로 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악한 기운을 누르고 온화한 마음을 기를 것이라는 예문에서는, 『백호통』의 「예악」에 나오는 ‘금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주 능력이 없어 그저 듣기만 한다면, 거문고에 이전된 ‘금의 정신성’만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문고가 그쳐도 소리가 남아 있다는 예문에서는, 애당초 울리지도 않는 거문고소리를 마음속으로만 듣고 있는 경우가 파악되고 있다. 또 자연의 음향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무현금’을 다시 들 필요가 없다고 표현한 예문에서도 역시 무현금을 둔다고 하여도 어차피 연주는 할 줄 모른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무현금을 어루만지며 ‘경지에 도달한 음률은 본디 소리가 없는 법’이라며, ‘도잠의 삶’을 시상에 옮겨 놓으며, 그를 칭송하고 있는 예문에서는, 거문고 연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신적인 경지만 내세우고 있다.

당나라 이상은의 「금슬시」에 나오는 ‘옥전연’을 인용하여 곡조의 和함을 표현하고 있는 예문에서는, 금의 이상이자, 고대로부터 예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중심사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무현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난 예문들도 있다. 줄 없는 거문고는 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무현금을 내세워 높고 맑은 경지만 노래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타나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익숙한 악공이라도 줄 없는 거문고는 탈수 없는 법이라고 기술한 예문에서는, 재정이 바닥난 현실로 인해 드높은 이상만 앞세웠던 거문고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는 실학사상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박지원의 「參奉王君墓碣銘」에는 ‘줄 없는 거문고는 병어리나 마찬가지로’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소리의 울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즉 악기로서의 현실성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태고·천고의 소리·옛 뜻·회고의 정 등으로 표현된 예문들에서는, 중국 췌의 사상이 우리 거문고의 사상으로 이어져 문헌에서 시어로 표현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 ‘以復其初’에서의 내용과 거의 같은 의미의 내용에서 유가의 사상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태고’를 통해서 거문고의 이상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추정해볼 만하다. 그리고 文王이 지었다는 악부 금곡인 「文王操」를 태고의 음악을 나타내는 비유에 인용하여 대자연의 섭리를 거슬리지 않고 순응하며 남은 인생을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도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옛 뜻을 전하는 태고의 소리는 번잡하지 않은 가락을 편안하게 연주하는 현의 소리라 하고 있다.

통치의 수단으로의 거문고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고대 금곡인 「아양곡」과 「소균」의 음악적 내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사회적 효용가치를 비교하게 되는 문장이 나타나 있다. 개인적인 흥취로서 순수하게 맑음만 추구했던 「아양곡」을 멀리하고, 당시로서는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순임금의 음악을 선택하여, 백성들을 달래야겠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인이 궁궐에 앉아 어렵고 힘든 백성을 잘 돌보고 있으니, 개인의 ‘호연지기’

나 기르는 「아양곡」 따위는 다시는 연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한편, 거문고 줄을 자유로이 고르는 것처럼 정사를 펼친다고 한 예문에서는, 정치를 함에 있어 개별능력의 장단이 서로 다른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특성을 잘 살펴서 장차 맡을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였다는 지혜로운 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문에 자주 나타난 ‘교주고슬’은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으로, 변통할 줄을 모른 채 고지식하게 옛것을 답습하기만 하는 구태의연한 정사를 비유할 때 표현되고 있다. 또한, ‘교주고슬’은 미혹된 것이라 하였고, ‘개주장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리하여야 선정을 베풀 수 있다고 했다.

백성교화가 나타난 예문 중, 민정을 살피러 가는 사람이 거문고를 가져가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거문고의 휴대’가 백성을 교화하고 선정을 베풀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성품이 매우 인애하여 선보(單父)를 다스릴 적에 항상 거문고만 타고 앉아서 당아래를 내려가지 않았으나 선보가 잘 다스려졌다는 공자의 제자 복자천에 대한 고사에 나타난 이미지를 시상에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고사의 내용을 인용한 예문들에서는, 주로 관리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작중 인물의 인품을 칭송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한편, 민간의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나라에 바치고 음악을 맡은 관리가 거문고의 노래에 올리려 한다는 예문에서는, 백성들의 선행이나 지조 그리고 삶을 파악하여 선정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통치자의 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풍속과 관련된 예문 중, 공자와 제자들의 화락한 풍경이 나타난 ‘행단금슬’은, 금의 옛 뜻과 ‘樂의 和함’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풍속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琴瑟’이 나타난 예문 중, 집안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거문고 타는 것에 비유한 경우에서는, 『시경』 「소아」의 ‘常棣’에 나오는 “妻子好合 如鼓瑟琴 처자가 서로 좋아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금과 슬을 타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을, 부부가 화목하게 오래 살았다는 의미로 표현된 경우는, 『시경』 「주남」 ‘관저’의 내용을 인용한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금슬의 화락’함이 지극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하여, ‘금슬의 화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본받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한편, 특이할만하게도 사치스런 생활 속에 거문고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대부분의 성리학자나, 거문고를 애호하는 문인들이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교화나 수기치인의 성향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매우 사치스런 환경에서 거문고와 더불어 향락을 일삼는 경우가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駭俗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거문고를 불태우고 학을 구웠다는 내용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향악을 ‘태고의 소리라 일컬어지고 숭상되어 왔던 「韶」와 「鈞」과 같은 아악보다 낫다’고 하며, 소아들에게 당부하여 비록 천대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음악인 향악을 열심히 배워 양성하라’는 예문도 발견되고 있다.

‘지음’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예문들에서는, ‘고산유수’에 대한 곡조인 「아양곡」 같은 명곡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며, 같이 들어줄 벗인 ‘지음’이 없어 홀로 외롭게 듣는다고 표현한 점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들 예문에서는 『列子』 「湯問」에 나타난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를 인용하여 표현한 점이 확인되고 있다.

‘지음’이란 어휘가 최초로 나타난 걸로 보이는, 최치원의 「秋夜雨中」에서는, 자연과 작가, 그리고 작가의 변함없는 마음만이 그려진 군더더기가 없는 시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최치원의 가야금에 대한 지음이 있겠냐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최치원이 탔던 가야금을 알아듣는 지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신묘함’을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아악기인 ‘금’과 우리의 향악기인 ‘거문고’가 심상성을 주고 받은 중간 지점에는, 반드시 향악기인 ‘가야금’이 가교 역할을 한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에서 가야금을 전수했던 사실과 심상 및 당시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에 거문고가 널리 유포되기 이전에는, 같은 심상성을 가진 가야금이 거문고 대신 폭넓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백아와 종자기의 ‘속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진실로 ‘지기 지우’가 되는 조건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속현 지이’와 ‘희성 지음’이 비유의 대상으로 나타난 예문에서는, 금으로 연주되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소리의 상징적 표현을 차용하여, 작중인물이 지닌 높은 학문의 경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줄을 소재로 하여 ‘헤어짐’과 ‘다시 만남’, 그리고 ‘만나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 등이 발견되고 있다.

知人이 죽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일을 거문고 줄의 끊어짐에 비유한 예문에서는, 끊어진 줄은 난교로도 붙일 수 없다고 표현한 점이 나타나 있으며, 知己의 죽음을 거문고 소리의 끊어짐에 비유한 이색의 한 시에서는,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와는 반대로 들을 곡이 없어져서 들을 사람이 없다고 표현한 점이 나타나 있다.

거문고의 기러기발에 먼지가 쌓여있었다고 표현한 예문에서는, 글의 작중인물을 찾는 지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기와 회고의 정이 담긴 거문고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거문고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가 함께 할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음을 기다리는 갑 속의 거문고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아무나 만나서 속내를 털지 말라면서 갑 속의 거문고를 홀로 탄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지음을 만나지 못한 것이며, 또한 지음을 만나기 전 까지는 거문고를 꺼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변자의 항목에서는, 거문고를 다루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것의 조치에 대한 내용 등이 표현되고 있다. 문장 전체 내용에 적합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비유의 매개체로 하여 표현한 문장 등이 관찰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 등 공적인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나 있다. 또, ‘거문고’라는 악기 자체만으로 글 전체의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로 작가 자

신의 정체성이 담긴 사적인 환경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 항목에서는 문장 전체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정서 중에서, 자신을 대변하고자하는 요점을 파악하여 간략한 사항만을 논의에 반영하였다.

팽팽하게 당긴 거문고 줄이 제대로 조율이 안 되었다고 표현한 예문에서는, 자신의 깨끗한 절조만을 고집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살림살이가 ‘거문고와 책뿐’이라고 표현한 예문에서는, 가난함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이 죽은 것을 거문고 줄이 끊어진 것에 비유한 예문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는 ‘지음’의 항목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위의 상징으로 ‘거문고와 술’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객지의 벼를 사림에 있어서 술과 거문고로 즐기는 방법을 택하라는 내용도 발견되고 있다. 거문고 소리가 나지 않음을 그 지방의 행정이 번거로워 백성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있음으로 비유하여 대변하고 있는 점도 관찰되고 있다. 또한, 거문고를 탐으로써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대변하기도 하고, 친구가 찾아주지 않음을, 거문고를 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에 비유하기도 한 예문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 고결한 품성과 성정을 거문고에 의탁한다는 예문에서는, 청렴한 관료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문고와 비파를 즐기지 않고 오직 예절과 마음으로 대접한 경우가 나타난 예문에서는, 오직 예절과 마음으로만 대접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는, 못 선비들이 거문고를 자신의 지음과 같이 듣는 것을 생활화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또 ‘요금’이 갑에서 나와 티끌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내용이 나타난 예문에서는, 스스로의 고아한 인품을 시상에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거문고 줄의 질감을 굳은 절개로 비유한 예문에서는, 거문고의 굳은 줄을 굳은 절개를 지닌 성품에 비유하고 있다.

한편, 이 세상에 지음이 적다고 하지만, ‘明月淸風’ 즉 주위의 풍광이 바로 종자기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예문에서는, 무현금의 감상은 거문고가 없어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칠언절구에서는 사람이 타는 거문

고를 자연 풍광이 알아듣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청렴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송나라 조변이 필마로 축 땅으로 들어갈 때 거문고 한 벌과 학 한 마리만 데리고 갔던 고사를 인용한 예문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거문고와 학을 가까이 두는 것을 청고 염결한 기상으로, ‘금학’을 들어 청렴하게 벼슬살이를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거문고 한 곡조만 탈 수 있다면 내 소원은 다 이루는 것이라고 했던晉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의 고사를 인용하여 청렴함을 내세우는 예문, 그리고 거문고의 기러기발에 먼지가 쌓여있음을 가난과 청렴의 비유로 삼은 문장도 발견되고 있다. ‘살림살이가 거문고 뿐’이라는 경우와 거문고와 책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에 사는 것을 ‘소박한 삶’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벼슬을 그만두는 날, 거문고로 덩굴 길을 서로 찾아보자는, 도잠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청빈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 오직 거문고와 술로 한가한 늙은이로 지내도 무방하다는 표현으로 말년의 청빈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도연명의 ‘葛巾漉酒 고사’를 인용하여 거문고와 책으로 노후에 담박한 삶을 살겠다는 내용으로 말년의 청빈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식의 시에 지붕이 셀 때 우산을 받쳐 들고 있다가, 워낙 가난하여 땀감이 없어 금이라도 때 고자했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말년의 청렴함과 가난함을 상징하고 있는 예문도 발견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칸방에 거문고와 책이면 흡족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소박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도가적 이상 수용에서는, ‘가난했으나 우주를 좁게 생각하는 등 호방한 기개를 보였으며,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하면서, 도연명의 행적처럼 살아갔던 행적이 나타나 있는 예문이 발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은자를 자처하며 태초의 기운과 함께 공허의 세계에서 노닐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경이라 할 만큼 맑고 밝은 시상 속에,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의지대로, 넘나들만한 우주의 공간을 그려 놓은 작품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복건에 학창의를 입고 『황정경』을 두고, 거문고라도 타면 선선으로 착각하게끔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산 속의 정자와 소나무 몇 그루 있는 곳에서, 평상의 거문고가 뜰의 학을 마주하던 옛 정자의 풍경이 마련된 보금자리를 신선 거처로 표현한 경우도 있으며, 탈속한 분위기의 배경을 선경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은거하며 홀로 거문고를 탈 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관심이 없다고도 하고, 높고 고상한 사람은 거문고를 안고 나오고, 술 대신 산속의 차를 마신다는 내용도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경과 같은 분위기에서 술 거문고가 자연의 음향을 연주한다는 내용도 발견되고 있으며, 학을 길들이고 거문고로는 맑은 물을 연주하고, 문장을 다듬어서 옥을 찾는다는 내용의 예문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산수가 좋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한가한 날이면 소를 타고 가서 쓸쓸히 홀로 앉아 가끔 거문고 두어 곡을 타며 자적할 뿐이었고, 선을 즐기며 학문을 좋아하였고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으며, 살림살이에는 있고 없는 것을 묻지 않으며 간혹 끼니를 굶는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도 관찰되고 있다.

세속적 수용에서는, 예약과 공적인 측면에 관한 것과 이념적·철학적인 논의를 제외한, 일상에서의 사적인 생활에 대하여, 풍류적, 자위적, 여가적·정서적, 비유적 수용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절의 논의에서는 문장 전체의 내용을 깊게 탐색하는 것보다는 유취한 항목을 발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가운데, 모든 항목의 경우에 공통된 점은 시간적으로 한가한 가운데, 서로 다른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의 거문고 곡조를 연주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물과 형태적 비교에서는, 떨어지는 ‘폭포수를 흰 거문고’로, ‘雙鷄를 거문고의 혀’로, ‘작은 달을 거문고의 술대’로, ‘배 안의 칸살을 거문고 줄’에, ‘일본의 지형을 비껴놓은 거문고’로, ‘절로 가는 길을 가는 거문고의 줄’에, ‘바람이 대숲에 부는 모습을 거문고 줄을 타는 것’ 등에 비유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선비 외 거문고 연주가 및 애호가로는 ‘여염집 부인’, ‘기생’, ‘승려’, ‘계집종’ 등이 고전문헌에서 발견되고 있다.

【참고문헌】

1. 번역본

- 권오돈 역해a, 『新譯 禮記』 (홍신문화사, 2009)
_____ b, 『樂記』 (홍신문화사, 2009)
- 김부식 찬, 최호 역해, 『三國史記』 II (홍신문화사, 2007)
- 김창룡 편역, 『중국 假傳 30選』 (경기 과주: 태학사, 2006)
- 김학주 역저, 『詩經』 (명문당, 2007)
- 성백호 역주, 『詩經』 (전통문화연구회, 2009)
- 양리인우(楊蔭瀏) 지음 · 이창숙 옮김 『중국고대음악사』 (솔출판사, 1999)
- 이석호 역, 『莊子』 (서울: 삼성출판사, 1986)
- 이혜구 역주a, 한국음악학 학술총서 5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 일연 저, 최호 역해, 『三國遺事』 (홍신문화사, 2008)
- 장기근 역, 『老子』 (서울: 삼성출판사, 1986)
- 조남권 · 김종수 공역, 『동양의 음악사상 樂記』 (민속원, 2005)
- 주희 · 한상갑 역a, 『論語 · 中庸』 (서울: 삼성출판사, 1986)
_____ b, 『孟子 · 大學』 (서울: 삼성출판사, 1986)
- 지세화 편저, 『이야기 중국문학사 上』 (일빛, 2002년 4월)

2. 단행본

-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신라왕조실록』, (웅진지식하우스, 2001)
- 송방송a, 『한국음악사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10.01)
_____ b,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_____ c, 「신라 삼현의 음악사학적 검토」, 『한국고대음악사연구』 (일지사,

1985)

_____d, 「고려 향악의 삼현 문제 -선비들의 풍류를 중심으로-」, 『고려음악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8)

윤명철, 『단군신화, 또 다른 해석』 (백산자료원, 2008)

이기백, 『한국사신론 개정판』 (서울 일조각, 1984)

이성무, 『조선시대 사상사 연구』 ((주)지식산업사, 2009)

이수웅·김경일, 『중국문화의 이해』 (대한교과서(주) 도서개발부, 1995)

이종건, 『한시가 있어 이야기가 있고』 (새문社, 2003)

이혜구b, 「韓國音樂의 特性 『韓國音樂論叢』 (秀文堂, 1976)

_____c, 「중국예악사상이 한국음악에 끼친 影響」 『한국음악논총』 (수문당, 1976)

이희승 감수,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3)

장사훈, 『國樂總論』 (正音社, 197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민속의 세계 6 민속예술·공예』 (2007)

한국음악학회, 『韓國音樂研究』 제11집, (1981)

한명희a, 『한국 음악과 사상』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한영우, 『한국선비지성사』 (지식산업사, 2010)

한홍섭, 예술철학총서4 『한국 고대 음악사상』 (예문서원, 2007)

3. 학술논문

김성혜, 「한국 고대음악의 연구의 검토」 I, 『한국음악사학보』 11. (한국음악사학회, 2003)

김용환, 「윤이상 그의 삶과 음악」 『음악과 민족』 제11호, (부산민족음악학회, 1996)

김우진, 「옥보고의 행적과 업적 검토」, 선도(仙道), 『한국음악연구』 31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2002)

- 김정록, 「중국시가음악론 재고」 『미학』 제4집, (한국미학회, 1977)
- 부산민족음악연구소, 『음악과 민족』 제7호, “『禮記』 「樂記」의 樂施篇”,
(부산민족음악학회, 1994)
- 송혜진, 「조선시대 문인들의 거문고 수용양상 -시문과 산수화를 중심으로-」, 『이혜구박사구순기념음악학논집』 (이혜구학술상운영위원회, 1998)
- 이상은, 「유가의 예악사상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11집, (동양철학연구회, 1990)
- 전통예술원 엮음, 「한국고대음악의 전개 양상」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0.)
- 정장선(정하운으로 개명), 「彈琴臺 地域에 대한 伽倻琴의 演奏時 共鳴에 대한 感度調査」 『彈琴臺 地表調査 報告書』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忠州市, 1991)
- 정하운, 「고전문헌에 나타난 거문고의 명칭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40집 (우리어문학회, 2011)
- 정화순, 「이덕윤의 생애와 업적」, 『청예논총』 (청주: 청주대학교출판부, 1997).
- 최종민b, 「거문고와 관련한 음악사상의 문제」, 제1회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현악기』 (서울: 국립국악원・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1996)
- 한명희b, 「한국 음악과 사상」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 한명희c, 「거문고 음악의 정신성에 대한 재음미」 제1회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현악기』 (서울: 국립국악원・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1996)

4. 학위논문

- 김도환, 「한국 거문고 음악사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학전공 예

- 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08, 2.
- 김성혜, 「三國時代 新羅音樂文化史 研究」東亞大學校 大學院 音樂文化學科 哲學博士學位論文, 2005.
- 김찬순, 「水墨山水畫에 나타난 老莊思想에 관한 연구」, 강원대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
- 문명주, 「왕산악우륵박연의 전통음악사상에 대한 고찰」,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성숙, 「한국美의 독특성 研究」,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동양사상문화학과 한국문화예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 이하전, 「花郎道の 研究」-成立과 思想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사학과 불교사전공, 1994.
- 조유미, 「조선시대 琴道에 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08.
- 진내량, 「中國傳統音樂의 儒家美學的 探究」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儒學科 東洋美學專攻, 석사학위논문, 2007, 4.
- 최종민a, 「韓國傳統音樂의 美學思想의 研究」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01.
- 최지환, 「전통음악의 미적요소에 관한 研究」-전통미술의 한국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9.
- 한명희a, 「韓國 音樂美의 研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예술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994, 10.
- 허승, 「조선시대 거문고 수양정신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5. 거문고가 수록된 참고 문집(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저장본)

권근, 『陽村集』

권상하, 『寒水齋集』
권필, 『石洲集』
기대승, 『高峯集』
김상헌, 『淸陰集』
김성일, 『鶴峰全集』
김육, 『潛谷遺稿』
김장생, 『沙溪全書』
김정희, 『阮堂集』
김종직, 『佔畢齋集』
김집, 『愼獨齋全書』
김창협, 『農巖集』
남구만, 『藥泉集』
남효온a, 『秋江集』
미상, 『薊山紀程』
박세당, 『西溪集』
박은, 『挹翠軒遺稿』
박지원, 『燕巖集』
변계량, 『春亭集』
서거정 등, 『東文選』
서거정, 『四佳集』
성현, 『慵齋叢話』
성혼, 『牛溪集』
송시열, 『宋子大全』
신용개, 『續東文選』
신흠, 『象村集』
안정복, 『順菴集』
왕성순, 『麗韓十家文鈔』
윤두수, 『梧陰遺稿』
윤전, 『白湖全書』

윤증, 『明齋遺稿』
이곡, 『稼亭集』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이남규, 『修堂集』
이덕무, 『靑莊館全書』
이산해, 『鵝溪遺稿』
이색, 『牧隱集』
이식, 『澤堂集』
이이^a, 『栗谷全書』
이익, 『星湖僊說』
이제현, 『益齋集』
이항복, 『白沙集』
이행, 『容齋集』
이황, 『退溪集』
장유, 『谿谷先生集』
장현광, 『旅軒集』
정극인, 『不憂軒集』
정도전, 『三峰集』
정약용, 『茶山詩文集』
정조, 『弘齋全書』
조호익, 『芝山集』
최립, 『簡易集』
최익현, 『勉庵集』
하장수, 『桐溪集』
허균, 『惺所覆瓿藁』
허목, 『眉叟記言』
홍대용, 『湛軒書』

6. 거문고가 수록된 참고 도서(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저장본)

강홍중 외, 『東槎錄』
권응인, 『松溪漫錄』
김경선, 『燕輶直指』
김세렴, 『槎上錄』
김시양, 『涪溪記聞』
김정중, 『燕行錄』 「奇遊錄」
김종서 외, 『高麗史節要』
김창업, 『燕行日記』
남용익a, 『聞見別錄』
남용익b, 『扶桑錄』
남효온b, 『師友名行錄』
노인, 『錦溪日記』
미상, 『光海朝日記』
미상, 『赴燕日記』
박대양, 『東史漫錄』
박동량, 『寄齋雜記』
박사호, 『心田稿』
박세당, 『思辨錄』
박영호, 『使和記略』
박지원, 『熱河日記』
서경순, 『夢經堂日史』
서호수, 『燕行紀』
성대중, 『靑城雜記』
신숙주, 『國朝寶鑑』
안로, 『己卯錄補遺』
안정복, 『東史綱目』
오윤겸, 『東槎上日錄』

윤근수, 『月汀漫筆』
이갑 『燕行記事』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이궁익, 『練藜室記述』
이기, 『松窩雜說』
이유원, 『林下筆記』
이이b, 『石潭日記』
이정형, 『東閣雜記』
이행 외, 『新增東國輿地勝覽』
조경남a, 『亂中雜錄』
조경남b, 『續雜錄』
조명채, 『奉使日本時間見錄』
차천로, 『五山說林草藁』
최덕중, 『燕行錄』 「日記」
최한기, 『氣測體義』
황혁, 『己丑錄』

HANSUNG
UNIVERSITY

ABSTRACT

Bibliographical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Geomungo - Focusing on Hidden Exploration and Acceptance -

Jung, ha un

Major in Classical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When researching the results about most of studies for symbol of Geomungo, generosity of Seonbi in Chosun Dynasty, and musical discourse of Seonbi which have been conducted, it is indicated that they have already objectified by establishing common emotion focusing on N대-Confucianism and philosophical system of thought of traditional music.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visions of consideration in a variety of aspects, that is the dimension of cultural study.

To the name of Geomungo, it is verified that in the records of [Samguksagi] & [Akhakguebeom], it is given its spiritual value as a tool to grow human mind which intends to success the will of Heaven with the linkage with 'Bangicheonjin' which means 'true meaning of born nature' or 'returning to the initial', the ideal thought in Geum

Dynasty, China.

It is found that other name of Old Geum or names of Geum related to special musician replaces Geomungo in many Korean classical documents imported together with thought of Old Geum, a story related to this thought, and special contexts of sentences involving such contents, and other name of Old Geum or names of Geum related to special musician plays a role to lead entire atmosphere of sentence.

In case of borrowing parts, performing terms, master, masterpiece of Geum Dynasty, it can be shown that authors have used vocabularies or phrases involving musical/cultural thoughts, ruling culture including edification of people, and other aesthetic sense from Geum Dynasty by borrowing.

When researching the contents to transmission of Geomungo music, it seems that artistic orientation connecting three generations of Bo-Go Ok (initiator), Myeong-Deuk Sok, Geum Gui might be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 of retirement, seclusion, hermit. Such artistic orientation seems to obtain the conclusion of thought in Geomungo music depending on its growing direction. However, above all things, the ultimate purpose of musician might be musical/non-musical self-perfection.

It seems that the generosity of Silla Dynasty has demonstrated individual use as a self-perfection, social use as an appreciation for the arts, and national use value as Hyeonmyojido.

In performance, it is considered that a variety of performing conditions by differing time and space were selected. It seems that various emotions which current musicians who play only decided music at certain space like stage cannot feel were performed. Also, it seems that the old musicians could perform instant music play according to the variety of conditions.

In appreciation part, it is found that it only took clear tone color and elegance of Geomungo. This seems that since music and spirit of Geomungo were essential refinement at that time, Seonbi who didn't play Geomungo well pretended to enjoy Geomungo music like this.

In example comparing with other music and sound of objects, there are the case comparing to water sound, the case comparing to wind sound, and the case comparing simultaneously to water & wind sounds.

In case of appearing Muhyeonggeum, in case of Dojam's living path and his praising, it is verified that Dojam who did not know how to play Geomungo only emphasized spiritual stage. In the meanwhile, there is also negative opinions to Muhyeonggeum.

To the use of Geomungo, we have researched Confucian ideas, Taoistic ideas, and wordly acceptance.

In Confucian acceptance, they intended to give people comfort by selecting the music of the King, Sun as a ruling method. In case of edification of people, it is often found that the image indicated in old story to Bokjacheon who was a follower of Confucius was transferred to poetic concept. Also, by the examples of 'Haengdangeumsul' which showed peaceful scene of Confucius and his followers, husband & wife, and family, it recommended to strive for keeping the family rules by modelling 'the happiness of Geumsul'. It is also found that Korean music is better than Chinese music and Korean music should be learnt and kept. In most cases that an acquaintance is symbolized, it is often found to express that there is no acquaintance who knows my mind and listens to the music together and thus listen to the music alone. In the item of spokesman, the sentences expressing the cases which emergencies which could be often occurred during playing Geomungo and the measures to them involve the symbolization suited to whole

sentences were expressed via comparing method. In case of indicating upright, examples quoting the old story that when Jobyeon, Song Dynasty entered into the land of Chu Dynasty, he only took one Geomungo and one crane are often found.

In Taoistic acceptance, the expression to live the paths of hermits like Yanming Tao and Kang Xi and the contents to orient the life of God are often found.

In wordly acceptance, we researched by dividing into the items of appreciating, affective, leisure, emotional, and comparing acceptance to private life and excluding official aspect like manners & music and ideological, philosophical discussion.

Key Words: name of Geomungo, another name of Geum, parts of Geum, performing words of Geum, performing condition, generosity, ruling method, edification of people, custom, acquaintance, unity with nature, spokesman, honest poverty, daily life